

2019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2019. 8. 30.(금)

- 31.(토)

연세대학교 연희관

신남방정책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New Southern Policy and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이 발표논문집은 2019년도 정부 자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OE (Ministry of Education).

주관 | 한국동남아학회

주최 |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사업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사)한국동남아연구소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아세안센터

학술대회 프로그램 (분과회의 요약)

	대회 주제	신남방정책과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30일 13:20-14:50	전체회의 1	신남방정책의 현실과 한계, 전망과 지향
30일 15:00-16:30	전체회의 2	신남방정책의 외교적, 정책적 함의
30일 16:50-18:20	분과회의 1	베트남,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넘어서
	분과회의 2	동남아 국가의 지역사회 변동: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례
	분과회의 3	동남아 정치적 동학의 과거와 현재
31일 10:00-11:30	분과회의 4	초국가적 흐름과 현실 세계의 재구성
	분과회의 5	카렌족 난민의 초국주의 생활세계와 서사
	분과회의 6	대학원 분과: 이미지에 투영된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31일 13:00-14:30	분과회의 7	동남아 이슬람금융의 현실과 이상
	분과회의 8	동남아의 한인사회
	분과회의 9	동남아의 민간전승과 외부와의 교섭
31일 14:50-16:20	분과회의 10	동남아학 교육의 새로운 실험: 대학을 넘어 연대를 향하여
	분과회의 11	동남아의 사회문화적 특성: 대중적 글쓰기를 위한 모델
	분과회의 12	동남아 정치경제의 동학: 지역화와 세계화

일정별 세부 계획

일 시		발표 및 내용	사회 및 토론
2019년 8월 30일 (금)			
등록	12:30 ~13:00	등록	
개회식	13:00 ~13:20	개회식 및 환영사	장소: 연희관 218 사회: 김형준 (강원대)
		개회사: 홍석준(한국동남아학회장) 환영사: 김재엽(연세대 사회과학대 학장)	
제1부	13:20 ~14:50	전체회의 1: 신남방정책의 현실과 한계, 전망과 지향	장소: 연희관 218 사회: 박사명 (한국동남아연구소)
		발표주제: 신남방정책, 경제부분 문제점은 무엇인가? 발 표 자: 이충렬(고려대) · 이선호(한남대)	토론: 박번순(고려대) 윤진표(성신여대) 김형종(연세대)
		발표주제: 신남방정책 2년, 평화협력 분야의 평가와 제안 발 표 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발표주제: 아세안과 한국,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제안 발 표 자: 최경희(서울대)	
제2부	15:00 ~16:30	전체회의 2: 신남방정책의 외교적, 정책적 함의	장소: 연희관 218 사회: 신윤환 (서강대)
		발표주제: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관계: 외교정책적 함의 발 표 자: 김영선(서울대, 前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	토론: 박은홍(성공회대) 박장식(부산외대) 이준원(생산성본부)
		발표주제: 아세안의 특성과 신남방정책의 지향점 발 표 자: 김영채(외교부 아프간 파키스탄 특별대표, 前 아세안대사)	
		발표주제: 역외투자의 쟁점과 신남방정책에서의 함의 발 표 자: 김익현(법무법인 지식대표)	

제3부	16:50 ~18:20	분과회의 1: 베트남,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넘어서 장소: 연희관 218 사회: 윤대영(서강대)	
		발표주제: Vietnam War from a Vanquished Soldier's Perspective: Thám Ba Gãy Súng (<i>In March, Broken Rifles</i>) 발 표 자: Emmanuel Poisson (Université de Paris)	
		발표주제: '보트피플'의 귀환과 '묘지 건설'의 문화정치: 베트남 트어티엔-후에성의 한 어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발 표 자: 심주형(인천대)	토론: 이한우(서강대) 백용훈(서강대)
		발표주제: The Contemporary Vietnamese Novel and Its Formal Quests 발 표 자: Đoàn Cẩm Thi (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Paris)	
		분과회의 2: 동남아 국가의 지역사회 변동: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례 장소: 연희관 025 사회: 장승권(성공회대)	
		발표주제: 인도네시아 지방분권화와 지역정치: 반튼(Banten) 사례 발 표 자: 이지혁(서울대)	
		발표주제: 베트남 북부지역의 한국기업과 로컬의 상호작용: 베트남 박닌(Bac Ninh) 사례 발 표 자: 육수현(서울대)	토론: 엄은희(서울대) 김용균(이화여대) 이요한(한국외대)
분과회의 3: 동남아 정치적 동학의 과거와 현재 장소: 연희관 201 사회: 김홍구(부산외대)			
발표주제: 2019 태국 선거와 정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를 중심으로 발 표 자: 노경현 · 유승준(서강대)			
발표주제: 2019년도 인도네시아 대선/총선과 종교 발 표 자: 신윤희 · 윤해영 · 한예지(서강대)	토론: 고우정(성신여대) 서지원(창원대)		
발표주제: 크메르코크: 19세기 캄보디아의 불교 윤리와 사회문화 발 표 자: 정연식(창원대)			
18:30 ~19:00	동남아학회 총회		

2019년 8월 31일(토)			
제4부	10:00 ~11:30	분과회의 4: 초국가적 흐름과 현실 세계의 재구성 장소: 연희관 218 사회: 송승원(한국외대)	
		발표주제: Visions of Old Age among Housewives Near Surabaya, Indonesia 발 표 자: Nurchayati (State University of Surabaya, Indonesia) 발표주제: The Flâneur as Producer of Popular Culture: The Case of Teguh Esha in New Order Jakarta 발 표 자: Sony Karsono(세종대) 발표주제: 로힝야 사태를 읽는 한국 사회의 키워드: 부역자, 반무슬림, 연대 발 표 자: 김현경(전북대)	토론: 이경묵(동국대) 임시연(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민지(서울대)
		분과회의 5: 카렌족 난민의 초국주의 생활세계와 서사 장소: 연희관 025 사회: 이상국 (연세대)	
		발표주제: ‘여행-거주자’로서의 난민과 여행자네트워크: 인천 재정착 카렌족과 교회공간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이효영 · 정혜윤(연세대) 발표주제: ‘노르웨이의 숲’: 북유럽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의 생활세계와 초국적 네트워크 발 표 자: 이상국(연세대) 발표주제: Not Misery but Mystery: 소 사이먼(Saw Simon) 박사의 난민 신학 발 표 자: Saw Eh Poe(소에포) (연세대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토론: 김파오(한국카렌회) 이상국(연세대)
		분과회의 6 (대학원 분과): 이미지(Image)에 투영된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장소: 연희관 201 사회: 강희정 (서강대)	
		발표주제: 미얀마 끈바웅 왕조기 뼈러바익(Parabaik)의 수미 산도 재현과 특징 발 표 자: 김미소(서강대)	토론: 노남희(서울대) 김지혜(서울대)

		<p>발표주제: 선전포스터를 통해 본 통일 베트남의 “Ba ã àm ã ang(세 가지 담당)” 여성운동: 1976년부터 1986년 도이 머이(Đổi mới) 이전을 중심으로 발 표 자: 심규혜(서강대)</p> <p>발표주제: 짜끄리(Chkkri)왕조 라마 3세 시기(1824~1851) 방콕의 중국풍 벽화에 관한 연구 발 표 자: 송제(서강대)</p>	
제5부	13:00 ~14:30	<p>분과회의 7: 동남아 이슬람금융의 현실과 이상</p>	<p>장소: 연희관 218 사회: 오명석 (서울대)</p>
		<p>발표주제: 전통적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 간 관계 분석: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발 표 자: 이충렬(고려대) · 이선호(한남대)</p> <p>발표주제: 이슬람 소비자 금융의 이상과 현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례 발 표 자: 이지혁(서울대)</p> <p>발표주제: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의 정치적 맥락: 국가 · 이슬람학자 · 자본의 연합 발 표 자: 최경희(서울대)</p>	<p>토론: 나희량(부경대) 정기현(NH농협 금융연구소) 김병호(한국외대)</p>
		<p>분과회의 8: 동남아의 한인사회</p>	<p>장소: 연희관 025 사회: 홍석준(목포대)</p>
		<p>발표주제: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역동: 4 · 16 자카르타 촛불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발 표 자: 박준영 · 엄은희(서울대)</p> <p>발표주제: 필리핀 한인동포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발 표 자: 김동엽(부산외대)</p> <p>발표주제: 네트워크 시대의 ‘상상된 공동체’: 미얀마 한인의 소셜미디어 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발 표 자: 김희숙(부산외대)</p>	<p>토론: 박광우(부산외대) 여운경(서울대) 서보경(연세대)</p>

		분과회의 9: 동남아의 민간전승과 외부와의 교섭	장소: 연희관 201 사회: 최정욱(건국대)
		발표주제: 근대 필리핀 동화에 그려진 '용감한 소년' 캐릭터의 문화적 이해: 세브리노 레예스의 동화 《바상할머니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 표 자: 권혁래(용인대)	토론: 정법모(부경대) 김형종(연세대)
		발표주제: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시아 진출: 육상과 해상 동남아 일대일로 네트워크전략 발 표 자: 정혜영(건국대 중국연구원)	
제6부	14:50 ~16:20	분과회의 10 : 동남아학 교육의 새로운 실험: 대학을 넘어 연대를 향하여	장소: 연희관 218 사회: 배양수(부산외대)
		발표주제: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자: 여운경(서울대)	토론: 배기현(서강대) 송승원(한국외대)
		발표주제: 부경대 국제개발학전공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자: 최호림 · 정법모(부경대)	
		발표주제: 전북대 동아시아 · 다문화연계전공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자: 전제성(전북대)	
		발표주제: 동남아언어어류캠프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자: 전제성(전북대)	
		분과회의 11: 동남아의 사회문화적 특성: 대중적 글쓰기를 위한 모델	장소: 연희관 025 사회: 박시명 (한국동남아연구소)
		발표주제: 동남아의 사회문화: 정치, 종교, 종족문제를 중심으로 발 표 자: 홍석준(목포대)	토론: 오명석(서울대) 이경묵(동국대)
	발표주제: 변경과 동남아 발 표 자: 이상국(연세대)		
	발표주제: 동남아의 의료 발 표 자: 서보경(연세대)		
	발표주제: 동남아 개발협력 발 표 자: 정법모(부경대)		
	발표주제: 동남아의 사회문화: 종교 발 표 자: 김형준(강원대)		

		<p>분과회의 12: 동남아 정치경제의 동학: 지역화와 세계화</p>	<p>장소: 연희관 201 사회: 정연식 (창원대)</p>
		<p>발표주제: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 무역현안을 중심으로 발표자 : 나희량(부경대)</p> <p>발표주제: 베트남 생명보험 시장의 등장과 발전 발표자 : 백용훈(서강대)</p> <p>발표주제: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id for Trade in Southeast Asia 발표자 : 신경림(고려대 국제대학원)</p>	<p>토론: 정기현 (NH농협 금융연구소) 이선호(한남대) 이준표(서울대)</p>
	16:30	동남아학회 폐회식	

전체회의 1

신남방정책의 현실과 한계, 전망과 지향

신남방정책, 경제부분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충렬(고려대) · 이선호(한남대)

1. 한국과 아세안간 경제관계

1.1 양적인 특징

- 2019년 현재 한국과 아세안간의 경제관계는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각종 통계를 볼 때 최근보다 더 좋을 수 없음.
- 무역은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투자 및 금융 역시 역시 확대되었으며 인적교류도 늘어나고 있음
 - 한국은 아세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7년과 2018년 각각 414.2억 달러와 404.8억 달러의 사상 최대수준 흑자를 기록하였음.
 - 지역별로 볼 때 한국의 직접투자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7%에서 2018년 12.3%로 크게 변화하지 않음.
 - 한국의 아세안행 여행객은 2010년 332만명에서 2018년 898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아세안의 한국행 여행객은 104만명에서 264만명으로 증가하였음. 각각 연평균 증가율은 13.4% 및 13.3%를 기록하였음.

1.2 질적인 특징

- 아세안과의 경제관계는 주로 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움직인 결과임
 -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국내기업의 높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한 것임
- 국내 기업들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만들어 운영한 결과임
 - 현재 무역의 상당부분이 최종재보다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세기 한국 무역은 대부분 최종재 중심의 무역에 집중하였음: 미국과 일본의 주요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조립하여 최종재를 선진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음: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의 국가였음.
 - 21세기 들어 우리 기업은 고품질의 중간재를 수출하고 이에 기반한 완성품을 개도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를 완성하였음: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였음
- 개별 국가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아세안 10개국을 아우르는 기업들의 전략보다는 개별 기업이 개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사 결정의 결과임
- 정부의 역할도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인 효과임.
 - 중국이나 일본은 대형 단지를 조성하고 각국 기업을 입주시켜 해당국에 진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 그러나 한국의 기업은 개별 기업이 각국의 조건을 보고 적합한 조건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였음.
 -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1)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신뢰성이 개선되거나 2) ODA사업 등으로 현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였음.
- 한국기업의 중국에서 동남아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이미 2010년부터 발생하였음.
 - 중국의 1인당 GDP가 계속 증가하였고 최근들어서는 1만달러를 넘어서 기존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산업은 아세안으로 이전한 것임.
 - 현지 가공무역 기업들이 보다 일찍, 중국내 시장에 집중한 산업은 보다 늦게 중국을 떠나는 것임

2. 주요 이슈들

2.1 신남방정책에서 무역과 투자간의 대체성은?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과연 장려할 일인가?
 - 현재나 그러하듯이 국제무역은 각국이 경쟁있는 상품, 비교우위가있는 상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구조임.
 -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선진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추세이고 한국이 이에 편승하는 현황임: 인건비 및 기타 생산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임
 - 이는 기업에는 이득이 되나 해당 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 실업이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 이 실업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는가? 는 노동의 유연성에 기초함.
-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게됨.
 -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전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임.
 - 문제는 노동자들이 미래에 더 좋은 직업을 갖을 것이라는 희망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와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가임.
 -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계속하여 산업구조가 변화하였고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에 적응하였음.

-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지만 실제로 이를 정부가 홍보하지 못하는 실정.
 - 단기적인 직업이전 효과 때문이고, 이에 대한 정치가들의 우려때문임.
 - 그러나 현재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직업은 1인당 소득 5,000달러미만 국가에서 그것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전임.
 -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향후 글로벌밸류체인에서 주변국과의 상호 협력은 거의 불가능할 것임
- 문제는 해외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국내산업에대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임
 -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임
 -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등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나고 있고 이에 대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함.

2.2 미중 무역 마찰이 한-아세안관계에 미칠 영향은?

- 무역마찰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 공정경쟁인가에 대한 이슈임
 - 미국: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이익극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결정이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가격을 형성함, 또한 서비스 및 무형의 자산에 대한 시장이 발달하여 이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음. => 중국의 시장 가격이 왜곡된 것이므로 이에 관세를 붙임.
 - 중국: 일정 산업에서 정부의 참여와 통제는 불가피함. 서비스 및 무형의 자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실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 할 수 없이 자신도 경쟁하는 관계에 놓임.
 - 실제로 이는 1980년대 후반, 미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던 사례의 연장선임.
- 결국 이는 미국이 중국의 현 체제를 인정하거나, 중국이 현 체제를 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음.
 - 과거 독일과 일본, 한국은 환율을 조정하며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을 따라야 하였음.
 - 특히 한국은 미국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화를 추진하였음: 예를 들어 소비재수입을 허용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함. 미국의 소고기가 한국에 수입됨.
 - 현재 중국은 버티고 있는 실정이나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문제임: 결국 세계는 시장경제체제로 구축되었음.
- 이러한 분쟁은 한국 기업의 중국내 시설을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속화하고 있음.
 - 기업 입장에서는 어짜피 이전할 것을 다소 빨리 이전하는 것에 불과함.
 - 특히 기술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중국의 기술이 매우 향상되었기 때문에 협력 필요성도 줄어들었음.
 - 다만 중국 내수에 연관된 산업을 중국내에 남아있을 유인이 있음. 그러나 중국 현지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쉽지 않을 것임

- 2017년 사드 사태시 롯데가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면서 ‘China Risk’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임.
- 2000-2001년 마늘 사태를 경험한 이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중국을 이해하게 되었음.

2.3 Post Vietnam?

- 현재 한국과 아세안간 무역과 투자의 50%가 베트남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는 베트남과 한국, 중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사성: 유교문화, 높은 교육열, 평등사상, 빨리빨리문화가 한국과 유사함
 -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남부의 자본주의와 북부 통제주의간의 효율적인 결합의 결과로 개발계획과 국민들의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1억의 인구와 젊은 노동력, 해안선을 중심의 국토 등이 이에 기여하고 있음.
- 베트남과의 협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베트남의 인구, 1인당소득이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과의 협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 현재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인당 소득이 5000달러에 이르고 베트남의 기술이 축적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임.
 - 1억의 인구에서 아직까지 농촌의 젊은 인구가 많아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임
- 그렇다면 베트남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동남아의 주변 국가에서 베트남을 대체할 국가를 현재 찾기는 쉽지 않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기 때문임.
 - 경제적인 여건상 미얀마가 가장 가능성이 높으나 정치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중국, 베트남을 거친 후 한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해외진출 기업은 크게 줄어들 것임.
 - 아세안에 대한 협력이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2.4 금융시장 진출 이대로는?

- 국내 많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해외로 진출하는 가운데 아세안에 지점 및 현지법인 진출이 가장 많은 상태임.
 - 한국기업의 진출 증가로 은행의 해외지점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인수 합병을 통하여 한국의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무슨 도움이 될까?
 - 은행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확실하고, 해외진출을 통하여 글로벌은행이 되는 계기가 됨.
 - 그러나 실제 인력의 진출 규모는 매우 소수이고 국내에서도 금융정보화에 따라 인력감축이 진행

되어 실제 고용증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제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에는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는?

○ 과연 우리나라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향후의 비전은 무엇인가?

- 아직까지 이렇게 한 나라의 여러 은행이 여러나라에 진출한 사례가 별로 없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두개 대형은행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음.
- 세상에 어떤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의 은행이 자국시장에서 주도권을 쥐도록 허락할 것인가?
- 때문에 국내은행의 아세안내에서 해외진출이 과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룰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함.

2.5 아세안의 기업이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은?

○ 아세안기업들간에 대형화 과정을 겪음

- 기업간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역내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아세안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아세안은 다양하고 양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현지의 기술도 충분히 있고 관련 비즈니스모델도 현지에서 만들 능력도 있고 현재 하고 있음.

- 다만 이 기술과 능력있는 사람들이 인프라 부족으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미얀마 양곤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버스 안내 앱이 제공되고 있음. 이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플임.
- 그러나 인공위성과 실시간 버스 이동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언제 도착할 수 없는 것임.: 이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임.

○ 때문에 아세안내에서 기술과 자본이 충족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어 성공하고 있음.

- 그랩(Grab)은 2019년 현재 아세안내에서 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 그랩이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한 이후 자국내 시골 지역으로 가기 보다는 아세안내 대도시로 진출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쇼핑몰이 쿠알라룸푸르와 자카르타 등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함.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현재까지 경제부분에서 아세안 진출에 대한 청사진이나 비전이 없음.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성에서 의문이 있음.

- 없는 것이 좋은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

- 글로벌밸류체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합의가 없음. 그리고 이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문화 분야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30년 이상 지속된 태국과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치적 및 사회적 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정부내 부처간 이해 충돌?

- 산업부: 최근 들어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문제라고 걱정함. 아세안에서 수출을 늘려야 한다?
- 외교부: 매년 400억달러 흑자를 내는 국가에서 어떻게 외교를 하라는 말인가?

○ 경제 및 경영학자: 너무도 아세안을 모른다. 제대로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논문을 얼마나 쓰는가?

- 아세안에서 한국기업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 (산업구조차이를 모른다.)
- 기술이전은 중국처럼 그 나라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그냥 가서 많이 사업만 하면 된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 개별 전공 전문가들 ((정치, 경제, 경영, 행정, 사회, 교통, 토목, 건설)과 지역전문가(아세안 및 아세안 개별국)들과의 협력이 부족함.

- 개별 전공 전문가들은 현지를 너무 모름. 반면 지역 전문가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한계가 있음
- 금융전문가가 왜 무역정책을 논해야 하는가? 지역전문가가 과연 역내 개발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을까?

○ 아직까지 학계와 연구소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연구의 질이 낮고 정책의 현실성도 낮음

- 학계는 보다 학술적인 기초 연구, 연구소는 실용 및 정책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음.
- 때문에 학계 교수가 단기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소가 할 수 없이 장기적인 기초연구를 모두 수행하면서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상태임.

○ 결국은 보다 많은 자원을 아세안 연구에 투자하는 수 밖에 없음. 이에 무슨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신남방정책 2년, 평화협력 분야의 평가와 제안*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이 대외적으로 공식 천명된 것은 2017년 말의 일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확정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다. 이렇게 보면 신남방정책이 세상에 드러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신남방정책은 꾸준히 추진되어왔고 그에 따른 성과와 아쉬움도 남겼다. 이런 성과와 한계는 분야, 즉 사람, 번영, 평화 각 분야별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학술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지난 2년간 신남방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주로 평화협력, 즉 정치안보 분야에 초점을 두고 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신남방정책이 - 더 나아가 다음 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까지 -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다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1) 신남방정책의 전반적 평가, 2) 현재와 향후 신남방 정책 추진의 환경, 3) 평화협력의 성과와 방향, 4) 강대국 경쟁 속 신남방정책 등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1. 신남방정책의 전반적 평가

외교적 이니셔티브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특히 대 아세안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에 비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전 정부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정책 자체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처럼 독자적인 대 아세안 정책이 별도의 명칭을 달고 나왔던 적은 없다. 김대중 정부는 아세안+3 등 지역 다자협력에 큰 노력을 들였고 그 당연한 결과로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외교라는 타이틀을 내놓기는 했지만 특별히 동남아에 대한 정책은 아니었고 매우 중상주의적 양자정책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 아세안, 인도 정책에 신남방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외교정책에 명칭이 붙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큰 추진력을 모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이 중간에 약화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었다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지역을 둘러싼 많은 변수들이 있었다. 이런 변수들은 신남방정책에 투입되었던 정책적 관심을 분산시키기에 충분했다. 한반도 상황의 빠른 변화,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외교정책, 한일 관계 약화 등이 모두 신남방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었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변수들이 돌출하는 경우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거의 사라지고는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중첩되는 큰 환경변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 추진의 동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세번째로 신남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에 비해 보다 강력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

* 본 원고는 학술적 분석이 아닌 2019 한국동남아학회 학술대회 전체세션 발제를 위한 에세이임.

갔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정책 지속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의 설치는 정책 추진력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지속의 신남방정책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간 대 동남아 정책의 조율, 정책 개발과 추진을 담당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기관인 외교부의 제도적 변화도 있었다. 과거 남아시아-대양주국에 동남아과와 아세안협력과가 대 아세안 정책을 담당했으나, 2019년 아세안이 하나의 독립된 국으로 개편되어 동남아 1, 2과 그리고 아세안 협력과의 세 부서를 거느리게 되었다. 아세안만을 담당하는 하나의 국(bureau)을 설치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¹⁾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최전방 거점 (outpost)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아세안사무국 대한민국대표부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되었다. 차관급 인사가 대사로 취임하고 인력이 대폭 증원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강조되었던 신남방정책, 아세안의 중요성은 국내적으로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의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해서 대체재로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일정하게 상승한 바도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아세안의 경제적, 전략적,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무엇보다 두번의 북미회담이 모두 동남아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치러지면서 동남아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졌다. 신남방정책을 통한 국내의 대 동남아 인식 개선은 향후 대 동남아 정책 추진의 환경으로 매우 중요하다. 정부나 외교 당국 차원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의 대 동남아 인식이 낮은 경우 정부의 외교정책, 신남방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기 어렵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 방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무엇보다도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이란 이름이 동남아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과거 아세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다 금방 관심이 사라졌던 한국의 행태에 비추어 이번 정부는 정책의 이름까지 붙이면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해 두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있다. 첫번째는 동남아 안에서 다원화 문제다. 한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신베트남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단적으로 한-베트남 무역이 한-아세안 무역의 40%를 넘는다. 이런 한국과 베트남 사이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신남방정책이 베트남에만 집중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²⁾ 물론 다른 아세안 국가와 경제협력이나 다른 부분 협력이 하루 아침에 급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에도 한국이 충분히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두번째 과제는 앞의 문제와 일부 관련이 되는데,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의문이 많다. 3P나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계획의 실행에 관해서는 아직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 아세안의 주변 주요국 중에서 아세안 혹은 동남아시아 국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는 호주 외에는 없다. 현재 일본, 중국, 미국은 별도의 아세안 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2) 사실 한-베트남 경제관계는 우리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상당 부분 경로의존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한-베트남 관계 변화의 결과다. 또한 정책 추진의 주체인 한국 정부가 지금의 한-베트남 경제관계를 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다. 이 경제 관계의 상당 부분은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도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무주공산이던 베트남 시장에 우연히 한국 기업이 일찍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 진출의 터를 만든데 힘입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남방정책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책 추진 초기 고위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베트남을 너무 강조한 부분이 있다. 한-동남아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상황에서 한-동남아 경제 관계, 특히 한-베트남 경제 관계를 보고 여기에 관심을 집중한 탓도 있다.

도 신남방정책이 크게 보여준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평가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남방정책 입장에서라도 반박할 여지는 있다.³⁾ 실제로 아세안+3가 만들어 1997년 이후 한-아세안 관계는 포괄적인 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각 정부 부처마다 다양한 대 아세안 정책을 내 놓았다. 실제로 한-아세안 간 협력 사업들은 담당인 개별 부처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 주제도 다양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어렵다. 어찌면 현존하는 정책들을 모두 파악하고 재구조화 하는 동시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효과성, 가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도 신남방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일 것이다.

2. 신남방정책 추진의 환경

반면 신남방정책 추진의 환경은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신남방정책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불리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향후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내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신남방정책 추진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남북, 북미관계의 큰 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을 볼 때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는 늘 다른 외교 아젠다에 투입될 수 있는 관심과 자원을 모두 소모되는 결과를 자주 낳았다. 한반도 상황의 빠른 진전으로 인해 신남방정책에 투입될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의지와 자원들이 한반도 쪽으로 많이 투입되었고 따라서 다소 신남방정책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렸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향후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든지 상관없이 한반도 문제와 다른 외교 이슈는 제한된 외교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되기 쉽다.

두번째로 한반도 외에서 벌어지는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환경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변수도 한반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외교, 정책 자원을 놓고 신남방정책의 추진과 제로섬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 경쟁은 한국의 국가 이익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미중 전략 경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 아세안 정책 보다는 미중과 같은 강대국 동학에 보다 정책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최근 일본과 무역갈등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로 한국의 동남아 정책이 차지할 수 있는 정책 자원을 일정 부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이런 주변 환경과 신남방정책이 제로섬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의 긍정적 역할, 장래 북한 비핵화 이후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⁴⁾ 미중 경쟁 사이에서 나

3)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3P 3분야에서 각 5-6개 항, 총 16개 협력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들 역시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4) 이재현. 201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8-27 참조.

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의 개별적 노력만 볼 것이 아니라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의 중소 국가가 어떻게 이 문제에 공동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을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한일 무역 갈등에서도 일본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동남아 방면에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찾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를 자유무역의 담론으로 묶어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평화협력

한-아세안 간 기존 정치안보 협력이 신남방정책 하에서는 평화협력이라는 명제로 제시되었다. 민감할 수 있는 정치안보 협력을 평화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정치안보 협력이 민감할 수 있는 아세안의 입장을 감안해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대안 담론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안보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주변의 의심도 가라 앉힐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안보협력이라고 할 때 협력의 당사자들이 공통의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을 때 안보 협력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이런 공통의 위협이 크지 않다. 따라서 안보 협력 보다는 평화협력이라는 명제가 보다 바람직하다.

한편 평화협력이라는 명제 하에서 신남방정책이 큰 성과를 내었는가 묻는다면 그 답은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아세안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다. 경제협력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처럼 정치적 민감성을 내려 놓고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분야의 경우 정부가 시작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 트랙2가 있지만 정치안보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진척이 느릴 수도 있다.

신남방정책은 평화협력 항목에 1) 고위급 교류 및 순방, 2) 한반도 문제 협력, 3) 국방 및 군수 협력, 4) 비전통 안보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⁵⁾ 이 중에서 대통령의 순방이나 고위급 교류의 경우 비교적 큰 성과를 냈다. 특히 대통령 순방의 경우 취임 2년여만에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 태국,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을 이미 순방했고, 2019년 내 나머지 국가도 방문 계획이 있다. 물론 2019년 말 아세안+3, EAS차 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말에는 한국에서 제 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제 1차 한-메콩정상회의도 개최된다. 대통령이 임기 중 아세안 국가를 모두 순방하는 첫번째 경우가 된다.

한반도 관련 협력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다소 나아진 부분은 한반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아세안에 이야기하는 관행은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반도 문제에 아세안을 직접 당사자로 관여시키는 부분은 아직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군사와 국방부문 협력에서도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하려는 등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다만 군수협력을 평화협력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전통 안보 협력에 관해서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직 눈에 띄게 없지만 기존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바는 긍정적이다.

신남방정책의 평화협력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가 강대국 경쟁, 지

5) 비전통 안보 협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1)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와 2) 지역적 복원력(resilience)의 강화라는 두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역 질서의 혼란 속에서 함께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다. 아세안 국가들이나 한국 모두 현재 인도-퍼시픽과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미중 경쟁, 무역 전쟁,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지역질서의 혼란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변 환경은 향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역 중소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역 중소국가의 이익에 맞는 지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간 직접적인 대화나 노력이 아직 민감한 이슈라면 이미 트랙 2에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트랙 2 사이 지역 전략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인식의 공동체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이 신남방정책 하에서 확실히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는 한, 두 해의 대화를 가지고는 불충분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화의 아젠다 역시 신중하게 짜여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젠다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협력의 의례적인 아젠다와 논의 내용 보다는 큰 그림, 다시 말해 보다 긴 호흡에서 지역 질서 문제와 이를 위한 한-아세안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평화협력에 관해서 신남방정책은 다자협력에 관한 비전과 계획을 결여하고 있다. 1997-8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시작되고 강화된 아세안+3, EAS와 함께 부문별로 다양한 장관협의체 등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한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아세안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지역 다자협력의 강화, 공고화는 매우 중요하다. 아세안은 지역 다자협력의 틀이 아세안 중심성 (ASEAN Centrality)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역 다자협력 제도들 없이 아세안 중심성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약소국 모임인 아세안 입장에서는 지역 다자협력 속에서 강대국들을 상대하는 것이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다.

한국 입장에서도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지역 강대국의 압력, 지역 강대국들의 경쟁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자협력이 중요하다. 다자협력 속으로 지역 강대국들을 끌어들여 일정하게 이들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반론 외에도 지역의 규칙기반질서 (rule based order)의 유지와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다자협력은 유용하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나서 규칙 기반 지역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 모두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⁶⁾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 지역 다자협력을 다시 세우고, 규칙 기반 지역 질서 특히 자유무역을 다시 강화하는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4. 강대국 전략 경쟁 속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은 단순히 한-아세안 관계 맥락 속에만 놓여 있지 않다.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 아세안, 인도 정책은 주변의 다른 국가와 강대국의 지역 정책, 전략과 만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 대표

6) 현재 한국과 일본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역시 이런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며, 한국 정부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ARF에서는 전통적인 북한 문제 대신에 한국과 일본 사이 무역 분쟁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올랐다. ARF회의에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이나 올해 ARF 의장성명을 보면 지역 자유무역의 현 상황에 관한 아세안 국가들의 인식과 우려가 잘 드러난다. 아세안의 이런 입장을 활용해 지역 다자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전략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인 것이 인도-퍼시픽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자신이 추진하는 인도-퍼시픽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 특히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인도-퍼시픽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양국 모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연계성이나 동남아 국가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협력을 할 필요는 있는 목소리도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일대일로와 신남방정책의 협력은 그리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우선 일대일로 정책이 동남아나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어렵다. 미국의 용어이기는 하지만 debt diplomacy라는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묘사에 크게 반박을 할 만한 개도국은 없어 보인다. 두번째로 일대일로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의 참여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부분도 제한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실상 중국 기업 외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세번째로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에서 건설하는 인프라가 동남아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경제적 필요를 반영한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크다.

반면 한국이 인도-퍼시픽과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선택도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협력에 따른 중국으로 부터의 압력이라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으로서의 인도-퍼시픽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외교정책을 한국이 대신 수행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인도-퍼시픽 전략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한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독립된 주권 국가로 다른 국가의 외교정책에 올라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인도-퍼시픽과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두가지 서로 다른 담론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미국과 일본 등이 이야기하는 전략 혹은 이니셔티브로서 인도-퍼시픽이다. 이는 개별 국가의 대 동남아 혹은 대 아시아 외교정책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국가의 ‘인도-퍼시픽 전략’이라고 불리는 외교정책에 한국이 동참할 이유는 없다. 두번째로 다른 개념의 인도-퍼시픽은 지역 범주로서 인도-퍼시픽이다. 이는 대강 과거의 아태 혹은 보다 가까이 동아시아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에 관한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지역 개념은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의 강화 주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미중으로 인해 약해진 지역의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개념으로 인도-퍼시픽을 주장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규칙기반 질서 유지에 관심이 있는 한국 역시 동조할 수 있는 인도-퍼시픽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사이 협력에 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인도-퍼시픽 전략 역시 지속적으로 신남방정책과 협력을 압박해 올 것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은 협력할 수 있는 구체 프로젝트에 관해서 협력을 하되, 이를 인도-퍼시픽 배너가 아닌 한-미 협력이란 배너 아래서 진행해야 한다. 혹은 한-미를 넘어서 더 많은 지역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적 형태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신남방정책의 구체 정책 리스트와 인도-퍼시픽의 구체 정책 리스트를 대조해 유사한 부분을 찾아 협력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 대항한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이 유력해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하나로 최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전략 하에서 동남아 개도

국의 IT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동남아 개도국 IT 생태계를 중국산 IT 장비들로 선점하여 경제적 이점을 노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인프라 구축은 이들 국가를 중국발 사이버 위협에 노출시키고 중국에 의한 정보 탈취의 위협도 크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개도국 정부는 IT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국의 인터넷 감시, 검열 노하우와 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에 의해 선점 우려가 있는 IT 분야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에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현황〉

- Information Silk Road (BRI, 2015)
- 국경을 넘는 광케이블, 통신 중계선 네트워크,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정보교환과 협력 확대를 위한 우주, 위성 채널 구축
- 양자컴퓨팅, 나노기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Xi)
- ‘community of a common destiny in information technology’
- LCLQ에서 LCHQ로 이동,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 E-commerce: 핀텍 관련, 알리바바, Didi Chuxing, 텐센트, 알리페이 등
- Smart City: 말레이시아, 필리핀
- Telecom: 필리핀, 라오스 서비스, 모바일 기기, 데이터 센터, 5G testbed
- 광케이블: 중국, 미얀마, 네팔,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케냐, 지부티, 남태평양
- 대안적 GPS: Beidou-2
- 사이버 공간의 권위주의적 통제 확산, information safety-Data Localisation, 플랫폼과 기술의 선점

5. 결론

지금까지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보면 나름의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환경도 있고, 이런 환경을 역이용해서 신남방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쉽다고 할 수도 있다. 정책 추진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금 신남방정책은 새로운 단계를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다음 정부에서도 아세안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더라도 신남방정책이란 타이틀 자체는 현 정부 5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점에서 신남방정책 후반부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새로운 기념비적인 성과를 내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 즉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적으로 신남방정책이라는 명제 하에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만큼 제고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이 약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동남아 방면에서도 한국이 아세안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전제 하에 새로운 사업의 시작에 집착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 기존 협력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보다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책 성과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국이 필요할 때만 동남아를 찾는 국가가 아니라 작은 규모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늘 아세안과 협력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목표 조정을 통해서 신남방정책 2기는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 추진의 장기적 기반 마련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평화 협력 등의 분야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는 사업 보다는 아세안과 전략 대화를 시작하고 꾸준하기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 한때 반짝 하고 성과를 내는 사업 보다는 신남방정책 2기는 이번 정부를 넘어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대 아세안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인식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아세안과 한국, 쌍방향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제언*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신남방정책 시대, 사람과 평화를 강조하다!

2019년은 한국과 아세안 외교관계 역사에서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한-아세안 관계 30주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정상회담’이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특별정상회담’이 더 특별한 것은 2017년 11월에 발표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때문이라고 본다.

2017년 5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장다변화에 따른 외교다변화정책기조를 선택하여 신남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물론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은 물론 인도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남쪽으로 향하는 모든 국가들과의 새로운 외교지향성을 함의한다. 신남방정책이 발표될 때,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이 함께 선포되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문재인정부는 아세안을 4강 외교에 준하는 외교파트너로 인정하여, 정부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특사를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된 흐름 속에서 한-아세안관계의 새로운 지평인 ‘공동체(community)’로의 격상을 지향하면서 3P,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사람(People) 가치 속에서 평화공동체, 상생공동번영공동체 그리고 사람공동체라는 세 공동체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3P 가치는 기존에 한-아세안 관계가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중상주의적 경제관계에 머물지 않고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흐름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역시 ‘새롭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對아세안외교의 총체적 지향을 설정한 것과 그 지향 속에서 ‘사람’과 ‘평화’의 가치가 자리를 잡았다.

사람중심의 평화로운 공동체! 사실 이러한 가치가 인류보편적 가치로 보았을 때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선언과 이 지향을 반기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인류보편적 가치’이면서도,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여전히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이념, 경쟁, 끼리끼리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여전히 세계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며, 이러한 가치는 여전히 수사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이지만, 이러한 대외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국내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1월 1일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에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를 분명히 발표하였다.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를 두 축으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뜻으로, 신남방정책으로 표출된 3P의 가치와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는다.

* 본 세션에서의 발표는 신남방정책 중에서 한-아세안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발제를 학회차원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관련하여 최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Hallyu Now(2019년-07+08) Vol.31에 게재된 원고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적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학계의 노력’, 대학사회 내의 ‘동남아학의 정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추가로 작성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즉, 한국과 아세안의 사람중심 공동번영과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과 평화를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그 동안 한국정부가 다른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증진을 해왔던 경험을 한 단계 심화시킬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진정한 쌍방향적 문화교류는 무엇인가?,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위해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가?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아세안공동체 건설 속에 ‘문화’의 위상

1967년 출범한 아세안이 2003년 아세안 차원에서 조직적 발전을 꾀하고, 2015년 말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세안 시민 약 6억 4천 만 명에게 아세안공동체는 여전히 실체가 미약하다. 그래서 아세안은 ‘하나의 정체성(One Identity)’을 갖는 ‘하나의 공동체(One Community)’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작용되고 있다.

2-1. 상호이해를 통한 정체성 형성

사실 동남아 지역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10개 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는 설정자체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한 개별 국가만을 보아도, 적게는 300여개 많게는 800여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종족들은 종족어를 갖고 있고, 각 종족은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보유하고 있고, 이슬람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힌두교, 불교, 기독교, 유교, 토착종교 등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국가이다. 그 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아세안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문화다양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 우리의 자연세계가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다양한 지리적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경험체계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형태는 그 자체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차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아세안의 해법은 간단하다. 하나는 차이가 문제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이고, 다른 하나는 차이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common identity)이다. 사실 문화는 형태적 차이를 다양하게 갖지만, 해석적 차원에서 보면 공통분모를 갖는다는 점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도 필리핀에 사는 사람도 사람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보편적인 요구와 이해는 너무나도 같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는 아세안공동체 건설의 하나의 축으로 ‘사회문화’ 이슈를 전담하는 공동체이다. ASCC는 ASCC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를 핵심적 키로 삼았다. ASCC의 목표라고 한다면, “아세안 시민들이 서로 존중(mutual respect)할 수 있고, 서로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공통의 정체성(common identity)을 만들어서 아세안 지역 안에서 연대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ASCC는 ‘2016-2025 문화와 예술을 위한 아세안전략(ASEAN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2016-2025)’ 비전을 통하여 아세안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포괄적으로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째, 아세안공동체 역사, 문화, 예술, 전통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해증진 둘째, 상호문화이해 부족으로 오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문화이해 (intercultural understanding) 증진과 문화다양성 증진 셋째, 아세안 모든 시민의 문화권(cultural rights) 증진 넷째, 문화관련 창조산업증진 다섯째, 문화관련 정책결정자와 기획자 등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 인 지원 등이다.

2-2. 아세안과 인형극

이와 같이 ASCC는 문화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각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6-2025 아세안 문화예술전략〉

전략	세부항목
역사·문화·예술· 전통·가치의 이해증진	문화축제, 공연, 포럼, 전시 등을 통한 문화 및 인적교류 민관협력체제에서 ‘아세안 사고방식’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아세안 관련 학문체계 지원 아세안 문화유산, 문화, 역사, 가치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미디어 기술 활용 콘텐츠 생산과 배포 구전문화의 데이터베이스화
문화다양성증진	아세안 내 공통적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상호소통 증진 교육과정 내에 평화문화, 상호문화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상호이해, 평화공존의 축으로 문화를 주류화하는 것
문화권증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의 역할에 관한 로드맵 구축 포괄적 사회발전, 빈곤해소,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를 연결하기 위한 아세안차원의 협력 메카니즘 구축 아세안 시민의 문화적 향유 증진
문화산업증진	로컬 문화에 기반한 산업화 공동체 기반한 중소규모의 문화산업 전문업체 증진 기금마련 및 지원 영화, 음악, 만화 등 역내 아세안 협력체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센터 구축과 지원
문화관련 인적자원증진	문화예술학교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정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아세안 젊은 예술가,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 등등 지원 프로그래머, 기획자, 관리자 등 훈련 및 지원
문화행사	ASEAN Arts Festival·Heritage Programme·Film Festival 등 ASEAN City of Culture, ASEAN Best of Performing Arts ASEAN-Dialogue Partner Cultural Exchange Year 등등

출처: 『ASEAN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2016-2025』의 내용 구성

이상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세안도 ‘공동체’ 건설의 과정에서 ‘문화’를 핵심적인 키로 보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아세안 출범 50주년 계기로 10개국이 함께 작업했던 “아세안 인형극(ASEAN Puppets)”경험은 중요하다.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2015년 7월부터 아세안재단(ASEAN Foundation)은 “아세안 인형극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형극 문화예술인, 연구자, 관료 등등 인적교류하면서 정보와 지식이 교류된다. 각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인형극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아세안을 서로 알아가는(ASEAN Awareness)는 과정을 통해 아세안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아간 것이다. 아세안 인형극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아세안 각국이 서로 다른 전통의 인형극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특정계기를 통해 하나의 아세안 인형극공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세안 정체성으로 회자되는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 면모이다. 다양하지만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 다양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아세안과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해야 하는 우리

신남방정책시대, 우리는 다시 아세안을 마주한다. 올해가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 된지 30주년이라고 하지만, 동남아와 한국의 인적 및 문화교류는 과거 고대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사실 한국문화와 아세안문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 쌀 문화권으로 근대이전까지 농촌문화·마을공동체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사교체계 등이 유사하며, 식민지경험을 통한 근대화, 탈식민지 이후의 정치적 경험도 유사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세안 시민주와 우리가 너무나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적 문화교류는 이러한 현재 인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3-1. 위로부터의 변화

아세안공동체와 우리가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지점에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 그 변화는 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물론 시민사회가 단순히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단순한 반응영역은 아니지만, 한국정부를 움직이는 관료사회의 방향, 가치, 태도, 방법은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업을 관장하고, 기획하고, 책임지는 단위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적 문화교류만큼은 우리가 지난 시기 산업화 단계에서 익숙했던 ‘단기적 성과위주’, ‘보여주기식 행정사업’, ‘이분법적인 냉전적 사고’등으로부터 벗어나 ‘쌍방향적인 문화교류’라는 본연의 정신이 살아나서 우리 내부로부터의 인식전환이 가능할 때, 진정한 성공단계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1차 전체회의 때 발표된 3P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이 제시되었다. 16가지 과제 중에 2번째 과제가 쌍방향적 문화교류 확대 분야이다. 하위범주로 첫째, 문화홍보 거점 인프라 확충 둘째, 문화행사 계기 한류확산 셋째, 아세안 대상콘텐츠 교류활성화 넷째, 아세안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증진 등이다. 우선 범정부적 차원

의 컨트롤타워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부처 간 협업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지점에서 매우 진전이 있다고 본다. 첫 시도이고 시작되었다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진전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는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하고 이 부분에서는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과 한국의 쌍방향문화교류 증진을 위해서 안으로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쌍방향 문화교류의 궁극적 목적은 ‘공존, 협력, 상호존중’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그것이 가능해야 타문화권과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사회 관료사회 내 부처 간 ‘소모적인’ 경쟁문화를 줄이고,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 측면으로는 對아세안 쌍방향문화교류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체제가 국내 및 해외 모두를 포괄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당연히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같은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아세안 시민모임 또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한인모임의 역량과 경험이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이 민간영역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對아세안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기관이다. 본 범정부적 차원은 추진전략과 과제마다 부처 협업체제로 되었다. 여기에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즉 ‘개별 국가 데스크’이다. 아세안은 지역적 차원과 개별 국가적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맞춤형’ 아젠다 설정이란 개념은 있다. 하지만 ‘개별 아세안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하고 실행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 데스크’ 담당이 필요하다.

3-2. 비전, 진정성 그리고 한국 속의 아세안 시민

위의 논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적 문화교류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였다면, 다음은 로드맵필요성, 문화교류의 진정성, 문화교류의 목적 등에 관한 것이다.

첫째는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적 문화교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존 부처 간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좀 더 살을 붙인 정도로 보인다.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부처 간 협업체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하여 對아세안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목적, 단계, 전략, 프로그램 등이 최소 10년 단위를 상정하여 한-아세안미래공동체 구상에 맞게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쌍방향적 문화교류는 아세안에 대한 지식정보와 교육체계를 논하지 않고서는 사상누각이기 때문이다. ‘상호이해’를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구축 로드맵이 필요하다.

둘째, 진정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첫 출발은 우리 내부로부터의 인식전환에 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은 ‘한류’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신남방정책의 쌍방향적 문화교류사업은 대체로 ‘상대방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한류확산하자’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한류”를 통한 세계 시장 동반진출이라는 매우 중요한 컨셉을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이 각 부처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승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쪽이 아닌 양쪽’이 ‘쌍방향’이지 않은가! 아세안의 로컬 문화, 전통문화, 현대대중문화까지 진정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지점들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아세안문화보다 우위에 있다는 스스로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세안적 사고방식, 예를 들면 “천천

히 함께하기”, “서로가 동등하게”, “공동체 보존”등 아세안 시민들의 가치에 귀기우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의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최종지점은 한국인과 아세안인과의 공존이다. 문화교류 사업의 평가가 “몇 사람이 왔는가”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의 평가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잣대는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아세안 출신 사람들의 삶의 질,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출신 시민들에 대한 한국 시민의 포용성 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결국 아세안과 한국 사이의 쌍방향적 문화 교류의 척도는 한국사회에 있는 다양한 아세안 시민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타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험’을 해봤고, ‘무엇을 봤고, 무엇을 먹어봤고’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2017년 11월 발표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은 작동중이다. 한국인과 아세안 시민이 ‘공동체적’ 수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한국과 아세안 시민 사이의 연계성과 연대감을 높여가면서 상호이해를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한-아세안 3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전을 갖고 한국과 아세안의 ‘공존’을 향한 평화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올해는 ‘2019년 아세안 문화의 해(ASEAN Cultural Year)’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세안 문화의 해’를 통해 아세안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러한 아세안의 기대와 요구에 잘 부응하면서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해져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러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건설 노력은 다시 동아시아지역공동체로 수렴되어가길 기대해 본다.

4. 신남방정책 시대 ‘동남아학’의 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남방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한국사회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현재로서 아주 요원한 이야기이다. 한국사회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동남아에 대한 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동남아학’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과제 앞에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 아니라 ‘한국동남아학회’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응노력을 통해, 실현해야 할 중요한 실천적 과제라고 본다.

한국 대학사회 내에 ‘동남아학’ 정립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장 최근 대학사회에서 새로운 학과로 자리를 잡은 ‘다문화’ 관련 학과들을 그 예를 들 수 있다. 다문화 관련 학과들이 최근 급성장한 이유에는 ‘정부정책의 흐름(wave)’이 강력한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현재 다문화관련 학과는 48개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원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즉, 10여개는 학부, 38여개 정도는 대학원 중심 학과이다. 또한 같은 대학 내에서 정책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 등 대학원별로 이러한 학과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문화’ 관련 학과가 급성장한 것은 2008년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필요, 외국인 이주자의 급속한 증가, 다문화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사회적 인식의 확산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을 법제화하였기 때문이다. 법제화 이후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해 낼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학 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경험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운영과 콘텐츠 생산을 위해 대학 내에 관련 학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2008년부터 현재 약 10년 정도 시간 동안 50여개의 대학에서 관련학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도로 만들어진 ‘다문화 및 이주’ 관련 학과에는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하나는 ‘학문적 정체성’과 ‘학적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급조된 학과이고, 다양한 요소가 필요로 하는 학적 특징으로, 대학 안에서는 본과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단기 또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다문화사회전문가’가 3,000여명이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사회적 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다문화 관련 학과의 한계지점과는 달리, ‘동남아학’은 학문적 정체성이 분명하며, 향후 동남아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수록 동남아지역 전공자들의 사회적 진출 무대는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 내 ‘동남아학과’는 어학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재의 한계지점을 돌파할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정책적 고려와 전략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의 지속화와 체계화를 통해 동남아학의 필요성을 대정부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인식시키고, 이러한 성공을 위한 대학 내 ‘동남아학’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법무부가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을 법제화하였듯이, 이것에 준하는 특정한 부처의 구체적 노력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대학 내에 ‘동남아학’정립 전략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끼워들기’ 전략이다. 기존 학과 내에서 ‘동남아’라는 지역의 파이를 계속 넓히는 것이다. 기존 역사학과, 인류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지리학과 등에서 ‘동남아 지역’을 다루는 부분의 포지션을 넓히는 작업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문화사회전문가’도 ‘다문화동남아지역전문가’로의 전환을 통해서 ‘다문화’학과의 ‘지역적 정체성’도 발전시키고, 학문적 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홀로서기’ 전략이다. 말그대로 대학 내에 ‘동남아학’과를 단독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정부차원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남아학’에 관한 두터운 보고서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동남아학의 개념정립, 세계 속의 동남아학의 위상, 동남아학의 커리큘럼, 동남아학의 사회적 기여, 동남아학과 학생들의 사회적 진출, 동남아지역전문가인증프로그램 등 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진 체계적인 보고서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모두 한-아세안관계가 다층적으로 더욱 심도 깊게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서 신남방정책은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 더 고도화되고, 더 체계화되고, 더 세련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동남아학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참고문헌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2019.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전체회의 보도자료」.
 ASEAN Secretariat. 201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2016. 「ASEAN Strategic Plan for Culture and Arts 2016-2025」. Jakarta.

전체회의 2

신남방정책의 외교적, 정책적 함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관계: 외교정책적 함의

김영선(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들어가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과거의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신남방정책의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본다. 오늘날 새로운 지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일의 인도-태평양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 역내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외교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우리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아세안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1989년에야 비로서 부분 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관계를 수립했다.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관계가 된 한-아세안 관계는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04년 포괄적협력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로,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별도로, 2009년 및 2014년에는 한-아세안 관계 20주년 및 25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 및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자카르타에 주아세안 대표부를 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국가 순방 계기에 ‘한-아세안 미래공동체구상’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의 대원칙으로서 3P, 즉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비전을 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까지 아세안 10개국 공식방문. 올해 한-아세안관계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2019. 11월 부산 개최 예정

과거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한국과 아세안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럼에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정책은 독립적인 외교과제가 되지 못해 북한문제나 강대국관계가 불거지면 뒷전으로 밀려났고, 아세안측으로부터 한국의 대아세안접근이 자기중심적이고 거래적(transactional)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대아세안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독립변수로서의 대아세안정책, 한-아세안관계의 질적변화, 지역협력에 대한 책임과 기여
- 조직적인 추진체계(컨트롤 타워 및 외교부내 아세안 전담 局 설치, 주아세안대표부 강화, 신남방 비즈니스 협의회 등 민·관협력 메카니즘 강화)

신남방정책은 극동과 유라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과 연결해 ‘번영의 축’을 만들고,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평화지대의 ‘평화의 축’과 연결되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전략구상이다.

-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한 축. 4강 외교와 상호 보완관계

신남방정책의 외교정책적 의미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인도의 중요성 증대, 미중·중일 등 강대국간 경쟁 심화, 미중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이익 중심주의 경향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아세안은 역동성 및 발전가능성으로 인해 지정·지경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은 어떤 외교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첫째, 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는 외교 다변화(diplomatic diversification) 정책의 의미를 지닌다.

- 강대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의존도 완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둘째, 아세안에 대한 외교적 재균형정책(diplomatic rebalancing policy)의 성격을 가진다.

- 아세안은 과거 부차적인 성격에서 이제 우리 외교의 우선과제(독립변수)로서 자립매김. 셋째,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외교적 선택공간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의 가치를 지닌다.

- 중견국외교(middle power diplomacy) 강화를 통한 전략적 레버리지 제고

넷째, 아세안의 통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및 다자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세안+1, 아세안+3, EAS, ARF, ADMM+ 협력 강화

관련국의 대아세안정책과의 차별성 및 접점모색은 가능한가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인도, 호주 등도 아세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국가들의 정책이 우리 신남방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신남방정책은 이들 국가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은 1973년 아세안과 비공식대화관계를 수립한 후 1977년 완전 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되었으며, 그 해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한 이래 다방면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인 실질협력 증진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2007년 ‘자유와 번영의 호(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2012년 인도-일본-미국-호주로 이어지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바탕으로

로 2016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공식화했다.

- 최근 실질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2017년 교역은 중국, EU, 미국 다음으로 4위. 투자는 EU 다음으로 2위), 역외파트너 국가 중 개발협력최대 지원 국가

중국은 1991년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후 2003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며, 2010년 중국-아세안 FTA 이후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였다(2017년 교역은 1위, 투자는 EU, 일본에 이어 3위). 2013년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아세안과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등 대규모 협력사업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아세안국가들과의 갈등, 공세적인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국들의 경계심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 중국과 아세안은 2018년 11월, 전략적 동반자관계 15주년을 맞아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비전 2030’을 발표하고, 2020년 목표로서 쌍방향 교역 1조 달러, 투자 1,500억 달러를 설정

인도와 호주도 2018년 1월 및 3월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를 뉴델리 및 시드니에서 각각 개최하여 대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1974년 최초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 되었으며, 아세안에 대해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강화 등 많은 실질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인도는 1992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2014년 출범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新)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펼쳐나가고 있다. ‘강한 인도’를 표방하는 모디정부는 신(新)비동맹정책 기조 하에 인도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중견국(middle power)의 선두국가로서 아세안 및 한국과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과정에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아세안 관계를 중시해 왔다. 미국은 1977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전환(Pivot to Asia) 및 아시아 재균형정책(Rebalancing with Asia)을 통해 아시아 관여정책을 분명히 했다. 2015년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한데 이어, 2016년 2월 미국 서니랜즈에서 아세안-미국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7년 1월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계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번영, 안보 및 거버넌스·법의 지배 등 3대 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주도해 온 이 지역 질서가 중국의 부상으로 도전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공간과 미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미 국방부의 ‘Indo-Pacific Strategy Report’(2019. 6)는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조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정부도 2015년 신(新)남향정책(New Southbound Policy)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외교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만은

1994년 리덩후이(李登輝)정부 시 아세안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추구하는 남향정책(Go South Policy)을 전개했다. 중국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차이잉원 정부는 협력 대상국가를 아세안을 넘어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확대하고 ‘온화한 힘(warm power)’ 외교를 통해 사람 중심의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교적 도전 과제와 대응방안

미·중간 격화되고 있는 갈등관계는 우리에게 커다란 외교적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정부가 일대일로 정책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안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일본도 2018년 10월 아베 신조 총리의 방중에서 보듯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조심스레 모색하고 있다. 인도와 호주도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임) 때문에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데에는 다소 부담을 갖고 있다. 아세안의 입장은 더 더욱 복잡하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입장인데다 중국과의 특별한 경제협력 관계도 있으므로, 미·중간 경쟁 구도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구도는 포용적인 것이어야 하며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2019).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협력해 나갈지 세심한 검토와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질서 재편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지 중요한 과제다. 우리 스스로 미·중 양자택일이라는 냉전적·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 보다는 분명한 원칙과 국익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향하는 가치와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첨예화되어 양자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피하고 싶은 구도일 것이다. 새로운 지역구도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아세안과도 긴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로드맵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모멘텀과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포용적인 지역질서 구축을 위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입장 중심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한·아세안 양측의 정치·경제·사회적 환

경변화를 감안하고, 양측의 관심과 우선과제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레벨에서 쌍 방향의 전략대화가 중요하다.

넷째, 구체적인 협력분야에 있어서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 된 정책과 사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강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협력의 규모 면에서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 아세안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 일말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 식민통치의 굴레나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대아세안 정책과 동남아 개별국가 전략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등 어느 특정국가에 대한 쏠림현상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별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남방정책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입장과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 그리고 아세안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 없이는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로소 한-아세안간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개혁·개방을 도와 북한을 국제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이끌어 내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메카니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의 협의 메카니즘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화해와 협력은 한-아세안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총체적으로 더 큰 협력과 혜택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어

한국과 아세안은 이미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한 신남방정책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그쳐선 안 되고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아세안 관계는 역시 '사람 중심'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 하에 이웃이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공동 운명체(common destiny)로 인식될 때 진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이다.

올해는 신남방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연말 부산에서 개최되고, 그 기회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처음으로 개최된다. 정부로서는 목전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신남방정책의 비전,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천 로드맵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제시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입장과 착실한 실행,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 그리고 아세안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끝.

아세안의 특성과 신남방정책의 지향점

김영채(외교부 아프간 파키스탄 특별대표, 前 아세안대사)

1. 들어가는 말

아세안은 우리의 신남방정책, 즉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중점을 두어 오늘 발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세안의 관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아세안의 목표가 내부적으로는 회원국간 단합이며, 대외적으로는 국력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아세안의 정치 외교적,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국들이 아세안과의 관계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세안은 이러한 정책이 자신들의 외교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주장은 신남방정책은 한-아세안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협력과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아세안 주도의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외교는 약간의 변화는 있어 왔습니다만,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경제나 문화 측면을 보면, 아세안은 이미 우리에게 4강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제2대 경제협력 대상이고, 우리의 제1위 인적교류 대상인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3P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2. 아세안의 의미와 목표

가. 회원국간의 단합 플랫폼

아세안은 EU와 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 경제협력 등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U의 발전이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의 영감을 제시해 왔습니다. 1989년 독일 통일과 함께 유럽 통합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세안은 1999년 CLMV 가입을 통해 현재의 10개 회원국 체제를 완료하였는데, 인구와 영토 면에서 EU 보다 더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세안의 지정학적 가치가 구조적으로 변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세안의 통합적인 힘은 아직은 그 영토나 인구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국 전체의 유엔 분담금이 우리 보다 적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회원국들이 역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지정학적 위치, 영토, 인구, 시장을 기반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출범 이래 정치적 협력이 중심이었고, 경제적 협력은 일부 관세철폐나 공동산업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은 해외투자 유입이 급격히 줄면서 이 자금이 인도와 중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경제 공동체 구상논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을 키우고 제도를 균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공동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안보와 사회문화가 추가되어, 2003년 3대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국 법인격 부여, 정상회의 매년 2회 개최 등이 포함된 아세안 헌장을 2007년 채택하였다. 통합의 물적 기반강화를 위해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채택하였다. 당시 Community, Charter, Connectivity를 Centrality와 함께 4C라고 적극 홍보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실주의적 시각입니다. 즉 아세안이 의미 있는 외교 행위자로 남기 위해서는 적실성(relevance)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국, 인도의 부상과, 미중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과 근육을 키워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협력 과정에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공동체 형성 노력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를 통합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세안의 도전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중일 경쟁 등 강대국간의 경쟁으로 아세안의 줄서기 또는 분열 가능성이며, 대내적으로는 개발격차, 거버넌스 등 구조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통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의식적 결정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회원국간 단합을 유지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온 결과, 통합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통합과 단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단합을 우선시 했습니다. 2012년 캄보디아 의장국 당시, 남중국해 문제로 성명 발표가 무산되어 분열상이 대외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분열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회원국들의 주권의식이 강하여 EU와 같이 주권을 이양해가면서 통합을 이루려는 정치적 의지가 약합니다. 오히려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헌장 채택은 그간 논의되어 온 통합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무국은 정치적 성격의 대외성명을 발표하지 못합니다. 대화상대국과의 공식 대화채널인 상주대사협의회, 즉 CPR은 본부에서의 권한이양 수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세안이 적절히 비효율적인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공동체(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를 회원국들보다 다국적 기업들이 더 원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현실을 보면 관세장벽은 거의 다 제거되었으나,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철폐라는 비교적 손쉬운 일(low hanging fruits)이 끝났고, 서비스, 자본, 인적 이동, 지재권, 표준, 환경 등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역내교역 비중은 약 24%로 최근 수년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U의 역내 교역이 거의 70% 수준인 것에 비하면 경제통합은 양이나 질적 측면에서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원국 경제가 보완관계 보다는 경쟁관계에 있고, 자체 통합보다는 오히려 동북아 3국과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채택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 회원국간 직항로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와 직항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아서 시민들간의 연대의식이나, 아세안 정체성이 약합니다. 아세안이 엘리트들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미약한 것도 과제입니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도 아세안에게는 과제입니다. 정체성 부재는 아세안이 기능주의적 협력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면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능주의적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세안은 단합을 위해 ASEAN Way 외교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 존중, 국내문제 불간섭,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 합의사항의 비강제성 등이 특징입니다. 1976년 서명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이 아세안 방식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단합을 중시하고 외형적으로라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이웃이라는 요소를 빼고는 인종, 종교, 언어, 정치체제, 경제발전 수준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상이한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회원국들은 모두 다인종 국가이다. 국내적 상이성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에 도전 요인이었으며, 국가간 상이성은 지역협력에 있어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지난 50년간 이룩한 성과를 볼 때, 아세안 방식의 외교가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는데(unity in diversity)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80년대까지 아세안의 가장 큰 적이었던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그후 CLMV 대상으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IAI 사업을 추진하는 정신은 아세안 방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세안 정신의 결과입니다.

아세안 방식, 특히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은 모두가 동의 가능한 최소한의 합의(lowest common denomination)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모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처벌하기가 불가능하여 실행력 측면에서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외교관들은 아세안 방식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싱가포르 외교관은 “젓소에게 말처럼 달리지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 지역협력의 주도체

아세안 단결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중심성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세안 중심성

을 학문적으로 정의한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 나름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역협력 과정에서 아세안이 중심에 있다”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역협력 구도를 보면, 지리적으로 아세안이 중심에 있는 형세이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변 강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 개념은 1994년 ARF 출범시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었고, 2005년 제1차 EAS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하여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1, 아세안+3, EAS, ARF, ADMM+가 구축되어 있고 이들 회의는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 주최하고 아세안 회원국 내에서만 개최됩니다. APEC이나 ASEM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나, 회의 주최를 아세안이 독점하지 않아서 아세안 주도의 지역체제(regional architectur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AS는 아세안+3(한중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그 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지리적으로도 아세안이 중심에 있는 형세입니다. “지역“ 개념이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인도태평양 진화하여 왔습니다. 지난 6월에 합의된 인도태평양 전망을 보면 동아시아(아세안+3)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세안이 동아시아에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APT, EAS 및 APEC 정상회의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포맷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심성은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관련 회의를 아세안 지역에서 개최하고, 아세안이 주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진화하여, EAS 등 정상회의 공동성명 문안 교섭에서도 아세안 중심성을 원용합니다. 즉, 문안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 아세안이 기 합의한 문안을 대화상대국이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세안 중심성은 대화상대국의 수용에 따라 발전한 정치적 개념이므로, 아세안 문안 중시 주장도 진화하는 정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에는 아세안 사무국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10개 공관, 대화상대국 10개 공관, 부분대화 상대국인 노르웨이 1개국 등 총 21개 아세안 공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외교 중심지입니다. 아세안+1, 아세안+3 및 EAS 대사회의(EAMJ)가 있는데 모두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방식에 따라 운영됩니다. 중심성으로 인하여 아세안이 “갑”이고 대화상대국들은 모두 “을”의 처지에 있습니다. 대사회의 의장은 아세안 의장국의 대사가 담당하고, 아세안은 자체 사전회의를 통해 회의 일정, 의제 등을 결정하여 대화상대국에 통보합니다. 문안 교섭을 주도하고 최종 문안을 결정합니다.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따르므로 강하게 반대하면 진전이 없습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불편하거나 논쟁이 되는 사안을 잘 언급하지 않고 비공식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타진합니다. 결정을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 중심의 지역체제 구축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대화상대국 10개국과 +1 체제를 구축하여 막대한 ODA/교류협력 예산 확보, ②회의 주최를 통한 의제 설정권, 문안 교섭 주도권 확보, ③주요국들과의 고위급 정례 협의체 주도, ④아세안의

장국의 주요 국제회의의 참석 등입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단결이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심적 역할이 단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강대국들이 모두 매년 아세안 주도의 회의에 참석하는데, 중심성 때문에 소집력(convening power)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아세안 중심성은 국가 차원의 이익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 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이 대화 상대국의 초청으로 매년 해외여행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한-아세안 협력사업으로 공무원 초청사업을 할 때 서로 추천받으려고 경쟁합니다. 학생들이 대화상대국에 유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도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여럿 있는데, 대화상대국들의 대아세안 매력공세는 중심성에서 출발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은 중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말 호주 캐빈 러드 총리가 제안한 APC(Asia Pacific Community)에 대해, 아세안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호주의 APC 제안은 아태지역 지역협력체를 총괄하는 주요국 정상회의를 설립하고 그 하부에 여타 지역협력체를 정렬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아세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소국들이 소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세안이 반대하자, 호주는 제안 내용을 수정하고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으나, 결국 APC는 폐기되었습니다. 아세안은 2000년대 말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제안한 EAC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EAC 구상은 동아시아(ASEAN+3) 중심의 지역협력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서 당시 아세안의 기본 전략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세안+3가 확대되어 EAS가 출범한 것도 아세안 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미, 일, 호주, 인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도 아세안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Quad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은 매우 유보적이었고, 주변국들이 인태 구상을 주도하는 것에도 유보적이었습니다.

3. 신남방정책과 지역협력

가. 아세안에서의 우리의 위상

우리나라는 국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에서 중국, 일본과 동일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중일은 미국, 호주, 인도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상징이 아세안+3입니다. 한중일은 1997년부터 연례 +1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온 반면, 미국, 호주, 인도 등은 한참 지난 후에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상대적 비중을 보면 중국, 일본에 뒤지지 않고 있고, 호주, 인도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Soft Power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세안에게 5위로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아세안은 미, 중, 일, 러를 같은 그룹으로 보고, 그 다음 그룹으로 호주, 인도,

캐나다가 한국과 같은 그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규모를 볼 때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한중일을 Plus Three라고 하여 한 묶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아시아를 APT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교역액의 6%를 한국이, 9%를 일본이, 18%를 중국이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아세안으로서는 한국이 일본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이 적절한 균형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한.아세안 관계와 지역협력의 문제

우리 외교에서 지역협력은 1989년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입 이전에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1980년대 우리가 대화상대국이 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 강도가 현재 신남방정책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매년 공관장회의 때 외교부장관과 아세안 회원국 주재 대사간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대화상대국으로 초청받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중인 1989년 대화상대국으로 초청받은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단 2년 만에 부분 대화상대국에서 완전 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되었는데,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북방외교 등으로 외교력이 급부상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올해 부산에서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간의 발전상은 진정으로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세안 사무국 로비에는 회원국 국기와 함께 대화상대국 국기를 함께 게양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이 대화상대국을 준회원국에 준하여 대우하고 있는 징표로 해석됩니다. 우리의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분담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기금을 아세안 사무국 구좌에 예치하고 있고, 기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아세안과 한국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유럽은 핵심부에서 주변부로, 아시아는 주변부에서 핵심부로 확대되어온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세안 주변 강국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세안이 지역 협력을 주도하도록 용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 주변국들은 전반적으로 지역협력을 주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동북아 중심의 지역 주의를 한계에 봉착해 있고, 미국의 위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지역협력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역내 국가이기도 하고 역외 국가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를 단순하게 보면, 안보는 미국 중심이고, 경제는 supply chain 구축으로 상호의존적이며, 지역협력은 아세안 중심이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지정학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가 지역주의 발전을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관계가 지역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외교차관 출신인 Peter Ho는 지역체제를 “지역 번영,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설립된 지역기구, 제도, 양자 및 다자 협정, 포럼 및 여타 메커니즘의 일관된 네트워크”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양자 업무와 다자 업무가 일관된 전략적 틀(coherent strategic framework)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상기 개념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세안 등 다자 협력 플랫폼

과 함께 대북정책과 4강과의 양자 외교정책을 포괄합니다. 따라서 대아세안 정책을 양자적 측면에서의 관계강화와 함께 더 큰 전략적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세안 주도의 지역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치는 말

아세안의 외교목표가 내부적으로는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아세안이 단합하기 때문에 중심성이 가능하고, 중심성을 통해 국력 이상의 영향력을 향유하고 있어 단합하게 만든다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저의 두 번째 주장은 아세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화상대국들이 대아세안 매력공세를 취하고 있고, 중심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아세안의 대응방식이 결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남방정책을 한-아세안 양자관계 측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협력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세안 외교를 하면서 느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4일 동안 무려 14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세안 자체, 한.중.일.미.러 등 5개국과 각각 +1 회의, 호주.인도와 비공식 회의, APT 회의, EAS 회의 2회, RCEP 회의, 특별 손님인 캐나다, 칠레와의 회의 등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아세안+1, APT, EAS 2회 등 총 4 차례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가히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모든 회의를 영어로 하고, 의제나 포맷이 모두 유사하여 결코 즐거운 회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적 모임에서도 회장이나 총무가 열심히 뛰어야 모임이 잘되는데, 아세안은 노력하여 스스로 지역협력의 주도세력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끝.

역외투자(Offshore Investment) 쟁점과 신남방정책에서의 함의

2019. 8. 30.

법무법인 지식(KIM & MIN)

변호사 김익현

1. 들어가는 말

- IMF 금융위기 학습효과
-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투자방식 내지 구조
- 대한민국 국가리스크 헷지 : 법제도 정비---사법리스크 최소화
- 투자전문회사 이용{Fund, SPV(Special Purpose Vehicle)}
- Tax Heaven 지역 경유

2. 역외 금융투자 추진 배경

- 2001. 8. IMF 졸업
- 공적자금, IT 벤처열풍, 반도체, 자동차, 조선 경기 호황
- 국내 유동성 부족 단계에서 유동성 호황기
- 국내 기업구조조정 안정화 단계
- 국내 투자대상 자산 소진 내지 고갈 : 투자수익율 정체 내지 저하
- 2004년경부터 역외 금융투자 가능성 모색

3. 역외 금융투자 흐름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전, 후로 역외 금융투자 흐름 변화

서브프라임 이전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집중
- 시장개방, 고도성장단계 국가, 저비용구조, 자국내 높은 조달금리 부담
- 높은 투자수익율 기대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두바이, 몽골로 확대 (그루지야, 아프리카 광산)

서브프라임 이후

- 미국, 유럽, 호주 등 국가리스크 적은 나라에 집중
- 높은 투자수익을 보다 안정적인 수익과 국가리스크가 적은 해외투자 선호
- 외국 글로벌 투자자들과 PARTNERSHIP 형성 : 해외인프라 투자
 - ◆ 중미 천연가스 터미널 개발투자
 - ◆ 북미 공항 개발 및 운영기업 인수 투자
 - ◆ 서유럽 에너지 관련 투자

4. 역외투자 쟁점

- 법과 제도, 상관습,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
- 국가리스크, 사법리스크 현존

가. 투자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Ownership)

나. 투자 인, 허가에 관한 사항(Approval)

다. 투자 담보에 관한 사항(Security, Guarantee)

라. 투자 운영에 관한 사항(Operation)

마.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Exit Plan, Tax)

가. 투자자산 취득 관련 사항

1)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

- 토지소유권 제도 불허 - 사용권 내지 임차권
-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권리취득 내지 투자 규제 있음

2) **인도네시아 :**

-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 : 부동산에 관한 권리종류(소유권, 경작권, 건물신축권, 토지사용권, 임대권 등)
- 외국인 취득 가능한 토지관련 권리 : 소유권을 제외한 건물신축권, 토지사용권

3) **합작투자사업의 경우 스폰서 제도(현지인 파트너 강제)- 베트남(과거), 캄보디아(사실상), 아랍권**

나. 투자 인, 허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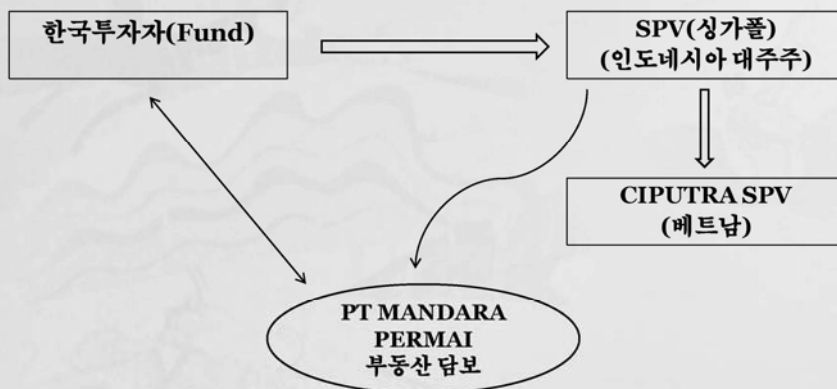
- 1) 가장 중요한 ‘국가리스크’ 로 작용.
- 2) 비용, 시간,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어려움 :
현지인 브로커 피해사례 다수.
- 3) 중국
 - 외환관리 통제 심함
 - 해외금융자본을 투기성 자본으로 인식
 - 총 투자액에서 순수 자기자본 투자 비율 강화

- 4) 베트남
 - 외국인 투자청(MPI, DPI)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승인 까다로웠음.
 - 과거 베트남 현지인과의 합작만이 허용.
 - 현재 폐지되거나, 상당 부분 완화됨.
- 5) 인도네시아
 - 발리 리조트 투자
 - “Open Green Area(공개녹지지역 내지 농업용 녹지지역)” 허가 쟁점 발생.

다. 투자 담보에 관한 사항

- 1) 외국인에 의한 자국내 자산 담보취득 제한(중국, 베트남)
: 국내 금융기관과 현지 금융기관간 지급보증(Stand by L/C 거래)
 - L/C 발행 현지 금융기관 신용도 문제
 - 과도한 L/C 발행 수수료 문제
- 2) 담보법제 미비(캄보디아)
- 3) 담보법제 마련된 경우라도 담보권 실행에 관한 실무사례 많지 않고, 담보집행에 관한 비용, 시간,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인도네시아, 필리핀)
 - 필리핀 클락 주거단지 개발투자사례 : 관할법원 담보권 집행 실무 사례가 없음

○ 베트남 CIPUTRA 투자사례 (인도네시아 담보)



- 인도네시아 현지 부동산 담보 집행에 관한 예측가능성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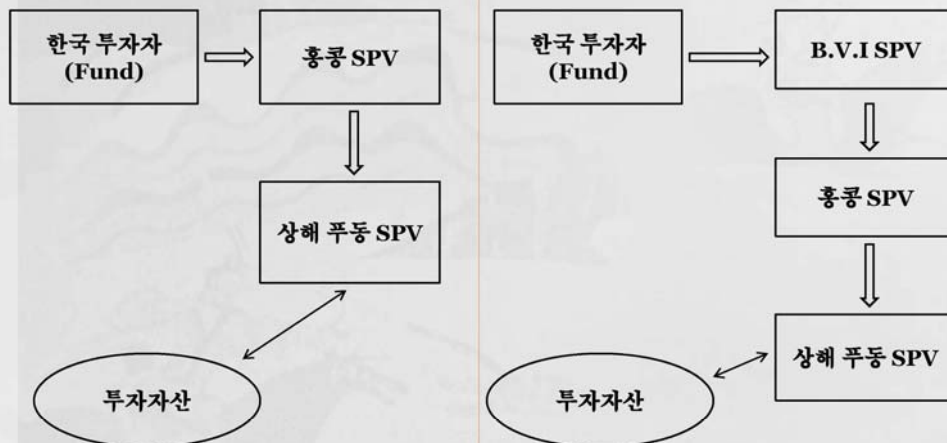
라. 투자 운영에 관한 사항

- 1) 부동산 개발 투자자금의 집행 및 관리
 - 한국의 경우 신탁회사를 통한 관리 일반화
 - 신탁제도 및 실무 운용 사례 없음.

- 2) 해외 특별자산 투자의 경우 중요쟁점 : 해외 인프라 투자시 “운영회사” 중요 - 기술, 경험, 재무구조등
 - 해외 유전개발 투자
 - 가스 터미털 투자
 - 해외 공항투자
 - 발전사업,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마. 투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EXIT PLAN, TAX)

- 1) 중국 상해 푸둥 투자사례 (2가지 사례)



2) Tax 관련 (인도 관세 장벽)

- 역외 금융투자의 경우 모리셔스 제도(Tax Heaven), 싱가포르 등 경유
- 자동차 수출 관련, 완제품(완성차)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 존재
- 현지 공장 건설 후, 부품 상태에서 수출하여 현지공장에서 조립 및 판매
- H 자동차 회사의 경우 현지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운송도로건설 정부이행 지연

5. 국가리스크, 사법리스크 관리 및 헷지
(신남방정책에서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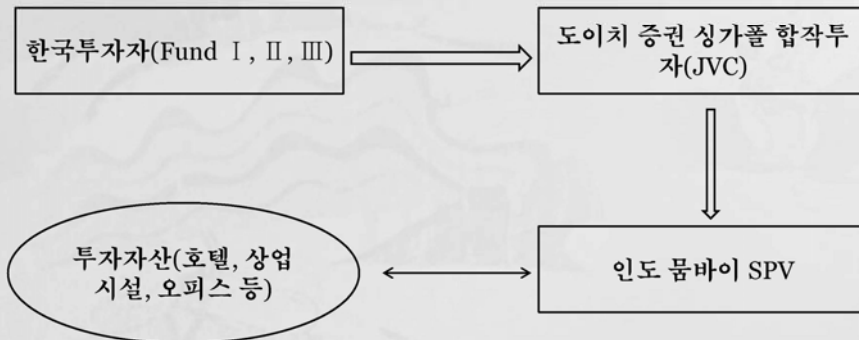
가. 현지화에 성공하였거나, 현지 관리가 가능한 글로벌 투자자와의 Partnership 형성

나. 정부 내지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의 참여

다. 정부의 민간 역외투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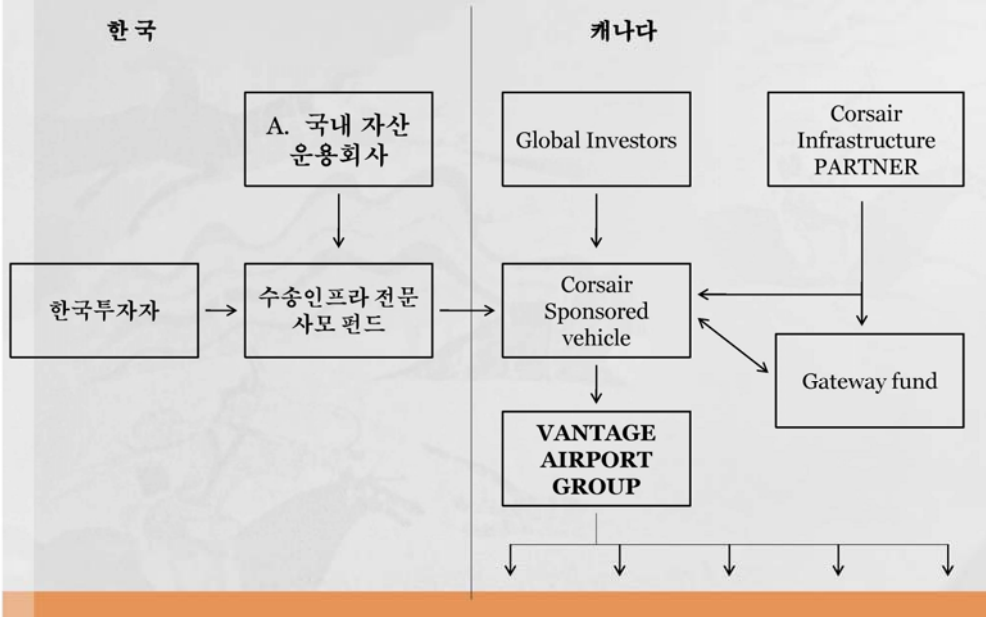
가. 글로벌 투자자와의 Partnership 형성

1) 인도 합작투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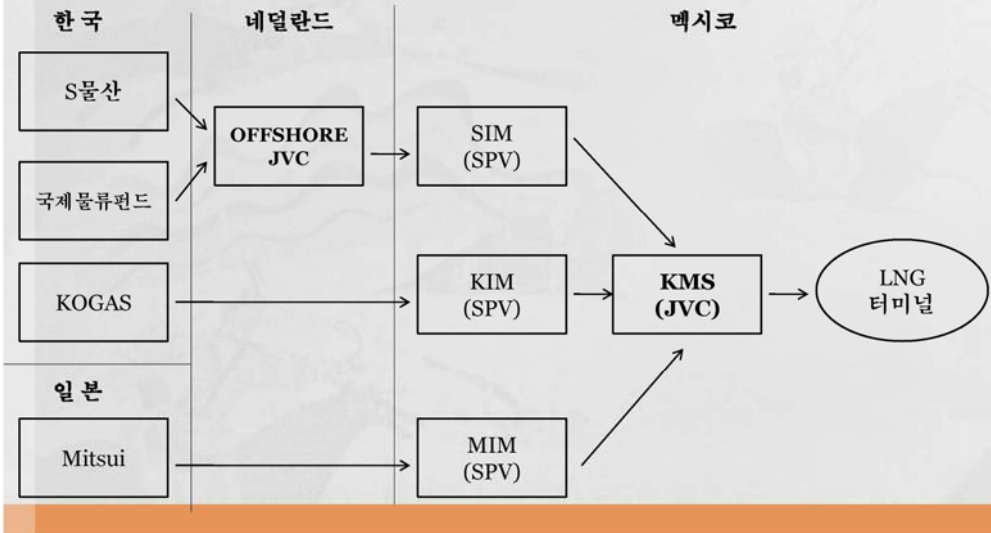
- 서브프라임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현지관리를 통해 투자 자금 회수 후 EXIT.

2) 북미 공항 개발 및 운영기업 인수 합작투자 사례



나. 공기업 내지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참여

1) 멕시코 만사니요 LNG 가스터미널 투자



다. 정부의 민간 역외투자 지원

1) 방통위 ‘공동제작협정’ 지원 사례

- 한류 열풍 결과, 한국과 다른 국가간 문화콘텐츠(드라마, 영화, 다큐, 애니메이션등) 공동 제작과 관련한 협정
- EFTA('06.9), 싱가포르('07.7), 캄보디아('09.10), EU('11.7), 호주('14.12), 뉴질랜드('15.12), 인도('15.5)등과 체결.
- 한·중, 한·베트남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한·중, 한·베트남 공동제작 협정안에서 국가리스크 및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 i) 공동 제작물에 대하여 '자국 시청각물' 과 동일한 법적지위 부여
 - ii) 공동제작물 '승인절차 간소화' 하여 신청 후 60일 이내에 승인절차 완료

- iii) 협정 이행 관리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 iv) 공동 제작자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에서 조정, 중재등을 통한 해결

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 역할 제고

- 세계 5대 기관투자가의 위상
- 역외투자에서의 선도적인 역할 기대

분과회의 1

베트남,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넘어서

Beyond the Other Side of Vietnam's

Shadowy Memory

**Vietnam war from a vanquished soldier's perspective :
Tháng Ba Gãy Súng (*In March, broken rifles*)**

Emmanuel Poisson. Université de Paris - IFRAE

Introduction :

In parallel with my research on the bureaucracy in Vietnam, I carry out for 6 years a work of translation into french of texts of contemporary Vietnamese literature. Indeed, many of these texts are of historical, sociological as well as stylistic interest. Even if I am not a specialist of Vietnam war. I think they are very valuable books about it.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read and translate records especially vietnamese records of the war. Indeed, the Vietnam War continues to be written only from the American point of view. The same is true of movies, as shown by the recent documentary film directed by Ken Burns and Lynn Novick, which offers a biased view of the war. Almost all the images are taken from American archives and the filmmakers are only interested in the American actors of the war (officers, soldiers, diplomats, politicians). As for Viet Nam, the history of this war has long relied on official writings alone. Of course, great texts were published as, "Mùa hè đỏ lửa » from Phan Nhật Nam (1972), *Giải khấn sớ cho Huế* from Nhã Ca, (1969), the private journal of Đặng Thùy Trâm. But I am particularly interested by Bảo Ninh and Cao Xuân Huy's books¹. Both of them are released from official southern and northern "heroism". Both of them views war from the bottom. « In March, broken rifles » (Tháng Ba Gãy Súng) hasn't been translated into french (nore in english) which is a really pity. It is a fascinating from both psychological and stylistic point of view.

I. Cao Xuân Huy : a small biography

Cao Xuân Huy was born in 1947 in Bắc Ninh. He is the son of Cao Nhị, editorial secretary of the magazine *Sáng Tạo* and a member of *Nhân Văn Giai Phẩm* (The *Nhân Văn* group consisted of the dissident North Vietnamese intellectuals from 1955–58). In 1954 he left Hanoi for the South because of the social origin of his mother. Indeed, his maternal

¹ Bảo Ninh, *Nỗi buồn chiến tranh* (The Sorrow of war), 1990.

grandfather was the victim of a public denunciation (*đấu tố*) during the agrarian reform because he was a teacher and was fluent in french.

In 1968 he joined the south-vietnamese Marines (*Thủy Quân Lục Chiến Việt Nam Cộng hòa*) At the end of March 1975, he was taken prisoner at Thuận An mouth. He was then a lieutenant. He was interned until September 1979 in several re-education camps. Three years later he clandestinely left Vietnam and settled in southern California where he wrote his memoirs. He became editor of the magazine *Văn Học*.

In 1985 he published memoirs "In March, broken rifles" (*Tháng Ba Gãy Súng*). In 2002, he returned to Hanoi to visit his father and where he met the writer Bảo Ninh. He died in 2010.

II. Why did Cao Xuân Huy chose the title "In March, broken rifles" ?

The meaning of « In marsh » is clear (marsh 1975).

What does Cao Xuân Huy mean by broken rifles ?

Tháng Ba thì mọi người đã rõ, còn Gãy Súng, tôi muốn nói lên một điều đau lòng cho những thằng lính cầm súng, khẩu súng mà không có đạn thì giá trị không bằng một khúc củi mục, chính tôi đã dẫn đại đội xung phong lên chiếm mục tiêu mà chỉ bắn bằng mồi. Súng của chúng tôi có phải là đã bị bẻ gãy không khi mà vẫn có thể tiếp tế đạn cho chúng tôi để chúng tôi chiến đấu? Ai đã bẻ gãy súng của chúng tôi?

(Something painful for the soldiers who had no more bullets for their rifles, rifles that were no longer worth more than a rotten branch, I myself led to the assault my squadron but our shots were fictitious. We were waiting to be supplied with ammunition to go to battle? Who broke our rifles?)

Cao Xuân Huy chose the title "broken rifles" for this reason.

III. What about the book itself ?

Cao Xuân Huy says his book is not a novel but memoirs. He says that he was never a writer "I am only a soldier, a soldier who is fighting (*lính tác chiến*)" (...) I write things in which we,

soldiers, have directly taken part but no one had written, while many people wrote stories on the battlefield without participating in any combats.

He enlisted in the army not by anti-communism but because he was young, impetuous, in search of strong sensations.

The main topics of the book are :

1) *The responsibility*

He doesn't shift the blame onto the US government for the defeat. If the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senior officers of the South Vietnamese army themselves, Cao Xuân Huy does not exonerate their subordinates.

I (...) thought that those who had stabbed the back of the fighters were guilty, but that the fighters who offered their leader their back for them to plant their dagger were also guilty. This triggered a need for me to write this story.

2) *The lack of concern*

Cao Xuân Huy is sincere, honest. He doesn't relieve himself for his own responsibility. At the beginning of the text, he writes that he was much more often in the bars (drinking alcohol with girls) than on the battlefield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the US would'snt leave Vietnam. He tried as much as possible to extend his military leaves in Saigon. He only gradually realised the danger, the advance of the North Vietnamese army and the communist guerrillas.

3) *Anger*

He is angry with his bosses. He considers them traitorous because they have abandoned their troops. They did not supply them while "arms and food were sufficient for Cao Xuân Huy's battalion to last three months" .

They prepare no plans for withdrawal.

But when my two big chiefs who were the colonel, chief of brigade, and the lieutenant colonel, assistant-chief of brigade, at the head of four battalions and subordinate units – that is to say about four thousand people – in a very critical situation, fled without further ado (every man for himself), a feeling of implacable hatred suddenly overwhelmed me.

Currently, throughout the Quảng Trị-Thừa Thiên area, how many small units were doing their duty while their chiefs were cushy in Đà Nẵng or Sài Gòn. Let us staple on the uniform of these chief the medal of bravery with of willow branch (first-class i.e.). In fact, it seems useless to ask because usually these medals were stapled quickly and in large numbers on the chest of guys who had never fought.

Why should we fight until death, whereas so many chiefs had cleared out with their model family (*vợ đẹp con khôn*) and the money earned from petty and dishonest practises. They wouldn't get rid of them, not really ? But then thinking to fight until death did not make any sense. Die to obtain at most a few crocodile tears, a worthless medal, false eulogies, and what else. You bastards !

4) Gritty and brutal realism

War according Cao Xuân Huy as Bảo has no high purpose (neither « Crusade for freedom », nor « Giai phong dân tộc »). It is a very raw description, without mask, (Cao Xuân Huy often use slang : “*Lệnh cái con cặc*” ..., “*cút mẹ*”, “*Đồ chó má*”, “... *làm được cái mẹ gì*”, “... *Đụ mẹ*”). It takes a bestial form. I think Cao Xuân Huy' memoires can also be compared with “*Le Feu: journal d'une escouade*” (Under Fire: The Story of a Squad) by Henri Barbusse (1916). This text was based on Barbusse's experiences as a French soldier on the Western Front during the First World war.

The only person I could recognize was Dũng, a first-class soldier who was both a stretcher and a hairdresser in my squadron. Dũng was sitting leaning back against the boat's partition, his legs extended, his head vertically split in two, divided in two nearly equal halves. Half of the skull had fallen down on the shoulder. His brains and

blood had been thrown onto the boat's rail. I recognized Dững in the name inscribed on a part of his uniform that was not bloody and his hands whose nails were longer than those of a girl.

Conclusion :

Beyond the political opposition (North / South) : the same experience of the war (Cao Xuân Huy and Bảo Ninh).

‘보트피플’의 귀환과 ‘묘지 건설’의 문화정치:
베트남 트어티엔-후에성의 한 어촌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심주형(인천대)

<발표문 추후 배포>

The Contemporary Vietnamese Novel and Its Formal Quests

Đoàn Cẩm Thi
(Institut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Paris)

Vietnam, during the last two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has experienced the golden age of the short-story, tale, story, poem - a genre able to quickly reflect the upheavals of the country. This success was also due to the rise of the print media at the beginning of Renewal, a movement launched in 1986 by the PCV under the influence of Perestroika. Thanks to its flexibility and conciseness, the short-story has indeed found an ideal support in newspapers publishing, which, thanks to a growing public, provided authors with a comfortable income.

Nevertheless a phenomenon is confirmed since the last ten years: the short-story seems to gradually decline in favor of the novel. In the Novel Competition organized every four years by the Writers' Union, there were 176 novels in 2001, 200 in 2005, 247 in 2010, 170 in 2015. The short form does not seem to satisfy the narrative pleasure of authors who have grown up with globalization. The return of genre is not without a strong desire for innovation, closely linked to the conscience - otherwise justified - of the inability of existing novelistic forms to question the new realities.

1. Writing as a literary theme

The contemporary novel often features a fictional writer who speaks about his writing and his inspiration. How to write ? The question is now at the center of numbers of works. From this point of view, *Cơ hội của Chúa* [A chance for God], written in 1999 by Nguyễn Việt Hà, embodies a pioneering approach. A major work on the youth of today who, faced with a material and moral stalemate, takes refuge in exile, money, alcohol or death, *A chance for God* fascinates with the wealth of its subjects - religion and disillusion, love and renunciation of happiness, friendship and vanity. But this novel seduces above all by the plurality of "I", its art lies in the interlocking of the diaries of four heroes and heroines. The reader is thus directly acquainted with the interiority of the characters without having to resort to the narrator. Drawings on three different levels, their portraits are often subtle, sometimes contradictory. For example, the Hoàng character is seen by the all-knowing narrator, then by other protagonists, and finally by himself.

Not only these characters but the facts are seen from different angle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ll-knowing narrator and the diaries, complement each other, confront each other, sometimes contradict each other. By this process, Nguyễn Việt Hà destroys the linearity of time, characteristic of classical works. The subjective gazes allow him to express a heterogeneous, open world, rich in mysteries and uncertainty, as Hoàng says: "The truth is a radical notion. An empty notion, just for some and false for others. Where is the absolute truth?¹⁾ Hoàng is also the character who goes the furthest in writing: he composes literary texts. And this is the only area where he knows no failure, as if the failure of love was essential to artistic success. One can read in the novel two inside short-stories where Hoàng draws with derision and tenderness the portraits of "wise men" like Zhuangzi and Huizi, while developing his reflections on literature and his relation to the world.

Literature is thus constituted by its own speech. In *T mất tích* [T. has disappeared] by Thuận, the narrator of the epilogue presents herself as the author of a novel aptly titled "T. has disappeared", before fantasizing about her heroine T. while refusing to see her:

While the Dragon Air Airbus 330 was flying over the South Sea and then the East Sea between Hong Kong and Saigon, I imagined a young woman sitting in the 40th rank, next to the right window, in a plane that took off at the same time as mine, but from Charles-de-Gaulle. I named it T. T. not to be confused with a flower, a perfume, snow, autumn, intelligence, harmony or any Vietnamese female name. Anyway (...) T. raised her head but to lower it immediately, her face still hidden behind her long black hair.²⁾

2. The body in the age of the internet

Perpetually in search of unknown subjects and new forms, the contemporary novel is also embodied by *Blogger* by Phong Điệp, published in 2008, where the Internet, hitherto confined in a simple role of means of writing or dissemination, has become a true literary matter. Isolated by her provincial background, sidelined by her colleagues, rejected by her fiancé, forced to commit abortion, the heroine of *Blogger* is a young woman who leads a monotonous existence in Hanoi. To deceive her dismay, she navigates on the Internet. Introverted in real life but recognized as a hot blogger, she succeeds in communication when it does not involve a physical presence.

Everything happens as if her success was conditioned by the disappearance of her female body perpetually harmed, victim of poverty, violent sexual acts, abortion, all the way to self-destruction since she ends up committing suicide. The paradox of a Vietnam still marked by Confucianism and communism burst forth in a harsh light, but now put to the test of the Web, which allows a certain form of freedom. *Blogger* shows precisely that the latent schizophrenia in which his characters live originates from this

1) Nguyễn Việt Hà, *Cơ hội của Chúa*, Hanoi : Nhà xuất bản Văn Học, 1999, p.214.

2) This « Prologue » only appears in the French version of this novel. See Thuận, *T. a disparu*, translated into French by Doan Cam Thi (Paris: Editions Riveneuve, coll. « Littérature vietnamienne contemporaine »), 2012, p. 223.

permanent tension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and that, worse, this disorder has no other way out than death. So, do not be surprised that this novel, a place for questions about the digital world and its social impact, takes the form of a blog with entries where the authors' confusion is greatest and whose titles are taken from the internet vocabulary- "Blogger", "Copy and paste", "Chat 1", "Chat 2", "Comment", "Entry". Here is an "entry": the rhythm of the words is abrupt.

Steel horse [Ngựa thép], is written in 2014, by a young novelist, Phan Hồn Nhiên, in which she imagines a world where any limit between countries and continents would disappear. If the characters, whatever their sex, travel incessantly, they remain nonetheless alone in front of their own body which is perpetually hurt, victim of accident, illness, aging. In this novel, women do not want to give birth while men die from an early and brutal death. In Phan Hồn Nhiên, more than a "spirit" or a "soul", the body consciousness gives the human being the feeling of existing. His body is this attachment, this limit, this primordial element of an identity that has become uncertain. While the characters have a rather vague civil status, the author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bodies as organic objects.

Often the "body" is used in *Steel Horse* to designate or even define an individual. "His body is turning to me,"³⁾ says Anna about Bách. "It's a calm body with a faint smell of antiseptic," San says when asked to give the meaning of "father"; "As if the ten years that separated this body and mine did not exist". Moreover, the characters evoke without deviation their own body and that of others. In defiance of the codes of modesty, they say "my body", "your body", "your body", "our bodies". The word "body" (cơ thể) appears one hundred and eighty-one times in the novel. On the other hand, we note the relative absence of terms supposed to determine the intimate self such as "soul" (tâm hồn), "heart" (trái tim), "mind" (tinh thần), "will" (lý trí). Nevertheless, while the characters of *Steel Horse* observe the slightest changes in their bodies, they comment on them with such a distance that one would say a foreign organism: "I go on tiptoe to the window (...) a face (which) appears on the wet pane. A faded, wrinkled face whose icy look can no longer hide the ruin."

In counterpoint to the cascade of human body, Phan Hồn Nhiên draws up an immense gallery of figurative images, composed of paintings, drawings, sculptures, photographs, fragments of film, postcards, posters, exposing the body human, animal, vegetable. This original approach, which consists of integrating visual art images into a literary text, fully contributes to its desire to expand the generic boundaries of body representation. Close-up flowers by Georgia O'Keeffe (1887-1986) is an interesting example. Bách, the main character, admires them in the museum dedicated to the artist's work in Santa Fe - "flowers so sensual that it seemed as if they were breathing and their petals were moving on the very soft surface of the canvas, dreaming of two luminescent bodies in this summer pool "- or on" Anne's printed scarf "- purple and blue O'Keeffe flowers ", " O Keeffe petunias ". We recall that the genius of the American artist was to move away from the classical representation of still life, using a narrow frame allowing her to extract the flower of its utility in order to focus exclusively on its texture, its lines , its shades of hues. Isolated, enlarged, its flowers become mysterious and charged with sensuality so powerful that they cannot but evoke certain sexual organ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nsertion of O'Keeffe's

3) Phan Hồn Nhiên, *Ngựa thép*, Hochiminh : Nhà xuất bản Trẻ, 2014. Quotations are from this edition

works enriches Phan Hồn Nhiên's carnal writing with a new sensitivity.

These images offer another reading of the body, through this aesthetic of contrasts, between the human and the vegetal, the animate and the inanimate, the real and the imaginary, the prosaic and the poetic. It is essential to note that Phan Hồn Nhiên's attachment to O'Keeffe flowers is not due to any of their "symbols". All the novel proves, on the opposite, that for its characters, these flowers refer above all to an ideal of beauty, to art.

3. Writing and exile

Language work is at the heart of contemporary novelistic research. In *Chinatown* (2005) by Thuân, the heroine, a Vietnamese stuck in a metro station in Paris because of a security alert, is carried away by dreams, memories and fantasies, it is less to narrate a thrilling plot than to find an original form to her story. The text here is without chapter or paragraph, and whose block has no other purpose than to restore the flow of consciousness of the character, the novel opens with: "*My watch indicates ten o'clock (...) the subway stops*" and closes on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special police who will examine the abandoned luggage (...) My watch indicates noon.*"⁴) These two hours spent on the motionless rail are enough for the narrator to lead us from one end of the planet to the other, from communist Hanoi to Moscow during Perestroika, passing by Paris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Outcome and ending, so many fundamental criteria of the drama mechanism, are thus neglected in favor of the movement of thought. Likewise, the accelerated pace of sentences juxtaposed without apparent link, reflects the precipitation of the world as it appears in the mental labyrinth:

Vinh goes back to sleep on my shoulder. At twelve, he is as tall as Thuy when he was sixteen. He's having lunch in the canteen. A plate of mashed potatoes. A steak. Two slices of ham. Two pieces of cheese. Yogurt. Ice cream. Cake. Thuy was having lunch at home. Upon his return from school, he cooked for him and his two younger sisters. Two servings of rice, a handful of water cress, six shrimps. Vinh is as tall as Thuy when he was sixteen. Like Thuy, he has short hair. Like Thuy, his eyes are slanted. His comrades call him Chinese. In the street, people call him Chinese. In the Thirteenth arrondissement, they speak Cantonese. At school, Thuy was called Chink.

Do Kh, meanwhile, gloats with words, multiplies his winks and sprinkles his text with references. In *Saigon Samedi* which, written directly in French, features the metropolis of the South, one day in January 1975, 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where rocket fire mixes with the music of the dancefloor, the author evokes Celine - "this story, fortunately happens a lot during night", has fun with Duras and Ho Chi Minh:

4) Thuân, *Chinatown*, Da Nang : Nhà xuất bản Đà Nẵng, 2005. Quotations are from this edition.

The Lover (we are going to call him that in homage to the Lady of Sa Dec), sailed the potholes with the serenity that came with his well-cut mustache. Sign of distinction in a country where the male population is beardless before reaching the revered rank of "Uncle", the man was in civilian clothes, which was another significant status sign in a country where almost the entire population male was in arms.⁵⁾

This humor mixed with casualness is to be interpreted as a desire to lift taboos and beyond, to shake up the categories of poetics and prosaic, the noble and the vulgar. Do Kh. unvarnishes sex by joking with Sartre:

You could have made her turn around during the dance (...) And put your hand directly on her pussy! Give her hell, buddy!

- "That's what I should have done," Hùng sighed.

- But it was not meant for me. "Hell is other people »

We must read in this practice of intertextuality - in the broad sense of the term - that Thuân and Do Kh. use with perfection, the desire to navigate between several languages, between different cultures. From novel to novel, these writers of exile draw the new configuration of the world, as it has bee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ise of China. In *Khmer Bolero*⁶⁾, another novel by Do Kh., two former immigrant lovers in Paris who meet again by chance in Bangkok, leave together towards the east, towards Vietnam, without ever reaching it. Thuân's novels, on the other hand, are wandering books as suggested by their titles - *Chinatown*, *Saigon Elevator*, *T. has disappeared* - where one strolls between Hanoi, Saigon, Paris, Moscow, Beijing, Seoul. Everything happens as if for Thuân and Do Kh, their characters had to leave not only Vietnam, homeland, but also France, the country of adoption. Looking for a new world order? Unlikely because the latter is now off center, and they are aware because their heroes are not nostalgic. In Thuân and Do Kh., the journey is never initiatory.

Thus, for contemporary Vietnamese authors, the quality of the work depends as much on its composition, its sensitivity, its language as its subject. Thus, showing a fertile imagination, Vietnamese writers turned literature into a magic performance. For them, more than a need, a duty, a deliverance or a challenge, literature must be a game. The writing workshop is opened for the first time to the reader. The fundamental questions - individual, society, history, exile or globalization - do not exclude, as we have seen, formal experiments.

5) Do Kh., *Saigon Samedi*, Paris : Riveneuve Editions, 2014. Quotations are from this edition.

6) Do Kh., *Khmer Bolero*, Paris : Riveneuve Editions, 2013.

분과회의 2

동남아 국가의 지역사회 변동: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례

인도네시아 지방분권화와 지역정치: 반뜰(Banten) 사례

이지혁(서울대)

I. 들어가는 말

1998년 수하르토의 장기집권(1966-1998)이 끝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일어났다. 권위적인 군부 중심의 정치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글로벌 개방 경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불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권력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폭넓은 지방분권화가 일어났다.

인도네시아는 단일체제 국가이지만 지방 말단 정부에까지 상당한 정도의 자치를 허용한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앙정부로부터 주(province)정부, 까부빠뎀(district)과 꼬따(municipalities), 꼬짜마뎀(subdistricts), 그리고 마을 단위인 끝루라한/테사(village)까지 다섯 개 층위의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지방분권화의 한 특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주정부로 이전하는 것을 건너뛰고 그 하위의 지방정부에 이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그 규모와 정도를 고려할 때 오랜 준비와 전환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규정 Law No. 22/1999와 No. 25에 의거하여 짧은 시간에 상당부분의 정치적 권한과 예산을 까부빠뎀(district)과 꼬따(municipalities)에 이양했다. 또한 Law No. 32/2004에 따라 지자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Pilkada)를 도입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보건, 교육, 공공 작업, 환경, 통신, 운송, 농업, 제조업, 무역, 자본 투자, 토지, 조합, 노동력, 인프라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개도국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 사회경제적 혼란, 군부의 쿠데타 등이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방분권이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관할지역에서의 공익 증진, 생산성 향상, 고용 증진, 경제 성장 등이 목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지방분권화는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의 취약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오랜 시간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에 놓여 있던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주위진 권한과 재정을 담당하기에는 공무원의 역량도 경험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자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룩하려는 정치문화적 토양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부패의 문제를 지방으로 이전 및 확산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본 글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뜰(Banten)주의 가문정치는 위에서 기술한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측면과 잘 어우러져 인도네시아 지역정치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2016년 기준 반뜰주는 인도네시아 전체 주(33개 주 평가)의 종합 경쟁력(Overall Competitiveness) 평가에서 11위를 차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인구 당 의료 종사자 수, 학생과 교사 비율, 국제공항 등으로 인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 삶의 질 및 인프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방정부의 부패 및 거버넌스, 실업률, 산업 전반의 생산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반뜰 지역의 유력가가 자신이 소유한 재력과 폭력을 동원하여 지역정치의 사유화를 시도하였고 실제적으로 반뜰 주지사부터 주의회 의원, 상공회의소, 기타 지역의 주요단체장까지, 주요 요직에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휘하의 부하들을 배치시키기도 했다. 사유화된 정치를 통해 국가에서 발주한 대형 인프라 사업의 수주를 독점하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도 폭력과 겁박에서 빠르게 민주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기민함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반뜰주의 지역정치를 짜산 소첩(Tugagus Chasan Sochib) 가문을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정치가문이 해당 지역에서 정치를 사유화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화와 자자체장 직선제 선거가 이 가문의 정치 유형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반뜰의 정치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조사하고자 한다. 반뜰의 사례는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정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인도네시아 지방분권의 역사

동남아 역사학자인 리드(Anthony Reid)(2011: 208-212)는 영토가 매우 넓고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만이 독립과정에서 연방제를 거부하고 단일체제(unitary system)를 선호한 특별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20세기 중반 독립된 아시아국가 중에서, 혁명(revolution)을 통해 독립을 성취한 국가들이 단계적 발전(evolution)을 통해 독립을 성취한 국가들보다 더 단일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지역에 흩뿌려진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라는 지리적 특성, 한 번도 군도 전체가 단일한 정치 체제에 의해 통치된 적이 없는 역사적 경험, 지역 혹은 종족의 엘리트들을 앞세워 식민 지배를 실시했던 네덜란드 식민 통치구조 등을 감안하면 단일체제보다는 연방제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할 수 있었다. 식민 통치 동안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귀족들은 연방제가 독립된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30년-40년대 보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졌던 민족주의자들은 중앙집권화 된 정부를 추구하였다. 이들은 토착적인 다양성의 유산을 유지하는 것을 시대착오적이고 봉건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리통치(divide and rule)를 위한 식민 지배의 또 다른 속임수로 간주했다. 특히 수카르노(Sukarno)와 하타(Hatta)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은 연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민족주의 운동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무슬림 운동도 종족으로 구분된 단위보다는 이슬람 공동체 건설에 더 관심이 있었다.

1945년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헌법, 정치 체제, 경제 구조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수하르토(Suharto)의 32년 통치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러한 변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기실 독립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제정되었던 법률에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업무 분담, 자자체장의 역할과 위치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법률이 실행되지는 못했다. 한편 수하르토의 집권이 공고했던 시기에 지방분권은 국민통합에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지방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1974년에 제정된 법률(UU 05/1974 Tentang Pokok-Pokok Pemerintahan Di Daerah)은 수하르토 정권이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이 법률 1조 (e)항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지방정

부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단일정부체제의 온전함에 위협을 초래하는 생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하르토 정권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중앙집권화 된 정부가 자국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수하르토 행정부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devolution of power)하기보다는 분산(deconcentration)을 시도했다. 중앙이 직접 통제하는 기구를 지방에 세우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분산하였다(Sutiyo and Maharjan 2017).

1990년대 후반 동남아에서 발원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32년 수하르토 철권통치의 종지부를 찍고 인도네시아 정치에 민주화를 가져다주었다. 1999년에 제정된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UU 22/1999 Tentang Pemerintahan Daerah)은 중앙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고 중앙집권화 된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된 정부로의 변화를 명시하였다. 2001년에 이 법률이 실행되면서 인도네시아 지방분권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이전받을 지방정부가 주(propinsi) 정부가 아니라 그 하위 행정단위인 까부빠덴과 꼬따리는 것이다. 수띠요(Sytiyo)와 마하르잔(Maharjan)(2017: 29)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주정부로 이전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한다. 첫째, 주 정부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사실상 연방제와 유사한 구조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단일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인도네시아의 역사에서 대부분 주는 반역과 분리주의의 중심에 있었다. 셋째, 까부빠덴과 꼬따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부터 자치적 행정단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마지막으로 더 하위의 행정구역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적합하지가 않다.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화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UU 22/1999 tentang Pemerintahan Daerah’을 두 차례(2004년과 2014년) 개정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장 적합한 지방분권화의 모델을 찾고 있다. 2007년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지방분권화가 많이 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World Bank 2007).

Ⅲ. 반뜰의 지역적 특징

1) 역사적 특징

반뜰은 2001년 서부자바주에서 독립된 주로 분리되었는데, 반뜰의 독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뜰과 서부자바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뜰 술탄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 반뜰주는 서부자바의 빠꾸안 빠자자란(Pakuan Pajajaran)이라고 불리는 왕국의 일부에 속해 있었다. 빠꾸안 빠자자란은 현재의 보고르 지역에 수도를 둔 순다 왕국으로서 669년 따루스바와(Tarusbawa)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1550년에 반뜰 왕국의 술탄인 하사누딘(Hasanudin)과 그의 아들이었던 마우라나 유습(Maulana Yusuf) 왕자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여 1579년 멸망하였다. 1527년부터 1813년까지 지속된 반뜰의 술탄왕국은 찌르본(Cirebon)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수난 구농자띠(Sunan Gunung Jati)에 의해 세워졌다. 이집트에서 태어나 중동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울라마(Ulama)인 구농자띠는 지금의 반뜰 지역에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해 드막(Demak) 왕국 술탄-프렝가나(Trenggana)-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반뜰을 정복하고 나서, 프렝가나의 승인 하에 군대를 지휘했던

자신의 아들 하사누딘(Hasanudin)을 왕으로 세웠다.

구농자씨의 통치권을 이어받은 하사누딘은 드막 왕국의 술탄 딸과 결혼을 하면서 드막 왕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드막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프렝가나가 1546년 사망하고, 왕국이 혼란에 빠지자 반뜰을 독립시키고 자신이 술탄이 되었다. 하사누딘의 아들인 마우라나 유습(Maulana Yusuf)이 아버지를 이어 반뜰의 술탄이 되고나서, 당시 서부자바의 힌두 왕국이었던 빠자자란(Pajajaran)을 멸망시키고 서부자바 전체를 반뜰 술탄국 아래 복속시켰고 수마트라 지역의 람뽕과 붕끌루까지 반뜰 술탄국의 영향아래에 두었다.

상업의 시대와 대항해 시대 때 세계 각국에서 온 상인들이 왕래하는 교역소가 들어서고 동남아 및 동북아의 향신료, 비단, 도자기, 보석 등이 거래되었던 반뜰 술탄국은 교역을 관리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 16세기 말에 자바에 등장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이하 VOC) 세력은 자신들보다 먼저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포르투갈 세력을 물리치면서 1610년에 반뜰에 교역소를 설치했다. 네덜란드의 얀 피터르스존 쿤(Jan Pieterszoon Coen) 총독이 후추 무역 전체를 장악하려고 할 때 반뜰의 술탄이 이에 반대하자, 쿤 총독은 1618년에 VOC의 본부를 이웃한 자카르타로 옮기고 그곳에 요새를 건축하게 된다. 쿤 총독이 말루꾸(Maluku)로 출타한 사이에 반뜰의 술탄은 자카르타를 점령하고 요새를 포위하였지만, 말루꾸에서 돌아온 쿤 총독은 다시 자카르타를 회복하고 그곳에 바따비아(Batavia)라는 도시를 건설했다. 쿤 총독은 반뜰 술탄에게 반뜰의 주요 도시를 VOC의 통제권 아래에 둘 것을 강요하고 과거 반뜰으로 향했던 무역을 모두 바따비아로 집중시킴으로써 반뜰이 누렸던 경제적 이권을 축소시켰다. 술탄 아궁(Ageng)은 이러한 흐름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VOC의 막강한 힘에 저항할 수 없었고 순차적으로 중요 거점을 VOC에 내어주다가 중국에는 VOC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1808년 네덜란드 정부는 VOC가 가지고 있었던 통제권을 인계하고 반뜰의 내륙부는 술탄의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해안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후 1813년 영국에서 파견된 부총독 스텐포드 래플즈가 통치할 당시에 반뜰 술탄국은 사라지고, 이후 영국의 짧은 통치가 끝나고 네덜란드 제국의 직접 지배에 놓이게 된다.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반뜰은 서부자바주에 흡수되었지만 분리하려는 정서가 강하였고 결국 2001년 반뜰주로 분리되었다. 반뜰 주민들이 서부 자바주에서 분리하기를 원했던 이유로는 서부자바에서 독립하여 반뜰 술탄국을 세운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 때 반뜰의 시장 및 군수가 반동 출신의 군인들로서, 이들이 현지주민들에게는 외부인으로 간주되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뜰의 지방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을 대표하기 보다는 중앙정치와 군인들과의 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따라서 지역정치인과 주민들 간의 단절이 있었다(Rudnyckij 2010).

2) 사회문화적 특징

자바의 다른 지역에 비해 반뜰은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 16세기~17세기 동안 반뜰은 강력한 무슬림 술탄 국가였고 절충적인 성격이 강한 자바왕조에 종속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이슬람 신앙의 실천이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컨대 19세기 때 자바에서 하지(이슬람 성지순례)를 다녀온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반뜰이다. 오늘날까지 반뜰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아체(Aceh) 다음으로 신앙심이 강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반뜰주의 무슬림은 94.6%를 차지한다.

반뜰은 200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력자 가문에 의한 비공식적 정치가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편이다. 수하르토의 신질서(New Order) 시기동안 종족에 따라 지배 및 피지배 계층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는데, 대부분 순다족이 행정 및 군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뜰의 인구구성은 주로 북부 지역은 자바족 남부 지역은 순다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 선관위는 아체와 빠뿌아와 함께 반뜰을 문벌, 족벌 정치에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뜰에는 비공식적인 정치지도자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학자인 울라마(Ulamam)와 지역의 실력자인 자와라(Jawara)이다. 반뜰에서 자와라는 인도네시아의 전통무술인 실랏(silat)을 연마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이슬람 신앙과 올바른 삶을 매우 강조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치안 담당과 범죄자 영역의 중간에 위치한다. 수하르토 시대 동안 현지 주민들에게 마치 깡패조직처럼 인식되기도 했는데 이 조직원들은 군인 및 경찰과 함께 당시 여당이었던 골카르당(Golkar)의 선거에 동원되었다. 본 연구가 중점으로 살펴볼 인물로 자와라 조직을 잘 이용하여 로컬정치의 실세가 된 짜산 소첩(H.Tb. Chasan Sochib)이 있다. 그는 정치 지도자와 군부와의 결탁, 자와라 조직 동원을 통해 강력한 막후 정치 세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전직 주지사), 손자(현 부주지사)를 포함한 가족이 정치에 입문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IV. 반뜰의 지역의 가문정치

2017년 전국 동시에 치러진 지방자치선거에서 와히딘 할림(Wahidin Halim)-안디카 하즈루미(Andika Hazrumy) 후보가 각각 반뜰주의 주지사 및 부주지사로 당선되었다. 와히딘은 2003년부터 10년 동안 땅그랑(Tangerang) 시장을 역임했었고, 안디카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반뜰 주지사를 역임했던 라뚜 아뚜 초시아(Ratu Atut Chosiyah)의 아들이다. 짜산 소첩과 본처 사이에서 만물로 태어난 라뚜 아뚜 초시아를 정점으로 반뜰 지역정치의 주요 보직에 그녀의 친인척이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다.

1930년에 세랑(Serang)에서 태어난 짜산 소첩은 이슬람 기숙학교인 뽀산뜨렌(pesantren)에 다니던 중 혁명이 일어나자 게릴라전에 참가하게 된다. 혁명이 끝나고 나서는 람뽕(Lampung)과 반뜰 지역에 쌀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자신의 조직과 군대와의 연줄을 이용하여 1967년에는 서부자바주에 주둔해 있던 실리왕이(Siliwangi) 군부대의 물류 공급업자로 선정되게 된다. 2년 후에는 건설회사인 PT. Cinar Ciomas Raya를 설립하고 국가에서 발주한 거대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세랑에 있는 거대한 전통시장인 빠사르 라우(Pasar Rau)을 건설하였고, 뽀카시(Bekasia)와 까라왕(Karawang)을 잇는 도로를 놓았으며, 동남아 최대 제철소인 크라카따우 스틸(Kerakatau Steel) 건설에도 참여하였다.

반뜰의 지역 정치는 짜산 소첩의 왕조라고 불릴 정도로 한 개의 가문이 반뜰의 주지사부터 시장, 지역 의회, 상공회의소 등 정재계를 장악하였다. 짜산 소첩은 반뜰이 독립된 주로 탄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지방분권화가 실시되고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소첩은 자와라로 구성된 조직(Bandekar

Banten)을 동원하여 가족과 측근을 주지사부터, 시장, 지역의회 의원 등 지방정부의 주요 요직에 당선시켰고, 스스로 반뜰지구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 KIDIN) 및 인도네시아 건설협회(Gabungan Pelaksana KOnstruksi Nasional Indonesia, GAPENSI) 회장직을 맡아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였다(Hamid 2014). 직접선거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기 전에는 조직을 통한 폭력과 겁박으로 지역 정치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2004년에 직접선거로 변경되고 나서는 미디어를 장악하여 자신의 업적과 지도력을 홍보하여 주민의 환심을 사는 데 주력하였다. 2004년 이후 자와라 조직의 명칭(Jawara Pendekar Banten)을 자원봉사단체 이름(Relawan Banten Bersatu)으로 변경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자신의 딸 주지사 선거캠페인에 이용하였다. 이처럼 한 가문이 지역정치를 장악함으로써 반뜰 지역에 심각한 부정부패가 발생하였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짜산 소접과 그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주하였고, 대가를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에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반뜰주에 할당된 증여 및 원조 자금(Dana Hibah dan Bantuan)을 착복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해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지만 조직화된 자와라 회원들의 폭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다(Hidayat 2007).

V. 나오는 말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와 함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민주화, 그리고 이어진 지방분권화는 반뜰이라는 주라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방분권과 새로운 주로 독립한 반뜰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아직 지방분권과 직접선거가 온전히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토양이다. 반뜰은 수도인 자카르타와의 근접성, 수마트라와 자바섬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징, 국제공항 및 항구 보유, 높은 최저임금 등 다른 주에 비해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의 거버넌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잠재력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평등,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지역 엘리트, 사회활동가,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은 치열한 권력과 이권 다툼에만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시켰다. 신앙심 강조, 신체단련(무술), 생활신조, 폭력이 혼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와라 조직은 정치에 동원되어 반뜰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형성했고, 자신들이 세운 기업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독과점 하였다. 이러한 양태의 정점은 짜산 소접을 중심으로 하는 가문정치가 있다. 수하르토 집권 동안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골카르당(Golkar)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폭력을 동원하여 지역의회에 힘을 행사하였고, 민주화가 되고 지자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 되고나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선거운동에 조직을 동원하여 지방의회부터 주지사까지 자신의 친인척을 당선시키는 기만함을 보였다. 반뜰의 가문정치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한 종교적 성향과 더불어 이슬람 지도자들이 비공식 정치가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특한 지역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Bjork, Christopher. 2003. "Local Responses to Decentralization Policy in Indonesi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 47(2): 184-216.
- Ensering, Else. 1995. "Banten in Times of Revolution." In: Archipel, volume 50. Banten. Histoire d'une région.
- Facal Gabriel. 2014. "Hyper-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and Fragmentation of Local Authority networks in Banten(Indonesia)." Working Paper, No. 10.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 Gin, Ooi Keat(ed.). 2004. *Southeast Asia: A Historical Encyclopedia, from Angkor Wat to East Timor*. California: ABC CLIO.
- Hamid, Abdul. 2013. "Nationalism, Islam, and Political Influence. The Ethics of the Enterprises in Banten(Indonesia)." *Social Science Research on Southeast Asia*, 21: 51-63.
- Hidaya, Syarif. 2007. "Shadow State, Business and Politics in the Province of Banten. In Henk Shulte Nordholt and Gerry Van Klinken (Eds.) *Renegotiating Boundaries, Local Politics in Indonesia* Leiden: KITLV Press.
- Hamid, Abdul and Facal Gabriel. 2014. "A Family Matter: Political Corruption in Banten, Indonesia." *Asian Politics & Policy*, Vol6(4): 577-593.
- Masaaki, Okamoto and Hamid, Abdul. 2008. "Jawara in Power, 1999-2007." *Indonesia*, 86: 109-138.
- Kamaruddin, Saepudin. 2017. "Jawara and Local Election (Case Study of The Jawara Role of Tjimande Tari Kolot Kebon Djeruk Hilir to Win Wahidin Halim-Andika Hazrumy in the 2017 Banten Gubernatorial Election)"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Vol 126: 121-129.
- Reid, Anthony. 2011. *To Nation by Revolution: Indonesia in the 29th Century*. Singapore: NUS Press.
- Rudnyckyj Daromir. 2010. *Spiritual Economies: Islam, Globalization, and the Afterlife of Development*.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utiyo and Maharjan, Keshav Lall. 2017. *Decentralization and Rural Development in Indonesia*. Singapore: Springer.

베트남 북부의 한국기업과 로컬의 상호작용: 베트남 박닌(Bac Ninh) 사례

육수현(서울대)

1. 들어가며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은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베트남의 경제는 2000년대까지 10%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2007년 WTO가입을 기점으로 베트남은 다시 한 번 경제적 도약을 이룩하였고, 2010년까지 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최근까지도 6%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FDI기업의 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2018년 베트남 경제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6.5~6.7%)를 뛰어넘어 7.08%의 성장률 달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 이래 최고 경제성장률이다. 특히 전자제품과 '전화기 및 그 부품'의 수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화기·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32%를, 섬유 및 의류·신발류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19%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부의 성장은 베트남의 지역 불균등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개혁개방 이후 남부로 집중되었던 FDI를 분산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의해 전략적으로 북부지역 특히 하노이와 하노이를 둘러싼 수도권의 발전계획이 실행중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삼성, LG 등의 대기업의 투자가 박닌성, 하이퐁시로 진행되면서 북부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계획적인 하노이시 발전 계획과 주변 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은 북부를 변화하게 만들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북부지역의 변화와 한국기업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2010년 이전까지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빈즈엉 동나이로 FDI가 몰리면서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왔고, 2010년 이후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베트남 북부지역으로 한국기업의 FDI가 집중되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등 한국기업의 진출 지역이 북부와 남부로 고르게 분포되는 중이다. 특히 박닌성은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면서 전에 없는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넘쳐나는 자본과 사람(지역민, 외국인, 이주민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에 따른 지역민을 위한 사회적 환원정책,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및 확대가 가져온 소비문화 변화, 지역산업 생성 등도 나타나면서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과정에서 넘치는 자본과 사람으로 인해 박닌성 정부와 주민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변화의 객체로서가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며 다양한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다양한 요인들이 도시의 경관과 FDI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베트남 비균등발전과 북부지역의 발전 계획

개혁개방은 베트남의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지만, 북부와 남부의 비균등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프로젝트수와 투자금액 면에서도 북부지역(3,197개, 50,719백만 달러)보다 남부지역(7,347개, 95,980백만 달러)이 월등히 많으며, 프로젝트 수는 약 3배, 투자금액은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투자의 59.7%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몰렸는데, 이는 남부 지역이 산업 인프라, 물류시설, 비즈니스 환경 등에서 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였기 때문이다(Kotra 베트남 투자 실무 가이드 2009: 20).

이러한 개발의 양상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제적 차등을 가져왔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호치민시의 1인당 GDP가 2016년 기준 약 5,428달러로 하노이 평균인 3,836달러와 베트남 평균 GDP 2,215달러보다 높다. 경제성장률 역시 호치민이 9.85%로 베트남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6.21%보다 높다.

베트남 정부는 수도인 하노이와 수도권 개발을 위해 2008년 2030 개발계획(Great Hanoi 2030)을 수립해 천년고도이자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¹⁾ 도시 규모를 기존의 거의 4배 이상 확장하고, 반경 100-150km 내의 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개념의 발전계획을 실행하는 등 북부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의 대 중국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북부의 발전에 박차가 가해졌다. 2013년부터 제안된 중국의 일대일로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동남아국가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과는 남중국해 분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국제인프라망 건설이 각 국가별로 추진되고,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동남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의 경우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을 3곳으로 확장하는 교통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유치 및 확대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시장 확대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신규투자부문 중국이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으며, 북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3. 박닌성의 발전과 한국기업의 상호작용

1) 지정학적 · 경제적 요인 속의 박닌 : 경제적 요충지,

베트남 북부의 발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박닌이다. 2016년 기준 누적 한국기업의 수가 4,224개(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중 북부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는 2,471개 사이며, 그 중 제조분야 투자는 1,377개 사이고 투자금액은 182억불, 북부 전체 한국 투자의 약 75%를 차지한다. 제조업 분야 중 주요 투자부분은 첫 번째는 전기 · 전자(311개사, 113.1억 불), 두 번째는 섬유 · 봉제(210개사, 8.5억

1) 하노이시는 경계를 확장하는 국회 의결(Resolution No. 15/2008/QH12, Adjusting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Hanoi City and Related Provinces, 2008.5.29.)에 따라 면적이 921km²에서 3,344km²(서울 605km²의 약 5.7배)로 확장되었다.

불)이다.

‘88년~’18년 6월(6월 20일) 누계(신규, 증액) 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5.6%(96.3억 달러)를 차지하며, 이어 하노이(10.1%), 하이퐁(9.8%), 동나이(9.2%), 타이응우웬(8.3%), 호치민(7.8%) 순이다(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FDI 및 한국 투자 동향 2018).

박닌성이 이러한 진출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박닌성과 타이응웬성에 자리를 잡은 삼성이다. 2008년 이후 삼성이 박닌성에 제1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시키면서 베트남 내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던 박닌성은 베트남 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재설립 된 1997년 이후 지난 20년간 경제성장률을 약 15%를 유지하였고, 2017년 19.1%라는 놀라운 기록을 갱신하였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 (1831년) 행정 경계가 현재 박닌성과 막장 전 지역, 하노이의 일부와 현재 빈푹까지 포함하였고, 초기의 박닌성은 현재보다 더 넓었으나, 현재 박닌성의 면적은 베트남 내에서 가장 작다.

박닌은 하노이의 옛 이름인 탕롱 고도의 관문이었고 베트남과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북쪽 국경관문으로 가는 국도가 있었기 때문에 박닌의 군사적 위치가 아주 중요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1888년 봄에 프랑스는 박닌성을 공격하고 베트남 지배 계획을 급히 완성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던만큼 하노이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제1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어, 하노이에서 박닌까지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월 26일에 성 중심으로서 박닌 소도시가 박닌시로 바뀌고, 2014년 제3급 도시에서 제2급 도시로 격상되었다. 일인당 평균 소득은 6,000 USD으로 전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며, 2022년에 5개 구·1개 마을·2개 군을 거느리고 중앙 직할시로 상승할 계획이다.

2) 한국기업과 로컬의 상호작용

박닌성은 전통 수공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종이, 목공, 철강, 도자기 등의 수공직업마을이 존재했었다. 중국과 하노이를 잇는 지리적 교통 요충지로서, 노이바이 국제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 중국으로 통하는 도로, 하이퐁과 하노이를 잇는 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16곳의 집중 산업단지 중 10곳 이상에서 다국적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박닌성의 인구는 120만 명(박닌성 공식 홈페이지에는 150만 명으로 기재)이 조금 넘으며, 자빈현과 르엉따이현만이 10만을 넘지 않고, 다른 지역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인구증가는 2003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왔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의 변화에서도 드라마틱한 인구가동라기보다 주변 지역에서의 이주노동자가 흡수되는 등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까지 헤아렸을 때 박닌성에 있는 1,200여개 외국투자기업 중 한국기업이 787개사(65%)이며, 이 중 618개사(80%)가 전자전기업체이며, 인구 122만명 가운데 70만 명이상이 근로자라라는 통계도 존재한다. 2017년 기준으로 박닌성에서 한국은 프로젝트 수 141건, 투자된 프로젝트 금액 3,193.5백만달러, 투자 예정인 금액 3,128.5백만 달러로 1위 투자국이다.

2008년 진출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와 함께 1, 2, 3차 벤더가 함께 진출하였고, 약 300여개의 기업이 박닌성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자제품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는 것이다.

박닌지역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자제품생산 클러스터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산 가치사슬(product value chain)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이 크다. 산업클러스터는 구매자-공급자 관계에

의해 연계된 산업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구매자를 찾는 공급자가 몰리게 된 것이다.

① 도시의 발달

외국기업의 투자, 특히 한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박닌시의 경관이 달라졌다. 박닌시의 중심에 있는 시계탑을 기준으로 왼편으로는 레타이또(Le Thai To)거리, 오른편으로는 리타이또(Ly Thai To)거리를 통해 그 발전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박닌성의 경제발전은 박닌시의 빠른 승격을 가능하게 하였고, 2014년 2급 도시, 2017년 1급 도시로 격상되었고, 2022년에 다낭, 하이퐁과 같이 직할시로 변화할 예정이다.

시계탐을 기준으로 들어선 호텔,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식당 등은 대다수 2010년 이전에는 논밭이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한국인들이 몰려들면서 2014년에 개발된 신도심 구역이었다. 이 지역의 경우 박닌성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종이와 철강산업의 주역들이 투자를 하였고, 큰 부동산 금액 상승의 효과로 많은 더욱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대형마트, 영화관, 병원 등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도시의 외형이 바뀌고 있다.

②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한인 사회

박닌시의 변화속에서 하나의 산업분야로 자리 잡은 것이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인을 위한 숙소,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은 박닌시의 중심부에 들어서 있는 한인거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인이 박닌시로 쏟아지면서, 이 거리에 대형 호텔이 필요했다. 당시 유일한 호텔이었던 박닌호텔은 초기에 방이 부족할 정도였으며, 그 뒤를 이어 2016년까지 리타이포와 레타이포 거리에 호텔이 추가적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 거리와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식당이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약 2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가라오케, 치킨집, 목욕탕, 마사지샵 등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임대업도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방 하나를 6개월 동안 임대하는 비용이 한참 호황이었을때만 하더라도 70만원이었다고 한다. 풀옵션에 방 2개는 90만원, 3개는 120만원이었다. 많은 베트남 로컬사람들은 집을 개조하고, 아파트를 사는 등 임대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유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기업이 박닌으로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식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이자, 쉽게 직원의 숙소와 본인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손쉽게 이 지역을 주목하게 만든다.

③ 로컬의 시선 : 투자자이자 소비자인 한국기업과 한국인

한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박닌으로 몰려드는 베트남 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위한 인

프라 구축은 박닌성의 큰 관심거리이다. 옌퐁, 께보, 뜨썬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거주 시설인 풍쯔(phong tro)임대업이 성황을 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시장, 식당, 가라오케, 당구장 등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추세다. 새롭게 또는 기존의 시내권이 더욱 확장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노동자의 주거시설만 하더라도, 민간이 운영하는 주거공간이 같은 가격대라면 섬유·봉제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격대가 50-100만동까지 다양하다. 게다가 박닌성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의 원활한 인력활용을 위해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개인 임대업을 독려하는 등 노동자를 위한 주거시설산업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공단지역 주변엔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새롭게 짓거나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VSIP공단 근처 Phong Tro	Yen Phong공단 근처 Phong Tro	Que Vo공단 근처 Phong Tro
		
Yen Phong 공단 주변	Yen Phong 공단 주변	Yen Phong공단 근처 Phong Tro
		

시민의 원룸 형태에 대해서 박닌성 산업단지 관리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전 지역에서 원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이 약 6,400가구가 되며 원룸 방 약 25,00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면적이 15~20㎡(약 6평)이다. 이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거주 주택 소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1인당 면적이 4~5㎡(약 1.5평)이며 주로 옌퐁, 께보, 뜨썬, 띠엔 주 지역에 위치한다.

④ 새로운 소비주체

한국기업과 한국인은 투자자이자 고용자로서 박닌의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노동수익과 부수적인 임대수익을 동시에 창출 할 수 있는 매개체로 보여지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공단지원에서 영업하고

2) 옌퐁현에서 원룸 임대업 가정이 약 838가구, 원룸 방의 수가 6,216개, 면적이 약 87,000㎡이다. 께보현에서 원룸 임대업 가정이 약 1,693가구, 원룸 방의 수가 4,332개, 면적이 약 62,994㎡이며, 뜨썬 소도시에서 원룸 임대업 가정이 약 573가구, 원룸 방의 수가 2,578개, 면적이 약 43,826㎡이다.

있는 헤어샵, 옷가게, 핸드폰가게, 식당, 가라오케, 마사지샵과 같은 서비스산업은 박닌시외에도 커다란 소비지역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박닌시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한 박닌성의 사회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인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한국인의 소비축진을 연구중이다. 한국인 소비의 중심인 먹고, 즐기기 위한 위락시설을 늘리기 위한 제도 마련과 자영업 육성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박닌에서 한국기업과 한국인은 투자자임과 동시에 소비자로서 보여지고 있다.

4. 나가면서

박닌성은 63개의 성 중 가장 작은 성이다. 수도 탕롱에 인접해 중국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근현대로 오면서 성의 규모가 줄어들고 등 별다른 특징이나 역할이 부재한 곳이였다. 그런 박닌성은 현재 베트남 내 가장 높은 GDP와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주목받는 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역이 변화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기업이다. 삼성이 2008년 이후 박닌성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박닌성의 변화는 베트남은 물론이고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집적지가 되었다. 한번에 1만 500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그 기업과 협업해야 하는 다른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박닌성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로컬사회 역시 한국기업, 한국인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바라보면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바지 하고 있다. 부동산, 아파트 건축, 식당, 마켓, 호텔, 골프장 등 소비산업 형성 등 한국인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개발되고 발달하고 있다. 저녁 시간대의 한국인을 하노이에 뺏기지 않기 위해 술집, 가라오케, 카지노 등 유흥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등 철저하게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소비자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기업이 다수 몰려 있고, 구매자와 공급자가 함께 공생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이루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주재원, 현지직원 등의 고용조건차이에서 오는 이주생활특징(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이주 또는 나홀로 이주, 하노이 거주 또는 박닌 거주, 단독주거 또는 기숙사 등)에 따라 지역의 유흥문화를 발달하게도 했다. 이러한 유흥문화는 한국인을 위한 소비산업이 남성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실제로 박닌시의 한국인 거리엔 남성을 위한 옷가게, 잡화점 등이 눈에 띄며, 호텔, 노래방, 술집, 마사지샵 등도 쉽게 볼 수 있다. 주말 거리를 누비는 대다수의 한국인이 남성이라는 점은 로컬사회로 하여금 한국 남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금의 박닌성의 발전은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분업과 더 많은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세계를 무대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이 활기를 띠고 새로운 산업분야가 생겨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그런데 도시의 발전에 의해 도시의 산업이 젠더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인건비와 임대비 등 경제적 요인만으로서 FDI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마켓, 끼니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식당, 퇴근 후 여가를 위한 노래방, 술집 등과 같은 외투기업과 함께 이주하는 사람을 위한 문화적 환경요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환경이 지나치게 드러남에 따라 산업이 젠더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박닌과 관련한 르포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실제로 이후 박닌에선 사람들의 이동이 적고, 새롭게 진출을 계획하는 투자자도 줄고 있다. 이처럼 로컬과 한국기업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산업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나날이 더욱 긴밀해져가고 있다. 한국은 분명 베트남과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베트남을 바라보며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의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박닌 이외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베트남엔 아직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연구와 같이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관찰하고 공유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제안하는 실천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하노이 무역관, 2018, 베트남 FDI 및 한국 투자 동향.

Kotra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 2009

새로운 규제환경, 초국적 민간 규제 이해하기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VIP진출기업현지화지원사업단” 공동연구원)
명재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 베트남 정치경제 전공)

대다수 글로벌 브랜드들은 명단공개 캠페인의 표적이다. 가령, 네슬레는 팜유를 구매함으로써 산림을 파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나이키는 개발도상국 노동착취로 비판을 받았다. 명단공개 캠페인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전성기를 맞이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은 기묘한 균형이다. 한 쪽에서는 1990년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여전히 통상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 편의 우화였다면 응당 있었을 카타르시스가 없다. 기묘한 균형은 갈등의 복잡성을 암시한다. 어쩌면 갈등의 극적 해소 같은 것은 없을 수도 있다.

이 글은 '기묘한 균형'의 핵심인 초국적 민간 규제를 다룬다. 의류산업의 노동규제와 팜유 지속가능성 인증제를 사례로, 초국적 민간의 배경과 연원,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들, 앞으로의 전망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결론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초국적 민간의 배경은 생산 세계화다. 기존의 생산체계는 한 국가 내부에서 수직계열로 구축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공정단위로 분할되어 소유구조 외부 기업들로 전세계에 걸쳐 재배치된다. 생산체계가 몇 개의 국경을 넘어서자 거버넌스 결핍 현상이 분명해진다. 선진국의 식품과 의류 소비가 개발도상국 생산현장 환경파괴와 노동착취로 연결되는 것이다.

국제비정부기구들이 적정 거버넌스 공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전투주의적 비정부기구는 명단공개 캠페인을 강화한다. 이에 이해당사자들이 새로운 형식의 규제에 합의하면서 초국적 민간 규제가 형성된다. 규제 입안과 개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규제 집행은 민간 전문가 조사와 구매자의 구매력에 의존한다. 규제 목표는 세계화된 생산과정의 부정적 외부성 감축이다. 따라서 초국적 민간 규제는, 국가가 영토 내에서 법률과 행정권으로 집행하는 전통적 규제와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가 표준화를 통한 거래비용 감축을 목표로 입안하는 산업자율규제와도 다르다.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초국적 민간 규제에 관한 이해방식은 계속 갱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기된 관점은 대체로 네 가지다. 관념론, 시장론, 정치론, 현지론이 그것이다.

관념론은 초국적 민간의 미래를 낙관한다. 탈냉전기 지구시민사회 활력 증가는 규범적 압력을 형성한다. 생산자 측에서는 '적절성의 논리'를 전면화하고, 소비자 측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전파한다. 따라서 교역망의 시장거래만으로 최적관행이 확산될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매우 더디다. 기업들의 자발적 규제 입안은 일종의 선제대응이었다. 의도는 뻔하다. 환경, 노동 의제가 다자무역협정 등 구속력있는 규제에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소비자 측에서도 윤리적 소비의 증거는 희박하다. 인증팜유를 비롯한 친환경 농산품의 실망스러운 수요, 더

싸게 더 많이 더 빨리 소비하는 패스트 패션 트렌드 등이 이의 방증이다.

시장론은 평판 공격에 직면한 기업들이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본래 자산으로서 평판은 공공재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따라서 평판 개선은 고전적인 집단행동 문제를 함축한다. 해결방법은 인증제다. 인증제는 평판 개선 이득을 클럽재로 변환한다. 클럽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적인 바 회원들만 향유한다. 평판 공격이 계속되는 한 기업들은 인증제 가입에 유인을 갖게 된다. 자발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반 초국적 민간 규제의 확산을 전망하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시장론의 주장과 어긋나있다. 시장론은 지구시민사회에 자경단 역할만을 부여한다. 끊임없이 기업의 평판을 공격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일부 국제비정부기구는 전문주의 노선을 추종하기도 했다. 심지어 작금에는 전투주의 노선만을 추종하는 비정부기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평판 공격이 기업들의 집단행동을 건인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브랜드가 거명되기 전에는 상황을 관망한다.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그 이유는 대체로 다른 공적기구의 중용이다. 미국의 류산업계 집단행동은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 설립 이후에야 가능했다. 팜유업계는 세계야생동물기금이 회의를 소집하고 나서야 상호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인증제가 집단행동 문제의 해결책인 것 같지도 않다. 대다수 의류산업 민간규제는 인증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팜유업계 인증제는 평판 개선 비용을 공급망 하위 계층으로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정치론은 이해당사자 간 흥정과 타협에 주목한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기존에는 거부해왔던 새로운 전략을 수용하는 것에 착안한다. 1990년대 국제비정부기구들은 폭로와 항의에 의존했다. 각 국가가 구속력있는 환경 및 노동 규제를 마련하게끔 강제하려는 전략이었다. 여의치않자 일부 비정부기구 집단은 일부 우호적 정부에 연합을 제안한다. 부담스러운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초국적 활동 거점을 활용한 감시와 감독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문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이다. 제안을 수락한 정부는 실제로는 불가능했을 법적 규제의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기업집단의 협조를 이끌어낸다. 법률 및 행정권과 무관한 ‘민간 규제’라는 생소한 전략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초국적 민간 규제가 형성된다.

정치론의 설명은 관념론이나 시장론에 비해 한층 더 현실에 부합한다. 문제는 기업집단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집단은 단일하지 않다. 기업 간 관계가 분절적이고 경합적일수록 기업집단이 분열해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종업계 내부에서도 대치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역시 국제비정부기구나 국가 처럼 창의적으로 정치적 정렬과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속가능팜유원탁회의이다. 이른바 ‘더러운 팜유’ 캠페인이 시작되자 일부 유럽 구매자들은 국제비정부기구와 협업으로 인증제 기반 민간 규제 안을 마련한다. 원탁회의는 이 규제안이 거의 그대로 현실화 된 것이다. 전술한 바, 원탁회의 인증제는 인증비용을 동남아시아 소재 생산자에게 전가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요컨대 팜유산업 사례는 정치론의 도식적 설명과 들어맞지 않는다. 제도적 기업가로서의 일부 기업집단이 비정부기구와 연합을 구성해 다른 기업집단에 대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는 의류산업에서 서구 브랜드 소유기업과 소매업자가 상업적 감사기업 및 유순한 비정부기구를 활용하여 민간 규제를 상품화하는 사례다.

마지막 관점은 작업장-농장 소재 현지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주목한다. 이른바 현지론이다. 현지론 이전의 관점들은 작업장-농장 소재 개발도상국을 ‘비어 있는 땅’으로 간주했었다. ‘비어 있는 땅’이란, 필요 최소한의 규제도 없고, 규제라는 것이 있다면 그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국내정치경제적 요

소도 없는, 그런 식의 무주공산을 말한다. 이 ‘비어있는 땅’은 범지구적 최적관행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현지론은 비어 있다던 현지가 실제로는 비어 있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가령 동종 업계 유사 규제 효과가 국가 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류업 봉제공장에서, 민간규제 인증률과 노동조건 실질 개선도 사이의 관계가 국가 별로 달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증률은 낮지만 노동조건 실질 개선도가 높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증률은 높지만 노동조건 실질 개선도가 낮았다. 여러 통계수치를 조합하여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인증률이 높지만 노동조건 실질 개선도가 낮았다. 중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현지론을 최초로 정식화한 바틀리(Tim Bartley)는, 이 차이를 정제 차이로 설명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사회 활력이 높고 노동자 단결권과 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바, 노동조건 실질 개선이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증률은 낮다. 낮은 인증률은 작업장 인근 시민사회 내 비기업 행위자의 개입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활동가들이 이른바 ‘체크리스트 감사’에 반발하며 규제 기구에 실태를 고발하고 인증 거절을 청원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사회 활력이 낮고 노동자 단결권과 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국적 민간 규제의 감사는 기업과 감사관 사이의 배타적인 사무가 된다. 그 결과 인증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노동조건은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컨대 작업장과 농장 소재국 정제 차이가 초국적 민간 규제 성과의 구체적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물론 정제차이가 초국적 민간 규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현지론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무시해왔던 요인들을 발굴함으로써, 초국적 민간 규제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앞서 초국적 민간 규제의 배경으로 생산 세계화와 거버넌스 결핍을 지목했다. 원가절감이 주된 목표라면 생산체계의 지리적 분산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생산 세계화는 지속될 것이다. 생산 세계화는 거버넌스 결핍을 야기하는데, 이 결핍은 초국적 민간 규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은 구속력있는 다자무역협정이지만, 근 미래에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초국적 민간 규제는 가까운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제도적 기업가의 타협과 흥정을 주장한 정치론과, 작업장 소재지의 정치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현지론의 통찰에 따르면, 초국적 민간 규제의 구체적 양태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당장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나 붕괴 사고 이후 규제 범위를 두고 갈라선 미국계 기업들과 유럽계 기업들이 각자의 민간 규제 기구를 설립한 사건, 인증제의 불공정한 비용전가를 문제삼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지속가능팜유 인증제, 그리고 정부간국제기구가 작업장 소재국의 법률을 민간 규제에 포괄하여 감사와 인증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베타워크 프로젝트의 대두 등은, 초국적 민간 규제의 유동적 성격을 방증한다.

현지 진출 기업은 이러한 초국적 민간 규제의 정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단기적으로는 작업장 소재국가 정제 특성에 따라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규범준수 부서 인력의 수준을 높여 민간 규제 기구와의 협상에 대응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감사 및 인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대항력’을 달래는 편이 낫다. 요컨대, 여건이 되지 않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면 작업장 소재국의 정치경제적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규제의 상품화를 기회로 삼아 어느 한 민간 규제에 전속되지 않고 적당히 다변화하는 방책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석에 따라야 하는데, 기업 활동의 외부성에 유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다.

분과회의 3

동남아 정치적 동학의 과거와 현재

2019 태국 선거와 정치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를 중심으로

노경현 · 유승준(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태국은 2011년 7월 조기 총선 이후 약 8년 그리고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약 5년 뒤인 2019년 3월 24일 총선거를 시행했다. 그 결과 500명의 하원의원이 새롭게 당선되었고¹⁾ 탁신계 프어 타이당은 135석으로 총선 1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5일 750명으로 이루어진 상하원 합동 총리투표에서 군부가 전체 의석의 3분의 1(250석)을 지명하는 총리 선출제도로 인해 탁신계의 군부세력 저지에는 실패했다. 결국 2014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의 정치개입을 정당화 하던 빠라웃 찬오차(Prayut Chan-o-cha)가 미래전진당의 타나톤 쩡롱랴앙꼇을 500대 244표로 누르며 제 30대 태국 총리로 당선되었다.

새로운 진보주의 정당인 미래전진당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것은 군부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타나톤 쩡롱랴앙꼇이 이끈 미래전진당은 선거구에서는 31석으로 5위에 머물렀지만, 정당명부에서는 개정안의 득을 보게 되어 50석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친군부 세력의 지속적인 선거 감시, 사법권 독점 및 왕의 지지에 따른 정부 구성의 명분 확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 밖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선거 결과 자체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태국인들에게는 안타까운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창당된 미래전진당의 선전을 통해 볼 때 이번 선거의 함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전진당이 높은 의석수를 기반으로 제3 정당으로 올라선 점은 기존의 친탁신 대 반탁신이라는 구도를 넘어 친군부 대 반군부 나아가 태국 정치의 ‘세대 균열축’이라는 새로운 정치 구도 양상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2019년 총선거는 미래전진당을 지지하는 태국의 젊은 세대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출현하는 신호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다. 특히, 기존의 탁신 대 반탁신 구도 내에서 탁신을 지지하던 세력이 동북부 및 북부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에 반해, 미래전진당 지지세력은 뚜렷한 지역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분포했다. 그렇다면 태국의 젊은 세대는 불과 창당한 지 채 1년도 안 되는 신생 정당에 어떻게 열렬한 지지를 보낼 수 있었는가?

1) 2017년 새 헌법 시행으로 태국은 총 500명의 하원의원 중에서 350명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발하고 나머지 150명은 정당 비례대표 방식으로 결정한다. 2019년 총선의 결과는 팔랑쁘라차랴당(Palang Pracharath)이 115석(지역구 97석), 프어 타이당(Pheu Thai)은 137석,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은 80석(지역구 30석 포함), 민주당은 52석(지역구 33석) 그리고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은 51석(지역구 39석)을 기록했다.

본 연구는 태국 젊은 세대들 간 형성된 집단의 정체성이 미래전진당의 선전에 강력한 원동력이었음을 주장한다. 유권자의 투표형태에 관한 이론은 크게 ①경제학적 관점(합리적 선택이론) ②사회학적 이론 ③사회심리학적 이론 그리고 ④정치사회학적 이론으로 구성된다. 추후 분석할 것이지만, 각 이론이 설명해주는 것과 더불어 태국 사회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은 젊은 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대효과 및 시대효과에 따른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의 열정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결국 빠른 기간 내 세대의 조직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20~30대의 태국 국민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의 전환 이후 가장 민주적이라고 평가되는 1997년 헌법 체제 아래에서 민주적 선출제도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탁신의 국정운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2014년 두 차례의 쿠데타와 2007년, 2017년의 비민주적 헌법개정을 실질적으로 경험·목격한 세대이다. 특히, 2017년 시행된 새로운 헌법은 과거 1997년 헌법이나 2007년 헌법과 비교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는 것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아가, 1997년 이후 높아진 교육 및 경제 수준과 푸미폰 선왕의 서거에 따른 와짜탈롱건의 즉위로 왕권-군부의 공생관계가 더 복잡하게 된 점 등은 젊은 세대의 세력화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태국 총선이 민주주의 선거라고 규정하기에는 태국 정치 내 여러 권위주의적 요소를 고려할 때 제한적이다. 나아가, 젊은 세대의 민주화 열망이 군부 출신 총리체제 아래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점 또한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선거는 기존의 군부, 엘리트 그리고 기성 정치인의 직접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젊은 세대의 역할을 재고하게 했다는 점에서—그리고 그들의 정치조직화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군사정권의 연속이라는 갈림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점에서—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장 기존문헌 검토

제 1절 2017 헌법 개정과 태국 정당 체제

2014년 쿠데타 이후 기존의 2007년 헌법은 그 권위와 법적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2016년 8월 7일 군부세력이 주도한 새 헌법의 초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했고(투표율 59.4%, 찬성 61.3% 반대 38.65%), 이를 2017년 4월 와짜탈롱건 국왕이 인준하면서 새로운 헌법은 시행된다. 새로운 헌법은 선출되지 않은 인물에게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친탁싌과 정당의 집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새 헌법은 태국 정당정치에 군부의 정치개입을 여러 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여 친군부 정당의 장기집권을 도모할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또한, 새 헌법은 총선거 이후 5년간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여 해당기간 동안 상원의원을 군부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총리직 또한 선출이 아닌 임명이 가능하게 한 점은, 과거 2007년 헌법과 비교해 민주성의 확연한 퇴보를 보여준다.

태국의 다당제는 1933년 최초의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 2019년 총선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1955년 정당법이 제정되고 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그리고 혼합선거구제가 시기별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선거제도 내에서도 최종 선거 결정은 1위 대표제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뒤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1위 대표제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발생시킨다는 일반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김홍구 2006,11). 따라서, 태국의 정당제도는 선거제도와와의 관계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태국 정치의 특이성은 결국 그들 정치문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태국의 정치문화가 정당의 형태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반증한다.

예컨대, 태국의 전통적 정치 문화인 후원-수혜(Patron-Client) 관계는 인물 중심의 정당 발전에 기여했으며 정당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홍구는 나룽(Narong Sinsawat, 1996)의 『태국정치: 심리학적 분석』이라는 저서를 통해 태국의 다당제 구성의 원인을 ①태국의 정당 분열 ②권력자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 ③유권자의 인물 위주 투표 ④태국인들의 권력지향적 성격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룽 박사의 위 네 가지 특징은 미래전진당과 타나톤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미래전진당 창당과 타나톤의 높은 지지율은 이러한 인물 중심의 정치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018년 3월에 창당한 미래전진당의 성과는 2019년 총선거에서 높은 지지율 이전에 젊은 세대의 당이라는 점과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있다.

추후 논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미래전진당은 사회개혁 및 군부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서 프어 타이당과의 공통점이 목격되지만, 프어 타이당의 ‘탁씨노믹스’와는 상이한 독자적인 진보 정책을 추구하였다. 특히, 신인 정치인인 타나톤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은 점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나 국정 운영의 부패혐의와 2002년 남부지역 소요사태에서 권위주의적 면모를 보인 탁썬과 비교되는 새로운 반군부 정치인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또한, 미래전진당은 민주당과도 이념적인 측면-개혁과 진보주의 대 보수와 자유주의-과 더불어 기존의 엘리트와의 관계 또한 적대 대 우호로 나뉜다는 점에서 기존 반군부 정당 세력과도 차별화되었다.

제 2절 태국 젊은 세대의 집단정체성 형성

이번 총선에서 첫 유권자로서 약 700만에 달하는 태국 젊은 세대 구성원은 2019년 총선에서 명실상부한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했고, 현대 태국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어떻게 미래전진당을 지지하는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유권자의 정치형태의 이론을 일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유권자가 정당의 이념, 공약, 쟁점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합리적 이론은 투표에서 개인의 선택은 효용성(utility)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견해를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 주장한다(Downs, 1957). 이에 따르면 태국의 젊은 세대는 FFP의 정책에서 얻는 효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FFP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다소 단조로운 분석에 머물게 된다.

반면, 미국의 콜롬비아 학파는 유권자의 거주지역, 종교성향 그리고 계층 등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사회학적 접근법(sociological approach), 사회균열(social cleavage)-에 따라 정치형태가 달라짐을 주장한다(Lazarsfeld, Berelson and Gaduet, 1954).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접근법(socio-psychological approach)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투표형태를 분석한 미시간학파는 ①정당에 대한 귀속감 ②쟁점에 대한 태도 ③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따라 개인의 투표형태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Cambell et al., 1960).

유권자 형태에 대한 거대한 두 축을 형성하는 사회학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접근법으로 미래전진당과 유권자의 지지율을 분석하면 그들은 2000년대 태국의 민주제도를 경험해본 세대로서 공통된 ‘세대적 경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세대 효과(generation effect)–혹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즉, 개인은 살아온 시대에 따라 정체성, 태도, 형태 그리고 가치관을 구성하는 사회적인 구성물(sociological creation)인 것이다(Manheim, 1952).

태국의 젊은 세대가 연령효과(age effect)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특수한 성격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대효과와 측면에서 ①탁신의 민주정치 경험과 두번의 쿠데타에 따른 군부정권 통치를 경험한 세대라는 점 ②타나톤이라는 기성세대 질서를 깨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과 그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점 ③푸미폰 아둔야뎃 선왕의 서거와 마하 와찌탈롱꼰의 즉위와 와찌탈롱꼰과 군부의 공생관계 강화에 대한 불만 ④헌법개정과 이에 따른 민주적 퇴보를 목격한 점 ⑤그리고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변동 없는 임금률이 태국의 젊은 세대 내 하나의 정체성 형성을 촉진했다.

제 3절 태국 주요 정당의 이념, 정책 그리고 군부와의 관계

군부는 탁신의 통치가 권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포퓰리즘 정책이 미치는 사회적 피해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쿠데타가 불가피했음을 일관적으로 주장했다²⁾. 2018년 3월 창당한 미래전진당은 태국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생한 정당이라는 것과 더불어 친 탁신계 프어 타이당 과도 차별화되는 정치적 비전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 특히 미래전진당의 출현은 기존 탁신 대 반탁신으로 이루어진 태국의 정치 구도뿐만 아니라 계급과 지역으로 분열된 정치 구조를 세대라는 새로운 분석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미래전진당의 주요 성격을 다른 정당들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태국의 4대 정당과 성격 분류〉

	프어 타이당	빨랑 삐라차랏당	미래전진당	민주당
지역주의	동북부, 북부	x	x	남부, 방콕일대
이념	개혁주의- 탁씨노믹스	보수주의-태국식 민족주의	개혁주의-진보주의	보수주의-자유주의
기존 엘리트 & 네트워크와의 관계	경쟁적	매우 친화적	적대적	친화적
군부와의 관계	적대적	매우 친화적	적대적	중도적(잠정)

2) 사실, 탁신의 포퓰리즘 정책은 그 실효성을 떠나서 특히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많은 농민과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 덕분에 탁신이 추방된 이후에도 그의 세력이 계속해서 태국 의회의 다수당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기에 제도적 민주주의로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는 소수 지배계급과 제도적 민주주의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다수의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현재 혼란의 정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전진당의 정책 노선 및 엘리트, 군부 그리고 그들의 지역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가장 많은 의원 수를 배출한 4개 정당을 지역, 이념, 기존 엘리트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군부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어 타이당의 경우 지역은 동북부와 북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념은 탁씨노믹스(Thaksinomics)를 바탕으로 개혁적 포퓰리즘을 시행, 기존 엘리트에 대해서는 부분적 혹은 경쟁적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군부와의 관계에서는 군인들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특징을 가진다. 혹자는 군부와의 관계에서 군사사관학교 및 경찰사관학교 출신인 탁신이 집권 당시 자신의 부하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군부 자체에 대한 반대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지만, 탁신폰정권에서 기존 엘리트층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군부를 장악하지 못해 발생한 쿠데타 및 그의 국외추방 당한 점에서 군부와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생 친군부 정당인 빨랑쁘라차랏당의 경우 지역주의적 특징은 미미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프어 타이당의 지지를 받는 북부와 동북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주의적 투표 경향이 강했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투표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긴 힘들 것이다. 또한, 빨랑쁘라차랏당은 이념적으로 군부와 왕권 및 기존 권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를 내세웠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가치보다는 불교 및 왕가의 정통성과 헤게모니를 중요시하는 ‘태국식 민족주의’가 핵심적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전진당의 경우 지역적인 기반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획득한 81석의 의석수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수도권 방콕에서 9석을 확보한 점은 해당 정당이 태국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³⁾ 하지만, 미래전진당 또한 신생 정당이라는 점과 방콕과 수도권에서 강한 지역색 및 지역주의가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미래전진당의 이념적 측면은 기존 태국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진보-개혁주의를 내세운다. 그들은 기존 엘리트나 군부에 대해 프어 타이당과 마찬가지로 호의적이지 않으며, 기존 질서의 대대적 수정-기존네트워크 해체가 있어야 진정한 태국의 발전이 가능함을-을 주장한다. 특히, 군부에 대해서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파괴한 부분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점에서 프어 타이당보다 더욱 적대적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프어 타이당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지역 기반이 존재하는데 방콕 및 수도권 일부 그리고 남부가 대표적이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남부의 지지는 1997년 헌법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는 전직 총리였던 민주당의 추안 릅파이(Chuan Leekpai)가 남부의 트랑(Trang) 주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민주당은 탁신폰정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로 압승한 2005년 총선에서 남부의 54석 중 무려 52석을 차지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1년에는 남부지역의 53석 중 50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프어 타이당과 경합하던 중부 및 수도권에서 빨랑쁘라차랏당에게 의석수를 상당 부분 빼앗겼지만, 여전히 남부에서는 제1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그들의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포퓰리즘 정책을⁴⁾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는

3) 미래전진당의 다른 강세지역으로는 찬타부리와 트랏 그리고 프라에가 있다. 전자 두 곳은 비교적 부유한 동부의 두 주이며, 후자인 프라에는 북부 주에 위치한다.

4) 민주당은 연간 12만 바트의 최저소득과 아동·고령 수당 월 1000바트 그리고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를 정책으로 제시

1997년 경제위기 당시 금융시장 개방 및 신자유주의적 조치 도입을 적극 지지했던 보수자유주의적 정당이라고 분류된다. 또한, 민주당은 과거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를 주장했지만 기존의 엘리트 및 네트워크 기반에서 그들 스스로가 엘리트의 일부거나 엘리트를 대변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군부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군부와 연합정부 구성을 꾸리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아피싯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가 당 대표직을 잃자 군부세력의 연합정부 구성에 참여한 점은 탁신계 정당과 미래전진당과는 다르게 군부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 2019년 태국 총선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절 2019년 태국 총선과 그 특징

2011년 총선 때만 해도 태국의 전체 유권자 중 첫 유권자 수는 1.96%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2019년 총선에서는 전체의 13.74%가 첫 유권자였다. 이들은 18~25세의 태국 청년들인데, 이 젊은 세대는 유년 시절부터 2008년 PAD(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의 반탁선 시위, 2010년 UDD(United Front of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의 친탁선, 반민주당-군부 시위, 그리고 2014년에는 People's Democratic Reform Committee(PDRC)의 반인락-반탁선. 이러한 세대의 공통적 배경은 태국의 젊은 세대를 태국의 정치의 불안정상과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정치적 각성의 계기를 2014년 프라윗 찬오차가 이끌었던 군부 쿠데타의 여파로 꼽는다. 특히, NCPO가 집권한 2014년 이후,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태도교정(attitude adjustment)”라는 군부의 정책에 의해 크게 침해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도교정”이란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NCPO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며, 당시 평화적 시위를 했던 활동가들의 구금과 억압을 가능케 하는 명분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억압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내면의 불만과 국가의 비합리성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NCPO가 공포한 사이버안보법령(Cyber Security Act)⁵⁾ 역시 젊은 세대들의 권위주의적 정치에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예컨대, 출라총꾼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학생은 토론회 조직과 학생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의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학생운동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특히, 사람들을 군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그러하다. 선거가 지속해서 미뤄진 점도 젊은 세대의 불만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전의 총선과는 다르게 소셜 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치러진 실질적 마지막 총선은 2011년이였다. 미국과 서구, 그리고 일부 국가군을-북아프리카-제외하면 각종 SNS가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2010년도 초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2019 총선에서 젊은 세대가 소셜 미디어에 받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높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여 정치적 사태에 대한 정보 공유나 토론을 통해

했다.

5) 타나톤 미래전진당 대표 역시 2018년 페이스북에서 군부를 비판했다는 명목으로 컴퓨터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당한 바 있다.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court-suspends-mp-status-of-future-forward-party-leader>.

공론화 과정을 이끌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젊은 세대들은 분쟁과 비민주적 조치들에 상당히 낙담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7일 헌법 재판소가 타이 랍사 차트(Thai Raksa Chart) 정당이 우볼라타나 마히돌(Ubolratana Mahidol)공주를 후보로 내보내자 정당해산 시키자 태국인들의 트위터에 “계속 해산시켜라, 우리는 삼촌-쁘라웃-을 뽑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뿌라웃 장관이 태국 국민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칭하자 “우리는 너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시태그 시스템은 정보의 집단적 분류화를 가능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 “해외투표”라는 해시태그는 선거용지 관리부터 투표소의 긴 대기 줄까지 시민들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했고, “조기투표”라는 해시태그의 경우 긴 대기 시간부터 잘못된 선거용지 배부와 편리한 투표를 위한 앱 공유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이번 총선은 젊은 세대가 대규모 유권자로 등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다.

제 2절 미래전진당과 청년세대

미래전진당은 친군부정당인 빨랑 뿌라차랏당이 창당 선언한 지 13일 뒤인 2018년 3월 15일 타나톤이 피야붓과 함께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창당한 진보주의적 정당이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태국 선관위의 공식승인으로 당원등록과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전진당의 상징은 주황색 바탕에 흰색 역삼각형인데, 창당인 중 한 명인 위파짠 웅사왕(Wipaphan Wongsawang)에 따르면 태국 사회의 다수이면서 기존 체제의 하부에 위치한 가난하고 배제된 사람들이 상부에 위치한 소수의 엘리트 위에 올라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⁶⁾ 이는 다분히 기존 체제에 도전적인 정신을 표출하는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태국정당 중에 적어도 그 목적으로는 가장 현상타파적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체제에 불만이 많은 젊은 세대의 요구와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할 대안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⁷⁾

이뿐 아니라, 최근 태국의 대표적 대학기관인 출라롱콘 대학에서 1,26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70.8%가 미래전진당을 지지하고, 53.8%가 타나톤을 총리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어도 도시권 학생층에서는 미래전진당과 타나톤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다른 세대, 지역, 직업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래전진당이 젊은 세대의 높은 지지율 원인 분석을 위해 미래전진당의 구조-조직-운영, 2019년 총선의 주요 변수였던 소셜 미디어 그리고 지도부 구성에 대한 미래전진당의 특성과 당론 및 정책이 젊은 세대의 이해 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제1항 미래전진당의 등장과 구조, 조직, 그리고 운영

미래전진당은 당 운영, 구조,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차별성을 둔다. 당원 모두가 동등하게 당을 소유하는 정치적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광범위한 상향식 모델을 통한 운영, 기금형성, 결정방식, 그

6) <https://prachatai.com/english/node/7683>

7) 타나톤은 2018년 11월 인터뷰에서 총 25석을 얻는 것이 미래전진당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뒤에 재투표로 크게 승리한 치앙마이 1석을 더해, 총 81석으로 기존 목표의 3배 이상을 얻는 성공을 이뤄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1-26/party-ousted-by-thai-junta-is-voter-s-first-choice-ahead-of-poll>.

리고 아이디어 제공을 바탕으로 대중적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요정책들은 당원투표를 통해서 정하고, 모든 금전적 기록들은 공공감사가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미래전진당의 대의원 모임은 전국의 지역과 선거구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전국적 참여를 통해 중앙당 고위당직자의 일방적인 주도를 예방하고 있다.

당원의 참여는 미래전진당 운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데, 우선 미래전진당은 당 내부의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당원들은 단순히 운영위원회와 선거 후보자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청원권리와 정책제안, 그리고 당직자 소환권을 가진다. 나아가, 그들은 주요한 사안에 따라 당원투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단순히 선거권자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주주의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태국정당 양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후원자-수혜자 정당 형태거나 지역주의 정당, 혹은 인물정당(명사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이병도 2012, 2). 그래서 정당 운영의 절차는 대개 의사 결정권이 당 지도자와 소수의 운영위원회에 집중되어 일반 당원들은 직접적인 역할이 없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는 태국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정치기관 및 군부에 대한 신뢰도보다 상당히 낮은 점과도 관련이 있다(서경교 2013, 153). 결과적으로 수평적, 상향식 정당제도와 운영을 내건 미래전진당은 창당된 지 일 년 만에 약 5만 명의 당원을 모았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창당된 빨랑쁘라차랏 당원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며 일반 당원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제2항 미래전진당의 소셜 미디어 전략과 지도부 구성

태국의 젊은 세대는 앞서 규명한 것처럼 디지털 세대이다. 그래서 미래전진당은 젊은 세대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창당 이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디지털-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젊은 세대 및 학생들과 교류하고 홍보하는 정책을 취했다. 간단한 수치로 미래전진당과 지도부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성과를 다른 정치세력과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19년 8월 21일 기준으로 미래전진당 지도자인 타나톤 쥘룰루앙끼트의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 수는 100만이 넘고,⁸⁾ 피야붓 생카노쿨(Pibuytr Saengkanokkul) 미래전진당 사무총장은 16만의 구독 수를 기록 중이다. 반면, 프라우 찬오차 현 총리는 7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⁹⁾ 흥미로운 점은 타나톤과 피야붓의 경우 2018년 3월 창당 이후 본격적으로 태국사회에 알려진 인물인 반면에 프라우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지속해서 태국정치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미래전진당 페이지의 팔로워 수는 현재(8/21) 70만 명의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팔랑 뿌라차랏 당의 경우 태국어 페이지로 14만 명의 구독자 수에 그친다. 친탁전계 정당인 프어 타이당의 경우, 역시 태국어 페이지로 4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창당한 지 일 년 된 미래전진당과 그 지도부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층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8) 이 수치는 페이지가 형성된 지 고작 1년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2019.8.21)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팔로워 수가 100만을 넘는 사례는 없다.

9) 프라우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타나톤의 페이지보다 조금 더 늦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존 태국 사회에서 가지는 각 인물의 위상을 대입하면 여전히 30만 명의 차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0) 미래전진당의 당원 혹은 지지자들은 Futuristas라고 불리며, New Gen Network 같은 문화-가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당 하위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이들-특히 여성 지지자를 중심으로-은 당 대표인 타나톤을

기존 태국정치는 기성세대의 장이었다. 총 29명의 역대 총리 중,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60살이 넘어서 총리가 되었다.¹¹⁾ 타이 BBC 방송에 따르면, 2019년 총선에서 오직 3개의 정당이 당 지도자로 40세 이하의 인물을 내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40세 타나톤의 미래전진당이다.¹²⁾ 이와 더불어, 미래전진당 지도부의 절대다수는 신인 정치인들이다. 당 지도자 타나톤의 경우 태국의 대표적 자동차부품 회사인 Thai Summit Group의 전 부회장이며, 사무총장인 피야붓은 대학 법학과 교수였다. 또한, 대변인 파니카 와니치(Pannika Wanich)는 Voice TV의 기자였다. 이외에도 창당위원의 직업을 살펴보면, 대학생5 교육자6 변호사1 시민운동가3 작가3 기업인2 크리에이터1 언론인1 라디오 DJ1 영화감독1 노조활동가1 등으로, 기존 태국정치의 주류가 아닌 점을 짐작할 수 있다.¹³⁾ 또한, 이번 2019년도 총선에 후보로 나선 미래전진당의 후보들은 모두 신인-초선 정치인들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제 3항 미래전진당의 당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태국의 젊은 세대는 투표권을 가지고 마땅히 행사해야 했음에도 길게는 8년, 짧게는 5년의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이들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사이 태국의 정치체도가 두 차례나 비민주화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며, 레드셔츠와 옐로셔츠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정치분쟁을 정체성 형성기에 겪어야 했고, 이를 통해 민주화와 기존 정치세력 간의 끊임없는 정쟁 대신 건설적이고 사회발전을 위한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범국민적으로 존경받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한 뒤 논란이 많던 와찌랄롱꼰 국왕이 계승하고 프라웃이 이끈 군부와 더욱 밀접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김홍구·이미지 2017, 253), 기존에 태국 사회를 지배한 군주제 네트워크와 그 배경인 삭디나(sakdina)제도에(Marshall 2014) 대한 회의와 불만이 적어도 기성세대보다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와 기득권에 대한 불만과 현 상황의 정상(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총체적으로 젊은 세대로 하여금 친탁썬-반탁썬 세력들이나, 친군부-엘리트 세력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공백의 대안으로 미래전진당이 등장한 것이다. 우선 미래전진당이 유효하면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많은 청년 세대에게 자리잡게 된 근거로 미래전진당의 당론과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래전진당의 당론의 경우 가장 첫 번째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복구”를 외친다. 이는 선거 전 군부 세력에 반대한 친탁썬계 정당 역시 자유롭지만은 않은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탁썬 역시 민주적으로 집권하여 그 정당성은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집권 후 통치의 방식에서 권위주의적 행태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반탁썬계 정당이자 기존 엘리트와 중산층, 그리고 남부지역을 대변한 민주당 역시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민주적으로 집권한 탁썬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

Daddy라고 부른다. 이러한 다소 생소한 지지자-정치인 유대관계는 상호복합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상당히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11) <https://prachati.com/english/node/7984>

12) 이러한 부분은 젊은 세대가 오직 젊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세대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aljazeera.com/news/2019/03/parties-hold-final-rallies-thailand-prepares-vote-190322183720312.html>.

13) <https://bk.asia-city.com/city-living/news/>

14)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1692116/future-forward-eyes-up-to-20-provinces-in-local-elections>

지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할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전진당은 기존의 정당들과의 차별화로 민주주의적 가치의 회복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전진당은 제1 당론으로 민주주의 복구를 내세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미래전진당은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불거진 레드셔츠와 옐로우 셔츠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분쟁의 원인은 바로 기존 엘리트 네트워크와 군부세력이라는 것이다. 군부세력이 개입의 명분으로 삼는 정치 갈등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이를 타협과 대화 그리고 법치(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 4항 미래전진당 정책

미래전진당의 정책은 ①민주-인권 정책 ②경제 정책¹⁵⁾ ③복지와 노동 정책 ④지방분권화 정책 ⑤교육 정책 ⑥농업 정책 ⑦환경과 천연자원 정책 ⑧열린 정부 정책 ⑨외교 정책 ⑩평등과 다양성 정책 ⑪예술 문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타 정당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정책안들을 위주로 청년 세대의 관점과 결부하여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민주-인권 정책이 가장 핵심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당론에서도 밝혔듯이, 미래전진당은 다른 정당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으로 민주적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운영 및 통치 방식에서의 민주성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전진당은 자신들의 민주-인권 정책에서 헌법을 다시 “민중의 동의”에 따라 민주헌법으로 되돌리고, 군부기구인 평화질서국가위원회(NCPO)가 추진한 입법과 법령들을 모두 개정된 뒤, 보편적 인권을 막는 모든 법을 폐지하고 국가안보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지나친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힌다. 이를 통해 단순히 97년 헌법의 제도적, 운영적 민주성으로의 회복에서 나아가 군부의 영향이 깃든 독소조항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정책 역시 청년세대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미래전진당은 공교육의 공정성, 평등성, 접근성의 향상을 목표로 삼고, 기존의 교육예산을 재편성 하여 교육자나 학생이 추가비용 없이 최소기준 이상의 교육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행정당국에게 학습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존중을 이끌고, 지역행정기구로서 권력분배를 통해 교육 행정적 의사결정과 교육체제와 관련된 직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겠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돕기 위해 대단위 개방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시민 및 관계자 참여와 투명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미래전진당은 기존의 일률보편적인 공교육과 지방-지역의 특색과 고유의 문화를 억누르는 방식의 국가교육제도를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시에 최소수준 이상의 교육이 뒷받침되도록 정부 분권화를 이루어낼 것이라 주장한다.¹⁶⁾

다음은 평등과 다양성 정책이다. 이는 태국 사회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태국은 성소수자 부분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아시아권 국가이다. 이에 따라 미래전진당은 차별의 위험에 놓은 주요 그룹, 즉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 보균자 등을 보호에 힘쓰며, 사회적

15) 이번 2019년 총선 대비로 프어 타이당의 경우 농산물가격 30%인상, 쌀 보조금 1톤에 5천 바트를, 민주당의 경우 최저소득 연간 12만 바트, 아동고령 수당 월 1천 바트,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를, 마지막으로 빨랑 뿌라차랏당의 경우 최저임금 30%인상과 빈곤층 사회복지카드 발급, 지역 특화 경제특구 건설, 인프라 건설로 경기 부양 등의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이재호 2019, 5).

16) 이는 과거 태국 남부 무슬림 지역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교육제도 차원에서 자율성을 부과했던 정책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든 시민들이 성별, 계급 그리고 성적 지향성에 관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존의 태국정치에서 소외되었거나 관심을 받지 못한 소수자들에게도 미래진진당은 손을 내밀고 이들 이슈에 대해 적어도 다른 연령대보다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의 관심과 동의, 그리고 지지를 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예술 문화 정책으로, 미래진진당은 태국처럼 다층적인 사상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닌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다양성 증진과 차별 철폐를 주장한다. 또한, 유엔 인권선언 제 27조인 "모든 이들은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하고 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다"에 따라 예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를 추구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완전히 인간을 해방하여 문화와 예술에서의 창조성을 누릴 수 있도록 표현을 막고 있는 악법들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와 예술에서의 가치를 정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관리와 중앙 정부의 담론에 기반한 역사적 시각과 기록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으로 앞서 언급한 평등과 다양성 이슈만큼이나 특히 청년-젊은 세대가 민감한 이슈로, 많은 젊은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일조한 부분으로 보인다.

제 5장 결론 (추후 보완 예정)

참고문헌 (추후 보완 예정)

2019년도 인도네시아 대선/총선거 종교

신윤환 · 윤해영 · 한예지(서강대)

<발표문 추후 배포>

크페로크: 19세기 캄보디아의 불교 윤리와 사회문화

정연식(창원대학교)

1. 크페로크

캄보디아 전통시대에 불교 사원은 종교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었고 승려는 구도자인 동시에 교육자였다. 승려들은 전래 우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삶의 윤리와 지혜를 가르쳤는데, 이러한 전래 우화를 통틀어 ‘크페로크’ ក្របខ័ណ្ឌ គ្រប់ គ្រា 칭한다. 길을 의미하는 크페와 세상을 의미하는 로크의 합성어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란 뜻을 갖는다. 말뜻에서 드러나듯이 크페로크는 캄보디아 전통사회의 윤리 준칙,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담고 있으며 그 윤리 준칙은 크페로크를 만들고 전승해온 주체가 불교 승려이기에 불교 윤리에 기초한다. 아울러 크페로크의 우화들은 캄보디아 사회의 다양한 단면을 불교 윤리의 틀 속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우화 속 등장인물과 배경장치 등을 통해 우리는 전통시대 캄보디아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크페로크를 읽고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크페로크 우화들이 반영하는 시대가 정확히 언제인 가 하는 문제다. 크페로크는 오랫동안 구전되어오다 19세기 말 승려 쏘탄 뿌레이찌어 인드가 112개의 우화를 기록한 것이 유일한 기록으로 남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승려 쑹 쑹 히언이 우화 12개를 발췌하여 구술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 쑹 쑹 히언 판 서문에는 크페로크의 기원을 수천 년 전으로 잡고 있지만 아주 오래되었다는 상투적 표현이지 실제로 그 기원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어렵다. 우화 속 시대를 어렵게나마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과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비교해 크페로크의 나이를 추측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캄보디아 고유의 전래 우화에 불교적 요소들을 더해 각색되며 구전되어왔다고 보는 정도에서 충분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민지배시대와 격동의 20세기, 특히 불교를 포함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민주감뿌찌어 시대를 지나며 크페로크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크페로크 우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크페로크의 전래 우화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승려 인드가 처음으로 크페로크 운화들을 기록했던 19세기 말 캄보디아 전통사회의 지배적 윤리와 사회상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2. 크페로크의 특징

(1) 크페로크에는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해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윤리적 교훈을 제시한다. 불교 승려도 자주 등장하지만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탐욕스럽다는 점에서 평범한 재가자들과 다르지 않다. 모든 우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사기꾼, 도둑, 불한당이다. 이들에게 속아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우화를 관통하는 교훈이다. 이는 전적으로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불교적 인생관을 반영한다.

‘과계승과 세 건달’ 이야기에 등장하는 승려는 가사를 걸쳤다뿐이지 음주와 육식을 일삼는 게으른 과계승이다. 게다가 건달 친구들과 어울려 불심 깊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다. 이들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법으로 병을 치료하고 주문을 외워 액을 쫓는 고승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한다. 이들의 속임수를 알게 된 어린이가 마을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어른들은 어리석게도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사기꾼 일당에게 많은 재물을 바친다.

역으로 사기꾼에게 속는 어리석은 승려도 있다. ‘어리석은 주지 스님’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 유명 사찰의 주지승으로 학식과 지혜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소한 물욕에 눈이 멀어 사기꾼의 꾀에 쉽게 넘어가서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마저 잃는다.

(2) 세속적 권위를 부정한다. 왕족, 귀족, 고위 관료, 심지어 힌두 신들까지도 조롱의 대상이 된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지혜를 잃고 큰 대가를 치르는 존재로 등장한다.

심지어 뚜렷한 교훈도 없이 단순히 왕과 귀족을 어리석은 존재로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들도 있다. 정치 권력의 실질적 경계, 전통시대 국가의 개념과 불교 군주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위대한 신 시바조차도 조롱의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시바 신은 ‘이소 이시와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시와라가 지칭하는 대상과 의미는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힌두 신을 지칭하고 이소는 시바 신의 크메르 식 이름이다. 한마디로 말해 멍청한 시바 신이다. 힌두교 사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설정이다. 따라서 이는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인 상황에서 불교 승려들이 의도적으로 힌두교를 폄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크메르 제국의 왕권 사상에서 왕은 시바 신의 현신으로 간주되었고, 그에 따라 시바 신 숭배가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시와라’와 같은 크메르식 우화는 불교가 캄보디아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령의 브라만 여인이 젊고 잘생긴 청년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이야기에서도 불교 승려들이 의도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힌두교 폄하는 상좌부 불교의 포용성과 그에 따른 힌두교와의 공존 이론에 반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굳건히 이어지는 힌두 신 숭배 관행은 불교의 포용성 덕분이 아니라 불교의 비타협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무지와 어리석음에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사기꾼에 속아 큰 피해를 당해도 그것은 모두 자신의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동정이나 구제를 받지 않는다. 행위에 앞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앞서 언급한 과계승과 건달들의 사기에 속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도 보상을 받지 않는다.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디딜방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승려로 가장한 도둑의 꾀에 넘어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방아 찧는 곳에 두고 자신은 반대쪽에 올라서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처럼 사악한 술수를 써서 재물을 훔친 도둑은 비난받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아이를 디딜방아에 올린 무지한 여인에게 있다.

(4)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드가 없다. 심지어 악당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결말도 있다. 불교 윤리는 악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세의 행위는 모두 까르마가 되어 다음 생에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디딜방아 이야기는 어리석은 주인공이 디딜방아에서 끔찍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이 재물을 훔쳐 유유히 사라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파계승과 건달들도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다른 마을로 이동해 사기 행각을 계속한다.

권선징악 부재 측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쪼우 뿌락과 쪼우 록 이야기다. 바깥방 지역 타이와의 접경지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이야기다.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지사는 물소를 키우는 목동을 돌 두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뿌락이 나머지 목동에게 시장에 가서 돈을 벌어들여와 나눌 테니 그동안 물소들을 부탁한다며 시장으로 떠난다. 뿌락은 시장에서 나이 짜라는 이름을 가진 무슬림 아이를 만나 친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량한 농부 록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그런데 나이 짜는 뿌락을 속이고 혼자 도망친다. 록이 지사를 찾아가 구제를 호소하자 지사는 사람을 풀어 뿌락을 잡아들인다. 하지만 뿌락도 나이 짜에게 속아 무일푼인지라 나이 짜의 삼촌인 나이 오우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에 쪼우 록은 나이 오우를 고소한다. 지사는 나이 오우에게 배상 판결을 내려 록이 잃은 돈을 받아내지만 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착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난다. 애초에 돈을 갈취하고 뿌락마저 속인 나이 짜는 물론이고 나이 오우에게 보상을 받아 착복한 지사에게도 징악적 결말은 없다.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한다.

(5)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리

아마라테비 공주 이야기의 주인공 아마라테비는 음악, 회화, 시, 정치, 법률, 과학, 건축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을 받고 재능 또한 뛰어난 인물로 등장한다. 아마라테비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노리고 청혼한 고관대작들의 청혼을 물리치고 자신이 사랑하는 평민 남성과 결혼한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고관들이 공주의 남편을 모함하고 어리석은 왕은 자신의 사위를 추방한다. 하지만 아마라테비 공주가 재치를 발휘해 고관들의 음모를 폭로한다는 내용이다. 아마라테비 공주에게 부여된 능력과 재산은 물론 공주라는 특수 신분에게만 가능했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배우자를 자신이 선택하고 이후 야기되는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여성상을 볼 수 있다.

디딜방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기꾼의 꾀에 쉽게 넘어간 어리석은 인물로 등장하는데,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큰 부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재산 상속과 소유가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6) 소수종족에 대한 관념과 편견

크메로크 우화에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캄보디아의 무슬림은 모두 짬족이다. 뿌락과 록 이야기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로 등장하는 나이 짜는 무슬림이다. 나이 짜의 삼촌인 나이 오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그가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과 무관하다는 그의 주장을 기각한다.

소수종족과 관련해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승려 쪽’ 이야기다. 쪽은 소위 프놈으로 칭하는 산악지역의 소수종족 출신이다. 프놈은 경멸의 의미가 담긴 말이다. 쪽의 아버지가 저지대에 내려와 음식물 조리법과 보관법을 배운 후 다시 마을로 돌아와 보급하려 하자 마을 주민들은 이를 사악한 마법으로 간주하고 결국 쪽의 아버지와 그 가족을 죽인다. 프놈은 어린 쪽을 찾아 죽이려는 야만적 집단으로 묘사된다. 어린 쪽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도망친다. 쪽은 마침내 평야 저지대로 피신한 후 승려가 되고 훗날 크게 존경받는 고승이 된다. 전형적인 저지대의 문명화된 지배 종족과 고지대 미개한 소수종족의 대립 구도 속에서 야만인 쪽이 고도 문명의 상징인 불교의 승려가 된다는 이야기다. ‘승려 쪽’ 이야기에는 윤리적 교훈이 없다.

크메로크에는 화교들도 등장하지만 단순히 배경 장치로 활용된다. 예컨대 악당이 중국식당에서 기다리는 장면, 사기꾼이 화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옷을 훔치는 장면이 있고, ‘어리석은 주지 스님’이 탐내는 최고급 가사는 ‘상하이’에서 수입한 옷감으로 만든 것이라 언급되고, 비단 장사 왕서방도 부유한 화교 상인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우화의 주요 인물로 화교가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 화교에 대한 편견을 확인할 수는 없다. 어쨌든 크메로크를 통해 19세기 말 화교의 존재 상황을 엿볼 수 있다.

(7) 기타 주목할 만한 사회문화

아마라테비 공주의 남편을 모함했던 고관들은 결국 처벌을 받는데,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코끼리 발에 묶은 후 코끼리가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죄상을 알리는 것이다. 뼈락은 5년간 발에 족쇄를 차고 잡초를 뽑는 형벌을 받는다.

뼈락과 록 이야기에서는 노비를 사고파는 장면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을 시장에서 팔아 노비가 될 수 있고 이처럼 구매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문서로 소유권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노예제도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문헌

កន្លងឆ្នាំ1964. កកសិ គោប្ប ចម្បយទំនិម ធម៌និង / ឧកញ ឃី គិតនគិបដី កន្លងឆ្នាំរៀបរៀង.. ភ្នំពេញ :

ក្រសួង យុវជន ព័ទ្ធិផល ល សប្តា ដ្ឋានិយ .

Carrison, Muriel Paskin. 2002(1987). Cambodian Folk Stories from the Gatiloke, from a translation by the Venerable Kong Chhean. Boston: Turtle Publishing.

분과회의 4

초국가적 흐름과 현실 세계의 재구성

**Transnational Flows and Restructuring of
Everyday World**

Visions of Old Age among Indonesian Housewives near Surabaya, Indonesia*

Nurchayati**

(Assistant Professor, State University of Surabaya, Indonesia)

Introduction

In 2017, as the fourth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Indonesia had a population of 261.89 million (Badan Pusat Statistik, 2018a). Children below the age of five and the elderly made up 8.95 and 8.97 per cent of the total population, respectively (Badan Pusat Statistik, 2017). This shows that the Indonesian population is ageing. One estimate reports that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will explode to almost 41 million in 2030 (Kementerian Kesehatan RI, 2017). No doubt, providing such a large number of senior citizens with adequate facilities, health care, care services, and decent housing will be a gigantic task. Even today, many elderly have difficulty accessing such things.

The elderly have a tougher life to live than young adults do. For men and women, to grow old is to experience multiple declines –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On retirement, people's income plummets, increasing the risk of falling into poverty (Kidd, Gelders, Rahayu, Huda, & Siyaranamual, 2018). In old age, women tend to fare worse than men do. Since women's old age tends to stretch longer than men's,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live a longer spouseless lif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Contemporary Indonesia has more elderly women than it does elderly men. In 2012, for example, women accounted for a greater proportion (54 percent) of the nationwide elderly population than men did (46 percent), and the trend continues. The good news is that Indonesian women have higher life expectancy. The bad news, however, is that if they suffer, they tend to suffer more and longer. Studies show that Indonesian elderly women are at a greater risk of being neglected and descending into poverty (see, for example, Maliki, 2018; Rezkisari, 2017). Elderly women's poverty stems from several causes. First, in their youth they had no chance to receive adequate education and acquire a lucrative skillset. Non-participation in the labor force during adulthood leads to their having no pension in old age. As well, Indonesian elderly women tend to suffer from gender- and age-based discriminations (Hasan, 2017).

The alarming situation of the Indonesia elderly has not received the kind of attention it deserves from the state, the market, and the not-for-profit world. Nowadays, many of them have to rely for survival and well-being on their next of kin. This pattern of response is risky in that people may be unable, or simply

* ROUGH DRAFT: DO NOT CITE WITHOUT AUTHOR'S PERMISSION

** nurchayati@unesa.ac.id

unwilling, to care for ageing relatives. The task of managing old age is too heavy a burden for the family to bear unaided.

This ongoing research addresses two major themes. Broadly speaking, it explores the interplay between care practices and care regime for the elderly in contemporary urban Indonesia. More specifically, it examines looks into the ways and the reasons that suburban homemakers from middle-class and lower-middle class backgrounds interpret, imagine, and manage old age, both their own and that of others. It also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se women's interpretations and actions for the kinds of corresponding policymaking that the state, the private sector, and the not-for-profit world should do if the nation is serious about ensuring that its elderly citizens have a decent life now and in the future.

The focus on lower-middle-class and middle-class women in suburban East Java is justified by four considerations. First, women make up more than half of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Second, structurally speaking, members of the lower-middle and middle classes have a better chance to exercise their agency in shaping their lives than do their lower-class counterparts. Third, the suburban world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place that members of these social strata can afford to live. Fourth, with the elderly accounting for 12.16 of its total population, the East Java, to which Surabaya and its surrounding suburbs belong, is among the five provinces in the country already undergoing population ageing (Badan Pusat Statistik, 2017; Kementerian Kesehatan RI, 2017).

Using field-research method, and collecting my data through participant-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examines a group of fifteen middle-class and lower-middle-class housewives living in a housing complex in one of the suburbs of Surabaya, the capital city of East Java. Of these, all do not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By age, they range from twenty-nine to fifty-four. By education, five attended primary school only, seven completed high school, and three are university graduates. They have been married for six to twenty-eight years. Most have a husband who works in the private sector. Two are married to a civil servant. Only one has a husband from the military.

Some Preliminary Findings

Don't give a thought about old age

In most cases, the informants choose to not even think about old age, focusing instead on the here and now. The underlying view is that the future (including old age) is not theirs to even try to see. It is God's prerogative to do so and God knows what is best for them when they are old. The following quotation from one of the informants is typical of the whole group's attitude:

I never think about [old age]. I just live one day at a time. God willing, I will have health, physical and mental, and faith in Islam. So I just live, making a living. I leave it to Allah [God] to take care of my old age. If I think too much about it, I am afraid God will have different plans

for me. (Ratna, personal communication, July 5, 2019)

Another informant, the 40-year-old Anggun, who recently married off her daughter, said empathically that she is “not old enough” to start thinking about her old age. Still another informant, Sofia, a woman in her early thirties, was a rather phobic about the topic, trying to avoid it like a plague. She said, “I don’t want to have any conversation about it.”

The Absence of Old Age Savings Plan

Most women in this study reported that they have no savings plan for old age. Their husband’s income only allows them to cover daily needs, pay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costs. Even if they are able to save money, the amount is just too small. Those whose husband works as a civil servant or in the military depend on the pension they will receive when their husband retires. Those whose husband works in the private sector rely on a one-off, lump-sum pension that their husband gets, upon retirement, from his employer. They will use the pension as a start-up capital. Some depend on a plot of land in their village of origin that they stand to inherit from their parents. More than half of the informants leave the management of the family’s income to their husband.

Sedentary Lifestyle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active ageing is good physical health. To stay fit in old age, people, while still young, must engage in “regular, moderate physical activity,” for it can slow down functional declines and promote mental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 23). This study discovers, however, that all the informants lead a sedentary life. They cited as reasons that doing daily chores leaves them with no time and energy anymore to engage in physical exercise. They believe that doing daily chores is equivalent to doing sport. One informant reported that lately she and her husband have been engaging in light physical exercise on weekends as a response to recent health check results showing that she suffers from gout.

Unfavorable Attitude toward Institutional Care

In general, there is a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institutional elderly care. On the one hand, it has become harder and harder for the family alone to bear the whole burden of elderly care. And to care for their elderly members, many Indonesian lower and lower-middle-class families do need assistance from the state, the private sector, the community, and NGOs. On the other hand, many Indonesians still view old people’s homes as a place to “dump” the elderly.

In line with this general tendency in the Indonesian society, most of my informants took a negative

view of retirement homes (panti jompo).¹⁾ It never occurs to them that they will, one day, live in such an institution. They even have pity on those who now live there. One informant felt that to have to live in old people's home is to have a disaster or to be exiled. In justifying their negative attitude toward institutional care for the elderly, most of my informants cited moral and practical reasons. They argued that it is immoral for people to send their ageing parent/parents to the retirement home. Since parents took care of the children from infancy to adulthood, it is now the children's obligation to care for their ageing parents. My informants also maintained that elderly care involves activities that are not only physically exhausting but also disgusting, even for family members, never mind strangers, such as nurses and other elderly care professionals. Disgust, they thought, may prevent these professionals from treating the elderly well.

If, of their own accord, elderly Indonesians go to live in the retirement home, they will run the risk of being labeled as "egotistic" or being accused of "preventing their children from expressing filial love." One of my informants even went so far as to pass this judgment: "Such people have no self-respect. They don't know what it means for children to love their parents. They are just selfish" (Lenny, personal communication, July 3, 2019).

Children as Old Age Social Security

In the eyes of some of my informants, children constitute a kind of social security for old age. As one of them put it: "One day I said to my husband, 'We are not young anymore. We better start thinking about how we can prepare for our old age. What if we to start saving money for it?'" In response, the husband said, "Why bother? Haven't we spent so many years raising the kids? When we are old, it will be their turn to care for us" (Prapti,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018). Similar mentality has been found to exist in Africa in the early 1990s (Hesseling, 1994).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attitude might be typical of socie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orks Cited

- Badan Pusat Statistik. (2017). *Statistik penduduk lansia 2017* [Elderly statistics 2017]. Jakarta: Badan Pusat Statistik.
- Badan Pusat Statistik. (2018a). *Statistik Indonesia 2018 =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2018*. Jakarta: Badan Pusat Statistik.
- Badan Pusat Statistik. (2018b). *Statistik penduduk lanjut usia 2018* [Elderly statistics 2018]. Jakarta: Badan Pusat Statistik.

1) Only one informant took a positive view of retirement homes. This is because she had prior experience of doing community services there. Even so, she said she was against the idea of her spending her old age in a retirement home.

- Hasan, A. M. (2017, 9 July). Perempuan lansia rentan kena diskriminasi ganda [Elderly women are prone to double discriminations]. Retrieved from <https://tirto.id/perempuan-lansia-rentan-kena-diskriminasi-ganda-csgU>
- Hesseling, G. (1994). Children as social security in Africa?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cial (in)security and poverty global issues* (pp. 129 - 139). The Hagu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Kementerian Kesehatan RI. (2014). *Situasi dan analisis lanjut usia* [The elderly: Analysis of their situation]. Jakarta: Pusat Data dan Informasi Kementerian Kesehatan RI.
- Kementerian Kesehatan RI. (2017). *Analisis lansia di Indonesia* [The Indonesian elderly: An analysis]. Jakarta: Pusat Data dan Informasi Kementerian Kesehatan RI.
- Kidd, S., Gelders, B., Rahayu, S. K., Huda, K., & Siyaranamual, M. (2018). *Perlindungan sosial bagi penduduk lanjut usia di Indonesia* [Social security for the Indonesian elderly population]. Jakarta: TNP2K.
- Maliki. (2018). *Strategi nasional menuju ageing population society yang mandiri, sejahtera, dan bermartabat* [National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independence, wellbeing and dignity among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for the Elderly, Jakarta. Retrieved from http://www.tnp2k.go.id/filemanager/files/Perlindungan%20Sosial%20Lansia/180521%20Maliki%20Papan%20Stranas%20Perlindungan%20Sosial%20Lansia%20Mei%202018_IND.pdf
- Rezkisari, I. (2017, 3 October). Lansia perempuan tercatat lebih rentan ditelantarkan [Elderly women at risk of being neglected]. Retrieved from <https://www.republika.co.id/berita/nasional/umum/17/10/03/ox8vk9328-lansia-perempuan-tercatat-lebih-rentan-ditelantarkan>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3). *World population ageing,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Bank. (2015, 30 April). Life expectancy.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com.au/publicdata/explore?ds=d5bncppjof8f9_&met_y=sp_dyn_le00_in&idim=country:IDN:USA:IND&hl=en&dl=en

The Flâneur as Producer of Popular Culture: The Case of Teguh Esha in New Order Jakarta

Sony Karsono*

(History Department, Sejong University)

Introduction

The oil boom years of 1974-1982 saw an explosion of popular culture in New Order Jakarta, “electrifying” the lives of countless young Indonesians in and beyond the capital. Born between the late 1940s and early 1950s, Jakarta’s middle-class youngsters participated in the popular culture of the day – not only as its consumers, but also (in some cases) as its producers. Attuned to the developments of youth cultures in the West, they crafted the Indonesian versions of contemporary film, theatre, comic book, motorcycle lifestyle, popular music and young adult fiction. One of them was Teguh Esha (b. 1947), who – even while still a university student – had been busy editing men’s magazine (*Le Laki*), composing song lyrics (sung by, among others, Franky and Jane Sahilatua), and writing young adult novels, of which the Ali Topan trilogy emerged as best-sellers. This study examines flânerie as a central theme in that trilogy and as Teguh Esha’s way of life and strategy of cultural production. The goal is to bring into focus the cultural history of the fast-changing Jakarta in the middle of the New Order era.

Teguh Esha: Biography of a Flâneur¹⁾

Teguh Slamet Hidayat Adrai – who uses the nom de plume “Teguh Esha” – was born in Banyuwangi, East Java on May 8, 1947 as the seventh of eight siblings. His father, Achmad Adrai, was an electrician who came from the island of Madura, East Java. Teguh’s mother, Wiludjeng, earned a living as a tailor. After her husband’s death in 1951, she raised the children alone. She inculcated in them the virtues of religion, morals, and education, believing that these things offered the key to peace, happiness, and meaning in life. She made it a point that they must finish at least senior high school. With an upbringing like this, it is small wonder that Teguh would highlight religion and morals as the central themes in the

* kars@sejong.ac.kr

1) My biographical sketch of Teguh Esha is based, in part, on these sources: Tempo, “Esha, Teguh,” in *Apa & Siapa 1983-1984*, 191-192; Putu Wijaya, “Aje Gile” [What a crazy thing!], *Tempo*, November 18-24, 1978; “Teguh Esha,” <http://www.tamanismailmarzuki.com/tokoh/esha.html>.

novels he wrote in the New Order.

Teguh spent part of his childhood in Bangil, East Java. As a small boy he developed a taste not only for detective novels but also for those comic books by R. A. Kosasih (1919-2012) which presented the Mahabharata and Ramayana stories. In 1959, in pursuit of better education for her children, Wiludjeng relocated her family to Jakarta. Her daughter, Widji Andarini, had moved to the country's capital earlier, after she married Mohamad Saleh, a diplomat of Minangkabau descent. In Jakarta, the family supported itself by trading in paper bags and children's clothes. Wiludjeng sewed the clothes and the children sold them at the Tanah Abang Market, Central Jakarta. By so doing, she succeeded in putting most of her children through high school and some college. Only the youngest finished her undergraduate studies, earning a BA from the Jakarta Institute of the Arts. As for Teguh, from the mid-1960s to the 1970s, he took up civil engineering at Trisakti University (from 1967), journalism at Dr. Moestopo University, and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Indonesia (from 1977) but completed none of these studies. During his college years, he was active in student organizations. In 1973-1975, he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Imada (Association of Jakarta College Students). Later, in 1976-1977, he was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SOMAL (Joint Secretariat of Local Student Organizations). Teguh and his siblings succeeded in entering the Indonesian middling classes. His youngest sister, for example, joined the teaching staff of the Jakarta Institute of the Arts. His older brothers Kadjat Adrai (b. 1943) and Djoko Prajitno²⁾ enjoyed success as journalists. In August 1973, they established the periodical Sonata, which started out as an entertainment magazine for men. It turned into a women-oriented family magazine in 1977 and into a teen magazine in 1980.³⁾

In 1969, responding to Kadjat's and Djoko's encouragement and taking advantage of the boom in popular fiction (which lasted from the late 1960s to the 1970s), Teguh started writing novels. His first novel, *Gairah* [Desire], was serialized in the newspaper *Utusan Pemuda* [Youth Courier].⁴⁾ Before long, his work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bestselling popular novelists Asbari Nurpatria Krisna (b. 1943) and Motinggo Busye. One day, Asbari said this to Teguh:

[...]You have two gifts, journalistic and literary. Motinggo...and I have been watching you. You have a distinctive style. You are in prose what Chairil Anwar is in poetry. If I may offer you advice, I suggest that you learn to be a top-notch journalist first. As a journalist, you'll get access to [a wide variety of social figures:] from hookers to the president.⁵⁾

The idea was that journalistic fieldwork would help Teguh collect rich material for his future novels. It would also enable him to sharpen his fiction-writing skills by providing him with the chance to study

2) I could not find Djoko Prajitno's date of birth.

3) Kurniawan Junaedhie, *Rahasia Dapur Majalah di Indonesia* (Jakarta: Gramedia, 1995), 49-50, 109.

4) Kurniawan, "Pemberontak di Zaman Pers Kuning" [A rebel in the age of the yellow press], *Tempo Interaktif*, April 17, 2011, <http://www.tempo.co/read/news/2011/04/17/161328116/Pemberontak-di-Zaman-Pers-Kuning>.

5) Adiputro, "Teguh Esha: Ali Topan Masih Ada" [Teguh Esha: Ali Topan is still around], *Perspektif Baru*, July 1, 2011, <http://www.perspektifbaru.com/wawancara/797>.

various social types and the problems they faced as they lived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Teguh took Asbari's advice to heart. He took a job as a journalist with Utusan Pemuda [Youth Courier]. In the meantime, he studied journalism at Dr. Moestopo University, where he got to know Deddy Armand (b. 1943), who was the editor of the humour magazine Stop (1969-1980). Deddy invited Teguh to contribute to his periodical. On February 14, 1972, it began serializing what would turn out to be Teguh's most successful novel: *Ali Topan*.⁶⁾ Of the fictional character Ali Topan, Teguh said that the youth "is rich and belongs to the middling classes. He cannot stand oppression and has an acute sense of justice. He will rebel at the sight of injustice." In other words, he is "a rebel with a cause."⁷⁾ From 1973 to 1975, he served at the magazine Sonata as deputy editor-in-chief in charge of music affairs.⁸⁾ In 1975, with capital provided by the "son of corrupt customs official," Teguh established *Le Laki* [Man], an entertainment magazine for men. From 1975 to 1977, he served as its editor-in-chief. In 1976, to help him run the magazine, he employed Yudhistira Massardi as his deputy chief editor and Noorca Massardi as managing editor.⁹⁾

Between 1977 and 1981, having established himself as a journalist, Teguh published a few novels: *Ali Topan Kesandung Cinta* [Ali Topan Tripped Up by Love] in 1977; *Ali Topan Detektif Partikelir* [Ali Topan, Private Detective] and Dewi Besser: *Playgirl Salah Gaul* [Dewi Besser: Playgirl Who Associates with the Wrong People] in 1978; *Dewi Besser Superstar* in 1979; *Dari Januari sampai Desember* [From January to December] in 1980; and *Izinkan Kami Bercinta* [Let Us love], *Anak Gedongan* [Rich Kids], and *Penembak Bintang* [Star Shooter] in 1981. In writing these novels, Teguh turned "news into stories."¹⁰⁾

In 1977, *Ali Topan Kesandung Cinta* emerged as a bestseller; it ran to six reprints in six months. Just how many copies were sold remains unclear, for the publisher, Cypress, did not reveal the sales figures. Whatever the case, owing to the novel's financial success, Teguh was able to build a house on a plot of land of 360 square meters in Puri Mutiara, Kemang-Cipete, Jakarta. Cypress gave him a used Mercedes as a bonus. The same year saw the novel's film adaptation, directed by Ishaq Iskandar (b. 1942), using a score by Guruh Soekarno Putra (b. 1953), and starring Junaedi Salat (b. 1950) and Yati Octavia (b. 1954). In 1978, *Balada Ali Topan* [The Ballads of Ali Topan]—an album of songs written by Teguh and sung by Franky Sahilatua (1953-2011) and Jane Sahilatua—was released.¹¹⁾ Having achieved his great success, on May 20, 1979, Teguh married Ratnaningdiah Brotodihardjo, the granddaughter of Suratin, the founder of the PSSI (All-Indonesia Football Union). They have seven children.

In 1979, the novel *Ali Topan Detektif Partikelir* [Ali Topan the Private Detective] was adapted to the film *Ali Topan Detektif Partikelir Turun ke Jalan* [Ali Topan: The Private Detective Goes to the Streets].

6) Kurniawan, "Pemberontak."

7) Adiputro, "Teguh Esha: Ali Topan Masih Ada."

8) Teguh Esha, *Ismail Marzuki: Musik, Tanah Air, dan Cinta* [Ismail Marzuki: Music, fatherland, and love] (Jakarta: LP3ES, 2005), 195.

9) Kurniawan, "Pemberontak."

10) Tempo, "Esha, Teguh," 192; Adiputro, "Ali Topan Masih Ada."

11) Kurniawan, "Pemberontak"; Yudhistira A.N.M. Massardi, "Perjalanan (Bersama) Franky" [A Journey with Franky], *Gatra*, April 28, 2011, <http://arsip.gatra.com/artikel.php?id=147883>.

It was directed by Abrar Siregar and starred, among others, Widi Santoso (d. 2012), Roy Marten (b.1952), and Rudy Salam (b. 1948). In the same year, Teguh released an album bearing the same title. The songs in it were performed by Nana and Bodi.¹²⁾

In the 1970s, success entered into Teguh Esha's life instantly and in a big way. It did not last long, though. In the early 1980s, his fame, fortunes, and social impact faded away and this came to him as a great shock. He tried to cope with it by finding solace in Islam, though not mainstream Islam. As if he were a latter-day prophet, he fashioned his own Islam: he carried out exegetical adventures in it. And he became a notorious figure in the printed media after he had announced his idiosyncratic version of Islam, which embraced the truth in the Koran but rejected the hadith (firsthand records of the Prophet Muhammad's words and deeds). He formed a small circle of followers in Jakarta and in Bandung, to whom he taught a number of innovations that he introduced to Islamic rituals. He soon ran into trouble with the polic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the Council of Indonesian Islamic Scholars. In the mid-1980s, Syu'bah Asa of the weekly *Tempo* reported that Teguh's heresy ended up in destabilizing his own family.¹³⁾

Teguh Esha's emergence, success, and crisis as a writer of popular fiction in the New Order illustrate the challenges of living in a society that experienced rapid economic modernization. Critical and commercial success did not necessarily lead to happiness. It came and went quickly, causing him to suffer major shocks, mental and material. If we compare his novels with those that Motinggo Busye had written under Guided Democracy, we find that the social themes that Teguh worked on were not unique to the New Order. By the early 1960s, or perhaps even earlier, upper middling-class Indonesians had already suffered from moral bankruptcy and the breakup of the nuclear family—the major social problems that Teguh worried about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He operated, however, in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s that were favourable t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popular fiction. He also talked about his major themes in ways that were distinctly New Order.

Commodity and Moral Bankruptcy: The Destructive Power of Money

On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affluent residents of Jakarta under the governorship of Ali Sadikin (1969-1977), the historian Susan Abeyasekere writes:

Corrupt or not, the wealthy inhabited a different world from the majority of Jakarta's residents.

12) Jenar Maulani and Teguh Esha, *Alexandra & Ali Topan: Ku Selalu Ada* [Alexandra and Ali Topan: I will always be there] (Jakarta: Republika, 2007), 242.

13) Syarif Hidayat, "'Ali Topan' Menggenggam Alquran" ["'Ali Topan' carries the Koran], *Zaman*, May 19, 1984; "Peringatan Deppen terhadap Majalah *Zaman*" [Department of Information's warning to the magazine *Zaman*], *Suara Muhammadiyah*, Juni 11, 1984; "TSHA ('Ali Topan') Ajarannya Dilarang" [The teaching of TSHA ('Ali Topan') is banned], *Pikiran Rakyat*, November 26, 1986; Syu'bah Asa, "Ali Topan Nabi Jalanan" [Ali Topan the street prophet], *Tempo*, December 6, 1986.

Increasingly they adopted the trappings of international consumerism: Volvos or Mercedes Benz cars, supermarket shopping, American films in air-conditioned cinemas, horse-racing and games of golf.¹⁴⁾

Abeyasekere's observation finds its literary confirmation in ATKC. The passage below gives us some idea of the taste of high civilian bureaucrats as consumers in Jakarta in the 1970s. Significantly, it is as a classy consumer that Ali Topan's daddy,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is first introduced to the reader in ATKC:

A copper-coloured Fiat sports car entered Ali Topan's house yard and stopped in front of the garage. Mr. Amir, Topan's father, got out of the car and walked toward the front door of the house, a Samsonite business case in his right hand, a coat in his left. Around his collar wound a necktie, which he had loosened up a bit before he got out of the car. Two upper buttons of his Kern shirt were left unfastened, giving him a "boyish" look.¹⁵⁾

Mr. Amir is a middle-aged man who is transformed by commodities into a man conveying wealth and virility; the world's top brand commodities envelop his body and make him look like a male model. Later on in the novel, the reader is told that Mr. Amir lights his cigarette with a Ronson lighter and wears Bally shoes to go on a date with his hooker. If one happens to be a worshiper of fashion who believes that fashion changes ordinary man into a cool and macho guy, one would envy Mr. Amir. The looks of Mr. Amir remind me of male mannequins I often saw in the window displays of a first-class boutique at Plaza Tunjungan shopping mall in Surabaya in 2002: male mannequins dressed up with all the dazzling paraphernalia of *haute couture*.

As a consumer, Mrs. Amir is hardly less impressive than her husband. She drives in black Holden Premier sedan imported from Australia. A very generous cougar, she buys her gigolo expensive Kern shirts at an exclusive boutique in the middling-class Kebayoran area in Jakarta. The gigolo ends up wearing the same brand of shirts as her husband does. Certainly, this is not the kind of "trickle-down effect" that the technocrats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had in mind. Its "correct" version was supposed to be a process by which upper-class and upper-middling-class people, who enjoyed income growth, would share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people of the lower classes, either through investment or consumption.

Mrs. Amir smokes Dunhill cigarettes, perhaps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or the United Kingdom. Thanks to her preference for the brand, people in Kebayoran, who know her reputation as a sugar mommy, call her "Auntie Dunhill." The day she marries Mr. Amir, the man's given name replaces hers and people start calling her "Mrs. Amir." When the marriage breaks down, two processes are set in motion. First, there is a shift in the way some people address her: the shift in her title from the respectable

14) Susan Abeyasekere, *Jakarta: A History*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35.

15) Esha, *Ali Topan*, 37.

Nyonya (Mrs.) to the *Tante* (Auntie), which in some contexts connotes wantonness. Second, the name of a commodity (Dunhill) takes the place of that of her husband (Amir). Is it because her absentee spouse has left an empty space in her heart, which later on is filled by cigarettes? Both shifts mark her decadence in the eyes of people in the neighbourhood where she lives. In Jakarta as late as the early 1990s some people still tended to perceive female smokers as wanton women (*perempuan nakal*).

It has been argued that civil bureaucrats and businesspeople were among the beneficiaries of the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the oil boom period under the New Order.¹⁶⁾ Mr. Amir belongs to the first category of beneficiaries. Owing to the sizable rise in his income, he is able to buy fancy commodities. He grows into the type of consumer for whom what matters in commodities is not merely the comfort they offer and the functions they have. What also matters is their symbolic value. It is this value he is after when, for his footgear, he prefers Bally to Bata. Only members of the elite could buy branded commodities such as Fiat, Samsonite, Kern, and Bally. The top brand names are signs of distinction which set people like Mr. Amir apart from the rest of society. The newly rich with their emerging new needs for status symbols constituted a new market for exclusive commodities. Through its advertising campaigns, however, capitalism arouses in many people the desire for the stylish commodities. So the poor man thinks to himself, “I too want to wear the dazzling Bally shoes. Oh, if only I had the money!”

A great deal of money trickled down from high income-parents to their children. As their wallets got fatter, the middling-class youths and their needs began to constitute a burgeoning market for all kinds of goods and services. In ATKC we see how Topan’s world is filled with commodities ranging from porn novels, comic books, and blue jeans to clove cigarettes, motorbike, and the Beatles songs.

People in the radio broadcasting business, for instance, understood well that the middling-class youths often felt lonely at home. They knew that the youths would be glad to have a sort of a long-distance buddy around to keep them company and to keep them entertained while they were all by themselves, shut off in the four walls of their rooms. This was a good business opportunity. So radio stations were set up to cater to the specific needs and tastes of the middling-class youths. If the owner of a radio station was able to secure a good number of loyal listeners, capitalists would come flocking in to advertise through his radio station. One hits upon this passage in ATKC where the announcer of a youth radio station, aptly named *Young Romeo*, is addressing his listeners, one of whom is Topan:

“Johnny, the announcer, and Ikhsan, the operator, are entertaining you guys who are now studying or daydreaming at home. It is our hope that the songs we play at the studio would exorcise bad thoughts and evoke sweet dreams and much good luck tonight. Ha! ha! ha!...” thus spoke the *Young Romeo* announcer.

The giggle was followed by a fine piece of music by The Hollies: “Too Young to Be Married.” Ali Topan lay in bed. With his eyes closed, he enjoyed his mood in solitude. In solitude.

16) Anne Booth, *The Oil Boom and After: Indonesian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e Soeharto Er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He then picked up a cigarette from beneath his sock where he had kept it. He lighted the cigarette and puffed at it. “This song of the Hollies sounds so cool if you listen to it while smoking a cigarette,” Ali Topan thought to himself.¹⁷⁾

Rising income and rising loneliness made profitable markets. Lonely but wealthy middling-class adults in their forties created the demands for a sex industry. Similarly, their lonely but well-funded children created the promising market for tobacco, music, and radio broadcasting businesses.

Yet to be wealthy is one thing and to be blessed with happiness is another. For, ultimately, what matters is not the wealth itself but its origin. As one Indonesian saying has it: “Ill-gotten wealth brings no blessing.”¹⁸⁾ It is believed that wealth amassed by immoral means will in the end spell disaster to the people who own it. They may display the outward look of happiness while they rot inside. A family that lives off ill-gotten money is like a man who drinks poisoned water. Sooner or later, either the whole family will disintegrate or some of its members will go to rack and ruin. This is one major moral theme of *ATKC*. In this novel, the reader is told that there are civilian bureaucrats who get rich by abusing their authority and plundering the government’s money. It is in this way, for instance, that the father of Bobby, one of Topan’s buddies, gets the money to buy a new Mercedes.¹⁹⁾ It is likely that to some degree Topan’s daddy too engages in corrupt practices. Mr. Amir does not spend his money on a new Mercedes like Bobby’s father. But like many other senior bureaucrats, Mr. Amir spends much of his time and money on prostitutes.

In *ATKC*, Teguh Esha suggests that the New Order did not solve the moral problems of Guided Democracy. The novel makes clear that, just as the youths of 1966 were faced with what they saw as moral, political, and economic bankruptcy in the era of Guided Democracy (1959-1965), the youths of Topan’s age group in the late 1970s were faced at least with the moral and financial “delinquency” of the older generation who happened to be their parents and their country’s bureaucrats. The references made by the youth characters in *ATKC* to the plundering of the state’s treasury by their parents agree with the historical facts. The novel is set in the late 1970s and this period (especially between 1974 and 1978) saw a wave of demonstrations in which students protested the endemic corruption of the elite supporters of the New Order: high officials in the bureaucracy as well as the alliance between the so-called “financial generals” and a handful of ethnic Chinese businesspeople close to Soeharto.²⁰⁾ A scandal broke out in 1974 in which the state oil company Pertamina almost collapsed as the officials who plundered its assets had rendered it unable to pay its debts of \$ US 10 billion.²¹⁾ The same year saw the January 15 Affair in which thousands of students staged demonstrations in the streets of Jakarta to protest the corruption by Soeharto’s cronies, the dominance of Japanese capital in the city’s economy, the increasing gap between

17) Esha, *Ali Topan*, 42-43.

18) The original Indonesian version runs as follows: *Uang panas tidak membawa berkah*.

19) Esha, *Ali Topan*, 82.

20) Adam Schwartz, *A Nation in Waiting: Indonesia’s Search for Stabilit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2000), 33.

21) Michael R. J. Vatikiotis, *Indonesian Politics under Suharto: The Rise and Fall of the New Order* (London: Routledge, 2000), 37.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the rich. The jobless youths from the off-street kampongs who joined the demonstrations ended up burning cars and looting Chinese stores.²²⁾ In response to the growing student opposition to the New Order, Soeharto introduced in 1978, a year after *ATKC* was published, a law that prohibited political activism on campus.²³⁾

The New Order was facing a moral crisis. The people who in 1966 got rid of the villains and promised to redeem the country turned out in the 1970s to be themselves villains. So morally rotten was the New Order that some teachers even turned out to have been perverts all along. In *ATKC* Topan's senior high school principal Mr. Broto Panggabean smokes marijuana at his office²⁴⁾ while his English teacher Mrs. Mary turns out to be a lesbian.²⁵⁾ In the context of *ATKC*, the author intends lesbianism and smoking pot to be the symptoms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in school, which is supposed to be a moral institution.

Working Bibliography

- Abeyasekere, Susan. (1987). *Jakarta: A history*.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Adiputro, D.B. (2011, 3 August). Ali Topan masih ada [Ali Topan is still around] [Web log post]. Retrieved from <http://jtopan.blogspot.com/2011/08/teguh-esha-sastrawan-ali-topan-masih.html>
- Asa, S. (1986, 6 December). Ali Topan nabi jalanan [Ali Topan the roadside prophet]. *Tempo*.
- Bakker, E., & Saentaweesook, K. (2011). Jakarta through poetry. In P. J. M. Nas (Ed.), *Cities full of symbols: A theory of urban space and culture* (pp. 217 - 240). Leiden: Leiden University Press.
- Benjamin, W. (2006 [1938]). The Paris of the Second Empire in Baudelaire. In M. W. Jennings (Ed.), *The writer of modern life: Essays on Charles Baudelaire* (pp. 46 - 13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ehlke, H. L. (2008). *Nation as fashion in New Order Indonesia, 1967 - 1998*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Bonneff, M. (1998). *Komik Indonesia* [Indonesian comics]. Jakarta: Kepustakaan Populer Gramedia.
- Buck-Morss, S. (1991). *The dialectics of seeing: Walter Benjamin and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A: MIT Press.
- Castles, L. (1989). Jakarta: The growing centre. In H. Hill (Ed.), *Unity and diversit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Indonesia since 1970*.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6). *Statistical yearbook of Indonesia 1995*. Jakart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 Colombijn, F. (2014). *Under construction: The politics of urban space and housing during the decolonization of Indonesia, 1930 - 1960*. Leiden: Brill.

22) Abeyasekere, *Jakarta: A History*, 240.

23) Schwartz, *A Nation in Waiting*, 36.

24) Esha, *Ali Topan*, 176-77.

25) *Ibid.*, 22-23, 30.

- Cowherd, R. (2002). *Cultural construction of Jakarta: Design, planning, and development in Jabotabek, 1980 - 1997* (Unpublished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achusetts.
- Cybrivsky, R., & Ford, L.R. (2001). City profile: Jakarta. *Cities*, 18(3), 199 - 210.
- Cribb, R., & Kahin, A. (2004). Media. In R. Cribb & A. Kahin (Eds.), *Historical dictionary of Indonesia* (2nd edition)(p.267).Lanham,MD:ScarecrowPress.
- Darnton, R. (1971). In search of the Enlightenment: Recent attempts to create a social history of ideas. *Journal of Modern History*, 43(1), 113 - 132.
- Decornoy, J. (1990, February). Djakarta à toute vitesse...vers où? [Jakarta at full speed... where to?] *Le Monde diplomatique*. Retrieved from <https://www.monde-diplomatique.fr/1990/02/DECORNOY/42366>
- Dhakidae, D. (1991). (UnpublishedPhDthesis).CornellUniversity,NewYork.
- Dick, H.W. (1985). The rise of a middle class and the changing concept of equity in Indonesia: An interpretation. ,,71 - 92.
- Ekodhanto, F. (2016, 30 April). Wawancara Teguh Esha [Interview with Teguh Esha]. *Koran Jakarta*.
- Esha, T. (1977). [AliTopantrippedupbylove].Jakarta:Cypress.
- Esha, T. (1978). [AliTopantheprivateeye].Jakarta:Cypress.
- Esha, T. (1984, 11 February - 1 June). [AliTopantheStreetsantri]. .
- Esha, T. (2005). [IsmailMarzuki:Music,fatherlandandlove].Jakarta:LP3ES.
- Esha, T. (2011, 1 February). Surat dari jalanan: Kepada para reformis '98 [Letter from the road: To pro-reform activists of 1998]. Retrievedfromhttp://m.beritajatim.com/kabaranda/933/Kepada_Para_Reformis_98.html
- Esha, T. (2016). Jan Mintaraga sahabatku [My friend Jan Mintaraga]. In I. Gunawan, A. Wijaya, Syamsuddin & S. Gienardi (Eds.), [Comicsfancatalogue](pp.16 - 19).Jakarta:GilaCergam.
- Fals, I. (1984). Berkacalah Jakarta [Look yourself in the mirror, Jakarta]. On [Audiocassette]. Jakarta:MusicaStudio.
- Foulcher, K. (1991). Making history: Recent Indonesian literature and the events of 1965. In R. Cribb (Ed.), (pp.101-119). Clayton,Vic.:CentreofSoutheastAsianStudies,MonashUniversity.
- Frederick, W.H. (1984). Rhoma Irama and the dangdut style: Aspects of contemporary Indonesian popular culture. ,,103 - 130.
- Frederick, W.H. (1997). Dreams of freedom, moments of despair: Armijn Pané and the imagining of modern Indonesian culture. In J. Schiller & B. Martin-Schiller (Eds.), (pp.54 - 89). Athens, OH: OhioUniversityCenterforInternationalStudies.
- Fuller, A.C.S. (2010). *Jakarta flânerie: Selected writings of Seno Gumira Ajidarma*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Tasmania, Hobart.
- Gilbert, F. (1971). Intellectual history: Its aims and methods. *Daedalus*, 100(1), 80 - 97.
- Hanan, D. (2017). *Cultural specificity in Indonesian film: Diversity in un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 Hatley, B. (1994). Cultural expression. In H. Hill (Ed.), *Indonesia's New Order: The dynamics of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pp. 216 - 26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eider, K.G. (1991). *Indonesian cinema: National culture on scree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idayat, S. (1984, 19 May). "Ali Topan" menggenggam Alquran ["Ali Topan" carries the Koran]. *Zaman*.
- Hill, D. T. (1979). Alienation and opposition to authoritarianism in the novels of Ashadi Siregar. *Review of Indonesian and Malaysian Affairs*, 13(1), 25 - 43.
- Hill, H. (1994). *Indonesia's New Order: The dynamics of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Izzati, F., & Farid, H. (2013, 15 July). Hilmar Farid: Warisan kunci Orde Baru adalah kemiskinan imajinasi politik, sosial dan kultural! [Hilmar Farid: The New Order's key legacy is the impoverishment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magination!]. *Indoprogress*. Retrieved from <https://indoprogress.com/2013/07/hilmar-farid-warisan-kunci-politik-orde-baru-adalah-kemiskinan-i-majinasi-politik-sosial-dan-kultural/>
- Jellinek, L. (1991). *The wheel of fortune: The history of a poor community in Jakart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Junaedhie, K. (1995). *Rahasia dapur majalah di Indonesia* [Secret recipes of Indonesian magazines]. Jakarta: Gramedia.
- Karsono, S. (2016). Motinggo Busye and his popular novels.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44(129), 262-284.
- Komunitas Bambu. (2019, 26 April). Kadjat Adra'i. *Komunitas Bambu*. Retrieved from <https://komunitasbambu.id/kadjat-adrai/>
- Kurnia, L. (2016). *Kota urban Jakarta dalam komik Zaldy* [The city of Jakarta in the comics of Zaldy].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 Kurniawan. (2011, 17 April). Pemberontak di zaman pers kuning [A rebel in the age of yellow press]. *Tempo*. Retrieved from <https://seleb.tempo.co/read/328116/pemberontak-di-zaman-pers-kuning/full&view=ok>
- Kuwado, F.J. (2018, 20 May). Survei Indo Barometer, Soeharto dinilai sebagai presiden paling berhasil [Indo Barometer's survey says Soeharto is seen as Indonesia's most successful president]. *Kompas*. Retrieved from <https://nasional.kompas.com/read/2018/05/20/15323601/survei-indo-barometer-soeharto-dinilai-sebagai-presiden-paling-berhasil>
- Lent, J.A. (2015). *Asian comics*. Jackson, MS: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 Liddle, R.W. (1997). Improvising popular cultural change: Three Indonesian cases. In J. Schiller & B. Martin-Schiller (Eds.), *Imagining Indonesia: Cultural politics and political culture* (pp. 1 - 53). Athens, OH: Ohio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 Lindsey, T. (2017, 4 October). Is Indonesia sliding towards a "Neo-New Order"? *Indonesia at Melbourne*. Retrieved from <https://indonesiatmelbourne.unimelb.edu.au/is-indonesia-sliding-towards-a-neo-new-order/>
- Lockard, C.A. (1998). *Dance of life: Popular music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ubis, F. (2018). *Jakarta, 1950 - 1970*. Depok: Masup Jakarta.
- Malna, A. (1995). *Arsitektur hujan* [Architecture of rain]. Yogyakarta: Bentang Budaya.
- Malna, A. (2017). *Teks-cacat di luar tubuh aktor* [Defective texts outside the actor's body]. Yogyakarta: Kalabuku.
- Massardi, Y. (2011, 28 April). Perjalanan (bersama) Franky [Journey of /with Franky]. *Gatra*. Retrieved from <http://arsip.gatra.com/2011-04-28/majalah/artikel.php?pil=23&id=147648>
- Maulani, J., & Esha, T. (2007). *Alexandra & Ali Topan: Ku selalu ada* [Alexandra and Ali Topan: I will always be there]. Jakarta: Republika.
- Miller, G. (1990). Book publishing in Indonesia: Issues affecting acquisitions and collections management. *Library Acquisitions: Practice & Theory*, 14(1), 61 - 71.
- Moertopo, A. (1973). *Some basic thoughts on the acceleration and modernization of 25 years' development*. Jakarta: Yayasan Proklamasi,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Murray, A. (1991). Kampung culture and the radical Islamic chic in Jakarta. *Review of Indonesian and Malaysian Affairs*, 25(1), 1 - 16.
- Panitia Reuni Artis dan Wartawan Jakarta. (2004). *Memori artis & wartawan Jakarta, 2004*. Jakarta: Panitia Reuni Artis dan Wartawan Jakarta.
- Pelita. (1984, 25 May). Kasus Teguh Esha [The case of Teguh Esha].
- Pikiran Rakyat. (1986, 26 November). TSHA ("Ali Topan") ajarannya dilarang [The teaching of TSHA ("Ali Topan") is banned].
- Pleßke, N. (2014). *The intelligible metropolis: Urban mentality in contemporary London novels*. Bielefeld: Transcript Verlag.
- Purwanto, B. (2008). Menulis kehidupan sehari-hari Jakarta: Memikirkan kembali sejarah sosial Indonesia. In H. Schulte Nordholt, B. Purwanto & R. Saptari (Eds.), *Perspektif baru dalam penulisan sejarah Indonesia* (245 - 276).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 Rauber, D.F. (1973). Sherlock Holmes and Nero Wolfe: The role of the "great detective" in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Popular Culture*, 6(3), 483 - 495.
- Reid, A. (2011). Gestapu: A hesitant assessment. In A. Reid, *To nation by revolution: Indonesia in the 20th century* (pp. 184 - 192). Singapore: NUS Press.
- Said, S. (1991). *Profil dunia film Indonesia* [Profile of the Indonesian film world]. Jakarta: Pustakakarya Grafikatama.
- Setiawan, E.A. (2003). *Untuk kaum muda* [For the young] [Motion picture]. Indonesia: Faculty of Film and Television, Jakarta Art Institute.
- Sethuraman, S.V. (1976). *Jakarta: Urban development and employmen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Silver, C. (2008). *Planning the megacity: Jakarta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Routledge.
- Sobirin, E.K. (1981, 4 March). Omong-omong dengan Teguh Esha: Jangan baca novel saya! [A conversation with Teguh Esha: Do not read my novels!]. Merdeka.
- Sopian, A. (2001, 6 August). Putus dirundung malang [Discontinued, dogged by misfortune]. *Pantau*,

- 2(16). Retrieved from <https://radiobuku.com/2012/07/majalah-aktuil/>
- Suara Muhammadiyah. (1984, 11 June). Peringatan Deppen terhadap majalah *Zaman* [Department of Information's warning to the magazine *Zaman*].
- Suer-Net. (2019, 23 February). *Cerita penulis film Ali Topan anak jalanan* [The story of he who wrote the film *Ali Topan anak jalanan*]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MnhLZVoOXIE>
- Supria, D.E. (1987 - 88). *Labyrinth* [Painting]. Retrieved from <http://dedeerisupria.blogspot.com/2009/12/labyrinth.html>
- Suara Pembaruan. (2000, 18 December). Ali Topan “dihidupkan” lagi [Ali Topan is being “resurrected”].
- Tempo. (1984). Esha, Teguh. In Tempo (Ed.), *Apa & siapa sejumlah orang Indonesia 1983 - 1984* [An Indonesian who's who 1983 - 1984] (pp. 191 - 192). Jakarta: Grafitipers.
- Wrigley, R. (2014). Introduction. In R. Wrigley, *The flâneur abroad: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p. 1 - 13).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로HINGYA 사태를 읽는 한국 사회의 키워드: 부역자, 반무슬림, 연대*

김현경(전북대학교 정치학과)

1. 서론

로HINGYA족(Rohingya)¹⁾은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분포하고 있고, 이 중 미얀마의 러카잉(Rakhine: 과거 아라칸 Arakan)주에만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Wikipedia, 2017). 그러나 1978년 반무슬림-반토착민 정책으로 인하여 로HINGYA의 피난 생활이 시작되었고, 2012년 5월에 발생한 불교도 러카잉 버마족 여성에 대한 무슬림 남성의 강간 및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불교도 러카잉 버마족의 보복 살인 및 방화 등 유혈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13년 3월에는 중부 지역에서 불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2016년 10월 로HINGYA가 미얀마 경찰의 국경초소를 습격하면서 정부는 이들 무장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작전에 돌입한다. 그리고 최근 2017년 8월, 로HINGYA의 자치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아라칸로HINGYA구원군(ARSA: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얀마 내 130만 명의 로HINGYA 중 약 6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로 내몰렸다.

본 논문은 미얀마의 로HINGYA 사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로HINGYA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 및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로HINGYA 사태를 뉴스로 접하는 네티즌들과 인권 및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시민단체로 구분한다. 네티즌의 반응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배열된 로HINGYA 관련 기사 중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추천순’으로 댓글을 나열했을 때 상위에 위치하는 댓글, 즉 다른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내용을 토대로 시민들, 네티즌들의 반응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한국 시민단체의 반응 및 대응은 오늘날까지 미얀마 인권 및 평화, 개발협력을 주제로 활동을 전개해온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재 로HINGYA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로HINGYA 사태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 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2018년 거점국립대 대학원생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임.

1) ‘Rohingya’는 미얀마어 발음으로 ‘로HING자’, 영어 발음으로는 ‘로HING야’, 벵갈어 발음으로는 ‘로HING야’로 다르게 읽힌다. 본문에서는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로HING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부역자와 반무슬림

로HINGYA 사태와 관련된 국내 기사들은 2017년 8월 25일, 아라칸로HINGYA구원군(ARSA: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이 경찰초소를 습격하고, 정부가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수행한 이후부터 활발하게 작성되었다. 2017년 9월 이후에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로HINGYA 사태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배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네티즌들이 로HINGYA 사태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읽은 기사들의 ‘베스트 댓글’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1) 부역자, 로HINGYA

첫 번째는 로HINGYA를 영국이 식민지배시기에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불러들인 이주민으로 인식하고, 그들은 식민세력에 협조한 ‘부역자’로 평가하는 것이다. 로HINGYA를 부역자로 평가하는 댓글은 로HINGYA를 영국의 식민지배시기에 미안마에 내도한 이주민이라는 역사를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과 유사한, 즉 미안마의 친일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HINGYA는 부역자이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친일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안마 정부와 미안마 국민들이 로HINGYA를 내쫓고 그들이 인종청소와 같은 잔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HINGYA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그들을 미안마 땅으로 불러 들여온 영국이 책임져야하며, 로HINGYA는 미안마에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로HINGYA를 부역자로 인식하고 있는 댓글들은 적게는 300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공감’을 얻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이 로HINGYA를 친일파와 같은 존재, 부역자로 인식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의 댓글 중 로HINGYA가 부역자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그들의 역사적 기원이 영국 식민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설명을 동반한 댓글도 대거 존재한다. 이러한 댓글 역시 아래에서 보다시피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댓글 작성자들이 로HINGYA를 부역자로 인지하고 있는 핵심 근거는 ‘이슬람의 내분으로 쫓겨난 무슬림이 미안마로 넘어왔으며’, ‘로HINGYA는 영국이 미안마 분열을 위해 들여온 종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 댓글들에서 보이는 인식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어느 한 논리나 주장에 편향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로HINGYA는 영국이 식민지배시기에 불러들인 무슬림 이주자들인가? 실제로 로HINGYA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로HINGYA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안마 정부 및 국민과 로HINGYA 간의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안마 정부와 다수의 미안마 국민들은 로HINGYA가 로HINGYA 스스로를 부르기 위해서 ‘발명’된 용어이며, 미안마 역사 내에서 그러한 용어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즉 로HINGYA에 대해 정부와 로HINGYA 이외의 집단들은 벵갈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의 벵갈리(Bengali) 또는 불법이주자로 부르면서 영국식민시기에 인도로부터 이주한 노동자와 상인, 그리고 무슬림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Southwick, 2015). 반면에 로HINGYA 지도자들은 식민시대 이전부터 러카잉주에 존재한 무슬림 공동체의 후손이 로HINGYA라고 주장한다(Coates, 2014). 로HINGYA 사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 역시 로HINGYA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서 토착민, 혹은 비토착민으로서 로HINGYA의 역사적 기원을 다루고 있다.

〈표 1〉 주요 사건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 집단간 대립적 입장²⁾

주요 사건	미얀마 정부	로힝야
미얀마로의 로힝야 내도	18세기 이후	5세기부터 존재
제1차 버마-영국 전쟁 이후	개방된 이민, 벵갈무슬림 유입, 영국 식민정부에 적극 협조	종족집단으로서의 생존 및 독립을 위한 전략(버마족의 독립을 위해 일본 식민세력과 손을 잡았던 것과 유사한 맥락)
1978년 Negamin 작전	국민-외국인 구분을 위한 인구 조사	로힝야 축출 작전, 20만 명 로힝야 긴급 피난
1982년 버마시민권법 개정	국민, 준국민, 귀화민으로 정의 및 구분	로힝야 시민권 박탈의 시작
2012년 6월 폭력사태	라카인 불교도 여성에 대한 로힝야 무슬림 청년 3명의 강간 및 살해 사건으로 촉발	군경에 의해 조직, 동원된 세력이 자행한 사건
2017년 8월 토벌작전	로힝야 무장단체(아라칸로힝야구원권)의 경찰초소 습격, 테러단체로 규정	경찰 초소에 대한 일부 무장단체의 발포 이전부터 무장경찰 100명 이상이 대기 및 군부대 집결, 난민 60만 명 발생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로힝야의 역사적 기원은 아직 하나의 사실로 점철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이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다양한 주장 중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그를 주장하는 일과 토론을 통해 논쟁의 해소에 기여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로힝야 사태에 대한 댓글들은 하나의 주장과 입장에만 편향되어 있고, 로힝야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 쪽의 주장을 사실인 것과 같이 믿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로힝야 사태를 보도하는 국내의 언론이 로힝야 사태에 대한 논쟁적인 주장과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그러한 정보의 편향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언론 역시 로힝야 사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보도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의 편향성이 극복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시민, 네티즌 역시 기사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2) 반무슬림 정서: 국내의 이슬람포비아

로힝야 사태 관련 기사에 달린 주요 댓글들 중 다른 하나의 주요한 경향은 반무슬림 정서로 표현된다. 로힝야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무슬림은 원래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힝야도 역시 먼저 폭력 사태를 시작한 것이며, 이슬람 국가가 로힝야를 책임져야 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댓글들 역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이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반무슬림, 즉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에 기반한 표현으로

2) 김성원 2006b, 박장식 1996; 2013, 장준영 2012; 2015; 2017, Abdelkader 2013, Blomquist 2015, Cheung 2011, Coates 2014, Hre-Mang 2013, Kiraga-Rosi-Morris 2011, Kyaw 2014, Leider 2008; 2014, Lewa 2009, Marshall 2013, Matthews 1993, Kipgen 2013; 2014, Nyi Nyi Kyaw 2008, OHCHR 2017, Robinson-Rahman 2012; Schober 2006, Singh-Haziq 2016, Southwick 2015, Parnini 2013, Ware 2015, Zarni-Cowley 2014, Kaladan Press Network 2017.

보이며 이러한 반무슬림 정서는 로힝야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수용하면 안된다는 적대심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댓글에서 표현되는 반무슬림 정서와 공감의 정도는 국내에서 이슬람포비아가 꽤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로힝야 이슈가 인권 유린과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인도적 관점의 사안이 아닌 ‘무슬림’이 주인공인 이슈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댓글들은 대부분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인식과 ‘타종교, 타종족 배척’이라는 반(反)다문화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로힝야 사태와 예멘 사태에 대한 댓글에서 보이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대응은 혐오 감정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다. 로힝야 사태에 대한 댓글들의 반무슬림 정서, 이슬람 혐오의 감정은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모든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종교에 대한 무지 또는 편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국내 이슬람 혐오, 반무슬림 정서와 관련한 사례 및 분석들과 로힝야 사태가 다른 점은 테러행위를 일삼는 IS와 같은 가해자로서의 무슬림이 아니라 인권 유린, 학살을 당하는 피해자로서의 무슬림의 모습을 보도하는 기사에도 이슬람 혐오, 반무슬림 정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 소급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라는 감정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는 것이라는 캐롤린 엠케(Carolin Emcke, 2017; 박종수, 2017: 50에서 재인용)의 주장과 같이 사건과 사례마다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련되고 양성’된 혐오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힝야 사태는 앞서 밝혔듯이 논쟁적인 역사적 기원,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과정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지만 그것들을 떠나 로힝야라는 소수 종교, 소수 종족의 인권이 유린되고 방화, 폭행, 총기살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짓밟히고, 기본권을 상실한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표현되고 있는 로힝야 사태에 관한 댓글들은 로힝야 사태와 관련한 사실에 대한 접근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결여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방의 주장처럼 로힝야가 ‘영국 식민지배시기에 영국에 부역하기 위해 미얀마에 내도한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부역자’라고 판단하는 개인적 견해를 근거로 그러한 행위와 사건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시민단체: 연대

미얀마의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1990년대에서 출발한다. 2006년 당시에 파악된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는 국내 활동가들의 연대와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자 집단, 그리고 그들이 결성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로힝야 사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특히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력은 전무하다. 오히려 로힝야 사태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와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민 사회와의 입장과 견해는 충돌하고 있다.

앞서 2006년 당시 국내 이주 버마인들로 결성되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 시민사회와도 긴밀한 연대를 유지했던 [버마행동]의 활동가의 최근 SNS을 살펴보면 로HING야 사태 해결과 인도적 접근을 주장하는 한국의 시민단체의 입장과 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버마행동] 활동가의 입장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 미얀마 국민, 미얀마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미얀마 인들은 앞서 다른 댓글들의 내용과 같이 로HING야는 미얀마에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며, 힌두교도와 불교도에게 폭력은 먼저 자행하는 테러 집단이며, 벵갈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고 그를 지칭하는 벵갈리(Bengali)로 로HING야를 부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로HING야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와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이하 아디]와 같은 시민단체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이 두 단체의 입장은 단체가 진행해온 행사와 활동과 기고문, 그리고 [아디]의 경우에는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국제민주연대]의 사무국장인 나현필 활동가는 로HING야 사태에 대해 활동가로서의 소회를 적은 기사(나현필, 2017)를 기고하기도 했는데, 이 기고문에서 나현필 활동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집회를 통해 로HING야 사태를 정당화하고 미얀마 정부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활동가들인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정당한 시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탄압을 정당화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과 “미얀마 정부군의 대량학살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연대했던 사람들이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집단적인 국가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아무리 군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함께 싸워왔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와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로HING야 사태’를 중심 활동 의제로 상정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아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디는 2016년 창립한 신생 시민단체로, 아시아 곳곳의 인권침해 및 분쟁 지역 현장의 활동가, 그리고 피해자에 주목하는 것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로HING야 난민캠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최근에는 로HING야 시민권 박탈을 결정적 계기가 된 82년 시민권법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얀마를 오가는 아디의 김기남 활동가와 이동화 활동가는 로HING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마족과 소수민족들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왕족, 혹은 다른 집단으로 경쟁하고 점령하고 싸우면서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그 땅의 주요 역사들이 있고, 독자적인 문화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HING야도 버마족이 그랬던 것처럼 로HING야 스스로 자기 생존과 독립을 위해 싸워왔다는 것이다. 각자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 각자의 전술을 택했던 시기가 있고, 버마족이 처음에 버마족의 독립을 위해 일본 식민세력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로HING야나 다른 소수종족들이 영국 손을 잡았던 것이지 일본 식민지처럼 조선인과 일본 식민세력이라는 대립각이 명확했던 것과 당시 미얀마의 상황은 달랐다. 당시 조선의 상황이 평면적이었다고 한다면 미얀마의 상황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이었기 때문에 일본 식민시기 부역자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다른 국내 네티즌들이 로HING야를 친일 부역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에서 보도되는 로HING야 기사의 대부분은 로HING야를 영국 식민지배 시기에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이주자로 지금 벵갈리로 불리는 불법이주자가 되어 82년에 시민권이 박탈된 사람들이라고만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 사람들이 오래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주장과 입장이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주민 인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현재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투표권도 인정되고 정부 내 관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군사정부 들어서면서 이러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힝야 사태에 대해 기사를 쓰는 사람조차도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태를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김기남 활동가, 2018/04/05).

이처럼 [아디]의 활동가들 역시 국내 거주 미얀마인, 미얀마 정부와 같이 로힝야를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이주자라고 보기 보다는, 로힝야와 미얀마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함께 연대했던 국내 거주 미얀마인, 단체들과 오늘날 로힝야 사태에 대해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디]의 활동가들도 역시 체감하고 있었다. 위낙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며, “미얀마 내부 시민사회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많은 단체들과 로힝야 문제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것은 거부하기 힘든 사실”이라는 것이다. 논리나 사실에 근거한 대화보다는 증오라는 감정과 신념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증오에 찬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 나현필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함께 연대하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이동화 활동가, 2018/04/05).

4. 결론

로힝야 사태는 국내에서 작성된 기사가 전달하고, 국내의 네티즌들이 인식하는 영국식민시기에 넘어온 불법이주민이이기 때문에, 혹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종족이기 때문에, 불교를 잠식하려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2017년 8월에 발생한 두 집단 간 폭력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룬 것과 같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로힝야 사태에 반응하고 있다. 로힝야 사태는 단순한 인과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하고 역사에 대한 서술과 설명을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책무이기도 하고, 학계의 책무이기도 하다. 로힝야 사태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가 여럿 진행되기는 했지만(김성원, 2006a, 2006b; 김인아, 2018; 박장식, 1996, 2013; 장준영 2012, 2013, 2015, 2017), 연구들은 주로 논문의 형태로 학회지에 게재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참여연대가 연세대 김형중 교수와 함께 로힝야 문제에 대해 팟캐스트를 진행한 것이 접근성이 높은 사례로 유일하다. 언론은 저널리즘을 위해, 그리고 학계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며 로힝야 사태에 대한 연구를 언론에 기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즉, 로힝야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되고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로힝야족이 이 사태로 인하여 어떠한 인권 침해를 겪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로힝야 사태를 인권 중심의, 인도주의적 의제로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제적인 인권 관련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로힝야 사태에 대해 한국은 시민사회가 인도주의적 관심을 주도하고, 언

론과 학계는 사태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연구 수행 및 정보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두고 연대하는 것을 통해 로힝야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 · 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0: 103-135.
- 권혁률. 2015. “이슬람포비아.” 『새가정』 62: 96-97.
- 김인아. 2018. “미얀마 로힝자 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아시아연구』 21(1): 25-50.
- 김성원. 2006a. “미얀마 군사정부의 종교정책: 회유와 견제.” 『동남아연구』 16(1): 23-44.
- 김성원. 2006b. “미얀마의 이방인 라카인 무슬림 로힝자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6(1): 59-78.
- 나현필. 2017. “로힝야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활동가의 고민.” 『월간 위커즈』 37호.
- 뎀 마웅마웅 탄. 2005. “미얀마: 변화하는 군부.” 존 편스톤 편. 정연식 역.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pp. 서울: 심산.
- 문시영. 2016.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이슬람 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45-68.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 박장식. 1996. “미얀마의 종족분쟁의 양상과 국민통합의 전망.” 『동남아연구』 4: 29-56.
- _____. 2013. “미얀마 여카잉 무슬림(로힝자)의 딜레마 재고: 종교기반 종족분쟁의 배경과 원인.” 『동남아시아연구』 23(1): 235-276.
- 박종수. 2017.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9: 49-70.
- 서남포럼. 2006.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서울: 아르케.
- 이유경. 2018. “로힝야: 제노사이드 당하는 사람들.” 04/13. 특별공개강좌 발제문.
- 장준영. 2012. “버마/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가능성의 예술을 넘어서.” 『민주』 3: 162-181.
- _____. 2013.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정당정치: 미얀마식 민주주의를 향하여.” 『비교민주주의연구』 9(1): 5-34.
- _____. 2015. “미얀마 무슬림과 종교분쟁: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4(3): 307-338.
- _____. 2017. “반복되는 로힝야족 문제: 미얀마와 국제사회의 평행선.” 『EMERiCs 이슈분석』. KIEP.
- 전제성. 2006. “한국 인권운동의 동아시아 연대활동 현황과 평가.” 서남포럼.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서울: 아르케.
- 정경일. 2018. “그리스도인의 무슬림 혐오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2(2): 125-140.
- 차승일. 2018. “예멘 난민 사태로 본 무슬림 혐오,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마르크스21』 27: 11-24.
- Abdelkader, Engy. 2013. “The Rohingya Muslims in Myanmar: Past, Present, and Future.” Oreg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15: 393-411.
- Blomquist, Rachel. 2015. “Ethno-Demographic Dynamics of the Rohingya-Buddhist Conflict.” Georgetown University.

- Cheung, Samuel. 2011. "Migration Control and the Solutions Impasse in South and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rom the Rohingya Experience." *Journal of Refugee Studies* 25(1): 50-70.
- Coates, Eliane. 2014. "Sectarian Violence Involving Rohingya in Myanmar: Historical Root and Modern Triggers." Middle East Institute.
- Hre, Mang, and Victorian Chin Baptist Church. 2013. "Religion: A Tool of Dictators to Cleanse Ethnic Minority in Myanmar?." *The Asian Conference on Ethics, Religion and Philosophy 2011 (Conference Proceeding)*. pp. 176-184.
- Htet Naing Zaw. 2017. "US 'Ethnic Cleansing' Charge Won't Help Govt Solve Rakhine Issue, President's Office Says." *The Irrawaddy*. 24 November. (검색일: 2017. 11. 26.)
- Kaladan Press Network(The First Rohingya News Agency). 2017. "Pre-planned Expulsion: Refugee testimonies contradict Burmese Government Version of the August 25 'Terrorist Attacks'."
- Kipgen, Nehginpao. 2013. "Conflict in Rakhine in State in Myanmar: Rohingya Muslims' Conundrum."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3(2): 298-310.
- _____. 2014. "Addressing the Rohingya Problem."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9(2): 234-247.
- Kiraga, Esther and Angela Li Rosi, Tim Morris. 2011. "State of Denial: A review of UNHCR's Response to the Protracted Situation of Stateless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UNHCR PDES (UNHCR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rvice).
- Kyaw, S. W. 2014. "Myanmar's Religious Violence: A Buddhist 'Siege Mentality' at Work." RSIS Commentaries 037.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Leider, Jacques P. 2008. "Forging Buddhist Credentials as a Tool of Legitimacy and Ethnic Identity: A Study of Arakan's Subjection in Nineteenth-Century Burm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1(3): 409-459.
- _____. 2014. "Rohingya: The Name, the Movement, the Quest for Identity." *Nation Building in Myanmar*. pp. 204-255.
- Lewa, Chris. 2009. "North Arakan: An Open Prison for the Rohingya in Burma." 2009. *Forced Migration Review* 32: 11-13.
- Marshall, Andrew R.C. 2013. "The War on the Rohingyas: Myanmar Gives Official Blessing to Anti-Muslim Monks." *Reuter*. June 27. (검색일: 2017.3. 30.)
- Matthews, Bruce. 1993. "Buddhism under a Military Regime: The Iron Heel in Burma." *Asian Survey* 33(4): 408-423.
- OHCHR. 2017. "Interviews with Rohingyas Fleeing from Myanmar Since 9 October 2016. Flash Report.
- Parnini, Syeda Naushin. 2013. "The Crisis of the Rohingya as a Muslim Minority in Myanmar and Bilateral Relations with Bangladesh."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3(2): 281-397.
- Penny, Green, Thomas Macmanus, and Alicia de la Cour Venning. 2015. *Countdown to Annihilation: Genocide in Myanmar*. London: International State Crime Initiative.
- Robinson, Ian G. and Iffat S. Rahman. 2012. "The Unknown Fate of the Stateless Rohingya." *Oxford Monitor of Forced Migration* 2(2): 16-20.
- Schober, Juliane. 2006. "Buddhism, Violence and the State in Burma(Myanmar) and Sri Lanka."

- Disrupting Violence: Religion and Conflict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p. 51-69.
- Singh, Jasminder and Muhammad Haziq. 2016. "The Rohingya Crisis: Regional Security Implications." RSIS Commentaries 293.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Southwick, Katherine. 2015. "Preventing Mass Atrocities Against the Stateless Rohingya in Myanmar: A Call for Solu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2): 137-156.
- Szep, Jason. 2013. "The War on the Rohingyas: Buddhist Monks Incite Muslim Killing in Myanmar." *Reuter*. 8 April. (검색일: 2017. 3. 30.)
- Tin Htet Paing. 2017. "Police Chief: Assassination of U Ko Ni Was Driven by 'Personal Grudge'." *The Irrawaddy*. 27 Feb. (검색일: 2017. 11. 21)
- Ware, Anthony. 2015. "Secessionist Aspects to the Buddhist-Muslim Conflict in Rakhine State, Myanmar." Damien Kingsbury & Costas Laoutides eds. *Territorial Separatism and Global Politics*. pp. 153-166. London: Routledge.
- Zarni, Maung, and Alice Cowley. 2014. "The Slow-burning Genocide of Myanmar's Rohingya."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Association* 23(3): 681-752.

<참고기사>

- 국민일보. 2017/11/27/. "‘로힝야 학살’ 수치 둘 맞을 때, 주범은 웃는다."
- 김현지. 2017/12/16/. "아웅산 수치 침묵 속에 아이들이 산채로 태워지고 있다." 프레시안.
- 노컷뉴스. 2017/09/22/. "로힝야족, 불타는 마을에서 쫓겨나 또다른 생지옥으로."
- 뉴시스. 2017/09/09/. "미얀마, 로힝야족에 수용소·구호물품 제공... 국제사회 비난 의식한듯."
- _____. 2017/09/13/. "미얀마 인종청소에 항의하는 파키스탄 무슬림들."
- _____. 2017/09/15/. "숨진 아기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미얀마 로힝야 난민 여성."
- _____. 2017/12/10/. "미얀마의 ‘로힝야 지우기’ 현실화 되나"
- _____. 2018/02/17/. "캐나다, 로힝야족 학살 지위 미얀마 장군에 제재."
- 서울신문. 2017/11/18/. "‘답뎀 잡듯 칼로 마구..’ 로힝야족 소녀가 전한 ‘그날’"
- 연합뉴스. 2017/09/12/. "‘히잡 쓴 힌두교도가 로힝야족?’ 딱걸린 방화조작 사진."
- _____. 2017/09/20/. "‘인종청소’ 로힝야 마을들 초토화 위성으로 재확인."
- _____. 2017/09/30/. "미얀마서 학대받다 밀려난 로힝야 난민 '돌아가고 싶지 않다.'"
- _____. 2017/10/13/. "‘무슬림은 다른 인간’ 로힝야 혐오 이끄는 극단주의 승려."
- _____. 2017/10/14/. "로힝야 비극... 미얀마 폭력 피하다 방글라 코끼리에 참변."
- _____. 2017/11/02/. "아웅산 수치, 로힝야 ‘인종청소’ 사태 현장 첫 방문."
- _____. 2018/01/04/. "르완다 대학살 이어 로힝야 인종청소에도 침묵하는 지구촌."
- _____. 2018/02/08/. "미얀마, 로힝야족 식량공급 차단 천천히 굶겨 죽인다."
- _____. 2018/02/13/. "‘인종청소’ 논란 미얀마, 불도저로 로힝야족 흔적도 지웠다."
- MBC. 2017/11/07/. "‘로힝야는 미얀마 민족이 아니다.’"
- SBS. 2017/09/06/. "‘아웅산 수치 노벨상 박탈하라’ ... ‘인종 청소’ 비판 쏟아져."

<웹사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http://www.khis.or.kr/main.asp>.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블로그. <https://blog.naver.com/adi2017>.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Myanmar Population. 2017.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myanmar-population/>. (검색일: 2017. 11. 21.)

<인터뷰>

김기남(남). 2018/04/05/.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활동가.

이동화(남). 2018/04/05/.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활동가.

분과회의 5

카렌족 난민의 초국주의 생활세계와 서사

‘여행-거주자’로서의 난민과 여행자네트워크: 인천 재정착 카렌족과 교회공간을 중심으로

이효영 · 정혜윤(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지난 2019년 1월 연구자들은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지대에 가까이 위치한 멜라난민캠프(Mae La Refugee Camp) 방문을 시작으로 카렌족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난민캠프 방문은 연구자들에게 단순히 사람이나 자원의 이동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 공간으로 상상해왔던 난민캠프, 그리고 그 속에 고립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진 난민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캠프 내에 위치한 카렌신학교(Kawthoolei Karen Baptist Bible School & College) 학생 상당수가 태국과 미얀마 등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캠프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주 등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 인근 메솻지역으로 일을 하러 왕래하거나 난민 신분으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이주하는 캠프 거주자들의 상황은 난민캠프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난민들의 다양한 이동성을 보여준다. 멜라캠프 내에서 연구자들이 관찰했던 난민들의 다양한 삶에서부터 전세계에 흩어진 카렌족 난민 디아스포라까지, 이 끊임없이 확장하는 난민의 이동궤적을 확인하며 연구자들은 ‘난민’에 대한 통념을 낮설게 볼 수 있었다.

본 글은 한국에 거주하는 카렌족 난민들의 사례를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난민의 이동성을 포착하여, 난민의 피해자성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관점을 문제화하면서 ‘난민’으로 표상되는 사람들이 수행해내는 삶의 실제적인 다이내믹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인천에 있는 카렌족 교회 신자들과 약 2개월 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였고,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지 않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설새없이 교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을 환대하는 ‘거주자’의 이중적 정체성 사이를 유연하게 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위치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외 카렌족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난민의 이동성을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카렌족 난민이 일반적인 ‘여행자’와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국내 거주 카렌족 난민을 ‘여행-거주자’로 명명하고자 한다. 난민의 이동을 ‘여행’으로 보는 것은 ‘여행’이 가진 “오락적인 의미 및 실천과의 연관성(Clifford, 1997:33)”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동이 도피, 추방과 같은 강제적 성격을 넘어 자발적 선택과 실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카렌족 난민들이 가진 ‘여행’의 목적, 즉 개인 자신 혹은 부모로서 자식과 가족들에게 투여하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계획 등, 그들이 ‘여행자’가 되도록 이끈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데에 효과적이다. 한편, 국내 거주 카렌족 난민들이 ‘여행-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들을 연결되어 있는 전세계 카렌족들 간의 네트워크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한국으로 이동해왔음에도 일반적인 거주민들보다 오히려

카렌족 네트워크를 통해 방문한 여행객들과의 친밀성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 그러한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항상 이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거주 카렌족 난민들은 ‘거주자’ 입에도 여전히 ‘여행자’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글은 한국에 오기까지 카렌족 난민의 이동과정, ‘여행-거주자’로서 국내 카렌족 난민의 삶,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행자네트워크의 교류 현장을 세 파트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고향-캠프-한국으로, 카렌족의 이동하는 삶

한국정부가 카렌족을 재정착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한국에 카렌족 공동체가 이미 존재해 사회 통합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였다. 한국정부는 영종도에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난민지원센터(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2013년에 설치한 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매솟 주변 난민촌에 거주하는 카렌족을 매년 30명 규모로 데려온 정책을 그대로 모방해 “그 난민촌에서, 그 사람들을, 그 규모로 데려오기로 했다.”(이상국,2016b:123).

우연의 소산이든 국내외의 정치적 흐름이 맞물린 필연이 개입한 결과이든,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카렌족 난민은 여러번의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심층면접했던 세 가족 역시 두 번 이상의 이동을 경험했다. 먼저 미얀마 내에서 전쟁의 피해, 정부의 억압,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고향으로부터 카렌족 난민 캠프로 이동했다. 난민 캠프에서 이들은 2005년에 난민으로 등록을 하고 2015년, 2016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협력의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왔다. 2005년 이후에 난민 캠프에 들어온 이들은 난민 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외 재정착의 기회를 갖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나 심층면접에 따르면 난민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캠프를 떠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캠프의 생활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끼거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캠프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또한 난민캠프의 난민이 반드시 캠프를 떠나 제3국에 정착하고 싶을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선입견과 일치하지 않는 발견이었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최소 10년 이상 캠프에서 거주하다가 전혀 사전정보가 없는 한국으로의 재정착을 신청해 오게 된 케이스로, 이들이 난민화된 경로의 비자발성과 대비되는 ‘여행자’-되기의 자발성이 두드러졌다.

연구참여자들 중 40대의 부부는 결혼한 이후에 캠프에 들어간 경우였고 20대의 부부는 캠프에서 만나 결혼한 케이스였다. 이들은 모두 10대 후반~20세 무렵에 결혼해 아이를 가졌는데 카렌족 캠프 공동체에서 이러한 생애주기를 따르는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소개를 통해서 인천 지역의 제조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두 큰 가족은 부부와 첫째딸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아직 아이들이 어린 가족은 남편만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자녀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이주 서사와 한국에서의 삶의 형태는 재정착 카렌족 난민 가족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각각이 꿈꾸는 미래와 열망의 구체성은 다른 형태를 띠었다.

‘여행자’-되기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난민화되는 과정은 생존을 위한 강제적 이동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카렌족이 난민이 되는 과정은 미얀마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갈등이 맞물려 발생한 빈번한 전쟁과 절대적으로 극심한 빈곤 때문이었다. 반면 여러번의 이동을 거쳐 이

들은 ‘빵과 장미’, 즉 생존권과 존엄권을 더 나은 수준에서 누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생긴 일정 소득과 이동의 자유는 이들에게 “쌀, 콩”은 지원해주지만 “과자 못먹”고 “고기 야채” 못 먹던 캠프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식생활 만족도를 높여주었고 이는 존엄한 삶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교육과 직업, 소득으로 인한 자유와 식생활 변화 등 모두에서 이들은 캠프에서의 절대적 빈곤과 한국에서 캠프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대비해서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 세 가족 모두 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사전정보가 없던 채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살기에 캠프보다 좋은 점으로 자녀 교육을 공통점으로 꼽았다. 한국의 사교육, 등록금 등을 포함한 교육비 부담은 상당히 높아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공교육 의무교육화로 인해 오히려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 못” 다니고 “어린이집부터 등록금 있어야”하는 멜라캠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교육 이외에 피아노, 태권도, 영어, 바이올린 등 다양한 사교육에도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교육에 대한 기대는 자녀를 통해 표상되는 미래의 삶까지 포괄했다. 이들은 자녀가 의사, 박사, 군인 등이 되어 다시 카렌족 민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꿈”을 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두 번 이상의 이주를 통해 ‘여행자’가 되어 한국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 다시 난민 캠프로 돌아가는 ‘여행’의 기획을 그리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재정착 난민들이 한국에 동화되는 것과 별개로 카렌족 민족 정체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유지하며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전승된 미래를 기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여행-거주자’로서의 국내 카렌족 난민과 여행자 환대

한국에 온 카렌족 난민이 가진 ‘여행자’적 감각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하거나 흡수되지 않고 이동의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이끈다. 카렌족 난민은 한국 사회에 형식적으로는 ‘정착’하였지만, 사회에 적응하거나 순응하기보다 정착한 사회의 계층적 하위에 안주하는 것에 저항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여행자’의 위치를 잃지 않는다. 한편, ‘여행자’로서 이들이 가진 집단적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가진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카렌족’이라는 민족적 폐쇄성을 더욱 강화해낸다.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카렌족 난민 교회가 한국 내에서 공식적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불안정하면서도 한국 교회 안에 소속되지 않고 멜라캠프 내 카렌족 교회의 ‘한국 지부’임을 강조하는 것, 이로 인해 W교회의 정식 예배들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을 빌려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이른 아침에 예배해야하는 상황, 유학생 신분임에도 교회를 계속 이끌기 위해 체류기간을 늘일 수 있는 방도를 여러모로 모색 중인 목사의 노력 등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이들은 교회의 제약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민족성과 카렌족 교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기 위해 ‘여행자’-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재정착 카렌족 난민들은 실제 여행자들을 대면했을 때에는 한국 ‘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한국카렌교회 카렌족 신자들이 교회 방문객을 어떻게 환대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주 거의 빠짐없이 최소 1명에서 최대 몇 십명이 되는 외부인이 여러 이유로 한국카렌교회를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객들은 예배 중에 앞에 나와 인사를 하거나, 예배가 끝난 후 특별히 환영인사를 받고, 혹은 그 수에 상관없이 카렌족 가정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

에 초대를 받는다. 여행자들과의 빈번한 마주침은 한국인 거주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카렌족 난민들 스스로가 고립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게 만들며, 여행자들을 환대하면서 카렌족 난민들은 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여행의 가능성을 상기하고 언젠가 여행자가 되었을 때 환대받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공고하게 정착해 있는 한국인 거주자들과 같은 위치를 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렌족 난민들은 환대 받는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욱 여행 상황에 있는 외부인에게 환대하는 주체가 되기를 자처한다.

한편으로는 여행자임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주자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카렌족 난민들은 거주자와 여행자의 경계, 즉 ‘여행자로서의 거주자’ 혹은 ‘거주자로서의 여행자’라는 중간자적 위치에 선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거주자보다는 자유롭고 유연한, 그리고 그들이 환대하는 여행자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 내 거주자로 인정받으려 노력하기보다, ‘여행자’와 ‘거주자’의 경계를 점유하는 행위를 통해 일반 거주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의 범주로 자립한다.

4. 교회 중심의 여행자네트워크

이상국(2009)은 태국 국경 지역 난민촌에 거주하는 카렌족 난민들의 활동범위가 난민촌 내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외부 세계와 연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카렌족 난민들이 해외 카렌족 및 외국인과의 관계를 맺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어떠한 질서 안에서 초국가적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 현상으로 미루어 카렌족 공동체를 ‘네트워크 공동체’로 명명하기도 하였다(이상국 2016a). 이때의 ‘네트워크’는 ‘상호 연관된 결절의 집합(카스텔 2014: 606)’으로, 결절을 통합하면서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다. 한편, ‘네트워크’로서 카렌족 공동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상적 공동체를 넘어, 현실에서 여행자들의 이동으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실제적 공동체다. 이상국(2016a)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결절로 역할하며, 난민촌 밖에서는 역할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진다.

한국카렌교회는 한국 내 카렌족 난민들 간의 흐름을 이을 뿐 아니라 국외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장소의 특성 상 종교적 성향을 띤 결절, 이를 테면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 국외 카렌족 교회 등과의 통합이 자주 일어난다. 물리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멜라캠프 내 카렌신학교 출신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각 국가의 카렌족 난민 교회를 세움으로써 신학교 동문이자 목회자 간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하다. 또한 한국 교회와 카렌족 네트워크, 국외 카렌신학교 동문-목회자 네트워크와 난민인정을 받아 흩어진 카렌족 친족 네트워크 등 다양한 배경으로 연결된 망이 복잡하게 엮여서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연결망을 통해 국경 너머 다양한 국가와 출신의 여행자들이 한국카렌교회 공간을 방문지로 집결한다. 그리고 카렌족 난민들은 외부인들에게 집결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한국에서의 ‘호스트’로서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경험으로 한국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들은 스스로가 전세계에 흩어진 카렌족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신도 언젠가 방문하는 여행자들과 같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되뇌이면서 여행자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한국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의 교회 공동체를 살펴 보았다. 먼저 카렌족 난민 개인들의 삶을 심층면접하여 이들이 어떻게 고향에서 캠프로, 캠프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미래의 카렌 공동체로 자신과 자녀의 삶을 이동하는 ‘여행’의 기획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그 다음 한국카렌교회 공간에 드나드는 다양한 ‘여행자’들을 참여관찰함으로써 카렌족 교회 공간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망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때 교회는 카렌족 난민들에게 환대의 공간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여행자 정체성을 상기하는 기제가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온전히 흡수되어 정착하기보다는 거주민에 대치되는 여행자-난민으로서 자신들의 민족성을 유지해나가고 있음을 살폈다. 국내외 재정착 카렌족을 다룬 연구는 이미 여럿 존재하나(이상국, 2012; 2016a; 2016b), 본 연구는 국내 카렌족 난민의 일상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재정착 난민 선정 기준과 기독교 공동체 문화의 결합의 결과로 이성애 정상가족 생애주기 바깥의 삶에 대한 상상력이 부재해 보이는 국내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이 가진 특성에 대해 보다 정치하게 기술해내지 못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기에 부모보다 한국어가 훨씬 익숙하고 한국의 문화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으며 각자의 삶과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세 번째로, 재한 카렌인들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난민캠프에 있는 부모, 친척, 커뮤니티 사람들과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디지털 매체가 초국가적인 연결성과 카렌족의 민족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카렌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때 예매 시간마다 지극히 제한적인 참여관찰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던 점 또한 연구의 한계점이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중심으로한 연구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두 달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매주 연구자들이 받은 환대의 크기에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본 연구가 국내 재정착 카렌족 난민들의 삶과 나아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카렌족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한다.

'노르웨이의 숲': 북유럽에 재정착한 카렌족 난민의 생활세계와 초국적 네트워크

이상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카렌족 재정착 역사
 -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 재정착
 - 북유럽에 재정착한 카렌족
 - 노르웨이에 1,400여명
 - 스웨덴에 1,000여명
 - 핀란드 1,800여명
 - * 네덜란드 1,000명, 영국 250명, 아일랜드 100명
- 연구방법
 -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
 - 2000년,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난민촌 연구
 - 2004-2005년, 태국-미얀마 난민촌과 국경도시 연구
 - 2018년, 노르웨이, 스웨덴 현지조사
 - 난민의 삶의 궤적
 - 시간의 궤적
 - 공간의 궤적
 - 전략의 궤적
 - 다현장(multi-sited) 참여관찰
 - 지방도시
 - 국경을 넘는 이동
 - 연구 도구로서 자동차(렌터카)와 구글맵

- 복지국가와 재정착 난민
 - 주거 보조
 - 의료비 보조
 - 각종 수당 제공
 - 절대 빈곤 없는 안정된 삶

- 숲속의 재정착 난민
 - 외딴 도시
 - 긴 겨울
 - 외로움

- 직업
 - 청소
 - 노인 돌봄
 - 농업
 - 간호사

- 성공한 난민 사례
 - 식당 운영
 - 저택 구입
 - 완전한 현지사회 통합

- 난민에서 유럽인으로
 - 시민권 획득
 - 자유로운 유럽 여행
 - 수월한 국경 넘기: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간
 - 생활공간으로서 유럽
 - 가족과 친척 방문

- 기독교와 카렌족 유럽공동체
 -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공동체 활동 주도
 - 각종 연합활동 순회 개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 초국적 네트워크의 발전과 심화
 - 재정착된 지 10년 경과
 - 유럽내뿐만 아니라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방문
 - 유럽 카렌족, 한국도 방문
 -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와 난민촌 방문과 후원
 - International Karen Organization의 개최
 - 호주, 미국, 스웨덴 등 국가를 번갈아 가며 해마다 회의 개최

• 결론

- 종족의 정체성 변화의 궤적
 - 부족에서 종족으로
 - 종족에서 민족으로
 - 민족에서 난민으로
 - 난민에서 유럽인으로
 - 유럽인에서 세계인으로
- 정체성, 이동성, 서사
- 증인으로서 연구자

Not Misery but Mystery: 소 사이먼(Saw Simon) 박사의 난민 신학

Saw Eh Poe(소에포)

(연세대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Introduction

C.S Song has critiqued toward western theology as two dimensional theology flat theology, that is not necessary to articulate the Asian theology and he proclaimed that German eyes shouldn't be prevent from seeing Christ differently, such as seeing Christ through Chinese eyes, Japanese eyes, Asian eyes, African eyes, Latin American eyes.¹⁾ The articulation of theology shouldn't be western way of thinking and theologizing, otherwise, we need to reading the bible or articulating theology in Asian eyes. As theology is the human attempt to understand God, therefore, theological articulation must not be standardized by Christian value and methodology. The variety of hermeneutics are available depend on the context and the situation or location of a person or a group of peopl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pproach the hermeneutic of the "theopoetic". I will going to analyzed the poems of Rev. Dr. Simon called "our living testimony". He was the prominent leader of refugee in Thai-Burma border and the respected principal of the famous bible seminary in Mae La Karen refugee camp. Those poem reflected on his understanding of God. His life experience as a refugee motivated him to wrote those poem. When many people have negative perspective on refugee, but he turned it into positive opinion. He said "they say they see our life is misery but praise God our life is mystery, and our hope is as bright as the star".

Karen refugee camps exist along the Thai-Burma border are not recognized as the refugee, instead, Thai government called them as displace people. Therefore, they do not received the refugee's rights which have been expressed in the UN charter. They cannot go outside of the camp without the camps commanders' permission. In this situation Rev. Dr. Simon saw his life and other people who lived in refugee camps differently with other people. Instead of complained to God, he praised and looked beyond the present situation and saw God's special program for him and his own people in the camps. His words "not misery but mystery" are the salvific and deliverance hope for Karen people in the refugee camp. He even saw the present situation as the God's redemptive work and His divine plan for the Karen refugee in Thai-Burma border. He claimed that life of Karen people in refugee camps were not mess as outsiders thought but their life were mysterious that other couldn't understand. Therefore, praised God and be still and know that God is God.

1) C.S Song, "Third-eye Theology, Theology in formation in Asian setting" Maryknoll, New York 10545, P-27

Historical background

Rev. Dr Simon was the former principal of Kawthoolei Karen Baptist Bible School and College (KKBBSC). He was the one of the prominent leader among Karen leaders who were sacrificed their life for the Karen people.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explored more of the his life and experience as a refugee in Mae La refugee camp in Thai-Burma border. He was raised from the poor family and he finished his high school at small down in Myanmar. He finished his bachelor of Theology in Myanmar and then he continued his theological study in Philippine. Because of the civil war he moved to Thai-Burma Border with his wife and three daughters and lived at Mae La refugee camp. He had spent the rest of his life in the Mae La refugee camp as the principal of Kawthoolei Karen Baptist bible school and college.

Who are Karen?

Origin of Karen Refugee in Thailand and Their Current Struggl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RTG, MOI (Migr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defined Karen refugee as “a displace person who escapes from dangers due to uprising, fighting, or war, and enters in breach of the immigration act”.²⁾ Karen refugee are the people who have been mistreated by the military regime of Myanmar such as force labor and potter for the military weapons. The Karen are an ethnic group from Burma (Myanmar), many of whom fled Burma due to religious and ethnic persecution by the government. 140,000 refugees from Burma, mostly Karen, are living in refugee camps in Thailand, some for as many as 20 years. The refugee camps have been established since 1984, and recently struggle with the inner and outer oppression of Thai and Myanmar Authority. These establishment of Karen refugee camps are because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Myanmar. However, the civil government has seized the power on 2015 through the referendum, the hegemony of the military power and the threat of the regime are not obscure till present day. That elected government want refugee to voluntary repatriated to Myanmar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 care and economic opportunities of the refugee. Therefore, the Karen refugee are now recently suffering under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of Myanmar which has been leads by Aung San Su Kyi. The conspiracy between Myanmar and Thai government has been occurred in the process of repatriation as well. Therefore, now a day Karen refugee are encountering with the cut of ration and implicit form of force repatriation.

2) Ministry of Interior of RTG, MOI, Migr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is the organization under UNHCR, which providing the resettlement program for the refugee in other country.

Kawthoolei Karen Baptist Bible school and college

The Baptist missionaries contribution of Burma had been started on 1813 When the two American couple who zeal to spread the good news to that country, Adoniram Judson and Ann. Current Myanmar has been known as Burma because the dominant group of the country were Burman or Burmese. The rest group of people or ethnic nationalities were under the colonization of the Burman kings. The ethnic animosity within Burman and other group have been emerged since before the British Colonization Era. Among those ethnic nationalities, Karen are the strongest and most oppressed group of people under the Burman colonization. Therefore, when Baptist missionaries arrived to Burma, Karen were vastly Christian converted group of people in those days. The book “Burma Baptist Chronicle” indicated that the Karen Baptist Convention is the strongest convention among the Myanmar Baptist convention. Moreover, Karen Baptist churches have been established over a century ago. They are well organized and concretely instituted in the land of Myanmar. In Thailand there are TKBC (Thai Karen Baptist Convention) and KKBBSC is the bible seminary under KKBC (Kawthoolei Karen Baptist Churches) which has been emerged from the organizing or Karen refugees from seven refugee camps in Thai-Burma border. Kawthoolei Karen Baptist Bible School and College was founded as the Kawthoolei Karen Baptist Bible School in 1983, at Wahlay, in the Karen States. After 28 years, after many attacks and persecution, and after all the hard times, we are still serving the Lord as an Exile/Displaced Theological Seminary at the Mae La Karen Refugee Camp, in the Tha Song Yang District of Thailand.

Dr. Simon and his Poem

Our Living Testimony 1

“They call us a displaced people,
 but praise God; we are not misplaced.
 They say they see no hope for our future,,
 but praise God; our future is as bright
 as the promises of God.
 They say they see the life of our
 people is a misery,
 But praise God; our life is a mystery..
 For what they say is what they see,
 And what they see is temporal.
 But ours is the eternal.
 All because we put ourselves
 In the hands of the God we trust.”

Our Living Testimony 2

(after the fire that destroyed the Bible School at Mae La refugee camp)

We lost everything with the fire that caught our KKBBSC on April 28, 2012, but we still have everything, because God is our Everything. Gone with the fire are our sins and transgressions, not His Mercy and Grace. Gone with the fire are the buildings and material things that can be replaced even with the better ones, but praise God no life was lost. Gone with the fire are the visitors' notes that contained best wishes, prayers, encouragements and promises by friends around the world, but not their continuing love, care and concern for us expressed in their words and deeds. Gone with the fire are our fears and doubts, not our faith in the almighty and living God.

Salvific hope of Dr. Simon for Karen refugee In Thailand

He was the charismatic leader for Karen people, especially those who lived in the refugee camp. He had been through hardship, discrimination from the Thai government, oppression as well as conspiracy to be destroyed his life. Through his poem we can see his flawlessness of theological articulation and optimistic perspective of God. He never lost his hope even he was in tribulation such as the total vanished of the school building in 2012. Not only he kept his hope till his death and also give hope in God to other people, especially refugee. He also left the final message for karen refugee all over the world which is the most inspire speech as well.

“Not Misery but Mystery”

분과회의 6 (대학원 분과)

이미지(Image)에 투영된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미얀마 쏘바웅 왕조기 뼈러바익(Parabaik)의 수미산도 재현과 특징

김미소(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I. 들어가며

수미산(須彌山)은 고대 인도에서 기원하여 천지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 우주의 중심축이자 신과 인간, 모든 생명체들이 향유하고 있는 공간의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상의 산이다. 수미산의 기원은 인도 베다(Veda) 시대부터 비롯되었다. 이때부터 수미산은 신들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대지를 구분하고 지탱하는 우주의 축(軸)이자, 뿌리가 하늘을 향한 나무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양경인 2006: 5-6). 이후 인도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발전하면서 수미산에 대한 관념은 각 종교의 세계관으로 흡수되었다. 불교보다 이른 시기에 발전한 힌두교에서 수미산은 “유해교반(乳海攪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불사의 음료인 암리따(Amṛta)를 차지하기 위해 우유 바다에서 힘을 겨루는 신과 악마를 구분하는 우주의 중심축으로 등장하였다. 불교로 흡수된 수미산은 『장아함경』 『세기경』과 『아비달마구사론』 『세간품』와 같은 초기 경전에서부터 전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 기록을 근거로 미술로 표현된 수미산은 스투파, 사원 건축, 부조 등 다방면에 걸쳐 재현되었다. 동남아시아에도 고대부터 수미산에 대한 관념이 전달되어 다양한 종교 미술에서 영향력이 발견된다. 동남아시아에서 수미산은 힌두교와 불교 등 대형 사원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적 틀이 되었다. 입체성을 강조하는 건축물에서 수미산이 점차 평면에 표현된 사례는 12세기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3차원의 건축물에서 2차원의 평면으로 옮겨진 수미산은 사원 내 부조나 벽화에서 발견되는데, 앙코르 와트(Angkor Wat) 회랑의 유해교반 부조와 버강 왕조대 조성된 로카테익판(Lokateikpan) 사원의 벽화가 대표적이다. 특히 버강 왕조 이래 제작된 수미산도의 도상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 쏘바웅 왕조대 제작된 뼈러바익뿐만 아니라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테라바다 불교(Theravada Buddhism)을 신앙한 왕조의 미술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돼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쏘바웅대 뼈러바익 제작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영국박물관과 영국도서관에 소장돼있는 쏘바웅대 수미산도 뼈러바익에서 보이는 도상 및 특징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쏘바웅 왕조의 주변 왕국인 태국과 라오스에서 수미산을 표현한 관련 화첩과 장식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테라바다 불교 왕조에서 수미산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II. 쏘바웅 왕실의 예술 후원과 뼈러바익

쏘바웅 왕조는 18세기 버마족 출신 알라웅파야(Alaungpaya)에 의해 개창되어 19세기까지 지속된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이다. 근대의 본격적인 진입과 함께 탄생한 쏘바웅 왕조는 서양 열강의 개항 요구 속에서도 화려한 왕실 문화와 미얀마 고유의 전통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따라서 쏘바웅 왕조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오늘날 미얀마의 문화적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쏘바웅의 왕들은 테라바다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종교 미술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서양인들을 궁정 고문(Royal Advisor)로 고용하여 미얀마의 전통과 서구의 기술을 결합시켜 나갔다.

빠러바익은 대나무나 야자수 잎을 여러 겹 붙여 두껍게 만든 종이를 연결하여 만든 일종의 접찰(摺綴)식 책이다. 18세기 버강에 조성된 아난다 옥 짜웅(Ananda Ok Kyaung)의 벽화에서는 빠러바익에 글을 쓰고 있는 천인이나 승려<도판 1>의 모습이 남아있어 쏘바웅 등장 이전부터 빠러바익은 미얀마의 전통적인 제작 기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Murphy et al. 2016: 65). 그러나 18세기 이전에 조성된 미얀마 사원의 벽화



〈도판 1〉 빠러바익에 글을 쓰고 있는 승려, 18세기, 버강 아난다 옥 짜웅 (Murphy et al. 2016: 65, Fig 16).

에서 빠러바익이 표현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주로 만달레이(Mandalaya)에서 빠러바익이 다량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는 버마족 왕실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Khine and Heidi 2016: 62). 또한 현재 미얀마에 남아있는 빠러바익은 대부분 19세기 쏘바웅 왕조대 제작된 것들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쏘바웅 왕실은 빠러바익의 제작을 후원한 것일까?

그 이유는 빠러바익에 담긴 내용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빠러바익은 백색 빠러바익(White Parabaik)과 흑색 빠러바익(Black Parabaik)으로 구분된다. 백색 빠러바익은 궁중에서의 의례와 일상생활 장면, 불경의 내용과 본생담(本生談; Jataka)을 묘사한 회화가 주를 이루며, 흑색 빠러바익은 법, 천문학, 의학, 점성술 등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Myaw Oo 2016: 43). 또한 빠러바익의 작성 주체는 왕실 관료나 학승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빠러바익을 볼 수 있는 독자층도 전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왕실 귀족이나 관료, 승려 등으로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쏘바웅 왕조대 빠러바익은 크게 세 가지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보존하기 위해, 두 번째로는 왕실의 일상생활이나 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한 수미산도가 그려진 빠러바익은 세 번째 목적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의 우주관(Cosmology)을 상징하는 수미산과 왕의 권위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쏘바웅 시대에 제작된 2점의 빠러바익에서 보이는 수미산도의 도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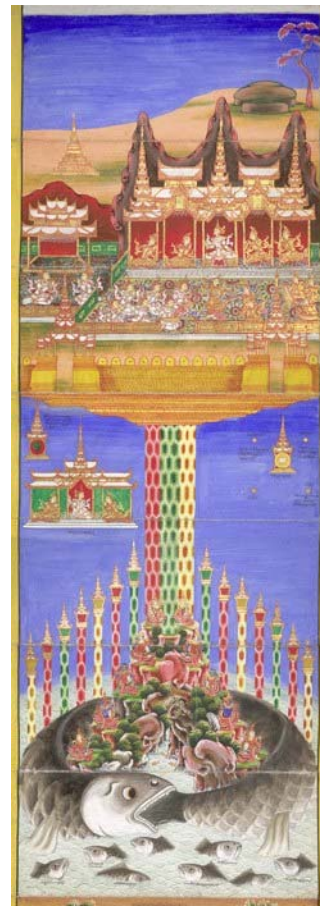
Ⅲ. 쏘바웅 대 수미산도 빠러바익의 도상과 특징

쏘바웅대 수미산도가 그려진 빠러바익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박물관과 영국도서관 소장품 2권이

다. 영국박물관 소장 빠러바익<도판 2>은 총 42장, 영국도서관 소장 빠러바익<도판 3>은 총 59장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다. 끈바웅의 화공들은 접철식 책의 특성상 화면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여러 페이지에 걸쳐 수미산도를 그려 넣었는데, 수미산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장면만 4장의 종이에 표현되었다. 나머지 화면에서는 수미산 하단에 위치한 지옥이나, 천계(天界)에 있는 정원의 모습, 수미산 주변의 4대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장면이 묘사되었다. 본고에서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과 수미산을 받치고 있는 대양(大洋)이 그려진 화면에 제한하여 여기서 보이는 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판 2〉 빠러바익, 19세기, 종이,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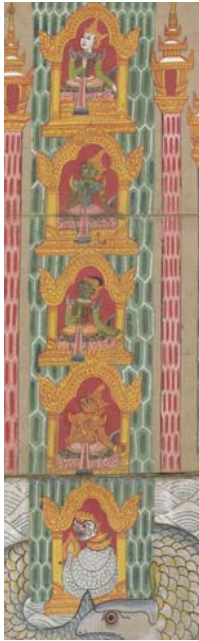


〈도판 3〉 빠러바익, 19세기, 종이,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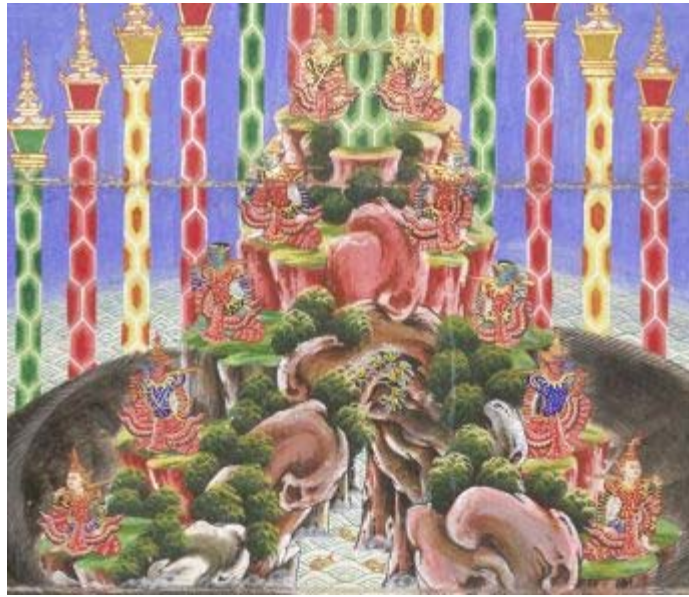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영국박물관과 영국도서관 소장 빠러바익에 묘사된 수미산의 표현은 벵강에서 기원한 수미산도의 도상 구성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벵강 벽화에서 보이는 수미산도의 구성 패턴은 다음과 같다. 화면 중앙에 가장 두꺼운 기둥인 수미산이 위치하고, 양옆으로 위치한 7개의 기둥을 배치한다. 수미산 정상부에 위치한 도리천(忉利天, Tāvātimsa) 아래로 태양과 달이 그려져 있는데, 항상 수미산을 중심으로 양쪽에 위치한다. 달 안에는 흰 토끼, 태양 안에는 공작이 있다. 수미산을 받치고 있는 대양은 물결 문양을 반복하여 바다임을 나타내며, 대양 안에는 자신의 지느러미를 입으로 물고 몸을 둥글게 말아 수미산의 하단을 감싸고 있는 대어(大魚)가 표현돼 있다. 수미산 정상부에 위치한 도리천

은 제석천(帝釋天, Indra)과 천인들이 제석천의 궁 안에 함께 모여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흥미롭게도 위의 구성 패턴이 쾨바웅대 뼈리바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쾨바웅의 화공들은 벉강 시대 완성된 수미산도의 도상적 틀을 따르면서도 일부 변화를 주면서 수미산도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벉강 시대의 수미산도의 도상과 비교하여 쾨바웅대 뼈리바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상적 변화는 수미산도 중앙에 배치된 천인들의 묘사이다<도판 4~5>.



<도판 4> 천인들의 모습
(도판 2)의 상세



<도판 5> 천인들의 모습 (도판 3)의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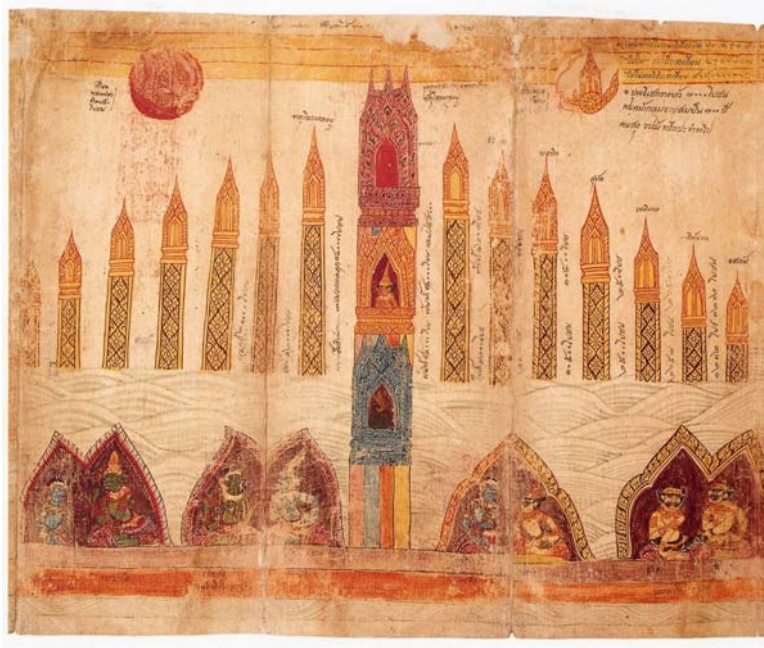


<도판 6> (도판 3)의 상세

두 권의 뼈리바익에 천인들이 표현된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천인들의 구성과 배치는 동일하다. 먼저 영국박물관 소장 뼈리바익에는 중앙의 수미산에 일렬로 수직배치된 감(籠) 안에 하단부터 나가(Naga), 가루다(Garuda), 쿠반다(Kumbhanda), 락샤사(Rakṣasa), 사천왕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동일한 천인 구성이 영국도서관 소장 뼈리바익에서도 등장하는데, 특이하게도 수미산 기둥의 감실 안에 천인들이 위치하지 않고, 계단형으로 된 산의 각 층에 5존의 천인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며, 두 갈래로 갈라진 산 위에 천인들이 2번 중복하여 표현되었다. 또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나가(Naga)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머리에 쓰고 있는 관(冠)을 통해 나가임을 알 수 있다<도판 6>.

두 권의 뼈리바익에 천인들이 표현된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천인들의 구성과 배치는 동일하다.

다음으로 태양와 달의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두 권의 뼈리바익에서는 노란색 원형으로 표현된 달 안에 흰 토끼, 붉은색 원형으로 표현된 태양 안에 녹색 공작이 그려져 있어 벉강 시대의 도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영국도서관 소장의 뼈리바익에서는 태양과 달이 전각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쾨바웅대 뼈리바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용된 표현들은 태국 수미산도의



<도판 7> 수미산도가 그려진 사뭇 코이, 18세기, 태국국립도서관

영향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국립도서관 소장 18세기 아유타야(Ayutthaya) 왕조대 수미산도 화첩이 참고가 된다<도판 7>. 태국에서도 미얀마와 유사한 시기에 접철식 화첩이 만들어졌는데, 태국인들은 이를 사뭇 코이(Samut Khoi)라고 부른다(Terwiel 2016 :42). 아유타야대 사뭇 코이의 수미산도의 도상은 선술한 버강 시대 수미산도를 따르고 있으나, 쾀바웅대 뼈러바익에서 보이는 변용된 도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선례이다. 중앙의 수미산에는 수직으로 세 개의 감이 위치하고 그 안에 용왕, 가루다 등이 표현되어 있다. 태양과 달 안에는 토끼와 공작이 아니라 마차가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아유타야 사뭇 코이에서 보이는 수미산도에 대한 묘사는 전거가 될 만한 경전이 남아있다.

아유타야 왕조의 전신인 수코타이 왕조의 6번째 왕인 리타이(Lithai, r. 1347-1378)에 의해 찬술되었다는 『트라이프롬 프라 루엥(Traiphūm Phra Ruang)』은 태국 수미산도의 소의경전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현재는 18세기 아유타야 왕조대 승려들의 필사본만이 남아있다. 이 경전에서는 “일천(日天)과 월천(月天)은 모두 말이 끄는 마차 위의 성에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노장서 2011: 22-23). 쾀바웅 수미산도에서 이례적으로 태양과 달이 전각 안에 표현된 것은 위와 같은 경전 내용을 바탕으로 수레는 생략하고, 성 안에 살고있는 일천과 월천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태국에서 제작된 수미산도의 도상이 19세기 쾀바웅 왕조의 뼈러바익에서 보이는 이유는 18세기 버마족과 시암족의 내전을 통해 결국 승리한 쾀바웅 왕조의 영토로 타이족 승려와 장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불경들이 전리품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쾀바웅대 뼈러바익에서 보이는 도리천의 천궁 묘사도 주목된다. 궁전의 모습은 만달레이에 있는 쾀바웅 왕조대의 궁전과 상당히 유사하다. 7개의 레이어로 된 높고 유려한 산개(Prasada)가 올려져 있는 화려한 지붕과 벽돌로 지어진 성벽과 성문의 모습도 만달레이궁의 모습과 닮아있다 <도판 8~10>.



<도판 8>도리천의 제석천궁(<도2의 세부>)



<도판 9> 도리천의 제석천궁(<도3의 세부>)



<도판 10> 만달레이궁 0김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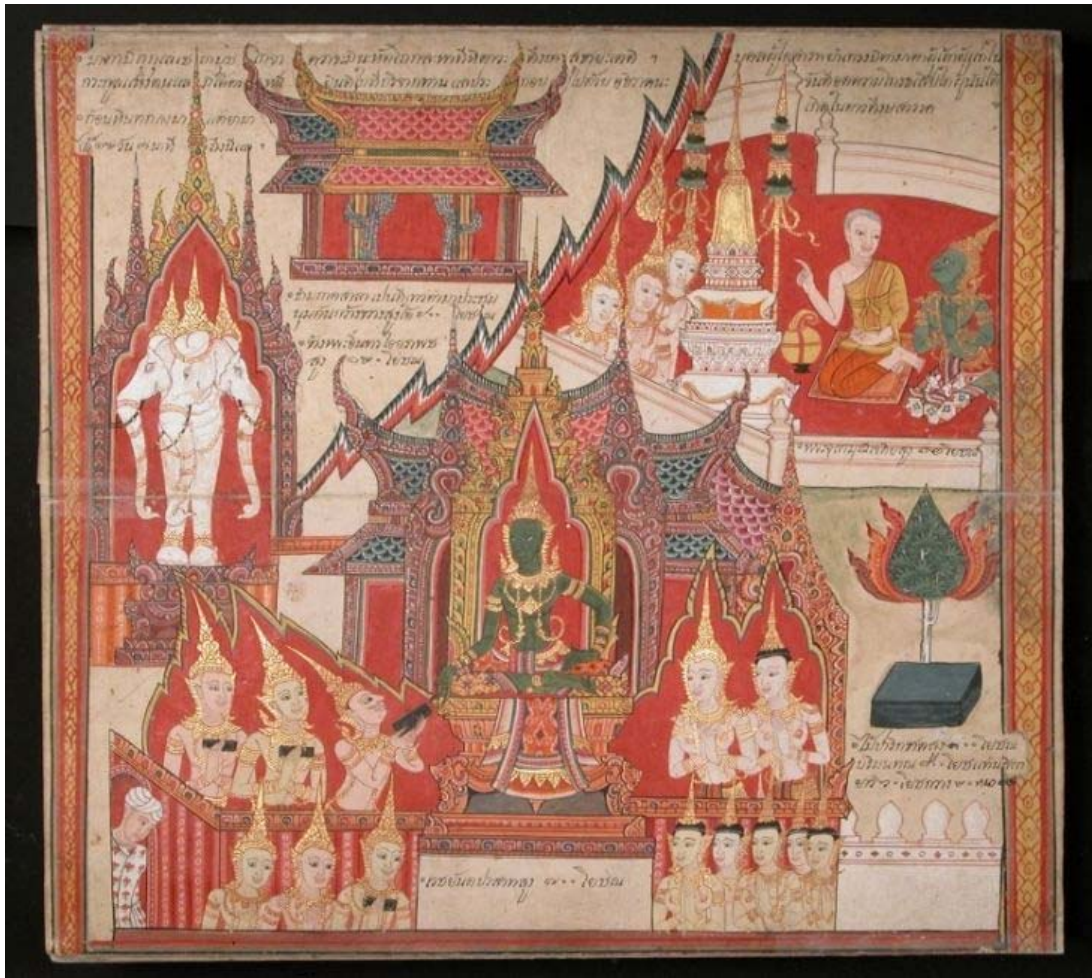
<도판 9>에는 제석천의 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과 춤을 추고 있는 무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악단은 미얀마의 전통적인 왕실 악기인 싸웅(Saung)과 삿팔라(Pattala)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전각 중앙에 앉아있는 제석천과 천인들이 입고 있는 복식의 스타일도 쏼바웅 왕실의 복식과 거의 일치한다<도판 11>.



<도판 11> 왕실 복식에 대한 뼈러바익, 19세기, 양곤국립박물관 0김미소

위와 같이 쏼바웅대 뼈러바익에 표현된 도리천의 모습은 당시 쏼바웅의 왕실 문화를 바탕으로 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쏼바웅대 뼈러바익에서 제석천이 다스리는 도리천의 묘사에 세속적인 왕실의 문화를 중첩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권 왕조에서 생성된 “왕권” 관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서 제석천은 이상적인 군주상의 모습을 상징했다(Michael Aung Thwin 1985: 48-49).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은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의 정상에 위치하며 수미산 아래에 사는 모든 신들을 관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석천의 상징적인 지위가 인간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왕의 권위와 동일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Seviset and Jian Qun 2013: 450). 수미산도에서 제석천의 상징성이 강조되는 경향은 태국에서도 발견된다. 툰부리 시대의 사뭇 코이에서도 쏼바웅대 뼈러바익과 유사하게 도리천 장면을 강조하고, 도리천에 위치한 궁의 모

습은 태국 궁궐과 사원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려 넣었다<도판 12>.



<도판 12> 사뭇 코이, 툰부리(Thonburi), 18세기, 베를린 아시안 아트 뮤지엄

이러한 이유에서 쏬바웅 왕실은 빠리바익의 주제로 수미산도를 선택하고, 제작을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 신들의 세계는 현실의 왕궁에 빗대어 묘사되었으며, 각 천인들을 통치하는 제석천의 지위와 권한은 쏬바웅의 왕의 권위를 은유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신성한 왕권’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IV. 나가며: 쏬바웅 수미산도의 전파와 교류 - 라오스와 태국의 수미산 재현

벽화의 벽화에서 시작된 기둥 형태의 수미산도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태국과 같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테라바다 왕조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선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의 수미산도는 도상과 양식에 있어서 유사 시기 제작된 태국의 수미산도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 태국의 수미산도는 아유타야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짜크리 왕

조(Chakri Dynasty) 시대까지 벽화뿐만 아니라 화첩으로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14세기 라오스 북부의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에서 성립된 란쌍(Lang Xang) 왕조대 조성된 사원에서도 미얀마 수미산도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루앙 프라방에 조성된 왕실 사원의 지붕 위에는 독 소 파(Dok so faa)라고 하는 지붕 장식<도판 13>이 올라가 있는데, 양쪽에 높이가 다른 일곱 개의 기둥이 위치하고, 중앙에 크기가 가장 큰 기둥이 가장 높게 솟아 있다(Heywood 2014: 47). 각 기둥 위에는 전각이 위치하고 전각의 내부는 비어 있거나, 때때로 천인들의 신상을 전각 안에 함께 배치하기도 한다. 전각 위로는 산개가 올려져 있고, 수미산과 칠금산의 하단부 혹은 기둥 사이에 삼각 형태로 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도판 13〉 독 소 파, 20세기, 라오스 루앙 프라방 왓 씨엥 통(Wat Xieng Thong)

태국과 라오스에서 미술로 재현된 수미산은 현지의 신앙 형태에 맞추어 도상이나 양식을 일부 변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버강대 정립된 수미산도 도상의 영향력을 따르고 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테라바다 불교 아래 왕권을 정립한 왕조에서 버강 수미산도 도상이 전파된 것은 대륙부 동남아시아 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성립한 왕조간 수 차례 전쟁을 통해 승려와 장인들이 승리한 왕조의 수도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전파와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얀마를 포함하여 태국, 라오스와 같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테라바다 영향권 왕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과 그 안에 담긴 질서를 ‘수미산’이라는 상징적 공간으로 치환시켜 미술로 표현해왔다. 특히 18~19세기 왕실을 중심으로 ‘수미산’이라는 주제를 빼러바익, 사뭇 코이, 독 소 파와 같은 형태로 제작한 이유는 수미산이라는 공간 안에 담긴 종교성뿐만 아니라, 각 공간이 가치는 ‘권위’와 ‘질서’를 시각화할 수 있는 모티프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노장서, 2011, 『태국 사찰벽화에 나타난 우주도상 연구 - 프라이어폼에 근거한 도상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17-2호.
- 양경인, 2006, 『인도종교의 수미산 관념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학위논문
- Heywood, Denise, 2014, *Ancient Luang Prabang & Laos*, (Bangkok: River Books).
- Khine Pyae Sone and Heidi Tan, 2016, "Cultural Landscapes of Later Myanmar", Murphy, Stephen A., et al., 2016,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 Murphy, Stephen A., et al., 2016,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 Mya Oo, 2016, "Treasur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Myanmar", Article for Symposium Program for Digitization and Conservation of Myanmar Old Manuscripts, (Yangon: University of Yangon).
- Seviset, Somchai and Jian Qun, Lin, 2013, "Cosmology and the traditional Thai Design of the Royal

Throne of Rattanakosin Royal Hal”, *Trans Tech Publications*.

Terwiel, Barend Jan, 2014, “On the Trail of Taksin’s *Samutphāp Traiphūm*”,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2.

선전포스터를 통해 본 통일 베트남의 “Ba đảm đàng(세 가지 담당)” 여성운동: 1976년부터 1986년 도이 머이(Đổi mới) 이전을 중심으로

심규혜(서강대학교 동남아협동과정)

1. 서론

본고는 베트남에서 미국과의 장기간 전쟁이 끝나고 1976년부터 1986년 12월 도이 머이(Đổi mới)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을 중심으로 선전포스터 속 여성이미지를 통해 국가와 당이 여성에게 요구한 역할의 특징과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했다. 1930년 베트남공산당(당시 인도차이나공산당)이 창설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투쟁이 포함되었고, 호찌민의 “여성들은 사회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성들이 해방되지 않으면 사회는 자유롭지 않다”는 이념은 여성들을 전쟁에 동참하도록 했다.¹⁾ 이처럼 전쟁을 겪는 동안 여성들은 민족해방과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한 여성해방운동을 목표로도 혁명에 참여했기에 전후 상황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시발점이었고, 전후 10년이라는 기간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위기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진행되었고, 통일 체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선전포스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빠르게 공공 장소에 운송, 배포 및 전시하기 쉬우며, 눈에 띄는 이미지와 대담한 슬로건은 자신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대중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에 포스터는 공산 국가의 혁명적 운동과 통치에 있어서 강력한 선전 수단이었으며,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트남 선전 포스터는 1945년 8월 혁명으로 시작되어 장기화된 미국과의 전쟁시기에 절정에 달했으며, 현재까지도 선전포스터를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홍보수단으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터는 베트남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각 이미지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베트남 여성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이었는지 선전포스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에게 요구된 의무가 특정 시기에만 주어진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에게 요구된 고정화된 의무사항이었는지 파악하고, 젠더의 관점에서 이 시기 베트남 여성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터에서 자료 선택의 기준은 여성이 등장하며 뚜렷하게 주제가 드러나는 것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에 제작연도와 작가가 분명한 포스터들을 선별하였다. 이미지의 구체적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베트남 당과 정부가 여성들에게 부과하려 한 의무가 포스터에 표현된 방식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지를 해석했다. 이를 위해 도상해석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어를 해석함과 동시에 포스터 이미지의 구체적인 의미와 특징 등을 읽어냈다. 1976

1) Arlene Eisen. 1984. *Women and Revolution in Viet Nam*. London: Zed Books. p. 85.

년에서 1986년 까지 여성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분류한 결과 68점의 포스터를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크게 ‘사회주의 노동자로서 여성’, ‘국가수호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여성의 교육과 육아의 책임’ 3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2. 베트남 선전포스터

연구 시기를 살펴보기 앞서 베트남 선전포스터는 1945년 8월 혁명으로 시작되어 초기 혁명적 주제는 독립, 기근과 문맹 퇴치, 프랑스와의 9 년간의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선전은 농업 생산을 복원하고 증진하며,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여성에게 특정한 임무를 나타내는 포스터는 1964년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특히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이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내세운 여성의 ‘Ba đảm đàng(세 가지 담당)’은 (1) 여성들은 생산활동과 남편의 대체 작업을 담당한다. (2) 여성들은 오랫동안 군대에 입대하고 봉사하는 남편, 아들 및 형제를 위해 가족을 돌보고 담당한다. (3) 여성들은 필요시 전투를 위해 민병대에 합류하고 전투 준비를 위한 군사 훈련을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었다.²⁾ 따라서 이시기 여성에게 요구된 세 가지 담당들은 선전포스터에서도 나타난다. 전쟁에 참여한 남성들이 비운 자리를 여성들이 대신하고, 식량생산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혁명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생산 수준을 높이는 의무를 담당해야 했다.

따라서 국가 재건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베트남 여성들에게 국가와 당이 시급하게 요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미국과의 전쟁시기에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여성의 “Ba đảm đàng(세 가지 담당)”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면 기초가 이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해방과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여성해방’을 주창한 공산당의 목표가 여성들이 책임을 수행함에 따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여성이 등장하는 선전포스터 주제별 분석

1976년에서 1986년까지 10년 시기 동안 여성이 등장하는 포스터는 사회주의 노동자로서 여성’, ‘국가수호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여성의 교육과 육아의 책임’으로 3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1) ‘사회주의 노동자로서 여성’ 관련 선전포스터

‘사회주의 노동자로서 여성’ 포스터에서 여성이 생산을 맡은 산업부문은 농업과 경공업으로 한정되어 나타났다. 1976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은 국가의 복원과 재건이 매우 중요했고, 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농업 부문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엄청난 관

2) Lisa Barbara Welch Drummond and Helle Rydstrom. 2004. *Gender Practices in Contemporary Vietnam*. NUS Press.

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벼, 과일 등 농산물 식량생산과 수출을 위한 초보적인 수공업과 생산 증대를 이루어야 했고, 가축 소, 돼지를 기르면서 사회건설을 위한 임무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전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성들은 벼농사에 집중했으며, 그 외에도 옥수수, 고구마, 카사바 등 ‘식량생산’에 집중했다.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공업 생산과 콩, 커피, 오렌지, 파인애플 등의 생산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당은 여성에게 ‘목축 생산’과 관련하여 젖소 사육을 통해 유제품 개발을 하고, 돼지를 사육하여 식량 자원을 풍부하게 증가시키는 일을 권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건설 작업’에도 참여하였는데 신 경제구역 건설과 숲 조성을 통해 새로운 생산 체제를 갖추고 숲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시켜야 했다. 이처럼 여성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소수민족 여성들까지 아우르는 통합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농업 생산의 재구성 그리고 소규모 생산을 사회주의 대량 생산으로 투입하도록 노동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미국과의 전쟁 기간 동안 베트남여성연맹에서 주창한 여성의 ‘Ba đăm đàng(세 가지 담당)’ 운동 중 첫 번째가 전 산업분야에서 생산 수준을 유지하거나 제고할 의무였다. 따라서 군대에 입대한 남성들이 담당해오던 작업과 식량생산들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루고 사회주의 건설 작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생산활동 영역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선전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다.

(2) ‘국가수호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관련 선전포스터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베트남여성연맹이 전개한 여성의 ‘Ba đăm đàng(세 가지 담당)’ 운동을 통해 여성의 참여와 희생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여성들에게 전쟁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과 가족을 돌보면서 실제 전투까지 참여해야 했던 다양한 분야의 책임이 주어지면서 여성들은 어머니와 여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1978년 캄보디아와 분쟁, 1979년 중국과의 분쟁이 이어져 여성들은 필요시 투쟁에 참여해야 함과 동시에 전쟁과는 대조되는 평화와 연대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국가수호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관련한 포스터를 살펴보면, 국가가 방위의 필요성과 국방 건설을 제시하면서 여성들은 베트남의 위인인 쯩 자매의 정신을 본받아 필요시 투쟁을 진행하고, 국경지역이나 잔존하는 적을 휩쓸기 위해, 미래 아이들을 위해 민병대로써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군복무가 실행되도록 남성을 격려하며 전반적인 국가 방위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와 동시에 평화를 위해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연대를 이루고 독립, 자유 그리고 평화의 호찌민의 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담당해야 했다. 그러면서 인도차이나 3개국이라 묶였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여성들과의 우정과 평화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했으며, 베트남의 우방국인 소련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소련의 지원과 원조에 감사를 표시하며 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평화 유지의 역할 또한 담당해야 했다. 베트남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국가 수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전투보조, 민병대의 역할에서 다시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의무로 확장된 것이다.

(3) ‘여성의 교육과 육아의 책임’ 관련 선전포스터

‘여성의 교육과 육아의 책임’과 관련된 포스터를 살펴보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여성의 ‘Ba đăm

dang'(세 가지 담당) 운동에서 두 번째가 전쟁에 참여한 남성들을 위해 가족을 돌보고 혁명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의무였다. 중점이 되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 특히나 어머니로서 육아를 책임지는 모성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전쟁 상황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모습으로만 포스터에 나타났다면, 통일을 이루고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서는 가정 내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이가 문맹퇴치하도록 글을 가르치고, 사회주의 이념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했다. 미래의 세대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성들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당이 요구하는 교육 분야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가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잘 가르치고 수학, 과학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과학 및 기술교육을 통해 노동 혁명을 완수해야 했다. 그리고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1980년 새 헌법을 시행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잘 준수하도록 헌법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며, 1986년 8기 총선을 위해 여성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장려했다. 또한 국가 정책에 맞게 글 공부를 하여 문맹퇴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독립, 자유, 행복을 이루게 해준 호찌민과 공산당을 찬양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교육까지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화 예술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면서, 여성들은 혁명 정신과 역사적 유산, 전통문화 교육의 계승자가 되어 전통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베트남 선전포스터 속 여성 이미지 분석

베트남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베트남여성연맹의 기본적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빠르게 공공장소에 전시하기 쉬우며, 문맹인들에게 효과적인 선전포스터라는 예술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미국과의 전쟁 시기에 당과 국가에 대한 여성의 '세 가지 담당' 역할과 전쟁이 끝나고 황폐화된 국가 재건과 사회주의 신여성과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들에게 요구된 역할들이 포스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살펴본 선전포스터 속 여성의 모습은 베트남 역사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수행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는 넓고 다양했다. 경제활동에서의 농업과 시장에서의 생산활동, 가정을 돌보는 책임에서 자녀 교육, 가사 부담은 전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고, 남성들이 주로 하던 전쟁에도 참여하여 남성들과 함께 투쟁 전선에도 뛰어들어야 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여성들과 연대를 담당해야 했다.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생산 노동에 있어 기술 혁신을 위해서 공부와 연구를 진행하고, 나아가 베트남 전통문화 계승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여성이 등장하는 선전포스터에서 여성들은 국가가 제시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이와 가족을 보살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이중, 삼중의 압박을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0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감당해야 했다. 그와 동시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해방운동과 베트남여성연맹에서 제시한 법적인 조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포스터에서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차별되는 전통적인 젠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도 병행해야 했다. 여성들의 해방과 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참여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운동에 동원하는 주요 과업을 관철시킨 베트남여성연맹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 속에서 농업생산과 육아,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한정시키는 한계

를 보여준다. 일련의 조치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해방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과정들은 여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또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노동력 동원의 일환에 불과했다. 여전히 여성들은 가족과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요 받았고, 여성과 남성의 젠더 역할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으며 모성성을 강조하여 가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0년 이 시기 포스터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구체적인 책무들은 상당히 전근대적이다. 여성주의 입장에서 ‘해방’을 중심으로 보면 1차 산업과 가사노동인 전통적 역할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 여성에게 부여된 요구들은 과거부터 이어져온 베트남 여성에게 주어진 특수한 요구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베트남 역사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요구들은 현재까지 베트남 여성의 이미지를 고착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5. 결론

베트남 정부는 통일을 이룬 후, 농업과 경공업 발전을 토대로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 건설을 완성하고자 함에 따라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했던 선전포스터를 이용해 여성 해방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들을 노동자로서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게 했다. 베트남여성연맹(Vietnam Women's Union)은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여성의 ‘Ba đảm đang(세 가지 담당)’ 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의 참여와 희생을 호소했는데 이전부터 여성들이 담당해온 책임들은 유지되었고 문제는 이전부터 여성들이 담당해온 책임은 여전히 이어진 채 새로운 의무들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베트남 여성의 이중적 질곡은 베트남 사회주의 이상과 이와는 따로 도는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강조하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 농업, 산업 생산활동과 관련된 포스터들에도 여성이 그려졌으며, 이전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목표이자 명분으로 내세운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비롯한 여성 해방은 전쟁이 끝나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 시기의 한계라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나고 여성 해방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목표로 여성들에게 과학기술의 응용, 교육의 기회 등으로 사회, 경제 참여를 독려하면서 여성에게 요구된 역할들은 여성을 속박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진출을 촉진하게 했고, 이후 시련을 극복하고 여성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써 작용했다. 결국 전후 1976년부터 1986년까지 10년이라는 시기는 여성해방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벽을 넘는 과도기적 시기였던 것이다.

짜끄리(Chakkri)왕조 라마 3세 시기(1824~1851) 방콕의 중국풍 벽화에 관한 연구

송제(서강대)

1. 논문 요약

태국 짜끄리(Chakkri)왕조 라마 3세(1824~1851)는 중국 미술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으며, 여러 자료에서 그가 Sinophilia¹였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의 통치기간동안 방콕의 수많은 사원과 궁정에서는 중국미술에 대한 열풍(Chinoiserie)이 절정에 달했으며, 라마 3세에서 시작된 중국미술 유행은 귀족, 상류층으로 확산되었다. 사원, 궁정을 장식했던 중국회화 중에는 대표적으로 중국풍 벽화가 있다. 방콕의 일부 사원들에 있는 중국풍 벽화는 중국의 가정장식화의 소재 및 구성방식이 매우 흡사하다. 후에 라마3세로 집권하게 되는 Jetsadabodin왕자는 중국-시암(Siam) 간의 무역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치품을 수입하였는데, 궁정, 정원, 사원에 장식되었다. 이 중에서 유리그림은 18세기 말~19세기 초에 광동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무역업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생산되었는데, 유화 혹은 구아슈화로 그려진 이 그림의 다양한 소재 중 하나는 중국풍 정물화였다. 이 유리그림은 Wat Pho사원과 Wat Ratcha Orot사원에 걸려있는 것이 대표적인데,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타이 화가들은 그 모습을 본따서 궁정과 사원의 벽화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가정 장식화로 사용되었던 정물화가 방콕에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원에 장식되었는데, 당시 한자를 몰랐던 타이인들은 '탁자 위에 배치된 아름다운 사물들'을 보고 부처님께 바치는 예물로서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Wat Ratcha Orot사원의 벽화는 격자무늬인데, 청조(淸朝)의 보물진열장(多寶格)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미술의 유행은 1851년에 라마 3세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본론]

2. 라마 3세 시기(1824-1851), 중국에 대한 시암인들의 인식²

이 시기의 시암(Siam)은 페르시아, 중국, 유럽 등의 수많은 다양한 문화에 개방적이었는데, 특히 중국에 가장 개방적이었다. 당시 시암인들은 이웃 국가들과 서양이 시암보다 열등하고, 중국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다(Thawornchanasan 2002: 24). 1781~1795년동안 시암을 방문했던 중국인 여행자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시암인은 중국인을 우선시하였고, 중국어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훌륭하게 여겨져 왕궁에 초대되었다.'고 하였다(Masuta 2003: 142-149). 그리고 중국인들은 시암인들과 많이 교류하고, 유일하게 고려할 만한 외국인이며, 그들 자신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라따나코신(รัตนโกสินทร์, Rattanakosin) 시대³ 초기에는 모든 왕들은 왕좌에 올랐을 때 중국 황제로

¹ Sinophilia : 중국문화, 중국인, 또는 중국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한다.

²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1, 2013, pp45~46

³ 라마 1세가 1782년에 왕이 되어 왕조가 시작되었고, 그의 칭호인 차끄리(Chakkri)의 이름을 따서 현 왕조를 차크리

부터 왕의 자격을 요구하기 위해 특사를 보냈다. 그 이유는 시암이 중국의 종속국가나 신하국가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권력과 위신을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Wilson 1970:145). 또는, '버마가 Mergui, Tavoy, Tenasserim의 세 지역을 시암에게 반환할 수 있게' 중국이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라마 1세가 중국에 특사를 보낸 적이 있다. 즉, 시암의 궁정은 중국이 시암을 원조한다고 믿었다(Khanakammakan Suebkhon Prawatisat 1980: 43-44).

3. 시암인들이 중국미술을 수용하게 된 배경

라따나코신 시대 초기에, 엘리트들은 아유타야 시대(1350~1767)의 오래된 전통(특히 엄격한 종교와 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다. 이 시기에 Realism(현실주의/사실주의)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라마 1세는 불교 개혁을 하면서 시암 불교도들의 초자연적, 주술적 믿음을 줄이려고 노력했다(Sattayanurak 2003: 110~127). 몇몇 라따나코신 문학작품들은 또한, 아유타야 시대에 대중적이었던 신화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실제 삶의 주제와 즐거리를 다루었다(Eoseewong 1995: 242, 244, 250). 라마 2세 때부터 서양과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왕족 뿐만 아니라 신학문을 접한 일부 신세대들의 의식과 문화가 (비록 느린 속도였지만) 바뀌기 시작했다. Nidhi Eoseewong는 이 시기의 문학은 전통적인 인식이 흐려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대중성이 약해지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 대신에 더 세속적인 문학이 만들어졌는데, 중국 등의 외국 문학작품들이 번역되었고, 중국에서 파생된 산문 장르가 인기가 있었다(Eoseewong 1995: 53~59, 94).⁴ 라마 3세부터는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시암에 들어와 선교활동 외에도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과학지식을 전파하였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 교육을 받은 신세대 젊은이들은 주술, 무당, 정령 등의 미신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특히 불교의 본생담(本生譚, Jataka)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기면서, 불교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경향이 나타났다.⁵ 중국의 미술/건축 양식을 수용한 것은 새로움과 혁신에 대한 열망이었다. 본생담(本生譚, Jataka)⁶ 등의 전설과 불교의 우주론(후불벽화)에서 기인한 벽화의 전통적인 주제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로부터 동떨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기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국의 가정 장식미술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realism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⁷

중국문화가 태국의 미술/건축에는 흡수되었지만, 시암인의 사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기간동안 이미 중국문화를 흡수해 오고 있었고, 중국과 시암의 기술과 지식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암인의 입장에서 중국의 과학기술과 지식은 새롭게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서양의 기술과 지식에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양의 기술은 시암의 것과 완전히 다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으로부터는 거의 예술 측면에서만 영향을 받았으며, 과학과 이성에는 서양의 영향

왕조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 왕조의 국가와 시대를 라따나코신(รัตนโกสินทร์, Rattanakosin)이라고 부른다.

⁴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1, 2013, pp45

⁵ 김영애, [태국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140

⁶ 석가모니의 전생에 대한 전설 이야기. 석가모니는 547번, 혹은 일부 자료에서는 550번의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⁷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1, 2013, pp45

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서양의 과학/지식을 수용하는 것은 시암인들의 사상에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예를 들어, 서양의 점성술은 태국의 것보다 더 정확했으며 이것이 도입되면서 일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더 정확해졌고, 세계관에 변화가 생겼다.⁸ 그렇게 realism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방콕의 미술에도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왕족과 상류층들은 중국미술을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가? 1836년 William Ruschenberger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화가들은 시암 귀족층의 궁전에 있는 중국그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그래서 19세기 초의 벽화들은 당시의 문화였을 것으로 보인다.⁹ 그리고 20세기 초의 역사가였던 Damrong Rajanubhab 왕자(1862~1943)¹⁰는, 귀족들이 사원에 중국의 가구와 가정제품들을 기증하면서 그것에 영감을 받아 중국풍 정물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지만,¹¹ 현존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른 사례로, 라마 2세는 중국에서 복귀한 특사가 “북경과 광동의 부유층들은 정원을 경쟁하듯이 만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라마 2세는 왕궁에 “정의의 정원Garden of the Right”을 세우라고 명령했으며 (Thiphakornrawong 1961: 80), 그 디자인은 중국풍이었다 (Narinthorntevi 2002: 340-342).¹² 나중에 라마3세가 이 정원을 처분하여 이 곳의 많은 중국 장식품들을 사원들에 기부했다. 화가들은 이 중국미술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벽화를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Damrong왕자는 이런 그림들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고, 최근에 학자들이 이 주제를 Chinese Alter table(중국식 제단 탁자)양식이라고 불렀는데 (Youngrot 1996: 81; Rasameewong 1984: 32),¹³ 이 그림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라마 3세의 시기에, 시암인과 외국인들의 언급에 따르면, 시암의 엘리트들, 특히 궁정 사람들은 집과 정원을 중국풍으로 장식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한다(Thiphakornrawong 1961, pp100-101; Crawford 1967, p.85).¹⁴

그런데 방콕의 미술과 건축에 영향을 준 중국의 요소가 과연 중국 미술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 19세기 후반 이전까지 왕족, 귀족층은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었다. 귀족층 후원자들은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여행할 기회가 거의 혹은 전혀 없었으며, 라마 5세 쥘라롱콘 국왕(1868-1910

⁸ Songyot Weerataweemat, [ROYAL BUDDHIST ARCHITECTURE OF THE EARLY BANGKOK PERIOD], The University of York, 1999, pp154

⁹ Jessica Lee Patterson, [Temples of Trade: Chinese Art in Bangkok, 1824-185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4, pp82

¹⁰ 라마 4세의 57번째 왕자로서, 교육장관·내무장관 등 요직을 지냈고, 타이 근대화에 공헌하였다. 대중을 위한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제도의 확립에 힘썼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타이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 두산백과(doopedia)

¹¹ Jessica Lee Patterson, [Temples of Trade: Chinese Art in Bangkok, 1824-185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4, pp103

¹²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1, 2013, pp46

¹³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1, 2013, pp36

¹⁴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101, 2013, pp41

재위)이 관습을 깨기¹⁵ 전까지는 왕이 영역을 떠나는 것은 관례상 금기였다. 그리고 왕족들은 19세기 후반 전까지는 태국에서 교육받았고, 이에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부터 복귀하는 시암의 대사들이 알려주는 중국의 모습이나¹⁶, 수입된 중국미술품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므로 방콕의 예술이 중국의 요소와 혼합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은 중국으로부터 방콕으로 수입된 미술품이 거의 유일한 촉매제였다고 볼 수 있다.

4. 중국풍 정물화 벽화의 기원과 소재

앞서 언급했듯이 본생담(本生譚, Jatakas)과 같은 전설과 불교의 우주론에서 기인한 벽화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로부터 동떨어졌다고 느껴졌던 반면에, 중국의 가정장식화는 세속적이었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시암의 엘리트들이 선호했다.(Achirat Chaiyapotpanit 2013). 아름답고 기하학적인 탁자 위에 아름다운 정물들이 배치된 모습을 본 현지인들은 중국어를 몰랐거나 그 그림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부처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그린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방콕 궁정과 사원의 중국풍 벽화의 시초일 것으로 추정되는 Wat Ratcha Orot 사원의 벽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소재를 나는 2가지 제시하는데, 광동의 유리그림, 청조(淸朝)의 보물진열장(多寶格)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리그림은(현지조사를 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이 정물화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리그림이 중국풍벽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유리그림은 말그대로 유리에 그린 그림이다. 기존의 그림에 대고 따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량생산하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로 바뀔 무렵에 광동에서 대량생산되어, 그 곳을 방문하는 다양한 외국상인들에게 판매되었는데, 그 소재는 삼각지, 서양화의 복제품, 마카오의 풍경, 진주강 삼각지 등 다양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정물화(기명도, 器皿圖)였다. 유럽에서는 단순한 기념품 정도의 저급미술로 여겨진 반면에, 방콕의 궁전과 사원에서는 명성을 얻어 크게 유행했고<그림 1>, 이런 유리그림들은 19세기 전반기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중국풍 벽화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Jessica Lee Patterson).¹⁷ 대표적으로 Wat Ratcha Orot(วัดราชโอรส, 왕자의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의 벽화에는 이런 유리그림들 여러 개가 문과 창문



<그림 1> Wat Kanlayanamit, Jessica Lee Patterson, [Chinese Glass Paintings in Bangkok Monasteries], Figure 16

¹⁵ 라마 5세 쥘라롱콘 왕은 태국의 근대화를 위해 최초로 해외순방을 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접했다.

¹⁶ Jessica Lee Patterson, [Temples of Trade: Chinese Art in Bangkok, 1824-185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4, pp81

¹⁷ Jessica Lee Patterson, [Chinese Glass Paintings in Bangkok Monasteries], Archives of Asian Art, Volume 66, Number 2, 2016, 154~157p

위에 걸려있고, 벽화로는 중국풍 정물화로 사방에 도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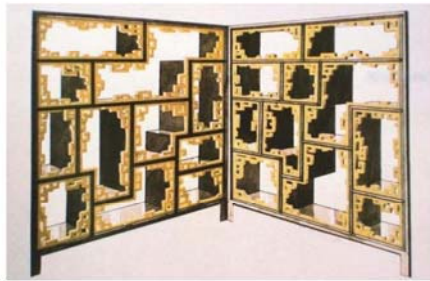


<그림 2> Wat Ratcha Orot /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Figure 7

궁정과 여러 사원들에서 이러한 중국풍 그림들이 다수 그려졌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사각형 소용돌이 모양의 테이블”이다. 이런 독특한 그림들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중국식 제단 탁자(โต๊ะบูชาแบบจีน Toh bucha baep jin), 중국의 종교적인 물건들(เครื่องบูชาแบบจีน Khrueng bucha baep jin), 중국의 종교적인 물건들이 놓여진 탁자(โต๊ะตั้งเครื่องบูชาแบบจีน Toh tang khrueng bucha baep ji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Bucha(บูชา)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Bucha(บูชา)는 ‘송배하다’ 라는 뜻이므로

당시 시암인들이 이 그림을 종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Wat Ratcha Orot사원의 우보삿(Ubosot)에 있는 중국식 정물화 벽화(<그림 2> 참조)는 Wat Kanlayanamit과 Wat Arun의 중국산 유리그림들의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博古架 (Jiaqing Tian, “청 왕조 궁정 회화의 청대 초기 가구” /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Figure 10

그 다음으로는 청조(清朝)의 보물진열장(多寶格)<그림 3,4>이다. Wat Ratcha Orot의 내부벽화는 사방으로 중국식 정물화로 도배되어 있고, 테두리(액자)는 금색으로 그려져 있어서 모든 그림들이 격자무늬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그림의 상단 양쪽 구석에는 Bracket 장식이 있는데(얼마다 문양이 다르다), 이 벽화는 청 왕조 때의



<그림 4> 청(淸) 가구 Achirat Chaiyapotpanit, [King Rama III-Period Murals and their Chinese Home Decoration Theme], figure 11

보물진열장(多寶格)의 Bracket과 비슷하게 그려졌다. 후에 라마 3세가 되는 Jetsadabodin왕자는 중국 사치품을 광범위하게 거래했기 때문에 중국의 보물진열장(多寶格)의 형태에 영감을 받아서 방콕 사원의 ‘중국풍 정물화’가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¹⁸ Jessica Lee Patterson, [Temples of Trade: Chinese Art in Bangkok, 1824-185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4, pp100~101

분과회의 7

동남아 이슬람금융의 현실과 이상

전통적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 간 관계 분석: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선호(한남대) · 이종열(고려대)

I. 머리말

이슬람 자본시장은 은행 및 보험사가 제공하는 주식, 투자 펀드, 채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금융시장과 차이가 없으나, 이러한 금융서비스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이슬람 자본시장은 이슬람 금융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기 자금과 투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 이슬람 보험과 더불어 이슬람 금융시스템의 필수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통금융시장과 이슬람금융시장이 공존하는 “이중 금융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 자본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이슬람 자본시장의 발전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각 국의 이슬람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주식, 펀드, 채권시장 중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적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의 동조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슬람 자본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 중계의 대안적 모형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주식시장 간 동조화 및 상관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각 국가 내 이슬람 주가수익률과 전통적 주가수익률 간 동조화 및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해 이슬람과 전통 주식시장의 대체성 및 보완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두 국가 간 주식시장의 동조화 및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 두 국가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는 1960년 3월에 설립되어 5월부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의 어음교환소를 통해 주식거래가 시작되었다. 1973년 자본발행위원회(Capital Issues Committee; CIC)가 설립되었고, 싱가포르와의 통화 상호교환(currency interchangeability)의 종료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ES)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의 발전은 세 기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기간은 주식시장과 주식중개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현대화 과정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993

년에는 수퍼불(superbull) 발생으로 단기자본의 유입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주식시장이 발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자본시장 마스터플랜 시행을 통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의 향후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는 거대 이슬람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10월 Bursa Malaysia에 911개 증권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691개인 76%가 샤리아를 준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샤리아 준수 증권(Shariah-compliant securities)은 기업의 샤리아 원칙 준수 여부에 따라 투자 허용 대상으로 분류된 증권 거래소 상장 회사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샤리아 준수 증권 목록은 1997년 6월 증권위원회(SC)의 샤리아 자문위원회(SAC)에서 도입되었으며, 이 목록은 기업의 연간 재무보고서와 기업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기업 경영진에 대한 특정 문의를 통해 1년에 5월과 11월 두 번 재선정된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된 2018년 10월 기준 샤리아 준수 증권의 시가총액은 RM 1.05조 수준이며, 전체 시가총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체 주식시장에서 이슬람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는 최초 자카르타 증권거래소(JSX)로 알려져 있으며, 2007년 수라바야 증권거래소(SSX)와 합쳐지면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 이슬람 주식과 관련된 지수는 크게 인도네시아 샤리아 주가지수와 자카르타 이슬람 지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 샤리아 주가지수(Indonesia Sharia Stock Index; ISSI)는 2011년 5월 개설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매 6개월마다 공표하는 샤리아 증권을 포함하는 주식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이다. ISSI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주식시장의 성과를 나타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1년에 5월과 11월 두 번 재설정된다. 다음으로 자카르타 이슬람 지수(Jakarta Islamic Index; JII)는 2000년 7월 개설된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최초 이슬람 주식지수이다. JII의 구성요소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되어 있는 30개 주요 이슬람 주식으로 ISSI와 마찬가지로 1년에 5월과 11월 두 번 재설정 된다¹⁾.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2017년 기준 566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약 IDR 705.2조에 달한다. 한편, 2017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전체 주식거래 가치는 약 IDR 1,809.6조에 달하며, 샤리아 주식거래는 IDR 1,030.1조로 전체 주식거래 중 57%를 차지하고 있다.

Ⅲ. 자료 및 추정모형

1. 자료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전통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실

1) IDX는 JII 구성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샤리아 주식은 최근 6개월 ISSI에 기록되어진 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60개 주식을 선정한다. 이후 일간 거래가치가 높은 30개 주식을 선별하여 이를 구성항목으로 선정한다.

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Yahoo Finance와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2007년 1월 22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국가별 일간 전통 및 이슬람 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주가지수는 각각 FTSE Bursa Malaysia KLCI Index와 Indonesia Composite Index를 사용하였으며, 이슬람 주가지수는 각각 FTSE Bursa Malaysia Hirjah Sharia Index와 Jakarta Islamic Index를 사용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금융시계열 자료가 가지는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식(1)과 같이 주가지수를 자연대수로 차분하여 안정적 시계열인 주가수익률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R_t 는 t 기의 해당 주식의 주가수익률을 나타내며, P_t 와 P_{t-1} 은 각각 t 기와 $t-1$ 기의 주가지수를 나타낸다.

$$R_t = (\ln P_t - \ln P_{t-1}) \times 100 \tag{1}$$

이상과 같은 식(1)을 사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전통 및 이슬람 주가수익률 자료의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가별 주가수익률 자료가 이분산성 및 자기계열상관을 가지며, 이에 실증분석에서 GARCH 유형의 모형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별 주가수익률 자료의 정상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주가수익률 자료에 대한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주가수익률 자료가 정상성을 가지는 I(0)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추정모형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전통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금융 자산 간 시간 가변적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고려한 주가수익률 간 변동성 전이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DCC-GARCH모형과 BEKK-GARCH모형의 두 가지 다변량 GARCH 모형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다변량 GARCH 모형은 변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해야할 모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Bollerslev(1990)는 조건부 공분산이 조건부 분산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도입한 다변량 CCC-GARCH(Constant Conditional Correlation Multivariate GARCH)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추정 모수의 수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추정상의 편의를 위해 조건부 상관관계가 일정하다는 제약을 사용하여 금융변수 간 시간가변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을 가진다. 한편, Engle(2002)은 CCC-GARCH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간가변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고려한 DCC-GARCH(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 Multivariate GARCH)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한 나라 또는 해당 주식수익률 변동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충격전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간가변적 조건부 상관관계를 고려하였더라도 CCC-GARCH 및 DCC-GARCH 모형은 잔차들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에 특정 제약을 가함으로써 추정 모수의 수를 줄여 추정상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전이의 크기와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ngle and Kroner(1995)가 제안한 변수 간 상관관계 구조의 제한이 없는 BEKK-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주가수익률 간 변동성 및 충격전이 효과를 파악하고, DCC-GARCH

모형과 비교하여 추정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 실증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및 이슬람 주가수익률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DCC-GARCH와 BEKK-GARCH의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사용한다.

먼저, DCC-GARCH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및 이슬람 주가수익률 간의 조건부 시간 가변적 상관관계 분석결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전통 및 이슬람 주가수익률 모두에서 변동성 군집현상 및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지속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국가별 주가수익률 간 조건부 상관관계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모든 모형에서 전통 주가수익률과 이슬람 주가수익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두 주가수익률 간 상관관계가 크게 낮아진 이후 다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주가수익률의 관계 분석결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군집현상 및 수익률 간의 높은 상관관계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가별 주가수익률 간 조건부 상관관계 추이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양국 간 전통적 주가수익률은 대체로 0.47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국 간 이슬람 주가수익률은 대체로 0.31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주가수익률의 상관관계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BEKK-GARCH 모형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및 이슬람 주가수익률 간 모형의 평균방정식 추정결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모두 전통적 주식시장에서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으로의 수익률 전이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이슬람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전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분산방정식 추정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률 충격전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에서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은 보완성을 가지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성 전이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변동성을 위험(risk)로 인식할 경우, 말레이시아에서는 투자자들의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분산투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의 주가수익률의 관계 분석결과, 전통적 주식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의 수익률 전이효과가 나타난 반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익률 전이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슬람 주식시장은 상호 간 수익률 전이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수익률 충격전이 효과의 경우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 모두에서 양국이 보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도네시아보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보완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전이효과는 양 국가 간 분산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2007년 1월 22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일간 전통 및 이슬람 주가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양국 주식시장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국가별 이슬람 주가지수와 전통적 주가지수 간 동조화 및 상관성을 분석하고, 두 국가 간 주식시장의 동조화 및 상관성을 분석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DCC와 BEKK-GARCH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DCC-GARCH 분석결과, 국가별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 간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은 0.3~0.4의 그다지 높지 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BEKK-GARCH 분석결과, 국가별 분석에서 말레이시아의 전통 및 이슬람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수익률 충격에 대해 보완성을 가지며, 변동성 전이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두 주가지수 간 관계가 예상치 못한 수익률 충격에 대해 대체성을 가지며, 변동성 전이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전통적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에 대한 국가 간 분석에서 두 시장 모두 수익률 전이 효과와 예상치 못한 수익률 충격에 대한 보완성을 가지며, 변동성 전이 측면에서 분산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전통적 주식시장과 이슬람 주식시장의 관계를 분석한 유의미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성과 관계 해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과 근거 제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본 연구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슬람 소비자 금융의 이상과 현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례

이지혁(서울대)

I. 들어가는 말

상품시장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별되듯이 일반적으로 금융시장도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이란 기업, 즉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말하며 소매금융(Retail Banking)은 개인 고객들과의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소매금융에서도 주택을 구입할 때 주로 이용되는 주택금융(home financing)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일반 서민들도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택금융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단기 대출과는 차이가 있다. 인간의 삶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시대의 변화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서민이 큰 대출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택이 그만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의 방증이다. 주택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인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은 대체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과 이슬람 채권인 수쿱 등 국가주도, 즉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다. 전통적 금융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이 국가주도 혹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 이용을 바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과 자동차금융 등 일반 소비자 금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집값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즉 PIR(Price Income Ratio)이다. PIR은 가구당 연평균 소득으로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예컨대 연 소득이 4,000만원이고 집값이 4억 원이면 PIR은 10이다. PIR 값이 10이면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MUMBEO가 2019년 중반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PIR은 19.92, 쿠알라룸푸르는 11.22, 서울은 20.71이다. 이는 대략적으로 자카르타에서 집을 사려면 20년 동안 아무런 지출 없이 수입을 다 저축해야하고 쿠알라룸푸르의 경우 상황이 조금 낫기는 하지만 유엔의 권고 사항인 5년을 훨씬 넘어 적어도 11년 이상을 지출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www.numbeo.com).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들이 주택금융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슬람 금융 중에서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 방식인 주택금융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국가 모두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 금융이 공존하는

이중은행구조(dual banking system)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슬람 금융이 전통적 금융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이 추구하는 이상이 전통금융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상이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더불어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슬람 주택금융의 원리와 종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모두 전통적 금융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비자 금융에서도 전통적 금융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 주도의 이슬람 금융정책의 영향으로 1983년 최초의 이슬람 은행이 설립된 이후 빠른 속도로 이슬람 은행이 성장하여 2016년 기준 2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처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로 파이낸스, 협동조합, 지역은행(rural bank)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슬람 금융이 행해지고 있다.

전통적 금융에서 이자를 매개로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방식이 발달해 왔다. 이슬람 금융 원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자(riba)를 금지하고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 혹은 자본가가 구매자(채무자)가 원하는 상품을 대신 구매하고 이를 원가와 이윤을 덧붙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은행이 구매자(채무자)에게 상품을 이연지불방식으로 판매하고,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채권자)가 제3자에게 은행에서 구매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현금을 받고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따와룩(tawarruq), 금융기관이 구매(소유)한 상품을 리스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무샤라카 무타나퀴사(musharakah mutanaqisah)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주택금융 상품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주택금융뿐만 아니라 이슬람 금융 전체에게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슬람 원리는 ‘무라바하’이다. 실물 상품의 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라바하(murabaha) 계약은 고객이 구매를 희망하는 특정 상품(부동산 포함)을 자본가에게 구매해 주기를 요청하면 자본가는 이를 구매하여 일부 이윤(mark up)을 덧붙여 다시 고객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즉,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 대신 빌려줄 자본으로 실물자산을 취득하고 이 자산에 이윤을 덧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무라바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현금 무라바하(cash murabaha)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 무라바하(credit murabaha)이다. 신용 무라바하에서는 구매자가 은행 혹은 자본가에게 구매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연지불하는 방식 혹은 할부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신용 무라바하 중에서도 장기 할부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바이 바타만 아질(Al-bai’-bithaman ajil, 이하 BBA)’이라고 부른다(Rosly 2005). 무라바하는 출자금융 방식의 무다라바(mudharabah)와 무샤라카(musyarakah)보다 자본가 입장에서 위험성이 낮고 운용 방법이 쉽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차이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무라바하의 다양한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무라바하라고 부르는 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용 무라바하 중에서 장기 할부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BBA라고 칭한다.

이슬람 주택금융에서 BBA와 함께 널리 이용되는 방식은 무샤라카 무타나퀴사(musharakah mutanaqisah, 이하 MM)이다. 체감형 무샤라카(diminishing musharaka) 혹은 체감형 파트너십(diminishing partnership)이라고도 불리는 MM은 인도네시아에서는 MMQ라고도 불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지만 MM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BBA보다 훨씬 더 샤리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MM은 무샤라카와 이자라(ijarah)가 혼합된 방식으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형식의 파트너십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가(투자자)와 사업가(채무자)가 각각의 지분을 투자하고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는 계약으로서 자본가는 투자만 하고 사업가(채무자)에게 모든 경영을 일임하는 무다라바와는 차이가 있다. 무샤라카 파트너십을 주택구입에 적용하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일부금액을 실구매자인 소비자가 지불하고 나머지를 은행이 부담함으로써 주택을 구매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즉 주택을 구매할 고객이 계약금(down payment)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행이 지불하는 일반적인 모기지론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주택을 고객과 은행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100개의 단위(unit)로 나누었을 때 만약 구매자가 아파트 가격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을 경우 아파트에 대한 구매자의 소유는 20단위에 해당되고 은행은 나머지 80단위를 소유하게 된다.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구매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80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스와 유사한 형태인 이자라 방식으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BBA가 전통 금융의 고정금리와 유사한 고정이율(fixed rate)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MM은 변동금리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이슬람 금융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출자금융(equity based finance)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BBA보다 더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 compliant) 것으로 인식된다. MM의 경우 전통적 금융의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와 흡사한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리스대금을 일정 기간(3개월 기준)이 지난 후 다시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변동금리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무라바하를 대신하여 따와룩(tawarruq)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와룩은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주택금융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이용되고 있다. 따와룩은 무라바하 계약에 제3자가 추가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품 무라바하(commodity murabaha)라고도 불리는 따와룩은 은행이 고객(구매자)에게 특정 물건을 원래의 가격에 더 이윤을 추가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를 이연지불방식으로 구매한 고객은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혹은 할부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다. 고객은 구매한 상품을 다시 제3자에게 원래 상품 가격(은행의 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따와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 방식이 이슬람 주택금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칙이지만 그 외에도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 문타이야 비타믹(ijarah muntahiyah bittamik, 이하 IMB) 등이 있다. 아랍어로 ‘만들게 하다’라는 뜻의 이스티스나의 경우 생산자 금융의 일종이다. 제조할 상품(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에 완성될 상품에 대해 계약을 맺는 것으로서 유형의 목적물(상품)에 대해 금융기관이 자금을 먼저 지불한 후 목적물이 완성되면 금융기관이 이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 형태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에 있어서 살람(Salam)보다 훨씬 유연한 특징이 있다. 살람의 경우 사전에 일시불로 지불되어야 하는 반면 이스티스나의 경우 사전에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생산되는 상품의 경과에 따라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할 수도 있다. 또한

완성된 상품이 양도된 후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이스티스나 방식에서는 매우 유연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스티스나를 주택금융에 적용해 보면 새로 건설될 주택에 대해 고객과 은행(혹은 건설사)이 제조하는 상품(주택)의 명세에 관해 합의한 다음 그것을 제조자에게 제조시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택을 구매할 고객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발사와 직접 이스티스나 계약을 맺는 것이 새로운 이슬람 주택금융으로 등장하고 있다.

IMB는 금융리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리스된 자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지칭한다. 말레이시아를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자가 판매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대금의 10%를 개발업자에게 지불하면 개발업자는 고객(구매자)에게 수익적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부여하게 된다. 구매자는 구매할 주택에 대한 수익적소유권을 은행에 판매하고, 은행은 주택 구매의 나머지 대금을 지불한다. 다시 말해 은행이 자산(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이를 구매자에게 리스하는 것인데, 구매자는 일정기간 할부와 비슷한 개념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은행은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소유권의 양도는 판매 혹은 선물(gift)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Ⅲ.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이슬람 주택 금융의 이상과 현실

이슬람 금융을 처음 접하게 되는 모든 문외한이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은 은행 혹은 자본가가 이자 수취 없이 어떻게 이익을 남기느냐?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슬람은 이익손실공유(profit and loss sharing)를 통해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자본가 혹은 은행이 단순히 자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금융은 채무를 기반 한 금융(debt based finance)보다는 출자에 기반 한 금융(equity based finance)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이자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할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거래는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원칙은 ‘대중의 이익’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마슬라하(maslaha)’를 추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행위에 종교적 요소를 가미하여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이 추구하는 이상과 이슬람 주택금융이라는 현실의 간극을 비판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익과 손실 공유라는 측면에서 이슬람 은행이 손실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이슬람 주택금융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슬람 원리는 무라바하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따와룩이다. 두 원리 모두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에 바탕하고 있지만 실제 이슬람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일반 대출과 매우 유사하다. 이론상 은행은 먼저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은행은 구매자를 은행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실제적 구매에 관여하지 않는다. 무라바하와 무라바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따와룩을 통한 거래에서 은행이 손실을 감당할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무라바하와 따와룩보다 더 샤리아에 부합하다고 간주되는 MM도 마찬가지다. 은행과 구매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구매자가 할부금(리스료+원금상환)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사실 은행도 손실에 대한 책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이슬람의 원

리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은행은 이익에만 관여하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슬람 은행은 주택을 담보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이 손실을 입을 경우는 일반 은행의 경우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한 구매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소유 주택의 관리와 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누구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 이는 금융리스 방식의 계약인 IMB에서도 유사하다(Kamali 2007).

두 번째로 경쟁력의 문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모두 전통적 방식과 이슬람 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슬람 금융에 비해 전통적 방식이 훨씬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일단 규모의 경제에서 이슬람 은행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회피하기 위해 전통적 금융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실물자산에 바탕을 두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전자금융 시스템의 발달과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통적 금융에 비해 이슬람 금융이 높은 이윤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통적 금융에 비해 이슬람 주택금융의 이자율(이윤율)이 약 3%에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슬람 금융에서는 은행의 제량에 따라 조기 상환을 할 경우 미수수익(uneamed profit)을 감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리베이트 혹은 아랍어로 이브라(ibra)라고 불리는 이러한 혜택은 판매를 기반으로 은행이 얻게 되는 이윤이 미리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수취하는 이윤율이 이자율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BBA와 따와룩의 경우 고정금리(고정이윤율)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 번째로 샤리아 적합성여부이다. 무다라바와 BBA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이연지불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은행이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없다. 은행은 고객을 은행의 대리자로 지정하고 고객이 구매한 주택을 은행이 구매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바이 알 이나(Bai al Inah, 이하 바이이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주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다시 구매하겠다는 약속(waad)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가? 라는 문제도 야기된다. 바이이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도입한 따와룩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자와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따와룩은 근본적으로 두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계약이 각각 분리된 독립적인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따와룩의 경우 두 개의 계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즉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기획따와룩(organized tawarruq)이다. 두 계약이 분리되어 있는 전통적(classical) 따와룩은 샤리아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기획따와룩은 엄격한 의미에서 허용된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더 샤리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MM의 경우 은행과 구매자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상환불능상태가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은행은 자유롭다. 담보를 책정하고 있는 은행은 실질적인 이익손실공유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그림에서 이슬람 주택금융이 공공의 이익(maslaha)과 사회정의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이자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이슬람적인 요소가 강하고 무엇보다 이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존 전통적 금융에 비해 어떤 공익을 제공하고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이동은 문서상에 불과하고 은행이나 자본가가 손실에 대해 전통적 금융보다 더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또한 코란이 이자를 금지한 근본적인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금융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 따라 이익률(금리)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IV. 이슬람 주택금융의 진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학계에 있는 이슬람 금융 전문가들 모두 대체로 이슬람 금융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쉽게 인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지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대체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출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바이이나를 도입함으로써 빠르게 이슬람 금융이 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샤리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바이이나를 대신하여 따와룩을 금융 시장 전반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주택금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BBA와 함께 MM이 가장 일반적인 주택금융이었지만 최근 따와룩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따와룩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이나에 비하면 훨씬 덜 논쟁적인 것은 사실이다.

말레이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슬람 금융 발달이 늦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택금융이 절대적으로 무라바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 MM(Q) 방식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국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슬람 경제가 성장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에 대해 국가의 주도적인 개입은 없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처럼 국가 주도로 이슬람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초점이 이슬람 금융보다는 할랄 서플라이 체인에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주택금융의 변화는, 국가 혹은 중앙은행과는 무관하게 일부 개발업자(developer)와 이슬람 주택금융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방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무다라바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소비자들과는 이스티스나 방식으로 주택을 사전 계약하는 방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V. 나가는 말

2018년 글로벌 이슬람 금융 리포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 인덱스가 각각 1위와 6위에 위치하는 세계 이슬람 금융을 주도하는 국가에 속한다(Global Islamic Finance Report: 2018). 말레이시아의 경우 1983년 이슬람 은행을 도입하고 여러 차례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수정하면

서 이슬람 금융이 급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2년 이슬람 은행을 도입하고 말레이시아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금융부분에서 이슬람 금융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Abdullah 2017). 이러한 흐름은 주택금융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슬람 금융에서 주택금융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슬람 은행은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슬람 은행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 금융은 주로 국가 혹은 제도를 통해 탐다운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일반 서민이 장기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주택금융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이에서 이슬람 주택금융은 점차적으로 모기지론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금융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두 국가에서 행해지는 이슬람 주택금융은 여러 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비판을 수용 또는 인식하면서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품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목격된다. 국가 주도로 이슬람 금융을 육성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러한 변화도 중앙은행과 관련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 개발업자(Sharia developer)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형태로 보다 샤리아적인 금융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따와룩이 인도네시아에 도입되지 않는 데에는 따와룩 자체의 비판점도 있지만 말레이시아가 실시한 것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려는 감정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bdullah, Atikullah. 2017. "A Comparison Between Malaysia and Indonesia in Islamic Banking Industry."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Vol 4(3): 76-286.
- ACIS, Nuarrual Hilal Md Dahlan, and Noor, Fauziah Mohd and Shuib, Mohd Sollehudin. 2017. "Is Malaysian Islamic Home Financing Bay' Bithaman Al-Ajil(BBA) Compatible with Islamic Law?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Issue of 'Beneficial Ownership.'"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8(2)
- Global Islamic Finance Report: 2018.
- Kamali, Mohammad Hashim. 2007. "A Shari'ah Analysis of Issues in Islamic Leasing." *J.KAU: Islamic Econ*, Vol 20(1): 3-22.
- Ismael, Rifki. 2011. "Islamic Banking in Indonesia: Lessons Learned." United Nations, UNCTAD.
- Rosly, Saiful Azhar. 1999. "Al-Bay' Bithaman Ajil Financing: Impacts on Islamic Banking Performance."
- Rosly, Saiful Azhar. 2007. *Critical Issues on Islamic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Islamic Investments, Takaful and Financial Planning*. Kuala Lumpur: Dinamas Publishing.
- Wei, Kevin Loke Ke and Thaker, Hassanudin Mohd Thas. 2017. "A Qualitative Inquiry into Islamic Home Financing: Evidence From Malaysia." *Qualitative Reserach in Financial Markets* Vol 9(2): 147-167.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의 정치적 맥락: 국가 · 이슬람학자 · 자본의 연합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문제제기

제2기 조코위 정부의 임기는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다. 2기 조코위 정부정책 중에서 이전 1기와 가장 차별화되는 정책 중의 하나가 전면적인 “샤리아경제(Sharia Economy)” 강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집권 1기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샤리아은행 로드맵 2015-2019(Roadmap of Perbankan Syariah 2015-2019)’로 이슬람경제를 금융·은행 분야만으로 국한하여 정책화하였다고 한다면, 향후 2기는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 마스터플랜 2019-2024(Masterplan Ekonomi Syariah Indonesia 2019-2024)’로 전면적으로 재편 확장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기 경우는 이슬람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OJK)이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한다면, 향후 전개될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는 현재 글로벌 이슬람경제(Global Islamic Economy, 이하 GIE)의 7가지 지표 논의되는 할랄음식, 이슬람금융, 할랄여행, 패션, 할랄미디어와 레크레이션, 할랄의약품, 할랄화장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체 산업영역에서 샤리아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많은 정부부처와 연관된 것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전체 발전전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개발부(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이하 PPN/Bappenas)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조코위 2기의 샤리아경제는 그 범주와 정부기관의 획기적인 큰 변화를 갖게 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샤리아경제를 진두지휘하는 부서는 PPN/Bappenas)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슬람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속으로 샤리아금융위원회(Komite Nasional Keuangan Syariah, 이하 KNKS)를 출범시켰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역사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종교적 논의 또는 종교적 결정(fiqh muamalah)’을 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 1980년대부터이고, 이러한 이슬람 경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가장 가시화된 성과로 나타난 것이 1992년 이슬람은행(Bank Muamalat Indonesia)의 창립이고, 이것은 ‘경제의 이슬람화’에 대한 하나의 성과이고,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Choiruzzad and Nugroho 2013).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지식인연합(Ikatan Cendekiawan Muslim Se-Indonesia)이하 ICMI’과 ‘인도네시아 종교지도자위원회(Majelis Ulama Indonesia, 이하 MUI)’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러나 MUI가 이슬람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실행하기까지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이슬람경제운동이 시발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 이슬람경제운동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현재에는 2001년에 만들어진 ‘Masyarakat Ekonomi Syariah(MES)’가 시민사회영역에서 활발히 이슬람경제 어웨어니스(awareness)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4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경

제적 성과를 획득했다고 보긴 어렵다. 예를 들어, 2017년 OJK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금융산업 중에서 이슬람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5.78%이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인데, 40년 동안에 이 정도의 성장 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동안 이슬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인구학적 이유만으로도 ‘이슬람경제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위로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코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경제를 특별히 ‘샤리아경제’라고 명명하고, 샤리아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왜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가? 인도네시아 샤리아경제 활성화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가?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정책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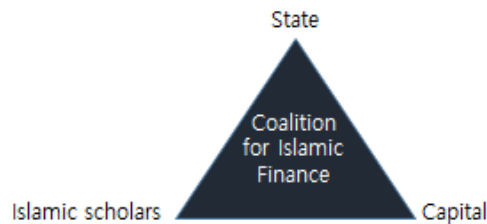
이슬람은행은 1975년 두바이이슬람은행(Dubai Islamic Bank)으로부터 세계 최초 시작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슬람경제에 대한 학적 논의를 발전시킨 마우두디(Adul A'la Maudūdi)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20년대 무슬림공동체(Muslim Ummah) 재건운동을 시작으로 이슬람사상을 발전시켰다. 1929년 『Law of War and Peace in Islam』 첫 저서를 쓴 이래, 1979년까지 140여권 이상의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경제철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 ‘삶으로서의 이슬람(Islamic way of life)’의 한 부분으로서 이슬람경제의 제도와 원리를 체계화하였다. 무엇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칼 맑스(Karl Mark)가 전제로 삼고 있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개념에 대안으로 호모 이슬람미쿠스(homo Islamicus)를 제창했다. 즉, 경제에 관한 인간적, 정의로운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복지와 필요의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신성에 기초한 인간의 경제원리 즉, 이슬람 경제원리를 체계화하였다. 관련한 글을 1930년대부터 쓰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집대성하여 영어본으로 발표된 책이 1969년 『First Principles of Islamic Economics』이다(Ahmad 2011).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슬람경제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층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경제는 그 출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원리로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쟁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자(riba), 불확실성(Gharar) 등 이슬람금융원리와 무라바하, 무다라바, 수쿱 등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다. 그리고 이슬람경제원리가 한 국가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논한 것(Chapra 1985)과 이슬람금융의 시작과 확산을 1970년대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정치경제맥락에서 분석하는 것(Warde 2000) 등이다.

‘원리’로서 이슬람경제와 ‘실제’로서 이슬람경제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비단 이슬람경제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에 ‘경제’에 대한 국제적 또는 국내적 차원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슬람경제 또는 이슬람은행이 작동되는 맥락은 지역별로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동지역’과 ‘동남아시아’가 다르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르다. ‘이슬람 경제현상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슬람경제에 대한 정치적 맥락 연구에 있어서 기존 경제패러다임과의 차별된

지점은 ‘종교학자의 역할’이다. 기존 정치경제분석틀에서는 ‘국가-자본-노동’이라는 삼각구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인 분석틀이었다고 한다면, 이슬람경제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에는 ‘국가-자본-종교’ 또는 ‘국가-자본-이슬람종교학자’의 삼각구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대비된다. 이슬람경제가 개별 국가에서 산업 또는 경제구조로 안착되고 융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제 층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경제행위에 대한 이슬람 원리의 적실성을 판단하는 이슬람학자의 역할,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이슬람 경제행위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자본의 역할 그리고 이슬람 금융 및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슬람학자의 공적활동마련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슬람금융(경제)은 이슬람종교학자(Ulama), 정부와 자본의 연합관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가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Kahf 2004). 어떤 종교학자들이 그 사회 안에서 지배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러한 종교학자들과 정부정책결정자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자본의 입장은 이러한 이슬람금융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금융을 위한 이슬람학자, 정부 그리고 자본의 연합



by Monzer Kahf(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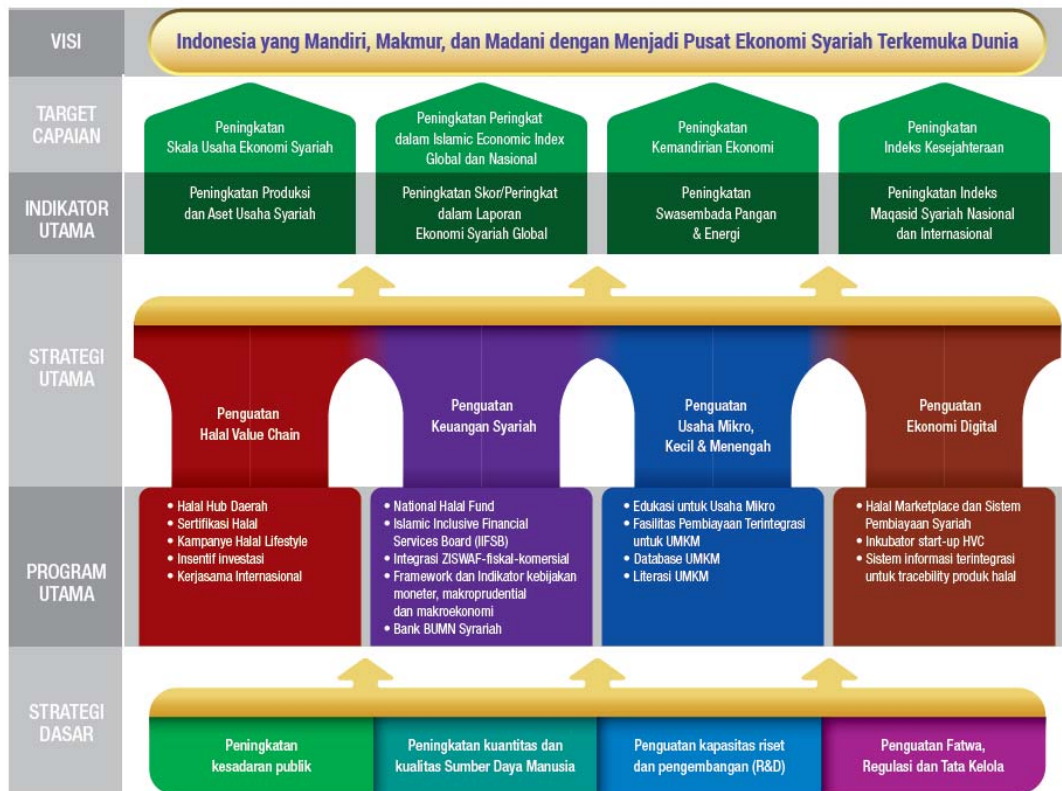
3. 조코위 정부의 샤리아경제의 구상과 전략

독립이전부터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화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조코위 정부이전까지 이슬람경제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의 이슬람화는 이슬람부흥이라는 종교적 흐름의 일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리라 본다. 둘째, 이슬람식 경제개념은 금융분야에서 처음 정착된 후 소비분야로 확산되었다. 셋째, 말레이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경제발전은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민간부문의 이슬람세력이 주도했다. 하지만 할랄제품보장법 입법화를 사회에 강제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전제성 · 김형준 2014).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보았을 때, 조코위 정부는 매우 뚜렷한 변화를 선택했다. 할랄제품보장법 입법화를 넘어서, 샤리아경제를 전면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성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융을 넘어 소비뿐만 아니라 GIE 7가지 영역으로 이슬람경제의 영역과 범주를 고도화 체계화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조코위 2기 정부 샤리아경제발전전략의 큰 틀이다. 첫째, 인도네시아가 ‘자립적(mandiri)이며, 풍요로운(makmur) 그리고 시민적인(madaini)’ 샤리아경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에서 핵

심적이며, 주도적인 위상을 갖고자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샤리아경제의 목표는 1) 샤리아경제 기업규모의 증진 2) 글로벌과 국가적 차원의 이슬람경제 지표 내에 등급 상승 3) 자립적인 경제 증진 4) 복지지표(Maqasid Syariah) 증진이다. 셋째, 전략과 프로그램에는 1) 할랄 밸류체인(halal value chain) 확장: 할랄허브단지조성, 할랄인증제, 할랄 라이프스타일 캠페인, 투자인센티브, 국제협력 2) 샤리아금융의 확장: 할랄펀드조성, IIFSB(Islamic Inclusive Financial Services Board), ZISWAF(Zakat, Infaq, Shadaqah, Wakaf)-재정·금융의 통합관리, 거시경제·재정정책의 틀과 지표개발 등 3) 중소기업 확장 4) 디지털경제 확장: 할랄마켓과 샤리아 자금조달시스템, 할랄밸류체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할랄상품 정보시스템구축 등이다. 넷째, 전략적 기초로는 공적의식의 증진, 인적 자원 증진, 연구개발증진 그리고 파트와(Fatwa)·법제도 기반마련이다.

〈그림〉 조코위 2기 정부의 샤리아경제 발전전략



출처: Masterplan Ekonomi Syariah Indonesia 2019-2024, p.xiv

조코위 정부의 샤리아경제에 대한 전략은 글로벌 이슬람경제의 7가지 지표와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새롭게 분야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샤리아금융과 할랄음식과 음료수, 할랄관광, 무슬림패션, 할랄 미디어와 레크레이션, 할랄의약품과 화장품, 에너지분야이다. 기존 글로벌 이슬람경제 지표에서 할랄음식에 ‘음료수’ 카테고리를 더 추가했고, 에너지분야는 새로 추가한 분야이다. GIE 2018/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슬람경제 시장규모는 2.1조 달러규모이고, 2023년까지 3조 달러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전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본다. GIE 조사대상 국가는 15개 국가로 1위는 말레이시아로 127점, 2위는 UAE 89점이고, 인도네시아는 45점으로 10위이다. 할랄음식분야의

1위는 UAE, 이슬람금융분야의 1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10위이다. 할랄여행의 1위는 UAE이고, 인도네시아는 4위이다. 할랄패션에 1위는 UAE이고 2위가 인도네시아이다. 할랄미디어와 레크레이션분야에 1위가 UAE이고, 2위가 싱가포르이다. 할랄의약품과 화장품에 1위는 UAE이다.

〈그림〉 GIE 2017년 순위

TOP 15 COUNTRIES	GIE Indicator Score	Halal Food	Islamic Finance	Halal Travel	Modest Fashion	Halal Media and Recreation	Halal Pharmaceuticals and Cosmetics
Malaysia	127	81	173	92	33	51	96
UAE	89	91	83	97	106	109	104
Bahrain	65	45	86	20	19	44	45
Saudi Arabia	54	48	64	34	16	33	47
Oman	51	62	52	28	25	28	43
Jordan	49	60	49	35	23	25	58
Qatar	49	49	55	27	12	63	35
Pakistan	49	58	53	15	22	9	58
Kuwait	46	42	57	12	12	30	34
Indonesia	45	48	46	65	34	16	44
Brunei	45	58	43	26	12	37	57
Sudan	37	55	34	29	8	11	21
Iran	34	36	37	19	11	22	37
Bangladesh	32	35	33	19	28	7	34
Turkey	31	44	21	71	32	25	41

출처: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8/19, p.10.

2017년에 있어 인도네시아는 전체 15개 GIE 국가에서 10위를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 강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 할랄패션과 할랄관광이고, 약한 분야가 이슬람금융과 할랄미디어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이슬람금융에 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중심으로 노력을 해왔고, 조코위 2기 정부에서 새로 확장된 전략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 KNKS 구조



출처: <https://knks.go.id/beranda>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샤리아금융위원회 (Komite Nasional Keuangan Syariah, 이하 KNKS)’를 만들었다. 2016년 8월에 출범한 KNKS는 인도네시아 샤리아금융을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증진시키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KNKS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KNKS의 각각 대표와 부대표이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조정장관, 재무부장관, 중앙은행총재, OJK 위원장, 국가개발부장관, 종교부장관, 국영기업부 장관, 예금보험공사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부 장관, MUI 대표로 구성되어 총 10개 기관 대표로 구성되었다. 사실 이 구조의 방대함에 준하는 실효성이 있는지, 각 부처별 견해의 차이 속에 갈등과 협력의 양상은 어떤지가 KNKS 성공의 비결이 될 것이다.

4. MUI-DSN MUI 구조와 역할

이슬람경제는 경제행위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법, 상품, 제도 등이 이슬람경전에 기초해 보았을 때 허용된 것인지 금지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종교적 결정(fatwa)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DSN(Dewan Syariah Nasional)-MUI이다. MUI 내에 이슬람 경제 및 금융에 관한 종교적 결정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1999년 법령에 기초하여 DSN(국가샤리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우선 MUI는 1975년 수하르토가 종교적 권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만들었다. 그 이전에는 1965년 아체올라마위원회(Aceh Ulama Council)가 있었는데, 전국적 범위의 국가적 차원의 제도는 MUI가 처음이다. MUI의 기능은 신질서(New Order) 시기와 민주화 이후로 변화하였다. 신정부시기 동안 MUI의 역할은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국민에게, 즉 다수의 무슬림들에게 설명해주고, 조언해주고, 종교생활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고, 정부와 올라마 사이를 중재하고, 올라마 의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는 등 이러한 기능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MUI가 전적인 국가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MUI의 성격규정을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로 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MUI는 종교적 역할을 더 강화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지위로 종교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토론, 종교적 결정, 종교적 조언 등을 활발하게 한다(Saat 2018). MUI 안에 ‘파트와 위원회(Komisi Fatwa)’가 있는데, 한 명의 위원장, 5명의 부위원장, 5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종교적 결정은 위원 모두의 합의(ijtihad)로 결정된다. 1975년에서 2014년까지 MUI의 파트와 숫자를 보면, 민주화 이후 파트와의 수가 훨씬 많아서 신질서보다 민주화 이후 MUI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트와 외에 종교적 조언활동을 많이 하는데, 충고(tausiyah), 훈계(tazkirah), 호소(himbauan), 사유의 기여(himbauan pemikiran) 등이다. 그리고 자선, 선교, 교육, 연구 등 12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Saat 2018).

또한 MUI 안에는 5개의 제도-LPPOM-MUI, DSN-MUI, Basyarnas, Badan Penerbit MUI, YDDP-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5개의 제도의 역할이 MUI를 더욱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에서 파트와를 담당하는 DSN-MUI와 할랄인증제를 관할하는 LPPOM-MUI는 MUI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몇 가지 파트와는 국가의 정책과 법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DSN-MUI는 이슬람은행과 금융상품과 관련된 직접적 파트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MUI 사이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는 곳이다.

MUI의 조직구조는 자체 규정에 따라 리더들이 선임된다. MUI 리더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부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다. MUI는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고, 이들은 최고집행위원회(Dewan Pimpinan) 구성원이고, 그 밖의 최고집행위원 구성원은 12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MUI 사무총장은 이 최고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되어, 최고집행위원회 구성원과 겹치지 않게 위원회별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MUI는 최고집행위원회 위에 ‘자문위원회(Dewan Penasihat)’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Ulama, 지식인, 학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되어, 의장과 8명의 부의장, 4명의 사무총장과 그 밖의 56명의 멤버로 구성되었다. 수하르토 시절에는 MUI 자문위원회가 수하르토의 확실한 후원자(patron) 역할을 했지만, 민주화 이후 이 역할은 변화하였다(Saat 20018).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MUI와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MUI-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용운. 2011. “인도네시아 이슬람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357-395.
- 김형준. 2011.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경제,” 『동남아시아 이슬람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제성·김형준. 2014. “4.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동남아의 이슬람화 1』. 서울: 눌민.
- Ahmad, Khurshid. ed., 2011. “Forward,” *First Principles of Islamic Economics*(Ahmad Imam Shafaq Hashemi by trans). Leicester: The Islamic Foundation.
- Chapra, M. Umer. 1985. *Towards a Just Monetary System*. Leicester: The Islamic Foundation.
- Choiruzzad, Shofwan Al Banna and Bhakti Eko Nugroho. 2013. “Indonesia’s Islamic economy project and the Islamic scholars,” *Procedia Environmental Sciences* 17, 957-966.
- Hefner, Robert W. 1993. “Islamic, State and Civil Society: ICMI and the Struggle for the Indonesian Middle Class,” *Indonesia* No.56, 1-35.
- Kahf, Monzer. 2004. “Islamic Banks: The Rise of a New Power Alliance of Wealth and Shari’a Scholarship,” *The Politics of Islamic Finance*. Henry, Clement M., and Rodney Wilson. ed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7-36.
- Latif, Yudi. 2008. *Indonesian Muslim Intelligentsia and Power*. Singapore: ISEAS.
- Saat, Norshahril. 2018. *The State, Ulama and Islam in Malaysia and Indonesia*. Singapore: ISEAS.
- Warde, Ibrahim. 2000. *Islamic Finance in the Global Econom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asyarakat Ekonomi Syariah <http://www.ekonomisyariah.org/>
- KNKS <https://knks.go.id/beranda>
- PPN/Bappenas <https://www.bappenas.go.id/id/>
- MUI <https://mui.or.id/>
- DSN-MUI <https://dsnemui.or.id/>

분과회의 8

동남아의 한인사회

재외동포의 사회운동과 정치적 역동: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엄은희(서울대) · 박준영(서울대)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6개월 이상 지속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항쟁¹⁾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 항쟁은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고 국외의 여러 지역의 재외동포들도 자발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모임을 조직하여 모국(母國)에서 시작된 촛불항쟁에 동참하였다. 재외 한인 촛불 집회는 기존 한인 시민단체가 조직하거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 단체들 중 일부는 촛불항쟁 이후 해산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여전히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촛불항쟁을 계기로 조직된 재외 한인 단체 중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는 단체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416자카르타촛불행동(이하 ‘본 단체’)'의 활동 전개과정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최근 일어나는 재외 한인 시민운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뒤 지속가능한 과제 설정에 대한 제언으로 이어가려 한다.

기존 재외동포사 연구에서 동남아 한인사회는 중국, 일본, 북미 등 주요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현재까지 재외한인사에서 다루어진 동남아 한인사회에 관한 연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군인, 군속, 위안부 등)의 역사와 90년대 이후 기업진출사 등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남아 한인사회 분화 과정에서 조직된 본 단체의 형성 및 진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한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본 단체의 활동 배경인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주로 노동집약 산업, 특히 봉제, 신발 제조 관련 자영업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한인 구성원끼리 사업 종목을 연결고리로 밀도 높게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배경은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에서 분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서로 꺼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을 두고 어떤 이들은 ‘분란이 없는 화목한 사회’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답답함을 느끼는 요인이라 평하기도 한다. 2016년 말 이전까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한인 단체들은 공식적인 한인회와 경제단체가 주가 되며, 교육, 문화 등의 단체도 있지만 정치/사회 참여 자발적 결성 단체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사회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본 단체의 결성 및 활동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단체의 것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분화 및 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

1) 2016-17년 촛불에 대한 평가에 의해 이 행동이 촛불 ‘혁명’, ‘항쟁’, ‘시위’ 또는 ‘집회’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촛불혁명은 촛불이 이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표현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혁명으로 인식함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에 비해 촛불 ‘시위’나 ‘집회’는 비교적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촛불의 사건을 건조하게 표현한 용어이다. 때로 촛불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촛불항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촛불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촛불 집회를 위해 모인 시민들의 저항 그 자체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본 단체의 활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석틀을 활용한다. 첫 번째 분석틀인 원거리 민족주의는 본 단체 구성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정상성 회복의 주체로 인식하며 개인의 계몽, 계몽된 개인들의 집단화, 정치화 과정을 일컫는다. 다음 분석틀인 세계시민되기는 본 단체 구성원들이 한인으로 모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주체를 넘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초국적 해결을 고민하는 세계시민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두 가지 분석틀은 서로 연결되어있으며 본문에서는 본 단체의 구체적 활동 과정을 통해 원거리 민족주의 정체성에서 세계시민으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단체는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재외 한인 퇴진 집회였던 <재인도네시아 한인·유학생 시국선언 모임>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2018년 11월 모임 결성 1주년을 기념하여 정식 단체로 출범하였고 현재 2기 운영진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중이다. 본 단체가 처음 결성됐던 2017년 11월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실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시기였고 국내의 많은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한인들도 한국 뉴스 또는 시사 프로그램 등에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에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글과 댓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2016년 11월 11일 촛불 집회를 통해 촛불항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00만명이라는 집회 참여 인원은 촛불항쟁이 대중성과 보편성을 갖도록 했으며 이에 맞춰 이후 이어진 촛불 집회 형식은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집회 연인원 100만명 돌파는 재외 한인들도 부담 없이 탄핵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본 단체도 이 시기에 처음 결성되었다.

이 모임을 기획하던 인원들은 원래 한차례 모임을 가진 후 해산하려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집회 참여 인원과 모임 이들의 모임 유지 및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로 이후 몇 차례 탄핵 집회를 이어간다. 탄핵 이후에도 본 단체는 활동 주제를 확장해가며 활동을 이어가는데, 확장되는 활동 주제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한반도 평화통일, 5·18민주화운동 등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지적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채택되었다. 나아가 본 단체는 여러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 해외 한인 시민단체 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만남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도 했지만, 구성원 다수는 이러한 만남을 통한 직접적인 정치적 역할에 동의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본 단체가 스스로를 정상성 회복의 주체로 인식하며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할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을 드러내는 대목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본 단체가 펼친 여러 활동 중 2018년 8월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공동응원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활동을 주목하는 이유는 활동 기간, 예산, 참여 인원 등의 측면에서 본 단체가 펼친 활동 중 가장 규모가 큰 활동이었으며 이 활동이 본 단체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같은 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스포츠, 문화 교류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진전에 동참하기 위한 의미에서 시작됐다. 2018년 8월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직후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였다. 본 단체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과 북이 개/폐막식에서 공동입장하고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이뤄 출전한다는 결정을 접한 직후부터 남북 재외 동포 공동응원단 활동을 계획했다.

먼저 국내에서 관련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단체 및 후원 기관 등에 문의했고 공동응원단 구성에 관건이었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북측 주민들의 동참을 제안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대사관에 유선으로 접촉한다. 본 단체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원정 응원단, 본 단체가 주축이 된 인도네시아 남측 한인 응원단, 북측 재외 동포 응원단으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의 사전 구성을 계획했지만, 북측 대사관과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며 대회 개막 이전 공동응원단 구성은 무산됐다. 그러나 자카르타에서 열린 여자농구 단일팀의 총 여섯 경기에서 북측 응원단과 함께 공동응원을 펼친다. 당시 여자농구 단일팀 경기는 개막식 참석 및 선수단 격려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방문중이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응원에 참여할 정도로 큰 상징적 의미가 있었으며 외신, 내신의 취재가 집중됐다. 본 단체는 여자농구 단일팀 경기 공동 응원 이외에도 북측 선수단 전통 음식 전달, 단일팀 및 북측 선수단 공항 환영, 북측 올림픽 회관 방문 등 다양한 관련 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본 단체는 대회 기간 중 북측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대회 이후에는 북측 대사관에 초청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 내용은 국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이 활동에 참여한 본 단체의 구성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 관중, 외신 등 외국인에게 여러 차례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아시안게임은 제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열린 대회였고, 이를 통해 본 단체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 민족-국가간 문제로만 인식하여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 보편적 당위성을 획득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활동에 참여한 본 단체 구성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평화라는 보편적 당위성으로 확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하였다. 이는 본 단체가 활동 정체성을 정상성 회복이라는 원거리 민족주의 실현을 넘어 민족-국가의 문제를 초국적 연대를 통한 전지구적 해결을 도모하는 세계시민되기 실천의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본 단체는 이후에도 초국적 연대를 통한 세계시민성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본 단체의 초국적 연대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인도네시아 현지 시민사회와 연대 활동과 다른 해외 지역 한인 단체들과 연대 활동이다. 먼저 본 단체가 연대활동을 한 대표적 현지 시민 단체는 Urban Poor Consortium(도시 빈민 연대, UPC)인데, 이 단체의 대표인 Wardah Hafidz씨는 5·18재단이 수여하는 광주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본 단체는 UPC와 5·18민주화운동 기념 국제 사진전을 공동개최한다. UPC는 이 사진전에서 현지어 통역, 현지 홍보, 장소 섭외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다음으로 본 단체는 S.P.Ring세계시민연대와 같은 해외 한인 시민 단체 온라인 연대에 참여한다. 이 연대에 소속된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 발표, 모금 활동, 전 세계 추모 광고 등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본 단체는 이러한 초국적 연대 활동을 통해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세계시민의 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행동했다.

본 단체 결성과 지속적 활동에 가장 큰 동인이었던 정상성 회복의 주체라는 자기인식은 국내 사회·정치적으로 화제가 될 때마다 내부 결속을 추동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상성 회복의 주체라는 자기인식에서 비롯한 원거리 민족주의 실현은 ‘정상’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어느 지점까지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구성원간 인식 차이로 인해 본 단체 활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진보적 의제를 주제로 한 활동이 제안되었을 때, 각자의 정상성 회복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이탈하기도 했다. 원거리 민족주의 발현 방식으로서 회복하고자 하는 정상성이 국정농단을 벌인 박근혜, 최순실 중심의 비정상집단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 단체가 함께 회복하고자 하는 정상성의

범위를 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단체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원거리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넘어설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

본 단체가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세계시민되기 실천이 지속가능한 재외 한인 시민단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구적 문제의 초국적 해결 방안을 찾는 태도로서의 세계시민성은 복잡한 국제적 문제에 대한 국가 주도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현대 사회에서 본 단체와 같은 국제 시민 사회에게 요구되는 태도이다. 이주자 시민 단체라는 특수한 배경은 세계시민성 실현의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단체의 주요 활동 주제는 민족-국가의 이슈이고 이와 관련된 활동에 초국적 연대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세계시민되기 실현은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단체는 지속가능한 과제 설정을 위해 다른 민족-국가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는 등의 쌍방향, 혹은 순환적 세계시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재외 한인 사회 시민단체 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드러내는 일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하다. 먼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 항쟁 등 최근 한국 사회 주요한 격동을 거치며 재외 한인사회 곳곳에 본 단체와 같은 자발적 한인 시민단체들이 결성됐다. 이는 한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로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본 단체와 큰 틀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본 단체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언이 다른 해외 자발적 결성 및 활동 단체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탈안보적 이슈 해결을 위한 외교 역량 다각화의 측면에서 해외 한인 단체들의 지속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 정부 당국은 750만명이 넘는 재외 한인은 외교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단체를 포함함 특정한 목적으로 결성하여 정치 주체화를 경험하는 전 세계 한인 단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외교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 한인동포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김동엽 (부산외대)

I. 머리말

우리나라 외교부가 2017년 기준으로 집계한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규모는 약 750만 명이다. 여기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혹은 “국적에 관계 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중 약 64%는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약 36%는 재외국민으로 살고 있다.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약 34.3%에 이른다. 이어서 미국에 약 33.5%, 일본에 약 11.0%, 캐나다에 약 3.2%,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호주,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난다.

재외동포 분포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중국, 일본, 구소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이고,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미·오세아니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는 일제 식민통치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이주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이주의 일반적인 패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는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맥락이나 선진국으로의 노동이주와는 다른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 미국, 일본의 사례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재외동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주와 적응, 그리고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수를 이룬다. 근래에는 재입국 재외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생활환경과 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며, 주로 이주의 맥락과 거주국의 정책, 그리고 거주국 주류사회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재외동포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이주민 1.5세대나 2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¹⁾

이와 같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맥락 속에서 동남아시아 한인동포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재외동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중국, 미국, 일본, 구소련 등과 같은 국가에서 세대를 거쳐 거주하면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혹은 국적과 관련하여 갈등하는 재외동포의

* 2019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2019.08.31.). 아직 미완성의 논문임을 밝힙니다.

1) 1.5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7세부터 18세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세대를 의미하며, 2세대는 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이주하였거나 현지에서 출생한 경우를 말한다(윤인진·임창규 2008).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한인동포들은 다른 맥락에서 또한 다른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한인동포들의 현지에서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한인동포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유형의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구술생애사 분석은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구술하고 그 맥락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17; 남혜경, 김영순 2018, 672-3). 구술생애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함의로는 우선,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개인의 사회적 위치성과 관련해서 주체로서의 개인이 삶을 주도적으로 조직해내는 행위성(agency)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이은정 2019, 6). ‘기억의 환기’(recall of memories)는 지나가버린 사건이나 삶의 양태 및 인식, 태도, 신념, 믿음, 가치지향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문화 양상들을 현재로 불러내어 살아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박경용 2014, 6).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나 사건들을 구술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다. 즉, 구술자는 이야기라는 틀 속에 자기경험들을 배열하여 의미있는 전체로 조직화하고, 이를 통하여 삶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이만영, 김수연 1995, 86). 따라서 구술생애사 분석방법은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연구의 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재외동포 초기 세대일수록 이주와 적응, 생활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이들 원로 세대에 대한 구술 자료를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한인동포 김찬용(가명)의 생애사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필리핀 한인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김찬용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와 여러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특별한 삶의 여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남다른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면서 또한 ‘필리핀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나 민족의 틀을 넘어서 ‘국제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기도 했다. 김찬용은 1948년 출생하여, 14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으며, 1967년에 유학으로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술인터뷰 자료는 필자가 2017년 8월과 2018년 7월 두 차례 인터뷰한 내용이다. 두 번째 인터뷰 당시 김찬용은 몇 달 전 말기암이 발견되어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2019년 4월에 필리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생애와 민족정체성이 필리핀 한인동포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로서의 그의 특별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필리핀이라는 공간이 그의 민족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필리핀 한인동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요소 중에서 김찬용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개인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소속집단 특히 가족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필리핀이라는 공간적 요소, 즉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이주민으로서 필리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다른 공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의 민족정체성 문제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비교함으로써 맥락의 차이와 함께 유사성과 특이성을 도출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본 머리말에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의 개념적 논의와 함께 구술생애사 분석

방법에 대한 소개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김찬용의 생애사를 소개하고, 그의 민족정체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또한 왜 그러한 정체성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이다.

II.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과 구술생애사 방법론

정체성(identity)이란 용어는 라틴어 ‘*identitas*’와 희랍어 ‘*tautotes*’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동일성’(sameness)과 ‘자기성’(selfhood)의 뜻을 동시에 포함한다. 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인지(being)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반면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 되어 가는가(becoming)에 대한 대답으로서 변화하는 정체성의 특징을 갖는다(박승규 2013, 455). 불변의 속성을 가진 정체성은 주로 집단에 의해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인식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정체성은 처한 환경에 따라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의 변화는 나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인간의 모든 시공간은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사실 모든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변화하는 정체성은 차이와 다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은 같음과 동일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박승규 2013, 463).

개인은 가족과 직업집단, 시민사회, 국가, 그리고 초국가적 공간에 동시에 귀속되고, 다양한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 자신을 어느 집단에 더 우선적으로 공속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김왕배 2003, 55). 개인의 정체성 형성 작업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가족과 국가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 공유하는 집단적 표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홍태영 2011, 334). 한편 민족은 “동일한 역사적 공간, 신화, 기억, 집단, 문화, 경제 및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 인류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Smith 1991, 14). 이러한 민족은 제도화된 정치 체제인 국가를 통해서 보다 공동체로서 완전해진다(조의행 2015, 114).

근대 민족국가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민족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우선, 민족정체성을 한 개인이 어느 특정 민족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주관적, 객관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자민족과의 동일화 과정과 타민족과의 상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족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한편 민족적 자기 동일시, 소속감, 자신의 민족집단에 대한 태도, 사회적 참여 및 문화적 관습 등을 민족정체성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이석인 2015, 193). 이처럼 민족정체성은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사회정체성이며, 조상대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은 내가 규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민족이 규정한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치환되는 것이다(박승규 2013, 462).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은 자신이 속한다고 가정하는 국민국가의 공간을 벗어나서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민족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환경과 그 속에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특징을 데이비드 허타트(2011, 146)는 ‘혼종적 정체성’으로 설명한다. 혼종적 정체성은 어느 곳에서는 고향처럼 편안하게 있

을 수 있는 기괴하면서도 낯선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 능력은 절대로 고향을 갖지 못하는 짐이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한편 홍태영(2011, 353)의 ‘탈주체화’ 개념도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일면을 보여준다. 탈주체화는 고정된 정체성 혹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정체성과 주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에 의해 주어진 정체성의 틀에서 벗어나 또 다른 위치와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주체를 창조해가는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며, 그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공적, 사적인 지역적 공간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특히 본국에서의 과거성에서부터 시작된 이들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박신규 2008, 51).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의 민족정체성은 그들의 시공간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들은 양쪽 사회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양쪽 사회 모두에서 내적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양쪽 사회 모두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양쪽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생성하고 조정해나가려 한다(남혜경, 김영순 2018, 668).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위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위치성은 곧 거주 국가의 정책적 특성과 또한 주류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다수 존재하는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식민지하에서 탄압을 피하여 자의적으로 혹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목적의 이주 정책에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조선족) 후손들의 민족정체성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평등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수옥 2013; 박경용 2014; 박창욱 1996; 박경용·임경희 2016; 이은정 2019; 이현정 2001). 이현정(2001)의 조선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지 조선족 10대 청소년들은 조선말보다 한어를 구사하는데 더 익숙하고, 음식, 옷, 사고 등에 있어 더 이상 한족과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족과 구별되는 조선족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들이 구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결코 ‘소수 민족’으로 규정됨으로써 갖게 된 사회·경제적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언어와 같은 ‘원초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주로 세대 간의 차이와 백인 주류층과의 관계 혹은 타 인종과의 관계성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김왕배 2003; 박준규 2002; 류지영 2005; 이석인 2015; 홍순형 1996). 1903년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면서 시작된 미국으로의 이주는 이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조국을 떠난 한인들의 목적지가 되었다. 이민자로 만들어진 국가 특성상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이민 2~3세대로 이어지면서 인종적 차이로 인한 차별의식과 소수민족으로서 낮은 자아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김왕배(2003)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1.5세대는 이민 후 언어의 장애를 다년간 경험함으로써 소수민족으로서 적응 과정의 어려움을 인지함으로써 ‘민족정체성’에 더욱 큰 혼란을 겪고, 또한 ‘주변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백인 주류층과의 삶의 구조적 균열, 타 인종들과의 반목과 갈등 속에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재일한인(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은 해방과 분단이라는 조국의 현실 속에서 분리되고, 민족과 국적에 따른 일본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2, 3세대로 이어지면서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남근우 2011; 박권일, 서경식. 2006; 서경식 1996; 임영언 2007). 재일동

포 지식인 서경식 교수는 일본사회에서의 편견이나 차별은 ‘조선민족’ 전체를 향한 뿌리 깊은 것으로 본다(서경식 1996, 65). 그에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깨어지지 않는 유리벽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끝없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신문받고, 의심받고, 배제당하는 삶으로 표현했다(박권일, 서경식. 2006. 53).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을 연구한 임영언(2007)은 그들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정체성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재일한인 개개인들은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한인 이주 국가들 이외에도 구소련은 식민지 상황에서 많은 한인들이 재정착한 지역이다. 1930년대 스탈린 정부 하에서 실시된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국과는 달리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영토적 기반을 상실했다. 한인(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모국어를 잃고 민족의식이 희미해져 갔다(유 게라심 1996). 구소련 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그 맥락에 있어서 중국과 흡사하며, 국가의 민족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편 독립 이후 1960년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노동이주로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가 있으며, 이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현지에 정착하면서 유럽지역에 한인 디아스포라의 원조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연로한 이주 1세대가 생존해 있고, 또한 자발적 이주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에 대한 생애사를 중심으로 ‘자기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효선·김혜진 2014; 남혜경·김영순 2018; 손대원·윤서욱 2017; 양영자 2013a, 2013b, 2016). 이들의 정체성은 미국 이민 1세대와 흡사하게 사회구조, 즉 인종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과 주류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남혜경·김영순(2018)에 따르면, 이들은 양쪽 사회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양쪽 사회 모두에서 내적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양쪽 사회 모두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양쪽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생성하고 조정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족정체성 관련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설문조사와 같은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디아스포라의 집단적인 민족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개인의 구술 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한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술 자료는 사적(史的) 자료로서의 가치를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구술 자료의 가치를 바로 그 주관성과 개인성에서 찾기도 한다. 즉 구술 자료는 단순히 사람들이 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길 원했던 것, 그들이 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말해주기 때문이다(Portelli 1991, 50; 윤택림 2009, 513). 또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총체적 삶의 이야기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그 너머의 넓은 사회·역사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민성은, 최성호, 김영천. 2017. 472).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이 대규모의 한인동포 1.5 혹은 2세대 이상의 후손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개별적 특성을 넘어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위한 정량적 연구가 유효하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이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또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처럼 개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한 접근이 유효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외국학자들의 논의가 국내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적용되고 있다(김영천·한광웅 2012; 양영자 2013a, 2013b; 이효선·김혜진 2014; 이희영 2005; 최인혁·이영학. 2015).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효선·김혜진(2014)이 소개한 슈제(F. Schütze)의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 방식의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야기식 인터뷰는 표준화된 인터뷰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과 사회의 실제성의 영역을 발견하기 위해 평범한 사회구성원의 능숙한 의사소통 방법인 ‘이야기’를 방법론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 생애사는 화자의 경험과 생애사건에 대한 의미구성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의미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화자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고 본다(이효선, 김혜진 2014, 259). 이러한 이야기식 인터뷰의 분석방법으로 솟제는 4단계 분석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단계는 화자가 구성한 생애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화자의 이야기를 시대별 또는 사건별로 구분하여 일련의 순서에 따라 구성한다. 2단계 구조적 기술단계는 삶의 과정과 경험 등을 구조적으로 기술한다. 또한 화자의 구조적 특성도 고려하면서 경험들의 연대순과 연속성들을 구조화한다. 3단계 분석적 추론단계에서는 구조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적인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생애사의 형태가 구성되고 외부로부터의 이론상의 지식이 해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일사례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사례에 대한 재구성이 완성된다. 4단계 비교분석 단계는 복수사례연구 설계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일반화되는 유형들을 구조화 할 수 있다(이효선·김혜진 2014, 260).

본 논문에서는 솟제가 제시한 분석방법의 4단계를 염두에 두고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여 구술자의 생애사를 구조적 관점에서 연대순으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구술자가 진술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견해를 그의 생애사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것이다. 특히 구술자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준 부모와의 관계, 이주지 필리핀의 이민정책, 그리고 현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4단계에서는 비교적 관점에서 다른 필리핀 한인동포 그리고 다른 지역 한인동포 사례에 견주어 일반성과 특이성을 도출할 것이다.

Ⅲ. 김찬용의 구술생애사에 담긴 디아스포라 정체성

1. 김찬용의 구술생애사

필자는 본 생애사 인터뷰 1년 전에 필리핀 한인사회를 연구하면서 구술자를 한 차례 인터뷰한 적이 있다. 필자가 문자로 생애사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응할 의향을 물었을 때, 그는 흔쾌히 허락했다. 아마도 필리핀과 한국에서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쌓인 신뢰 때문일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약속한 시간에 구술자의 집을 찾아가 넓은 응접실 탁자에서 함께 음식과 음료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구술 내용은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했다. 구술자는 목 부분에 생긴 암으로 인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도우미를 부를 때에는 요령(鑿鈴, 손에 들고 흔드는 작은 종)을 이용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생소했다. 구술자는 목소리를 잃을 것을 감수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소문난 한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나름의 치료를 하고 있었다.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터라 구술자도 자신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

다고 얘기했다. 필자는 구술자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되새기며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질문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부 필요한 질문들은 구술자의 회고가 모두 끝난 후 간단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자유롭게 얘기해 달라는 필자의 주문에 대해 구술자는 자신의 생애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4개의 챕터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챕터는 한국에서의 14살까지의 삶이고 (1948-1961), 둘째 챕터는 이태리와 방콕에서 공부하던 시절(1961-1967),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필리핀에 혼자 와서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 하던 시절(1967-1986),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1986-2019)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방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된 삶이라고 했다. 이러한 4개의 챕터가 오늘날 구술자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1) 생애사 제1챕터(1948-1961) - 해외이주 이전 한국에서의 유년기

구술자는 1967년 정부 관료로 있던 아버지와 근대교육을 받지 않은 어머니 슬하에서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소회했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했고, 가기 전에는 일본사람들 밑에서 일했고 어찌 보면 엘리트지. 어머니는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중매해서 아버지와 결혼했어. 그러니 두 사람이 잘 어울리는 부부는 아니었지.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서 엘리트 생활을 하였고 집안일이나 아이들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 어머니에게서는 생존경쟁을 배웠어. 어머니는 옛날분이고 지식이 없었으니까 별로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영어를 해서 우리한테도 대디(daddy)라고 부르라고 했어. 아버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혼만 났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모두 내가 잘못해서 야단맞은 것이라고 봐.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와 내 아들과의 관계나 내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이 없어. 나는 그것이 환경이 그래서라기보다는 내 퍼스널리티(personality)가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봐.)

구술자는 3살 때에 발발한 6·25전쟁이 발발했고, 1·4후퇴 때에 충청도 공주로 피난 가서 힘든 생활을 보냈다.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거지처럼 생활했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개구리처럼 부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 아버지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정부 장관의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를 따라 부산에 가서 잠시 살기도 했다. 엄마는 맨날 아버지한테 야단맞는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예쁘지도 않고, 재주도 없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 3살 차이가 나는 형에 대해서는 친구처럼 아기자기한 사이는 아니었고, 형을 부를 때에도 동생처럼 이름을 불렀다. 형은 언제나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구술자는 늘 야단맞는 사람이었다. 구술자는 자신이 그다지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2) 김찬용은 한국어도 잘 하지만 영어를 더 편하게 사용한다. 인터뷰 중에도 영어를 많이 사용했으며, 본문에 제시한 녹취록 내용은 의미의 왜곡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체를 수정한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말기까지 살았던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기억은 크게 별다른 게 없다. 그저 동네에서 재기차기 하던 것이나, 좁은 골목길에 축구를 하던 것을 기억해 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던 그는 방학 때이면 경기도 주네(의정부 지나서)에 있던 시골집에 가서 한 달씩 지내면서 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에 우유 배급을 받아서 먹던 생각과 중앙중학교를 다닐 때 4·19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하자 학교에서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가다가 종로 근처에서 데모하던 학생들을 봤던 것을 기억했다. 어렵פות이 방학 때마다 갔던 시골에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구술자가 외국에 가게 되어 연애편지를 썼는데, 답장은 받지 못했다. 해외로 떠나기 전날에 그곳에 찾아가서 그녀와 어색한 만남을 했던 것을 떠올렸다.

2) 생애사 제2챕터(1961-1967) - 이태리와 방콕에서의 청소년기

구술자는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로 아버지가 유엔(UN)기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꼽았다. 그는 가족이 모두 이태리로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흥분이 되는 것처럼 좋았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싫었는데, 도망가는 느낌이나 모험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모험처럼 생각하고 뭣도 모르고 쫓아갔던 이태리에서의 생활은 다 어려움이었고, 또한 그에게 인종적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말도 통하지 않고, 또한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졌지. 백인은 멋있고, 동양인은 존중 같은 생각이 들었어. 백인들은 옷을 입어도 멋지고 세련되어 보였어. 얼굴색이 하얗고 머리칼도 약간 곱슬머리이고, 매너나 걸음걸이조차도 동양인과 차이가 났지. 당시 주위에 동양인은 거의 없었어. 이태리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면 애들이 앞에 와서 놀렸어. 이태리에 애들이 짓궂고 장난을 한 것인데, 나는 창피하게 생각했어. 언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열등감을 느꼈지. 백인들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항상 낙제만 했으니까 선생님들과 친한 적이 없었어. 고등학교까지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는 하지도 않았지.

구술자는 이태리에서의 가족생활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와 엄마 사이의 불화가 잦았는데, 그것은 둘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엘리트이고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엄마가 아버지에게 열등감이 심했다. 엄마는 파티 같은데 가면 말도 못해서 주눅이 들어 있는데, 아빠는 영어, 일어 모두 잘 해서 잘 어울렸고, 그런 상황이 가정 불화로 이어졌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곤 했는데, 엄마가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주로 유적지를 다녔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엄마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해서 싸움이 되었다. 그래서 구술자는 아버지와 엄마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태리에서 약 2년 반 정도 생활을 하고 구술자의 아버지가 방콕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구술자는 방콕에 가게 된 것을 좋아했다. 이태리에서 백인들에게 위축되어 있다가 방콕에 가면 맞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좋았다. 구술자는 1964년에 방콕에 와서 약 3년 반을 그곳에서 지냈다. 방콕에서 국제학교(IS)를 다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인들이었고, 주로 홍콩에서 온 중국인이 많았다. 동양인이 많으니 미국인들한테 위축되지 않았다. 구술자는 영어로 일상 대화는 가능했지만 강의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고, 낙제를 해서 졸업도 못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방콕에 있는 영어로 수업하는 한 칼리지를 찾아가 학장과 얘기해서 자신을 입학시켰다. 거기서 1학년 1학기

를 다녔는데, 공부는 못했지만 축구를 잘해서 선수처럼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위에는 항상 여자가 따라 다녔다고 기억했다. 1학기 말에 영어 말고는 다 낙제했고, 그렇다고 영어도 최우수(top)는 아니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신은 늘 아버지의 근심거리였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버지였다. 학교에서 모두 낙제를 맞았으니 아버지가 고민 끝에 그에게 미국으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구술자는 미국에 가는 것은 싫고, 오히려 한국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술자와 같이 외국에 머물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던 참에 이후 필리핀 양아버지가 된 그분이 방콕에 와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자기를 필리핀에 보내라고 해서 필리핀에 가게 되었다. 필리핀 양아버지는 삼림에 관한 책을 출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구술자의 아버지가 세계식량기구(FAO) 삼림 책임자라서 양아버지에게 데이터를 주는 사이였다. 구술자는 마닐라로 오게 되면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 형은 이미 이태리에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동생들을 부모님과 함께 방콕에 남았다.

3) 생애사 제3챕터(1967-1987) - 마닐라 유학, 정착, 그리고 직장생활

구술자는 필리핀에 가라고 들었을 때 엄마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제일 좋았다. 처음 필리핀에 와서 아테네오(Ateneo de Manila) 대학에 가니, 학장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대학에 입학시킬 수 없고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 필리핀 역사와 미국 역사를 이수하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UST(University of Santo Thomas) 고등학교 4학년에 들어가 1년간 공부했다. 구술자는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 학교에 들어가 보니, 필리핀 사람들이 낮아 보였다. 태국에서 고등학교도 다녔고, 아버지도 유엔기구에서 일하니 자신이 좀 더 우월한 것처럼 느꼈다. 양아버지(사장)의 지인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1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후 아테네오 대학에 들어가 최고급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아테네오 대학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기숙사도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를 지나니 좋은 성적(A)을 받게 되었다. 비즈니스를 공부했는데 재미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주위에 여자가 없었다. 인근에 있는 필리핀국립대학교(UP)에는 여자가 많아서 전학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행정 사무실에 찾아가 방법을 문의했는데, B학점 이상 받으면 받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구술자는 자신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여겼다. 그는 UP로 전학한 후 외국인 기숙사인 국제센터(IC)에서 생활했다. 이제는 공부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한 운동으로 유도 와 평행봉을 열심히 했다. 구술자는 대학 4학년 때에 필리핀 여성과 만나 결혼을 했다. 와이프 된 사람은 한국 유학생의 친구였으며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막 돌아온 상황이었다. 구술자는 그녀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저 재미로 결혼을 약속했는데, 막상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니 그 쪽에서 그만 두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버지는 혹시 애를 배서 결혼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으며,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양아버지를 모시고 결혼식을 했다. 1년 후에 아버지가 필리핀에 와서 와이프를 만나보고,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들어 했다. 구술자는 자신이 한국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아마 한국여자는 자신과 잘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며, 그녀처럼 자신과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와이프도 자기에게 럭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구술자는 결혼하면서 필리핀 영주권을 받았고, 1976년에 시민권을 땀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잘 주지 않는데, 마르코스가 중국에 모택동을 만나러 가면서 필리핀에 있는 중국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특별 대통령령을 통해 한꺼번에 시민권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구술자도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혼 후에도 학업은 계속 이어졌다. 구술자는 대학(UP)을 졸업할 때까지는 자신의 전체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경영대학원(AIM)에 들어가 경영학석사학위(MBA) 공부를 시작했다. AIM에서 공부할 때까지 아버지가 재정적으로 도와줬다. 아내는 UP에서 강의를 했는데, 월급이 적어서 부업으로 가방을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다. 구술자는 그 때부터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로 간주했다. 결혼도 했고, 공부는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고, 모든 조건이 어려웠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AIM을 졸업한 것이 구술자에게는 중요한 의미이자 성취였다.

구술자는 AIM을 졸업한 후 1년 정도 정부(건설부)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SGB라는 컨설팅회사(회계사 사무소)에 입사했다. 그 회사에서는 자신을 훈련시켜 한국에 보내려고 했고, 1년 쯤 지난 후 한국에 파견을 보냈다. 서른 살쯤 되던 1978년에 구술자는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 1달가량 지냈다. 그 때 구술자는 한국에서는 못살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의 한국에서 받은 인상은 아마도 당시의 한국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 같다.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가니 답답해서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국의 억압적인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 한국에 가서 보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지를 않았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 일을 하지 않는데, 밤늦게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같은 급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

구술자는 한 달 후 필리핀에 돌아와서 자신이 이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퇴직 후 그는 다시 UP의 경영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회사도 퇴직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급우 중 하나가 동남아수산연구소(Southeast Asia Fisheries Development Center-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회원국이고 일본에서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권유로 거기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각국에 양어장을 만들어 양식을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필리핀에서는 그 기관을 아쿠아 컬처(Aqua Culture)라고 불렀으며, 주로 흔한 생선인 방우스(Milk Fish)를 부하시켜 키우는 것을 연구했다. 구술자는 그 곳에서는 총 10년 간 근무했으며, 기관 책임자들의 부정부패와 맞서 미디어 전쟁, 법정싸움, 협박 등과 같은 많은 경험을 했다.

한 10년간 부정부패와 싸우면서 힘들게 생활하다보니 결국 부정부패는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이상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사직할 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약 6개월 정도 고민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니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MBA를 졸업한 사람은 수두룩한데 자신처럼 한국 사람이고 또 필리핀 사람인 경우는 자신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앞으로 한국을 오가면서 배울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1986년 8월경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986년 2월에는 필리핀에서 시민혁명(People Power)이 일어나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붕괴되었고, 그 뒤를 이어 아키노 민주정권이 들어선 전환기이기도 했다.

4) 생애사 제4챕터(1986-2019) - 비즈니스로 시작한 새로운 인생

구술자는 동남아시아수산업연구소에 사표를 내고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아내가 해 오던 가방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내는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가방사업을 해 왔으며, 그동안 겨우 유지만 하는 정도였다. 구술자는 집에 앉아서 한 쪽에 있는 작업장을 보니, 바람도 통하지 않는데서 접착제 냄새를 맡으며 일하는 직원들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청소부터 시작했고, 그 사업을 현대화시켜야겠다는 생각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구술자는 다시 한국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아내는 그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부터 갈등도 생기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 와이프는 “내가 하는 일에 와서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지. 와이프와의 갈등(conflict)이 아주 중요했다. 그게 나와 우리 와이프의 퍼스널리티 싸움이었다. 나도 우리 와이프와 같이 독단적(assertive)이어서 서로 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와이프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 와서는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상관없이 지냈지. 내가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내 돈을 써서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다가 한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한국에서 가방산업에 대해 보면서 테크닉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가방 만드는 데에 현대화가 되었지. 가방의 질이 좋아지니 잘 팔리기 시작했어. 우리 와이프는 장사를 잘하니 가방을 잘 팔았고 그 때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새로운 건물도 올리게 되고 이 집도 늘어났지. 어찌어찌 하다가 쇼핑몰(SM)에 입점하게 되면서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어. 한 15년 하다보니 회사 이름이 알려지고 사업도 더욱 확장되었지. 이 집들도 다 내가 지은 것이야.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

구술자가 처음으로 가방 사업을 하는 한국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골프를 치다가 알게 된 한국사람이 마침 가방을 수출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한국에 가서 가방 만드는 것을 봐도 되냐고 물었는데 오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 대전공장에 가서 가방 만드는 것을 배웠다. 그 후 약 15년 동안 청계천을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재봉틀, 재료, 등을 배우고 참여와 회사를 키웠으며, 이후 하나씩 하나씩 공장과 집 건물이 늘어났다. 이제는 직원이 350명 정도 되며, 매장도 65개 정도가 된다. 아들과 딸은 인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방사업을 돕고 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딸 부부는 회사의 광고를 주로 맡아서 하고,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 부부는 매장의 판매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다. 구술자는 한국 사람과 사업상 관계하면서 나름대로의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사람은 주로 가방을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신용 있는 가방원단을 생산하는 회사를 찾는 게 중요했었지. 그런 회사를 찾는 데 거의 5년 정도 걸렸어. 한국사람과 일하는 데 애로점은 신용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 가보면 물건도 잘 나오고 회사도 큰데 한 순간에 공장이 망하는 경우가 있었지. 나도 한 번 당할 뻔 했지... 필리핀 정부가 부탁해서 한국의 중소기업을 필리핀에 유치하기 위해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 팀이 한국에 가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100명 정도 불러놓고 유치 목적에 대해 설명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하라니까 무언가 있겠지 하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았어.

구술자는 50살이 되었을 때 회사도 안정되고 스스로 더 이상 회사에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UP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교육학 석사과정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다른 대학(FEU)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기도 했다. 다시 10년간 공부하면서 스스로 뭘 하든지 배우는 것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술자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프로젝트는 이태리에 가서 가방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온 것이었다. 구술자는 만드는 가방이 왜 반듯하게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오랫동안 해 왔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는데, 가면 그것을 배워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다. 결국 결심을 하고 얼마 전에 이태리에 가서 운 좋게 75살 된 노인한테 확실히 배워 왔다.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지금은 가방이 중국산 보다 낫게 나온다고 했다. 그게 자신의 마지막 기여(contribution)라고 했다.

네트워크 시대의 ‘상상된 공동체’: 미얀마 한인의 소셜미디어 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숙(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상용화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의 삶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세대 인터넷을 지나, 이른바 “웹 2.0(web 2.0)” 시대의 도래를 알린 소셜미디어의 전세계적 확산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이 모국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떠나오기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물리적 거리를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한다.

모국과의 거리 좁히기 차원에서뿐 아니라 낯선 이국땅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데도 소셜미디어는 활용도가 높다. 특히 막 현지에 도착한 신입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목적지에 대한 꽤 상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진출한 경우라도 현지에서 마주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정착해 있는 선착자들의 경험은 현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참조할 만한 더없이 유용한 정보가 되며, 수년 전부터 해외에 진출한 한인들 사이에서 활성화된 온라인 공간은 이에 응답하는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된 카카오톡은 여러 소셜미디어 가운데서도 해외 한인사회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방되어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소개되며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던 미얀마에서도 카카오톡은 한인들 간의 주된 연락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미얀마의 통신 사정이 급속히 개선됨에 따라 카카오톡의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져, 연락수단으로서뿐 아니라 현지 정보 공유, 업체 광고, 나아가 미얀마 현지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된 한인의 구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요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교환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일 올라오는 수많은 광고 더미에 묻혀 정작 유용한 정보는 한참을 뒤적인 끝에야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긴 하지만 모바일 기기로 간편히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카카오톡 단톡방은 2010년 개설된 미얀마 한인회의 공식 온라인 카페를 대체하여 가장 많은 한인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최대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그간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모국을 떠나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 집단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온 다양한 차원에서의 가능성을 다룬 사례 연구들이 적지 않다. 디아스포라의 정의 자체가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의에서부터 상업 디아스포라를 포함하고, 근래에는 초국적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상황이고 보면 각각의 연구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전제된 민족 집단의 현실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과 디아스포라 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앤더슨(2018[1983])의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 개념을 인용하여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에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준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은 민족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인쇄자본주의가 담당했던 역할을 대신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서로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상상된, 얼굴 없는 익명의 동포들”(앤더슨 2018)을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호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이주·이민자들을 ‘디지털 디아스포라(digital diaspora)’로 지칭하여 정보통신기술이 이들의 삶과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은 ‘상상된 공동체’에 대한 앤더슨의 논의와 비교하여 디지털 시대의 이주 및 이산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디지털 공간이 통합적인 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된 디지털 공간은 모국의 상실이라는 집합적 트라우마와 정착지에서 차별 받는 존재로서의 디아스포라 인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극복의 결과가 반드시 민족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는 쪽으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보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에 미친 더 큰 영향은 모국과 민족에 대한 상상의 여지를 줄이고, 대신 단절의 불안감이 제거된 상태에서 초국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민족정체성이나 동포의식은 소통의 기본조건으로서 전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비어 있는 채 남아있도록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이 되어가는 듯하다. 미얀마 한인들의 단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들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미얀마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단톡방을 들여다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손하고 절제되어 있는 표현들이 오가는 가운데 친소 여부를 떠나 개인들 간의 사적인 관계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질 좋고 풍성한 서비스를 약속하는 업체들의 광고 외에, 간혹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종교 등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 피력되더라도 할라치면 즉각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글이 오른다.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인 동포”라는 집단 범주 아래 소통하는 공간인 만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의 글들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공간을 유지시키는 암묵적인 규칙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한인회가 주도하는 각종 공식행사들이나 한인들이 현지에서 겪은 사건사고 소식, 또는 현지사회에 대한 한인단체의 봉사활동 소식, 심지어 “한국에서 먹던 맛 그대로”라는 음식점 광고에 이르기까지 이 공간에 참여하는 모두가 한인임을 상기시키는 기표들은 넘쳐난다. 하지만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에 대한 소회나 독립운동에 관한 글, 근래의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 등이 올라 한국에서의 정치상황과 연결되어 작은 분란이라도 일라치면 즉각 “정치/종교 관련 글 금지”라는 단톡방의 공지를 상기시키며 제지하는 글들이 오르곤 한다. ‘동포들의 공간’인 단톡방에서 ‘동포다움’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금기시되고, 대신 동포들을 상대로 한 시장 교환적 성격의 상호작용만이 남는다. 보다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달리 표현하자면 좀 더 내용이 짙은 사회적 관계는 좀 더 작은 규모의 단톡방이나 개인들 간의 관계로 분기되어 나가는 부수현상이 이러한 과정과 함께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 결과 약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미얀마 한인들 가운데 1,920여 명이 참여하는(2019년 8월 기준) 미얀마 한인사회 최대의 단톡방은 “정보 공유방”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공적 공간으로서 안전하게 남겨진다.

단톡방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서로 간에 일면식조차 없는, 그야말로 “얼굴 없는 익명의 동포”인 이 공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상상된 공동체’가 구성되고 유지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듯하다. 민족정체성이나 동포의식은 재외동포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강조되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의

내용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의례적인 수준에서 동포라는 사실 자체만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동포사회를 유지시키는 비결일 수 있다는 점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한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분과회의 9

동남아의 민간전승과 외부와의 교섭

근대 필리핀 동화에 그려진 ‘용감한 소년’ 캐릭터의 문화적 이해: 세브리노 레예스의 동화 《바상할머니 이야기》를 중심으로

권혁래(용인대)*

1. 세브리노 레예스와 《바상할머니 이야기》

19세기 말 필리핀에서는 320여 년 간의 스페인 식민통치를 종식시키려는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노동자와 소작농을 중심으로 무장투쟁 혁명이 일어났고, 1898년 필리핀의 독립 영웅 안드레 보니파시오(Andres Bonifacio)는 마침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어내기도 전에,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1898년 12월 10일 파리 조약을 맺고 필리핀을 새로운 식민지로 편입하였다. 미국의 식민지 치하였지만, 필리핀은 1907년 최초의 선거를 실시하여 상하원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필리핀의 귀족들은 미국의 식민지 체제에 기생하여 자신의 농장을 넓히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고, 필리핀 노동자,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¹⁾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 정부의 전직 관료였고 20세기 초부터 극작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세브리노 레예스(Severino Reyes, 1861-1942)는 1925년부터 필리핀의 민담을 바탕으로 동화를 지어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Mga Kuwento ni Lola Basyang(바상 할머니 이야기)”는 세브리노 레예스가 1925년 5월 22일 금요일에, 필리핀의 타갈로그어 주간지 《리와이와이(Liwayway)》에 첫 작품 <페리킹의 피리(Ang Plautin ni Periking)>을 발표하면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바상할머니 이야기》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대표작으로 인식되고 있는 <페리킹의 피리>는 부모 없는 삼형제 중 막내 페리킹(Periking)이 주인공인데, 그가 어떤 노인으로부터 신비한 마법도구를 얻어 사악한 주지사와 싸워 이기고 주지사의 딸과 결혼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그 뒤로 그는 1942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바상할머니 이야기》 시리즈를 한 편씩 발표하였다. 그가 발표한 500편 이상의 《바상할머니 이야기》는 세브리노의 사후, 선집으로 묶여 출판되고,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발레, 뮤지컬, 만화, 그림책 등으로 재창작되며 지금까지도 필리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식민지 체제 하에서 식민지 국가의 작가 및 연구자가 자국의 신화와 민담을 채록하여 출판하거나, 아동들을 위한 동화로 창작하는 행위는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족의식의 발흥,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징표다. 세브리노 레예스는 자국의 민담을 비롯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을 동화의 형식으로 재창작하여 발표한 필리핀 최초의 작가이다. 동화는 전래하던 민담을

* 용인대 교양교육원 교수. 한국고전문학 & 아시아스토리 전공.

권혁래, 『필리핀 국민동화 바상할머니 이야기: 스토리오 콘텐츠 활용』, 세창출판사, 2018.

1) 문종구, 『필리핀 바로 알기』, 좋은땅, 2012, 38-40쪽.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스토리텔링한 근대서사 장르라는 점에서 민담과 성격을 달리한다. 세브리노 레예스는 필리핀의 오랜 전통생활과 문화를 담은 이야기뿐 아니라, 당대의 이야기, 외국의 문학제재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화를 창작하였다. 《바상할머니 이야기》에 관한 한, 세브리노 레예스는 그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한 ‘동화 스토리텔러’이다.

2. 《바상할머니 이야기》의 작품세계와 ‘용감한 소년’ 캐릭터

동화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필리핀 동화, 그리고 바상 할머니 이야기도 교훈성을 중시한다. 그는 다양한 제재를 통해 주인공들로부터 자립심, 용기와 담대함, 모험, 정의로움, 정직의 가치를 전한다. 그동안 발간된 《바상할머니 이야기》의 두드러진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상 할머니 이야기는 제재나 내용 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발견되는데, ①필리핀 옛이야기를 제재로 한 환상적인 이야기, ②가톨릭 신앙의 소재나 인물을 제재로 한 종교적 주제의 이야기, ③현실공간의 사건을 제재로 한 생활 드라마나 소년소설형 이야기이다.

이 중에서도 ①유형의 필리핀 전래의 신화나 민담을 소재로 한 환상적인 이야기가 많다. 신화와 민담에 바탕한 작품들에서는 필리핀 고유의 감성, 믿음, 특정한 지역에 관한 전설, 신화적 인물들의 유래와 성격 등이 잘 표현된다.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종교적 주제의 ②유형의 작품도 적지 않다. 이 유형은 작중인물에 하나님, 신부, 성모 마리아, 성인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귀의 등의 주제가 많이 그려진다. 이것은 작가 세브리노 레예스의 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대다수가 오랫동안 가톨릭 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③유형은 당대적 시점의 현실공간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그린 것이 많다. 제재 면에서 필리핀인들의 생활기사를 주로 다루지만, 외국인이나 외국의 공간을 제재로 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둘째, 《바상할머니 이야기》의 캐릭터를 신분으로 나눠 구분하면 평민과 왕족으로 양분된다. 평민 주인공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으며, 결핍 요소가 있는 주인공이 ‘용감함’, ‘용기’를 가지고 ‘여행’과 ‘모험’을 떠나 ‘마법 도구’ 및 신이한 능력을 얻고, 공주와의 결혼, 또는 부자가 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왕족(왕·왕비·왕자·공주)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고귀한 인물, 특별한 주인공을 내세우면서 발생한 특징으로 보인다. 왕자는 평민 남자주인공처럼 결핍되었거나 소외된 성격을 지닌 주인공이 많다. 공주들은 결혼 대상으로 드러날 때가 많다. 평민 남성들의 지향가치와 작품의 결말에는 대부분 공주와의 결혼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바상할머니 이야기》의 창작기법에는 마법적, 환상적 요소가 많이 보인다. 주인공들은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벗어나 ‘여행’과 ‘모험’을 떠나면서 마법 도구를 얻어 해결하는 전형적 방식을 보여준다. 등장인물 중에 마법사, 마녀, 요정, 거인, 난쟁이, 유령이 술하게 등장하며, 이들은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어 동물로 변하게 하며,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도와주기도 한다. 주인공들이 얻은 마법 도구는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카펫트와 신발, 몸을 안 보이게 하는 투명망토, 어떤 음식이든 내놓는 마법보자기 등 다양하고 신비하다. 가톨릭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에든 마법적, 환상적 요소는 많이 나타난다.

《바상할머니 이야기》 각편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것이지만, 작가는 바람직한 소년·청년의 성격

으로 ‘용감함’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용감한 소년 캐릭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들은 때로 무모할 정도라고 느껴질 때도 적지 않다. ‘용감한 소년’은 유령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겁이 없고, 두려움 없이 악인과 괴물에 맞서 싸우며 운명을 개척한다. 세브리노 레예스가 왜 이리 용감함의 미덕을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3.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긴 용감한 소년들

세브리노 레예스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후, 필리핀의 저명한 시인이자 문학비평가인 Bienvenido Lumbera는 레예스 가족의 초대를 받고 세브리노 레예스의 ‘바상 할머니 이야기’ 연작 500편 중 ‘베스트 24’를 선정하였고, 이중 열두 편이 “The Best of Lola Basyang”(바상할머니 이야기 정선)이라는 제목으로 1997년 Tahanan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열두 편 작품은 ‘주인공’의 성격을 기준으로 세 유형의 작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군으로, 그들의 용기, 호기심, 정의로움 등의 덕목을 예찬한 유형이다. 둘째, 청년층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군으로, 그들의 사랑과 용기, 젊음, 자립심을 예찬한 유형이다. 셋째, 성인층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군으로, 그들의 선한 마음, 정직함, 분수 지키는 마음 등을 예찬한 유형이다.

용감한 소년 주인공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의 작품군, 곧 <영리한 펜두코>, <두려움 없는 텡>, <착한 페드로> 등의 작품에서 발견되는데, 이 작품들에는 소년 주인공들의 용기, 호기심, 대담함, 선한 마음, 정의로움, 효심 등의 덕목이 강조되어 있다.

<영리한 펜두코>(Clever Penduko)는 어린 펜두코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태도, 기발한 생각 등을 묘사한 이야기다. 펜두코는 어떤 곤경에 빠지든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해낸다. 그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영리한 모습을 보였고, 친구와 내기를 하여 승리하였고, 그로 인해 가족이 큰돈을 벌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 펜두코가 호기심 많고, 선생님이나 신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특이한 성격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었다는 점이다. 작가는 여러 일화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기발한 꾀를 내 위기를 벗어나고 가족에 돈을 벌게 해주는 어린이 상을 제시하였고, 자식을 칭찬·격려하는 부모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펜두코의 캐릭터는 ‘창의적인 어린이’의 형상이자, 트릭스터(trickster)의 성격을 지닌다.

<두려움 없는 텡>(Ting the Fearless)은 어린이 텡(Ting)의 성장담이자 모험담이다. 말라본에 사는 텡은 본디 두려움을 모르는 아이인데, 그의 과도한 대담함을 걱정한 아버지는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집을 나온 텡은 마닐라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 시리아 등의 세계를 여행한다. 시리아 상인 밑에서 일하던 텡은 어느 왕국의 왕이 용감한 남자를 사위로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성으로 들어가 유령을 물리치는 등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마침내 공주와 결혼한다. 작품의 끝은 텡이 낳은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텡이 처음으로 두려움과 사랑을 느꼈다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작가는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텡이 유럽으로, 시리아로, 세계 각 곳을 다니면서 그의 담대한 성격으로 인해 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그렸다. 작품의 배경 무대가 필리핀에서 시작하여 유럽, 시리아 등으로 확장된 점도 흥미롭다. ‘두려움 없는 삶의 태

도'를 긍정적으로 그린 이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

<착한 페드로>(Pedrong Mabait)는 정의로운 아이 페드로의 짧은 생애를 그린 이야기다. 마닐라 퀴아포 지구에 살던 소년 페드로는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싸워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몸집이 큰 그는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켜 그 지역에서 사고뭉치가 되었지만, 그것은 그가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페드로는 어머니 알링 양계가 재혼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자 의무를 때려 어머니를 구하기도 했다. 위에 마을에서 큰 화재사고가 났을 때, 세 명의 어린아이들을 불에서 꺼낸 뒤 자신은 불에 타 죽었다. 페드로에게 도움을 입은 어린이의 부모는 평생 동안 페드로 어머니의 생계를 돕기로 약속했다. 이 작품은 주인공 페드로가 어린 아이이지만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응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끝내 어머니를 도왔다는 점을 서사화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페드로의 '강직함'과 정의로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세상의 '불의함에 맞서 싸울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뒤 Anvil 출판사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0권으로 구성된 '바상할머니 이야기' 그림책 시리즈를 발간하는데, 여기에도 용감한 소년 캐릭터가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 9번으로 발간된 <판다코통>(2005)은 어느 키 작은 재단사의 성장담이자 인생성공담으로, 작은 가게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판다코통이 자신의 운을 믿고 용감함을 시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거인들을 이기고,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다. 주인공 판다코통이 자기가 일하던 가게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는 단순하다. 일곱 마리나 되는 파리를 수건으로 한 번에 때려잡은 그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한 번에 일곱 마리나 잡았어. 나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외치고 자신의 행운을 시험해보겠다고 여행을 떠난다. 판다코통은 여행 기간 동안 몇 차례의 모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거인과의 대결이었다. 그는 거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거인들과 친구가 되었다. 더욱 대담해진 판다코통은 노르만도 왕의 딸 엘피디아 공주와의 결혼을 꿈꾸게 된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주에게 청혼을 한다. 노르만도 왕국의 신하들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두 거인을 물리치는 일, 날카로운 뿔을 지닌 소를 죽이는 일, 서쪽 마을을 괴롭히는 꿈을 잡는 일이었다. 판다코통은 지혜와 용감함을 발휘하여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다. 공주는 그의 용감함과 영리함을 아주 존경하고 있었고, 왕은 엘피디아 공주와 결혼시킨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림책 시리즈 19번으로 발간된 <겁 없는 페드로>(2011)의 주인공 페드로는 '유령을 제압하는 자'이다, 그는 토나와 신도 부부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토나와 신도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임신이 되지 않자, 사탄에게까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렇게 태어난 페드로는 사탄이 열세 살 때 데려간다고 하여 신도와 토나 부부를 근심케 한다. 후안 신부는 토나와 신도 부부의 신앙을 지도하고, 페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돕는다. 하지만 페드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문제를 일으키자 신부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살도록 지도하였다. 이야기의 절정은 뒤에 유령이 나오는 집에 들어간 페드로가 갑자기 나타난 유령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유령과 싸워 이기는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유령은 페드로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고, 페드로는 그 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작가는 귀신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페드로를 '용감한 대장부'로 칭찬하고, 그로 인해 큰돈을 벌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왜 그들은 용감해야 했을까?

필자는 《바상할머니 이야기》 100여 편을 번역하거나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용감한 소년’ 캐릭터는 20여 편 가량 된다. 이 ‘용감한 소년’ 주인공들은 대체로 기질이 강한데다가, 거친 환경과 맞서 싸운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작중 환경에서 주인공들이 당면한 현실은 너무 거칠거나 공포스러운 소년 주인공들은 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아이거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앞서 보았던 <착한 페드로>에서 주인공 페드로는 어머니를 때리는 계부와 주먹다짐을 해서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마을에 불이 나자 세 아이를 구하다가 죽고 만다. 그 대가로 페드로 어머니는 평생 생계보장을 약속받았지만...

문제는 작가가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인생관을 설교했다는 점이다. 용감한 소년 스토리는 언뜻 읽으면 통쾌하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존재하기 힘든 소년상이다. <두려움 없는 텅>의 텅과 <겁 없는 페드로>의 페드로는 본디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으로 유령도, 시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령을 제압하는 자’이다. <착한 페드로>의 정의로운 소년 페드로는 불의한 일을 보면 몸을 던져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판다 코통>의 키 작은 재단사는 우연히 파리 일곱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일로 자신의 운을 걸고 세상에 도전한 청년이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식민지 시절의 어린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이 있을까? 또는 유령을 제압할 수 있는 담대함이나 힘을 지닌 자가 있을까? 필자는 《바상할머니 이야기》에 그려진 ‘용감한 소년상’이 문학적으로 진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캐릭터는 존재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니까. 무엇보다 《바상할머니 이야기》에 그려진 용감한 소년상은 폭력적이며, 자학적이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해악적 요소가 있다. 좋은 문학은 대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여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감동에 이르게 하고, 세상을 진실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과연 세브리노 레예스가 그린 ‘용감한 소년상’이 그러할까?

스페인 식민지생활 320년을 거쳐 미국 식민지생활 20년, 30년을 거치는 동안 필리핀의 지식인이자 아동문학작가 세브리노 레예스는 어떤 상상력을 품고 어떤 작가적 비전을 제시했을까? 《바상할머니 이야기》에는 가톨릭신앙이나 환상적 수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작품들이 3/4가 넘는 듯하다. 이 작품들은 대개 이런 식이다. ‘세상에는 인간이 알기 어려운 신의 섭리가 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모 마리아는 신비한 기적을 내려주신다.’ ‘현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인공들은 여행과 모험을 떠나 신기한 도구를 획득하고 그것으로 괴물과 싸워 이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 이 점에 대해 ‘바상할머니 이야기’ 연구자 크리스틴 벨렌 교수는 크리스틴 벨렌 교수는 세브리노 레예스의 동화 작품에 기독교의 신이나 유령, 요정, 신이한 생명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환상적 수법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들어 《바상 할머니 이야기》를 ‘매직 리얼리즘’(마술 사실주의)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바상 할머니 이야기》의 비평에는 매직 리얼리즘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같은 시기 한국에는 심의린, 박영만이라는 옛이야기 작가가 있어, ‘피 많은 아이’, 어른과 완고한 권력자를 골려먹는 ‘트리스터’ 이야기를 발표하며 ‘해학’을 통한 현실의 비판적 인식을 추구하였다. 세브리노 레예스는 필리핀에서 근대 국민극작가이자 동화작가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아동문학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바상할머니 이야기》만 해도 연구자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400-500편 되는 작품을 모두 검토한 연구결과는 없다. 그런 속에서 《바상할머니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하고 칭찬하는 방식의 연구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상할머니 이야기》에는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문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스토리와 감성들이 있다. 이것 자체가 300여 년 식민지생활의 병리적 증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발표를 통해 필자는 외국의 연구자로서 필리핀 국민문학이라고 칭해지는 《바상할머니 이야기》의 미학적 성격에 대한 논쟁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중국의 지정학과 동남아시아 진출: 육상과 해상 동남아 일대일로 네트워크전략*

정혜영(건국대 중국연구원 연구교수)

I. 서론

지정학은 이데올로기와 시간을 초월하며,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국가 간의 힘과 세력구도를 논한다. 인구를 모이게 하는 지리환경, 지리환경에 의해 증가하는 인구, 인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제세력, 그러한 경제적 부에 따라 이동하는 정치권력을 설명하는데 지정학은 근본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지닌 지정학을 중심으로 이를 세력화 하는 것, 즉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중국 패권의 본질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협력에 대해 논한다.

개혁과 개방으로 성장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외진출에 거점이 되는 지정학적 지점에 위치한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대일로 협력이라는 전략화 된 구상에 의해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편하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외진출과 팽창에 중요한 위치에 놓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쉽게 투사되는 지역으로, 과거 남하하는 중국 공산화 세력의 경쟁지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 네트워크 전략의 최전선 안에 위치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부상한 중국과 그 주변국가간의 관계변화를 중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국 육상경계지역과 함께 하는 대륙부 국가들과 중국 해양진출 거점에 위치한 해양부 국가들로 나누어, 중국의 일대일로 네트워크 협력전략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한다. 아울러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 협력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여, 중국대륙의 팽창세력과 기존 해양세력의 갈등이 불러오는 동남아 지역의 국제질서 변형 가능성을 조망한다.

네트워크 권력은 국가간의 ‘관계의 힘’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가 간에 형성된 연결망을 바탕으로 하며, 네트워크 파워를 이루는 집합권력, 위치권력, 설계권력 등을 말한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파워를 국제정치에 적용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권력이 미-중 간의 기술표준 설정과 확보에 대한 경쟁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네트워크 파워를 구성하고자 하는 중심국가의 힘은 그 국가의 정치 외교력,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흡인력에 관한 힘을 필요로 한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루려는 힘은 국가의 중장기적 전략이며, 세력의 역관계도 반영되므로 오늘날 국가 간의 네트워크 연구는 매우 다면적이고 복잡적이며 중층적이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연구 임무 역시 다방면으로 증강되고 있다. (박원호 2016,131) 본문에서는 중국의 내부발전 전략과 연계된 일대일로 동남아 네트워크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 본 발표논문은 추가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내용을 담은 초보적 연구논문입니다.

Ⅱ. 중국의 패권과 지정학

1. 해양세력이 본 중국의 패권과 지정학

중국의 패권: 로버트 D 카플란(Robert D. Kaplan)은 2012년 출간된 『지리의 복수』라는 그의 책에서 중국대륙의 팽창 즉 중국의 패권(hegemony)은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변국에 미치는 중국의 지배력도 시작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²⁾ 그는 중국이 지닌 영향력과 팽창이 머무는 지정학의 영향지역을 외부 주변부 즉, 몽골, 러시아령 극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규명하였으며, 그 중 한반도의 북한과 대만의 세력균형은 중국의 부상과 관계된 중요한 국제정치 핵심지역 국가로 평가하였다. 그에 비해 동남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쉽게 미쳐지는 곳으로 평가하였다. 중국의 패권이 지니는 군사력은 아직 미국에 견줄 만 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 남중국해에 미치는 중국의 군사영향력은 원거리에서 투사해야 하는 미국의 어려움에 비례하여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태평양을 제해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결국 1차적으로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로버트 D 카플란 2018)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중국 대륙의 팽창 즉 패권의 확장과 관계된 것으로 이는 중국이 지니는 지정학과 관계된다.

중국의 지정학: 중국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이른바 ‘중국몽’을 기치로 내걸고,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육해통합 견지와 해양강국 건설강화(堅持陸海統籌, 加快建設海洋強國)”라는 지정학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 지리적인 위치에 의해 국제관계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인 동시 이와 관계한 국가 전략 분야임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해양강국’ 선언은 그동안 중국이 대륙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을 운영해 왔던 중국의 지정학 범위를 해양세계로 확장하는 선언으로, 기존 서방(미·일) 해양세력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중국의 지리조건은 2만2천km의 대륙국경선을 14개 국가와 함께하고 있으며, 해안선은 대륙해안선과 부속도서 해안선을 합쳐 3만2천km에 이른다. 또한 300만km²의 해역과 500m²면적의 부속도서 70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中國社會科學網 2018.12.01.) 서방 지정학의 설계자인 영국의 해퍼드 맥킨더(Mackinder)는 1904년 유라시아 대륙(변경과 중원)과 태평양 연안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은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³⁾하였다. 그는 유라시아 지배자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내륙에서 연안으로 네트워크가 형성

1)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이를 메커니즘(機制)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작업기준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협력문건에 서명한 국가의 수와 각국정부의 국제기구 인정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각국 외교부와 국가수반이 진행한 공식회의에서 일대일로 관련 협의의 수치를화 하고 중국정부가 서명한 쌍방문건도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2) 이윤인 즉, 중국과 접경한 몽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라오스, 베트남은 중국과 형식적으로 친분을 유지할 뿐,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국가들로 중국의 팽창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아직까지는 중국에게 비우호적이다.

3) 서방 지정학의 뼈대를 세운 해퍼드 맥킨더(Mackinder)는 1904년 런던 왕립지리학회에서 ‘역사의 지리적 중심축(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이 지니는 ‘지정학’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당시 그는 함대로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해양세력이라 규정했으며, 유라시아(유로+아시아)세력은 해양세력에 대항하는 대륙세력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해양세력에 대항하는 아시아 내륙에서 발원된 대륙세력인 중국의 굴기가 그의 언급과 지리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맥켄더가 명명했던 ‘중심축’ 개념은 후에 ‘심장부’ 지역으로 바뀌었고, 당시 경계의 대상이었던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지역 세력이었던 러시아는

된다면 해양세력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력이 탄생할 것으로 경고하였다. 오늘날 중국이 차세대정보통신산업(5G), 인공지능(AI), 신에너지 자동차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던 기술을 추격하고 네트워크 기술 분야 우월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미국이 긴장하는 것은 네트워크 파워로 대륙세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위협성을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라는 네트워크 연결 구상이 첨단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100여 년 전 영국의 지정학자 해퍼드 맥킨더가 예견했던 새로운 대륙 패권세력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맥킨더는 만약 중국이 네트워크 파워로 유라시아를 장악하게 될 경우, 세계평화에 ‘황화(黃禍)’ 즉 ‘황인종에 의한 백인종의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유인 즉, 중국은 지리적으로 거대한 대륙의 자원을 지니고 대양연안에 접해있기 때문에 해양세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정의길 2018, 101-107) 중국의 내륙은 서북지역에서 성장한 유목초원 세력(여진족, 몽골족)을 중화(中華)문화로 흡수하면서 성장하였다. 양쯔강 이남의 동남 연안지대는 남송시대부터 농경산업을 중심으로 부가 축적된 곳이다. 중국공산당의 개혁과 개방정책은 연안지대를 중심으로 한 선부론(先富論)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해양세력에게 개방이 용이하며 전통적으로 부가 축적되어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 내륙의 서북경계는 상대적으로 볼 때 척박한 지리를 지니며, 국경을 마주한 신장위구르, 내몽골, 티베트 등지의 세력과 완충지대 조성해야 하면서도, 한족이 다스리는 중원은 항상 세력을 통일해야하는 과제에 놓여있었다. 지리적으로는 과거 초원세력의 침입에 대비해 만리장성이 지어지기도 했다. 근래 중국 공산당은 내륙을 통일하고 중앙집권화를 실현하는 작업은 마무리 하였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인도와 마주한 지역의 분쟁을 방지하며, 미국의 세력 영향권 안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해야 하는 지정학적 전략과제를 지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인도를 제외한 (14개 접경국) 주변국들과 국경지방 안정을 위해 우호적으로 국경선 정리작업에 임했으며, 일대일로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동남아시아에서 본 중국의 패권과 지정학

중국 내륙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 전략(geostrategy)은 ‘서출북화’(西出北和: 서쪽으로 진출하고 북쪽으로 화합함)이다. 러시아와 화합하고 서쪽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을 관통하는 송유관과 도로를 건설해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중국 연해지역과 동남부지역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전략(geostrategy)은 ‘동립남하’(東立南下: 동쪽으로 입지를 다지고 남쪽으로 내려감)이다. 동쪽으로 남사군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섬의 영유권과 해로를 확보하고 남쪽으로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을 통해 남하하여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 및 서구의 해양세력 확장에 중심지역이 되어왔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지정학의 관점은 연안지대를 통제하는 세력확장과 관계가 있다. 중국의 동남부 연해지역은 남송시대부터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활발한 교역을 하였다. 명나라 정화(鄭和)의 함대는 연안지역의 부를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거쳐 동아프리카까지 해상교역을 활성화 시켰다. 그러나 대륙세력인 몽골족의 침입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해금정책으로 이후, 400여 년간 해상진출을 중단했다. 약해진 중국의 해양력은 결국 동남연안지대를 파고드는 서구열강의 해양세

오늘날 중국이 주인공이 되어 연결하고자 하는 ‘일대일로’ 지리와 명확히 일치한다.

력에게 곳곳을 조차해주는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로버트D.카플란 2017, 316)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국경에는 자연적 방해물이 없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비교적 역동적이며 부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하다. 중국은 과거 베트남을 1천년 동안 지배하였을 뿐 아니라, 미얀마, 태국에게 까지도 몽골의 원나라가 침략군을 보내기도 하였다. 인도차이나반도의 화인이주는 역사 이래 빈번히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 중국의 쿤밍은 일대일로와 메콩강 경제권을 중심으로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인프라, 물류 등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즉 역동성이 떨어지고 인구밀도가 낮은 주변지역으로 중국의 인구나 부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일대일로 네트워크인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 연안지역의 부와 인구팽창 통로를 해양방향으로 여는 것이다. 중국은 해양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동남아 해양부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Ⅲ. 중국의 동남아시아 일대일로 네트워크

1. 중국의 동남아 일대일로 네트워크 구상

중국의 지리는 역사,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유럽, 이슬람, 인도의 문명권에서 차단된 독자적인 지리 공간 안에서 발전해 왔다. 이들을 차단하는 지리는 험준한 사막, 초원, 산맥이 가로놓인 내몽고, 외몽고, 신장위구르, 티베트의 완충지역이다. 15인치 강우선으로 나뉘지는 중원과 완충지대는 중국인구를 뺀 인구밀도로 동남 연안지역에 모이게 하여 (1제곱킬로미터당 775명) 과밀인구가 다시 팽창할 수 밖에 없는 압력을 가하게 하였다. (정의길 2018,406) 성장한 중국의 팽창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부로 퍼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두고 『거대한 체스판』을 저술한 미국 패권 지정학의 저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중국의 지정학의 역사를 ‘통일-팽창-쇄퇴-분열’의 순환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이 외부로 향하는 네트워크의 힘은 내부가 통일되고 단합되었을 때 비로써 진행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건국 후 내부 결속과 정치적 단결을 통해 변경지역과 중원지역을 통합한 후, 1978년 연안개방을 통해 경제력을 키웠다. 네트워크 진출의 구체적 구현을 담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을 살펴보자면, 무형적 연계와 유형적 연계를 담은 에너지, 교역, 수송인프라 연계를 중심으로 정책소통, 민심상통, 무역연계, 자금유통의 5개의 전방위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주변지역으로 중국패권의 힘을 투사하며, 지정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네트워크 파워 형성 내용을 담고 있다. 육상 일대일로와 해상 실크로드는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의 주도권 형성을 위한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는 연선국을 향해 정치, 사회, 군사, 문화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 경제력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통합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일대일로로 고대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가 복원된다면 북미와 남미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65개국, 전 지구의 3분의 2인구를 포함한 거대한 중화경제권 연결과 중국부흥의 꿈이 실현가능하다. 일대일로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네트워크화에 적용하며 연선개도국에게 중국 한계산업 출구를 열고 잉여자본 수출을 통해 중국에 편승하는 국가들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국제관계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핵심이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는 도로, 에너지 수송관, 철도, 항공, 해로를 통해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교류들이 증척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중국

의 일대일로 네트워크는 경제성과 안보성을 따라 구상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원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우선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안보적인 위협이나 반중정서가 있는 곳에서는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국경과 연결한 국가들의 경제적 추동력을 중국에 의지하고자 하는 점을 활용하였으며, 동남아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확충하기 보다는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경제 네트워크⁴⁾를 보강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육상지역에서 강화된 협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중국은 해양진출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표 1〉 중국의 일대일로 네트워크 구상내용

	분류	네트워크 수단	내용
유형적 연계	에너지 네트워크	수송로 건설	-에너지 자원수송을 위한 인프라 건설
	이동 및 운송 네트워크	도로 및 철도 건설	-인적 물적이동을 위한 중국중심의 인프라 연결
	군사 네트워크	전략항구 건설	-상업항구 건설 -군사 거점항구 건설
	산업단지 네트워크	산업단지 조성	-대외무역협력지대(對外貿易合作區) 및 해외제조업 기지 건설
무형적 연계	경제적 네트워크	무역연계 금융상통	-교역과 투자의 경제적 자원 네트워크 -연선 8개국에 인민폐 결제가능한 시스템과 27개국에 인 민폐 결제은행 설치 AIIB 등 아시아금융 활성화
	사회·제도적 네트워크	정책소통 정치외교협력	-AIIB, RECP, ASEAN+3, ARF, APEC (긴밀한 연계 ↔ 느 슨한 연계) -중국식 표준 확산의 네트워크화 -사회적 자원의 네트워크
	문화적 네트워크	민심상통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 중심문화로 서방과의 차별성으로 단합/ -문화적 자원의 네트워크

자료: 저자작성

2. 중국의 동남아 육상과 해상 네트워크 구상

(1) 동남아 대륙부 국가와의 협력과 중국세력의 동립남하(東立南下)

중국의 육상실크로드(一帶):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태국과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중국과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화인의 이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이동한 화인들은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중국과 이주국가 지역에서 양측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문화의 전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중국의 문화가 가장 농후하

4) 중국은 20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CAFTA) 구상을 제시한 이후, 동남아 국가들에게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지역협력기제를 마련하여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친밀화를 다져왔다. 그 결과 중국 서남부지방과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과의 무역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중국의 운남성과 광서성의 경제가 연 9~15%로 성장하고 있으며, 동남아 대륙부 국가들의 경제도 연 7%로 성장하는 활기를 불어넣었다.

계 영향을 미쳤던 곳은 베트남으로 1천여 년에 걸친 중국지배의 영향 때문인데, 지형적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은 타국에 비해 자연방벽이 없어 왕래가 가장 용이한 지역이었으며, 문화, 경제, 정치, 사회방면에서 중국의 전반적 영향력이 고루 미친 지역이었다.

〈표 2〉 쿤밍-싱가포르 구간 중국철도공사 계획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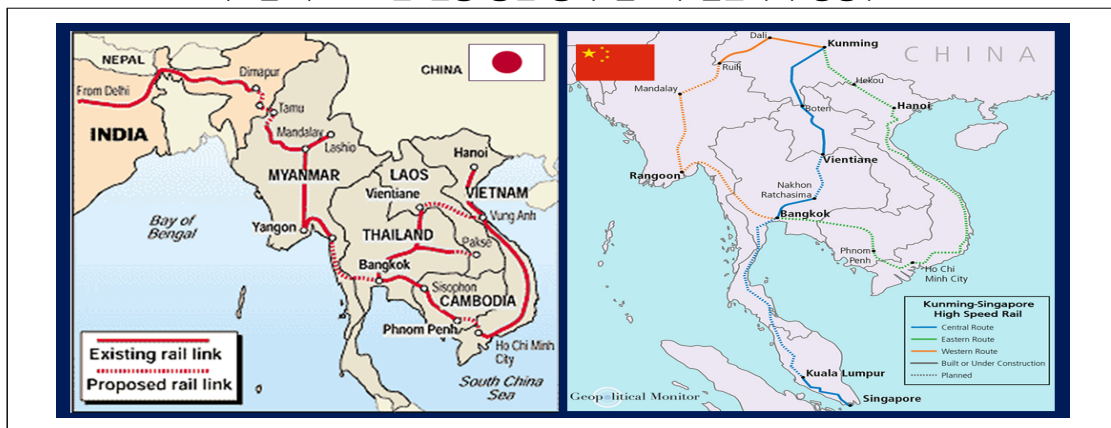
북 남 고 속 철 도	통과국	구간설계	길이	완공계획년도
	캄보디아	Phnom Penh-Loc Ninh	254km	2015년
	베트남	Loc Ninh-Ho Chi minh	129km	2020년
	베트남	Mu Gia-Tan Ap-Vung Ang	119km	2020년
	라오스	Vientiane-Thakek-Mu Gia	466km	2020년
	미얀마	Thanbyuzayat-Three Pagoda Pass	110km	2020년
	태국	Three Pagoda Pass - Nam Tok	153km	2020년

자료: 아세안사무국내 중국비즈니스사무처(中國駐東盟成員國使館經商參處)

〈그림 1〉 2012년 쿤밍-싱가포르 구간 중국철도공사 계획내용



〈그림 2〉 2019년 진행 중인 중국 철도와 일본과의 경쟁구도



한편, 과거 대륙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무역과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자체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정치적으로는 무역 혹은 조공관계의 체결이 이 지역에 형성된 왕조들의 지배자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정치적 정당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이충열 외 2017,78) 19세기 중반이후 유럽세력이 동남

아시아를 지배하였을 당시, 화인과 인도인의 동남아 이주로 인해 노동력이 공급되었는데, 태국의 쌀 농사와 말레이 반도의 광산업, 베트남 남부의 인프라 건설, 미얀마에서는 화인노동력과 화인기업, 화인상업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남하하는 쿤밍-싱가포르 구간 고속철도공사는 처음 계획되었던 미얀마와 베트남 중심의 건설내용과는 달리 쿤밍과 라오스를 잇는 부분의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세력 남하를 저지하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압력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그림 1><그림 2>비교 참조.

(2) 동남아 해양부 국가와의 협력과 중국 제해(制海)전략

동남아 해양부 국가들은 중국 해양 실크로드(一路) 계획 노선 중, 중서선(中西線)⁵⁾에 있는 국가들에 해당하며,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해양전략의 핵심지구에 배치하였다. 동남아의 해양부 국가들은 대륙부 국가들보다 GDP 규모가 크며, 경제규모와 자원도 풍부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협력 가치가 큰 중요한 국가들이 동남아 도서국가들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중국의 해양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여부는 중국의 물질적 협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균형을 이용하려는 해양부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국의 해양남하 제해전략. 해양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과 활발한 경제교류를 하여왔으며, 중국인의 이주와 이동이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명나라 정화의 해외원정 이후, 해양을 제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중국에게 오늘날 가장 큰 도전문제는 외부로 나가야할 필요성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한반도 북한지역의 접경지역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까지는 중국의 해양 출로는 미국해양세력과 동맹인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해양 출로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갈등하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해양 국가들과 영해갈등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해양실크로드 구상에 의해 근해 국가들과 해양경제협력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는 인공섬을 건설하여 해군의 거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상영향력을 증강하고자 한다. 이미 인도양 연안에서는 상업항구개발을 통해 해군함정이 잠시 입항하거나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 구상⁶⁾으로 동남아 해양부 국가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은 해상항구지점 (node)을 연계점으로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물류경제협력, 상업항구 건설, 연해공업단지

5) 해양 실크로드는 중서선(中西線), 남선(南線), 북선(北線)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서선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를 끼고 있는 선으로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한 해양세력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전략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도 남선(남태평양)과 북선(북극노선) 보다 큰 노선이다. 상대적으로 남선과 북선은 중국의 세력영향권 확장과 관계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노선이다. (민귀식 2019)

6) 중국의 해양실크로드의 단계적 전략은 2개의 백 년(兩個百年)계획에 의해 모호하면서도 가변성있는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구상되었다. 그 중 첫 번째 100년인 2050년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거점지역 확보, 주변국과 지역연계강화, 경제 및 인문교류 통로 구축, 지방정부간 협력추진, 공동 플랫폼 구축의 5대 기능 수행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상 실크로드의 세부적 방향은 ‘해상통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중국은 해상국가들과 무역을 증가시키고 협력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점(항구)에서 선(인프라 통로), 다시 선에서 면(경제특구, 도시 등의 배후지)을 확장하여 지역(국가)을 확대하는 공간확대 방식을 추구한다. 중국의 대내 개혁개방 방식(점-선-면)이 해외에서의 확장에도 적용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13·5 구획’에 끝나는 2020년까지의 단기계획, 즉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계획을 주변국에게 인식시켜 참여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거점지역(node)에 1단계 SOC사업을 실시, 아세안 개별 국가간 FTA를 전면적 실시, 중-아세안 자유무역지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2021년-2030년으로 거점에서 선(line)으로 확대하여 해양실크로드를 연결하려는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는 2031년-2050년이다. 이 시기 계획에 의하면 일대일로 구상이 전면적 성과를 지니는 단계로 올라선다.(민귀식 2019, 137-140)

건설, 항구신도시 건설, 정치군사적 영향력 행사, 주변 해양통제 등을 통해 해양군사력과 해양경제력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림 3〉 해양 실크로드의 동남아 핵심거점지 7개 항구



자료: 민귀식(2019)

동남아 지역은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제해하고자 하는 핵심지역에 위치한다. 중국의 해외항구 개척방법은 항구건설과 수리에 투자, 항구운영권 확보, 일정투자지분으로 항만관리권 획득, 중국항구와 해외항구연맹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민귀식 2019,146) 중국의 해양 경제협력 전략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게는 매력적 제안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해양경제의 우위를 구축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고자 하는 해양경제의 경쟁국 중국의 제안이 합리적인 이익의 공유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입장이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세력 남하를 경계하고 있어 중국이 거점항을 확보하기에 쉽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여러 차례 태국의 끄라항 건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항구,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태국남부 코란타 항구, 크라운하 건설 투자에 투자협력을 시도하여 협력가능성의 공간을 열었다. 해양 일대일로 건설성격은 해양물류, 원양어업, 해양산업단지 협력의 거점이며, 군사적 진출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그림 2>아세안의 6개 항구는 군사적 성격 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물류지구로 분류된다. (민귀식 2019,148) 몇몇 항구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매항구 결연을 맺거나 해양실크로드 네트워크 협력항으로 지정하여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IV. 중국 일대일로와 동남아 국가 협력동향

1.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국경협력

아래에서는 대륙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과의 관계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얀마는 중국과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관계이다. 중국은 미얀마와의 확대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웅산 수지정부는 이전 군부정부에 비해 미국과 중국사이의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면 중국의 영향력에 주의를 기하는 입장이다. 중국에게 미얀마는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 회랑 구상으로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벵골만으로 직접 인프라 연결이 가능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군사협력까지도 가능한 전략기지 구축대상 국가이다. 미얀마는 중국이 인도로 진출하는 육로통로를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미얀마 서부의 자오파오항구의 해로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 이후, 중국과 베트남사이에서 소극적 등거리 외교를 유지해오다가 1961년 4월 25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79년 중국은 라오스 소수민족 몽족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양국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흘렀으나, 1989년 양국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2009년 9월 양국은 전면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광산업, 수력발전, 농업, 부동산업, 경제협력구 개발, 호텔관광업 중심으로 중국의 대 라오스 투자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대일로 고속철도가 라오스의 경내에서 첫 삽을 뜨게 됨에 따라 양국의 고위회담은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한 유대관계 속에서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일대일로 고속철도 사업의 진행으로 차관에 대한 이자부담을 안게된 라오스 정부의 해법은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땅을 중국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주고 임차료 부분을 차관이자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 중국의 대동남아 일대일로 연계점 선정과 협력방식

	국가명	지정학 가치	전략 연계지역	전략가치	협력방식
대륙부 국가	베트남	고	·쿤밍 및 난닝 국경 연결	-미중세력균형 충돌지역	일대일로 유계획, 인프라연결 미실행국 남중국해 최대 분쟁국
	라오스	중	·우돔싸이-비엔티안 고속철도 연결	-원난성과 인도차이나 반도북-남 내륙 운송의 핵심국	-고속철도연결
	캄보디아	중	·시아누크빌항	-중국의 경공업중점이 전계획, 경제무역합작구 건설	-경제협력특구건설국가 -상업항/ 캄보디아 최대항 (중싱경제회랑/RCEP)
	태국	고	·쿤밍-싱가포르구간 도로운송 ·방콕항 ·항공운송	-말레이반도 북남 고속철도 연결 협력국 -방콕항 및 말라카 해협 항구개발 협력국	-라오스-태국 말레이반도 고속철도 핵심 협력국 -쿤밍-방콕간 고속도로 연결 -방콕항: 상업항 -말라카 해협의 우회지
	미얀마	고	·짜옥퐁항	-송유관과 가스관 기점	-에너지 수송의 핵심항구/원조 /상업항 (방중인미경제회랑/RCEP)

해양부 국가	말레이시아	고	·관탄항	-관탄항:석유화학 중심항	-중국(欽州)항과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자매항구/ 지분참여/상업항(중싱경제회랑/RCEP)
			·클랑항	-클랑항:해상물류 네트워크 구축항	
	인도네시아	고	·자카르타항	-남아시아-태평양 해양실�크로드 거점항	(방중인미경제회랑/RCEP)/투자/상업항
			·비통항	-해양실�크로드 연선향구	(방중인미경제회랑/RCEP)/중국(泉州)항과 자매항구/어업항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중국이 추진하는 BRI의 해양부 국가 대표사업 -수도과 제3도시 반둥지역 연결	-중국90%:인도네시아10%투자비율로 진행, 중국의 고속철도 해외수주 첫 사례, 일본과의 수주경쟁 성공사례
	싱가포르	중	·싱가포르항	-해양실�크로드 핵심거점국 -육상북-남고속철도 종착지 -다수의 일대일로 관련 첨단기술프로젝트 협력국	-중국해상물류운송의 거점지 (말라카 해협:중국석유수입80% 차지) -프로젝트 합작/ 보급항 (중싱경제회랑/RCEP)
필리핀	고	---	-Maliwans 발전소 1 단계 프로젝트 진행 -Coswayan 발전소 프로젝트	-미국과 군사동맹국 -영해문제 등으로 그동안 중국이 필리핀에서의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을 겪은 국가	
브루나이	중	·무아라항 (Muara)	-브루나이-광시 경제 회랑	-관광, 물류 중심의 해운항만협력	

자료: 祝哲 等, 『新戰略, 新願景, 新主張—建設21世紀海上絲綢之路戰略研究』, 海軍出版社(2017). pp.149-150
 민귀식 (2019,143,149)재인용 등 기타자료 필자재구성

태국의 주요산업인 서비스산업에서 중국인 관광객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장되면서 중국과 인문 관계가 깊어졌다. 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 협력국지위에 올라있다. 중국이 태국과 협력할 경우 원조에 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지닌 이웃 저개발국들과 달리, 경제적 윈-윈 이 가능한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2016년 중국과 태국은 총867km에 해당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쌀 200만톤을 수입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2016년 말 2개의 MOU에 서명하면서 쌀과 철도의 맞교환을 이루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다양한 중국은 태국기업들에게 자금투자를 진행하여 기업 발전과 성장에 힘을 보탰으며, 양국 경제 및 무역 발전도 가시적으로 개선되었다. 양국은 다방면에서 친밀화된 교류확대를 이루어 왔으며, 군사적 협력도 증진되었다. 태국은 항구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및 싱가포르와 연결가능한 8 개의 국제심해항을 포함하여 122 개의 항구 터미널이 있어 중국은 태국의 교통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태국에는 중국과 협력하는 2개의 경제협력단지(工業圓區)가 있는데, 라용산업단지(泰中羅勇工業園)에는 100 개가 넘는 중국 투자 기업이 정착했으며, 태국 후난 공업단지(泰國湖南工業園)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개발에 뒷쳐져 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볼 때, 중국의 대규모 물류가 자연적인 방벽 없이 내려올 수 있는 최적의 육상 국경과 해안지형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 육해상으로 교역하기 유리한 지형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베트남의 대중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아직 베트남에게 물류의 길을 적극 열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 해상에서의 영해 분쟁(남중국해)과 통행(통킹만)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이다. 육상국경정리와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4곳의 경제협력지대에 대한 건설도 진전이 없다. 베트남 정부는 2004년부터 양랑일권(兩廊一圏)이라는 인프라와 경제협력 연계전략을 제시했으나 양국사이 외교적 협력수사만 이어지고 있을 뿐 현실적 협력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중국의 중간재를 구입하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대중수지 적자는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베트남에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화화력발전소, 화학비료공장, 석탄발전소, 알루미늄 공업 등이 있다.

캄보디아와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협력국이다. 이는 캄보디아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의 정치적 신뢰속에서 경공업 중점이전 계획을 세웠으며, 중국과 협력하는 경제무역합작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사업 발표이후 캄보디아의 주요 인프라 건설과 수력발전 등의 국가기간산업의 협력이 중국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대중국 협력의지 역시 굳건하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다. 농업, 교육, 스포츠 및 경찰업무, 관공서 건축, 고속도로, 사원건축, 상수도, 인재양성 등의 다양하고 포괄적 부분에서 지원되었다. 중국의 투자는 중공업, 댐건설, 다수의 수력자원개발, 화력발전, 중공업, 정유, 전력전송, 고속도로 개발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중국기업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해외 경제무역 협력의 첫 번째 진출지 중 하나인 ‘시아누크 빌 경제 특구’에는 100개 이상의 중국기업이 정착하였으며 캄보디아 기간산업 협력에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너 국가이다.

2. 해양부 동남아의 해양갈등과 해양경제협력

해양부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동서무역의 중심축이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있어서, 20세기 중엽까지 식민지배의 각축장이었으며, 냉전시기에도 이데올로기의 경쟁지역이었다. 중국은 동남아 도서부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와 영해분쟁 중이며, 미-중 세력균형지로 중요성이 더해졌다. 19세기 식민지시대 이후 동남아 화인들은 이제(理財)에 밝았던 특성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경제적이반이 튼튼하며, 각국 내에서 화인 대기업을 탄생시켰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1974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013년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최초의 아세안 국가였으며, 중국을 “10 + 1”에 초대 한 최초의 국가이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초대된 최초의 국가였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해협 구간에 대한 취약한 세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탄항과 클랑항(중국의 항구연맹 항)을 적극 협력개발하려는 해양계획과 중국-싱가포르 북남 고속철도 개발을 통해 말레이반도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라카 해협을 장악한 미국에 비해 여전한 열세에 놓여있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뒤쳐진 말레이시아의 해양국가전략에 협력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말레이시아와 협력할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말레이시아를 해양부 국가 중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설정하고 항만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 새로 취임한 마하티르 총리는 나집 총리가 추진했던 동부해안철도(ECRL)와 사바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이는 말레이시아 내부 부패세력을 다루

고 대중국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레이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국익에 필요한 수준에서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말레이시아에 투자된 중국의 주요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항공협력관련 사업, 섬유업, 화학정유업, 태양광 에너지, 유리공업, 고무 나무재배 및 육종 프로젝트, 쿠알라룸푸르 MRT 지하철 2 호선 건설, 타워건축 프로젝트, 발전소등이 있으며 중국의 주요 국영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2018년 8월 20일, 중화인민은행과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양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3년간 유효한 양국 통화 스왑계약을 갱신했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싱가포르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경계하기는 하나, 미-중사이의 소통역할을 하면서 중국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중립적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능성은 열려있다. 중국은 싱가포르의 제1투자 대상국이며, 중국의 일대일로 핵심프로젝트와 함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적 상호연결시범사업 금융, 항공, 물류운송, 정보통신기술의 네트워크 연결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양국의 신규협력사업은 심층 하수 터널 프로젝트 구축, CMB 지하철 역 및 터널 C882 프로젝트 구축, China Railway First Bureau Group Co., Ltd., 싱가포르 T250A 트랙 프로젝트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건설(부동산) 및 지하철 건설에 비교 우위가 있는 중국기업들이 싱가포르 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창이 공항확장, 투아스 포트 건설, 남북 고속도로 및 메트로 아일랜드 라인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 재개 이후, 양국 간 경제 및 무역협력이 빠르게 발전되어 왔으며, 투자 및 엔지니어링 계약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협력건설을 제안했으며, 이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양자관계는 포괄적 전략파트너 관계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인도네시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년 연속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자이며, 2017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의 급증은 농업, 광업, 금속, 전기, 부동산, 가전 및 디지털 전자분야에서 확대되었다. 중국은 5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되어왔다.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와 함께 전략적 점(node)지역국가로 선정하고 있다. 새로 서명된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메가스타 위성 도시 건설, Yawan 고속 철도 건설, 인도네시아 통신인프라 구축, 발전소 건설, 교량건설 등을 위한 중국의 국영기업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과 협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해양경제 발전을 기하면서도 해양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가까워지기 힘든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필리핀은 타국과 비교하여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 1975년 중국과 필리핀의 국교수립 후 양국 무역액 꾸준히 성장하였다. 필리핀 중국 대사관에 90개가 넘는 중국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국영기업의 지사이며 독립법인은 많지 않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통화스왑 계약은 2010년 4월 18일에 만료되었고 새로운 통화 스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발전한 필리핀 화교기업은 오늘날 필리핀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2016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크게 활발해졌으며, 실용적 협력부분에서 강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문교류도 활발해 졌다. 양국은 농업, 에너지, 제조, 인프라 건설 및 관광 분야에서 큰 협력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일본정부의 원조(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36.06% 진행, 세계은행의 지원은 20.03%, 아시아 개발 은행의 지원은 19.12%를 차지)영향력이 큰 지역이며,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시작단계에 있다. 그러나 필리

편의 열악한 인프라사정으로 도로, 철도, 공항 및 항구는 확장 또는 개선사업에 개발잠재 수요가 많다. 중국은 필리핀의 칼리 바 댐 (Kaliva Dam)과 치코 강 (Chico River)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 수출제품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필리핀의 6,000 개가 넘는 제품에 무관세혜택이 적용되어 EU로 수출되므로, 중국의 우회수출국가로 협력기회가 열려 있다.

브루나이는 중국과 1991년 9월 30일 외교관계를 맺었다. 외교관계가 확립 된 이후 양국 간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5 년 4 월, 후진타오 당시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방문, 2011 년 11 월, 윈지 아바오 총리는 공식적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했다. 2013 년은 양국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위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했다. 중국통계에 따르면, 2017 년 중국 기업은 브루나이에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52 건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브루나이에는 연말 누계 4,028 명의 노동자가 브루나이에 파견되어 있다.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석유화학, 탱크건설 관련 사업, 정유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다. 특히 양국이 진행하는 "브루나이-광시 경제 회랑"은 물류 및 관광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상호 연결 및 건설을 강화하는 해운 항만협력 관련 사업으로 2013 년 9 월 브루나이 산업 자원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브루나이와 광시자치구 정부가 공동협력플랫폼을 설치하고 식량, 식품, 제약의, 운송 및 생산, 가공을 촉진하고 있다. 협력 각서는 2014 년 9 월에 공식적으로 서명되었다. 브루나이-광시 경제 회랑 (Brunei-Guangxi Economic Corridor)의 협력일환으로 2018 년 6 월 Brunei는 Guangxi에 7 개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Guangxi는 브루나이에 5 개의 투자 기업과 기관이 진출하거나 혹은 진출허가를 확보한 상태이다. 브루나이의 2017년 수출입 무역협력국 1위지위에는 일본이 있으며, 중국은 4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나이의 2017년 주요 수입국은 중국이 1위에 랭킹되어 있다.

V. 중국의 동남아 네트워크 전략의 성과와 한계

1. 중국의 동남아 일대일로의 성과

첫째, 인도차이나 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물류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교류로 인해 동남아시아 육지부 국가(CLMV)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중국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동서 교통망 확충에도 개발경쟁의 탄력을 받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중국과의 연선국가들의 무역액은 이미 3조 달러에 이르며 투자액은 5백억 달러를 초과했다. 중국기업은 이미 20개국 이상의 국가에 56개 경제무역 합작구를 건설하였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77개의 국가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 자본금이 일천억 달러로 중국 중서부 와 동남아시아 등 신 실크로드 경로 인접국을 중심으로 2016년에는 약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 17억 달러 (1조 9260억 위안)을 대출했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동남아 지역의 미·일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개발 사업에 중국이 적극적 도전장을 내밀으로써 동남아시아 개발과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 아세안 국가들의 부는 상대적으로 동남아 해양부 국가들에게 몰려있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저 개발국가들이 일

대일로 참여에 적극적인데 반해, 해양부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에 관망하는 자세이며 미국 및 일본과의 개발협력기회 모색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지정학적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가와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지정학적 거점은 중국 진출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충돌지역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발전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전자는 중국의 경제회랑이 지나가는 미얀마, 라오스 등의 발전이 예상되며, 후자는 베트남 지역을 꼽을 수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로 중국의 규모 있는 동남아 전략 협력국으로 부상하였다.

2. 중국의 동남아 일대일로 진행한계

첫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추진에 대해 ‘이익 재분배’에 대한 믿음과 불확실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지니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국에서 일대일로를 진행시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은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이익 재분배에 대한 ‘윈-윈’ 접근방식만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모호성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즉 사업의 규칙, 절차, 규범, 법률 제정 및 실행의 규범화 없이 중국의 관행을 주장하거나 힘의 우위를 이용해 사업을 전략화하는 상황이 개발협력에 대한 기술과 자본이 제공 가능한 국가들에게 중국의 사업을 관망적 자세로 임하게 하고 있다. 특히 투자국에서 중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중국의 중상주의적 행동, 과도한 부채부담의 조건⁷⁾, 수원국의 에너지 자원수출의 조건문제, 환경파괴, 사업추진경비관련 뇌물수수문제 등 일대일로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둘째, 동남아시아에서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일본과 사업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일본은 중국의 BRI와 AIIB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쉽: 아시아 미래를 위한 투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일본의 투자를 돕는 공적자금을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적극적 지원도 예상되는 바이다.

셋째, 미-중 무역대결로 인한 중국 내부적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추진 탄력성 저하이다. 중국 내 외환보유고 감소, 차관제공 여력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 기존 사업 추진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이 저하되고 있다. (민귀식 2019)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대중국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협상이 완료된 일대일로 사업을 잠정 중단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의 남중국해 분쟁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영역임인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국익수호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또한 동남아 미-중 세력균형 유지의 핵심공간이기도 하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공세적 자세를 유지하는 한, 남하하는 중국의 해양군사세력을 눈감아주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집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동남아 지역국가들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왔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7) ADB와 WB가 제시하는 차관이자과 비교하여 AIIB가 제시하는 차관 이자율이 높다.

중국의 공세적 행동, 군사력 강화, 분쟁문제에 대해 진전 없는 중국의 태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일본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성일 외, 2018.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권 5호
- 민귀식. 2019. “중국 해상실크로드와 항만네트워크 전략”, 『중소연구』, 제43권, 제1호 (통권161호)133~164.
- 박원호. 2016. “조약의 네트워크: 한중일과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아시아는 통한다.』, 경기:진인진
- 이충렬 외. 2017. 『포스트 차이나 아세안을 가다』, 서울: 디아스포라.
- 정의길. 2018. 『지정학의 포로들』, 서울: 한겨레출판.
- 정용넌, 류바오지엔. 2018, “일대일로와 중국의 평화적 부흥”,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세계화 전략 연구: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국제회의’ 발표자료, 2018.10.19.
- 로버트 D. 카플란 2017. 『지리의 복수』 서울: 미지북스.
- Derek McDougall. 2018. 『동아시아국제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 Xue Li and Li Yongke. 2017.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China's Southeast Asia Diplomacy” 『The Diplomat』 November 28.
- 吳迎新. 2014. 『环南中國海現代產業体系与經濟圈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商務部. 2018. 『對外投資合作國別(地區)指南』, 北京: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 鐘飛騰. 2019 “<一帶一路>的机制化建設与進展評估”, 漢陽大學 中國問題研究所 ‘一帶一路 建設与東北亞區域合作’ 2019年 韓中國際學術會議 2019, 04, 16
- 除奏法, 林勇灵. 2012. 『中國-東盟多元政治体制下的政治合作研究』,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 何广順, “堅持陸海統籌形成建設海洋强國的合力” 2018年12月01日, 中國社會科學网
http://www.cssn.cn/zx/201812/t20181201_4786688.shtml .

분과회의 10

동남아학 교육의 새로운 실험:
대학을 넘어 연대를 향하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성과와 과제

여운경(서울대)

1.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현황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인문학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고 ‘학문 경계를 넘는 융합적 인문학’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12년 설립됨.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학문적 관심을 덜 받았던 4개 지역을 전공분야로 구성.

- 4개 전공지역: 서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 학부 연혁
 - 2012. 3 학부 신설
 - 2012. 10 최초 전임교원 임용
 - 2013. 3 신입생 선발
 - 2015. 3 동남아시아 전임교원 임용
 - 2017. 2 최초 졸업생 배출
 - 2018. 3 대학원 개설
- 정원: 수시 10명 + 진입생(광역 입학생) = 15명 내외
- 2019년 2학기 기준 재/휴학생: 80명 내외
- 졸업생(2019년 8월 기준): 32명 (동남아시아 7)

2. 전공 선택 및 동남아시아 전공 운영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전공 선택 및 운영
 - 1학년때 지역별 전공탐색 과목 이수, 2학년때 전공지역 선택
 - 복수전공, 부전공생의 경우 대개 3학년때 전공 선택
 - 전공(공통과목 포함) 39학점 이수; 복수/부전공 필수
 - 전공별로 1개의 주이수언어 선택, 3과목 이상 이수 의무
 - 졸업논문 제출 필수(아시아연구지도)
- 동남아시아 전공
 - 동남아시아 전공 언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 1, 2학년 과목은 역사, 문화, 예술 위주로, 3, 4학년 과목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 학습 위주로 구성
- 3, 4학년 전공수업과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 수업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졸업 논문 주제 선정, 7학기 이후 졸업논문 작성

* 전공 관련 활동

- 외국어 카페 운영(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 해외문명탐방(2016년 인도네시아, 2017년 캄보디아)

● 동남아시아 전공과목 이수표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고(교양)
1	- 아시아문명론입문(전필, 공통) - 동남아시아문학의 이해	- 동남아시아문명의 이해(전공탐색)	
2	-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문명 - 동남아시아의 전통예술과 대중 문화 - 집중 타이어1 - 이슬람 세계 미술의 이해(공통)	- 동남아시아의 환경과 문명 - 집중 타이어2 - 아시아문명교류사(공통)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1
3	- 세계사 속의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문학 특강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1	-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 - 지역과 세계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2 -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공통)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2 베트남어1
4	- 베트남어 강독1 - 타이어 강독 - 동남아시아문명 특강 - 아시아연구지도(공통)	-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 베트남어 강독 2 - 아시아연구지도(공통)	베트남어2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해상무역(동양사학과)
- 동남아시아 근대와 제국주의(동양사학과)
- 개관베트남사(동양사학과)
- 동남아문화의 이해(인류학과)
- 동남아의 정치와 외교(정치외교학부)

3.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 전공의 성과

- 설립 자체의 의미: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문학적 교육 제공 목표, 학제간 접근을 통해 (동남)아시

- 아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훈련
-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제공
- 동남아시아 어학 수업 제공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초, 중급 과정 수업 개설. 마인어, 베트남어 고급 과정 개설 예정
- 서울대 내 동남아시아 관련 수업 확대: 위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외 서울대 내에 동남아시아 관련 과목이 거의 없음. 교내에서 동남아시아에 관심 있는 학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
-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전공생(학부 내 전공선택 및 복수전공, 부전공) 증가에 기여. 미래의 동남아시아 전문 인력 생산을 위한 기초 제공

4. 운영상의 문제 및 향후 과제

- 학교의 구조적 문제
 - 교수 인력 부족: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전공 전임교원 1명
 - 위의 문제와 관련, 수업 개설 자체가 어려움: 이수표에 있는 전공과목을 모두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학생 수 문제: 학부 정원 자체도 위낙 적고, 전공별로 나뉠 경우 수가 더 적어짐.
- 학부 교육 방향성 문제
 - 어학 수업 비중 및 선택/집중 문제: 시간과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어느 수준 까지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
 - ‘학제간’ 접근: 특정 분과학문이 아닌,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진 장, 단점에 대한 고민 필요
 - 학문후속세대 양성: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부생들의 관심이 급증한 것과 달리, 아직까지 대학원 진학(희망)자는 많지 않음. 학생/교수 수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경대 국제개발학전공의 성과와 과제

최호림 · 정법모(부경대)

1.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의 연혁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는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학과이다. 국제지역학부는 1995년 유럽학과로 출발하여 1997년에 국제지역학부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당시에는 국제지역학부 아래 유럽학 전공, 북미학 전공, 동북아 전공의 세부 전공이 있었다.

동북아 전공이 있던 시기에는 중국이나 일본어 등 동북아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부경대 내에 동남아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동북아 전공이 폐지되고 중국학 전공이 신설되었고 2017년에는 중국학과가 신설되어 분리되었으며, 국제지역학부는 국제학 전공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으로 나뉘었다. 학부 학생은 입학 후 1년 뒤에 양 전공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다.

2. 동남아관련 과목의 개설과 학과 개편

동남아시아관련 강의는 2015년도 2학기에 부임한 최호림 교수가 담당한 <국제개발협력과 동남아시아> 과목이 처음이다. 그리고 2016년도 2학기 와 2017년 1학기에는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가 전공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2017년 2학기에 <동남아시아의 이해>과목이 세계화 역량 과목으로 편성되어 모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과목이 되었다. 부경대에서는 2016년까지는 교양교육과정이 공통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2017년도부터는 인문 역량, 인성 역량, 세계화 역량으로 구분되어 각각 8학점, 2학점, 2학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끔 하고 있다.

	학부/대학원	교과목명	교수명	과목구분
2015년도 2학기	학부	국제개발협력과 동남아시아	최호림	전공선택
2016년도 1학기	학부	초급베트남어	최호림	선택교양
2016년도 2학기	학부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최호림	전공선택
2017년도 1학기	학부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최호림	전공선택
	학부	중급 베트남어	최호림	전공선택
	대학원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최호림	전공선택
2017년도 2학기	학부	동남아시아의 이해	최호림	세계화역량
	학부	베트남어 회화	최호림	전공선택
	학부	아세안과 세계	Utai Uprasen	전공선택
	학부	아세안 정치와 경제	Utai Uprasen	전공선택

2018년도 1학기	학부	동남아시아기업과 시장	Utai Uprasen	전공선택
	학부	동남아시아지역연구특강	정법모	전공선택
	학부	국제지역언어 I, II, III, 특강		전공선택
2018년도 2학기	학부	동남아시아의 이해	최호림	세계화역량
	대학원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최호림	전공선택
	학부	국제지역언어 I, II, III, 특강		전공선택
		아세안과 세계	Utai Uprasen	전공선택
		아세안 정치와 경제	Utai Uprasen	전공선택
2019년도 1학기	학부	동남아시아 기업과 시장	Utai Uprasen	전공선택
	학부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최호림	전공선택
	학부	국제지역언어 I, II, III, 특강(총4과목)		전공선택
	대학원	동남아시아의 종족과 종교	정법모	전공선택

최호림 교수와 함께 2017년 2학기부터는 아세안관련 과목도 국제지역학부에 개설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 부임한 Utai Uprasen 교수는 태국 출신의 경제학 전공자로 유럽학 전공으로 부임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수업을 주로 개설하였으나 2017년 2학기부터 아세안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동남아 관련 언어 수업도 최호림 교수의 부임한 이후, 2016년 1학기부터 시작되었다. <초급 베트남어>로 시작한 베트남어 수업은, 2017년도 1학기에 <중급 베트남어>, 2017년도 2학기에는 <베트남어 회화>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는 국제지역언어라는 과목으로 재편되었고 베트남어와 스페인어 수업이 <국제지역언어 I>, <국제지역언어 II>, <국제지역언어 III>, <국제지역언어 특강> 이라는 이름으로 매학기 개설되며 학생들은 단계별로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국제지역학부 학생은 국제학전공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에 상관없이 베트남어와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계별 <국제지역언어> 수업 4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2014년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과 2016년의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에 선정되면서 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20살의 어엿한 성인인 국제지역학부는, 나날이 성장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발맞추어 2016학년도부터는 기존의 지역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더불어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국제개발협력 전공을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연구는 유럽·북미학 전공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분과학문영역을 지역연구와 결합시켜 오신 학부 교수님들과 함께, 한편으로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변화를 더불어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소개 브로셔 중>

국제지역학부가 포함된 지방특성화사업에는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개발협력학 관련한 교과목의 개발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특히 개발협력관련한 중점 협력국으로서 동남아시아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부상함으로써 신규 교수로서 2015년과 2016년, 동남아시아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공자가 채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2015년 2학기에 개설된 <국제개발협력과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교과과정 재편의 서막을 보여주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부경대의 CORE사업은 크게 글로벌지역학 모델, 인문기반융합전공 모델, 기초학문심화 모델의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특히 글로벌지역학 모델 사업을 통해 국제 지역학부 내의 유럽학, 북미학 전공을 국제학 전공으로 개편했으며,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을 신설했다. 국제개발협력학 전공이 신설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화하게 되었다. CK와 CORE사업을 통한 변화에서 지역학과 현지어 교육이 중심이 되면서 2016년도 신입생부터는 제2외국어로서 현지어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2016년 부경대 국제지역학부에 공식적으로 개설된 동남아 관련 수업은 다음과 같다. <아세안과 한국>, <아세안통상과 금융>, <아세안정치와 경제>, <아세안지역연구특강>, <동남아시아종족과종교>, <아세안의관광과대중문화>, <베트남근현대사>, <아세안과 세계>, <동남아시아사회와문화>, <동남아시아역사와지리>, <동남아시아문학과예술>, <베트남문화의이해>, <베트남어통번역연습>, <동남아시아해양문화>, <베트남어회화> 등이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실제 개설된 과목은 위의 표 내용과 같다.

2. 동남아학습 성과

1) 대학원과정과 동남아지역전공자의 배출

국제지역학부의 재편과 함께 신설된 과정은 대학원에도 있었다. “글로벌지역학협동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한국어로 개설되지만 특히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석사논문 작성을 권장하고 각 지역 관련된 수업 중심으로 과목이 개설되었다. 자연스럽게 지역전공자가 증가하면서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전공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6년에 개설된 이래, 석사과정에는 2명의 한국 학생과 2명의 동남아 출신 학생이 동남아 관련 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박사과정에는 1명의 한국 학생이 동남아관련 논문을 준비 중이다.

2) 동남아 언어 및 학생교류에 대한 관심

베트남어가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 중의 하나가 됨으로써, 베트남 관련 단기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호치민, 하노이 등에 학교간 MOU가 체결된 학교를 중심으로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간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교육부가 진행하는 아세안 대학과의 학생교류프로그램인 CAMPUS ASIA- AIMS 프로그램에 부경대학교가 선정된 이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총 10명이 파견되어 8월 또는 9월부터 학점을 취득할 예정이다. 베트남에는 10명 중 7명이 파견되는 등,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베트남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과 졸업을 위한 필수 언어 중의 하나가 베트남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내에는 YSM(Young Southeast Asian Masters)이라는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다. 2016년 시작된 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남아관련 서적이거나 영상물을 통해 전문 지식 및 대중문화를 배우는 장으로 기여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에 학생들 사이에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3. 부경대 국제개발협력학과정의 과제

짧은 기간 아래 제도적 개편과 맞물려 동남아 관련 교과목이나 전공 학생이 급속히 성장하긴 했지만, 이 관심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당면한 과제가 있다.

첫째, 동남아 관련 지식 및 언어가 실제 취업 및 창업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 스페인어와 비교하여 베트남어를 선택하는 학생은 적다. 실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개발협력 관련 직업이나 현지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력서에서 인정되는 외국어로서 스페인어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언어로서 베트남어가 배우기 쉽지 않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경우 베트남 언어 수업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식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역학으로서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CORE 사업 등을 통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금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부 출신의 학생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으며, 이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도 아주 크지는 않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 대학이 겪는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 역시 대학원 진학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동남아지역학 중심의 학부 교육 협력 가능성: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 사례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1. 요약

2011년. 동아시아·다문화 교육단 설립, ACE사업의 지원 수주.

- 전제성, 박동천(정치외교학과), 이정덕, 채수홍(고고문화인류학과), 임경택(일본학과), 설동훈(사회학과) 교수 등 6인 참여.
- 기존의 인도네시아어 비교과 강의에 베트남어 강의 추가.

2014년.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출범.

- 과목 추가 개설. 동남아 강의과목 7개 연계(정치학, 인류학, 사학).
- 전공필수 1개 과목 팀티칭 + 야간강의 방식으로 운영. 담당 TA 배치.
- 매년 1천만원 내외의 지원금 사용.

2019년.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여름캠프 개최.

2. 참여학과 및 교수진

- (1) 참여학과: 정치외교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일본학과, 사회학과)
- (2) 참여교수: 8인 (채수홍, 중국연구 지리학자 이강원 > 서울대 이적)

이름	학과	지역/주제
전제성	정치외교학과	동남아
박동천		정치사상
이선우		러시아
이정덕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이론
임경택		일본
박지환		일본
전의령		다문화
설동훈	사회학과	이민정책

3. 협력기관 확보

체결기관	체결일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11.01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2014.12.0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12.29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흥지역연구단	2018.05.25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원	2019.02.28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2019.03.28

4. 교육과정표

*적용대상자(2018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

학 년	학 기	학수 구분	과목명(영문)	학 점	강 의	실 습	개설 학과
2	2	전필	동아시아·다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 & Multiculturalism)	3	3	0	정치
		전선	민족주의특강(Theories and Practices of Nationalism)	3	3	0	정치
		전선	동남아시아정치론(Politics of Southeast Asia)	3	3	0	정치
		전선	다문화사회론(Sociology of Multicultural Society)	3	3	0	사회
		전선	문화와권력(Culture and Power)	3	3	0	인류
3	1	전선	동아시아의삶과문화(Life and Culture in East Asia)	3	3	0	인류
		전선	동서양의문명교류(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3	3	0	인류
		전선	이민정책론(Immigration Policies)	3	3	0	사회
		전선	인도네시아의언어와정치(Language and Politics of Indonesia)	3	3	0	정치
		전선	중국지리(Geography of China)	3	3	0	지리
		전선	동남아시아의역사와문화(History and Culture of the Southeast Asia)	3	3	0	사학
		전선	현대일본사회의이해(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3	3	0	일본
	전선	중국정치론(Politics of China)	3	3	0	정치	
	2	전선	일본지리와생활(Japanese Geography and Lifestyle)	3	3	0	일본
		전선	일본사회와동아시아(Japanese Society and East Asia)	3	3	0	일본
전선		베트남의언어와문화(The Language and Culture of Vietnam)	3	3	0	인류	
전선		동아시아역사와문화(History and Culture of East Asia)	3	3	0	사학	
4	1	전선	일본경제의이해(Understanding of Japan Economy)	3	3	0	일본
		전선	동아시아문명의발생과전개(Rise of East Asian Civilization)	3	3	0	인류
		전선	해외지역연구연습(Practice in Area Studies)	3	3	0	정치
		전선	중국현대정치사(Current Political History of China)	3	3	0	사학
		전선	일본경제와글로벌산업(Japan Economy and Global industry)	3	3	0	일본
		전선	북한정치론(Government & Politics of North Korea)	3	3	0	정치
		전선	다문화교육의이해(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3	3	0	교육
4	2	전선	동아시아와 아세안(ASEAN and East Asian Regionalism)	3	3	0	정치
		전선	동북아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3	3	0	정치
		전선	중국경제론(Chinese Economy)	3	3	0	경제
		전선	다문화사회와복지(Multi-culture Society and Welfare)	3	3	0	사복

※ 붉은 글씨는 전공필수과목(전공필수과목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이수)

5. 성과 및 과제

연계전공 참여 학과인 정치외교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일어일문학과 학생들 외에도 경영학부, 무역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지미카터국제학부, 프랑스학과, 농생물학과 등 다양한 학과 소속 학생들이 동아시아·다문화전공을 이수하고 졸업.

- 출범 후 4년 사이에 졸업생 65명을 배출
- 2019년 5월 현재 23명의 학생이 등록 중

동남아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인원, 2014-2018년

과목명	개설학과	수강인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동남아시아정치론	정치외교학과	25	-	22	40	45	132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사학과	40	40	40	38	40	198
동남아인의 삶과 문화	고고문화인류학과	25	12	-	-	-	37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정치	정치외교학과	25	14	20	27	20	106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	고고문화인류학과	28	9	14	-	38	89
동아시아와 아세안	정치외교학과	11	21	11	-	15	58
동아시아·다문화의 이해**	정치외교학과	15	11	18	19	32	95
계		169	107	125	124	190	715

* 2018년부터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로 과목명 변경.

**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 필수과목으로 동남아 관련 교육이 1/3 포함된 과목.

동남아언어 무료강좌 수강생 수: 최근 5년간(2014-2018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인도네시아어	10	15	20	16	31	92
베트남어	16	11	61	40	56	184
계	26	26	81	56	87	276

정치외교학과뿐만 아니라 상대(경영학부, 경제학부, 무역학과), 사범대(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등), 사회대(행정학과, 심리학과, 등), 공대(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고분자나노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과 등), 농대(농생물학과 등), 인문대(스페인중남미학과, 철학과 등), 자연대(수학과 등) 33개 학과 학생들이 참여.

동남아 언어교육의 새로운 실험: 여름캠프 추진 성과와 과제

전제성(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여름캠프”(SEASK: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School in Korea)가 2019년 7월에 2주간 개최되었다. 동남아언어여름캠프 추진 과정을 기록하고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더 나은 캠프를 위한 발전 과제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1. 추진

- 2.18. 부산외대에서 전제성, 김홍구, 배양수 교수 3자 회동. 부산외대가 전북대에 여름방학 집체교육 방식으로 동남아언어 강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합의.
- 2.21. 전북대 김동원 총장의 추진 승인 및 비용 지원 약속 확보.
- 2.28. 부산외대 특수외국어교육원과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 간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겨울 방학에 힌디어, 아랍어, 터키어 초급 강의 추가 합의.
- 3.01. 전북대 기획처장, 언어교육원장, 사회대학장 접촉하여 주관기관문제 협의 시작.
- 3.20.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 참여교수진에게 계획 안내 메일 발송
- 3.21. 동남아지역연구 관련자들에게 여름캠프 참여 요청 메일 및 공고문 발송. 26일에 외부대학 참여 요청 메일 추가발송. SEASK 전국네트워크 구성안 제시. 16개 대학 20개 교육과정이 참여의사 밝힘.

서울대 인류학과(오명석, 채수홍) 및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여운경),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최경희), 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강희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서보경) 및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김형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신재혁) 및 세종캠퍼스 경제학과(이충열), 경희대 공공대학원(손혁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김용균), 성공회대 사회과학부(박은홍), 인하대 사회교육과(김지훈), 강원대 문화인류학과(김형준), 경상대 정치외교학과(황인원), 창원대 국제관계학과(정연식, 서지원), 부경대 국제지역학부(정법모), 목포대 문화인류학과(홍석준), 조선대 무역학과(이종하), 전주대 행정학과(전대성), 전남대 정치외교학과(김재관) 및 인문대학(김양현).

- 3.27.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참여 결정. 서울대 인류학과 BK+사업단과 교류협정 체결.
- 3.28.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장과 총장간 협의로 사회과학대에서 주관하기로 결정.

- 4.01. 수강생 모집: 접수용 구글폼 개설. 전북대 교문 전광판, 교내 TV, 사이트에 수강생 모집 홍보 시작.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회원 대표(이정우)에게 연구회원들(대학원생들)에게 안내할 것을 부탁. 이튿날 포스터 제작하고 타대학 참여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전달.
- 4.03. 한국동남아연구소에 한아세안협력사업 관련 협조요청. 답변을 듣지 못함.
- 4.15. 타지 수강자 숙박 조정용 구글폼 제작 및 안내 시작.
- 4.18. 도민 수강생 모집 공고문 및 협조공문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발송.
- 4.28.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회원 대표에게 연구회원 지원 상황 문의했으나 지원자가 없다는 답변.
- 5.01. 1차 수강신청 마감. 페이스북 게시. 참여 교수진 및 수강신청자에게 안내 메일 발송.
- 5.02. 다문화가정 자녀 모집을 위해 보도협조문 발송하여 전북일보 게재.
- 5.02. 전북대신문에 여름캠프 관련 기고.
- 5.15. 도민 수강자 접수 마감.
- 5.22. 수강신청 현황 공개.

[표 1] 수강생 모집현황(2019.05.21.)

대학교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계
전북대학교 (108명)	인문대	30	4	-	34
	사회과학대	27	2	-	29
	농업생명과학대	11	-	-	11
	상과대	10	-	-	10
	글로벌프런티어칼리지	7	-	1	8
	공과대	6	-	-	6
	자연과학대	3	-	-	3
	생활과학대, 환경생명자원대	4	-	-	4
	간호대, 수의과대	2	-	-	2
	동남아연구소	-	-	1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인문대	1	5	-	6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11	-	-	11
창원대학교	인문대, 사회과학대, 공대	4	-	-	4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4	-	-	4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	3	-	3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2	-	2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	-	2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2	-	-	2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	-	-	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세종캠퍼스)	1	-	-	1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	1	-	1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	-	1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원	-	-	1	1
전북도민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담당자	-	-	5	5
계		127	17	8	152

* 기타: 주민, 고교생, 연구원

[표 2] 수강생의 캠프 인지 경로

경로	인원	비율
대학 사이트 공지	23	38.3
교수 안내	22	36.7
오프라인 포스터	10	16.7
페이스북	3	5
기타(지인 소개)	2	3.3
계	60	100

[표 3] 수강 동기 조사 결과

동기	인원	비율
다문화 소양 함양	17	28.3
현지 파견	12	20
취업 역량 강화	10	16.7
국제 이해 증진	10	16.7
학위 논문 작성	6	10
대학원 진학	1	1.6
기타*	4	6.7
계	60	100

* 흥미, 관심, 언어학습, 직무상 필요.

주의: 대학원생은 학위논문작성이 54.5%로 압도적. 이어서 다문화 소양 함양(18.2%).

- 캠프 참여 응답자 중에서 동남아 여행 경험자 비율 (40/60, 66.7%)
- 캠프 참여 응답자 중에서 동남아 교과목 수강 경험자 비율 (30/60, 50%)
- 캠프 참여 응답자 중에서 동남아 현지 자원봉사 경험자 비율 (15/60, 25%)
- 캠프 참여 응답자의 여성 비율 (46/60, 76.7%)

6.05. 위스컨신대 매디슨 캠퍼스 정은숙 박사가 전북대에서 SEASSI 관련 발표.

6.20. 수강신청 2차 마감 및 부산외대에 수강생수 통보.

6.24. 수강신청자 안내문, 강사진 안내문 발송.

7.08. 플랜카드 및 안내포스터 부착 시작.

7.12. 강의실 플랜카드 부착, 교재 도착.

7.14. 강사진 도착.

2. 진행

[표 4] 일정

7월 15일(월)	16일(화)	17일(수)	18일(목)	19일(금)
9:30-12:00 언어강의				
12:00-13:00 점심				
개회식	13:00-15:30 언어강의			
특강 1: 메콩				
15:40-17:30	특강 3: 호치민	영화상영		

특강 2: 이슬람		베트남 (놀지)	태국	태국 (놀지)	인도네 시아	미얀마 (놀지)	싱가포르
18:00-20:00 주최 기관 회의	대학원생 교류의 밤	놀지 토크 1: 베트남 봉사		놀지 토크2: 동티모르 문화		놀지 토크 3: 인도네시아 바틱	
7월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9:30-12:00 언어강의							
12:00-13:00 점심							
13:00-15:30 언어강의							
16:00-17:30 특강 4: 베트남	특강 5: 해상 실크로드	특강 6: 싱가포르의 탄생		특강 7: 문신 문화		수료증 수여 및 포상	

[표 5] 강사 편성 및 분반

분반	강사	소속 직위	주요 경력
베트남어 (초급1반)	구본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초빙교수	베트남사회과학원 석사, 박사. 동명대, 대구가톨릭대 강사
베트남어 (초급2반)	이은정	동서대학교 강사	부산외국어대 학사, 석사(베트남어) 세종어학당 강사, 각종 기업 강의
인도네시아어 (초급반)	장상경	부산대학교 강사	한국외대 석사, 부산외대 박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인도네시아어 (중급반)	최신영	EBS 강사	EBS라디오 진행자, KBS 작가, 입에서 톡 인도네시아어 저자
태국어 (초급반)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	국립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한국태국학회 회장
	Patcharapan Katakool	부산외국어대 교환교수	Kasetsart University 인문대학장보
미얀마어 (초급반)	강민지	국립싱가포르대 박사과정	부산외국어대 학사, 석사(미얀마) 한국동남아학회 총무간사
크메르어 (초급반)	정연창	부산외국어대 강사	캄보디아왕립학술원 박사(언어학) 여행 필수 캄보디아어 저자

* 동남아 이해증진 자원봉사 특강 주제 및 연사

- 1) 메콩, 전장에서 시장이 된 지역 / 엄은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2) 동남아 이슬람 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반응 / 이지혁(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3) 베트남의 역사와 호치민 / 육수현(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 4)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의 이해 / 백용훈(서강대 동아연구소)
- 5) 해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 강희정(서강대 동아연구소)
- 6) 싱가포르, 식민도시에서 다인종 국민국가로 / 김종호(서강대 동아연구소)
- 7) 동남아의 문신 문화 / 부경환(아시아문화원)

* 책방놀지(인문학사랑방) 토크 주제 및 연사

- 1) 베트남과 한국, 평화와 의료활동 / 이성오(베트남평화의료연대)
- 2) 동티모르의 문화와 종교 / 유민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3) 인도네시아, 바틱으로 보다 / 이지혁(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표 6] 수강신청 및 수강 인원 변동

일시	1차모집	2차모집		개강직전*	수강	수료
	4.30	5.22	6.25			
인원	133	152	147	125	93	74

* 출석부 인원.

[표 7] 언어분반별 수강, 수료, 이수비율 인원

분반	출석부	수강*	수료	이수비율(수료/수강, %)
베트남어 초급 1반	27	19	16	84.2
베트남어 초급 2반	25	16	15	93.7
인도네시아어 초급반	31	21	12	57.1
인도네시아어 중급반	14	9	5	55.6
태국어 초급반	19	16	14	87.6
미얀마어 초급반	9	6	6	100
캄보디아어 초급반	8	6	6	100
계	125	93	74	79.5

* 1회 이상 강의 출석 수강생 수.

[표 8] 자금사용내역

항목	내역	금액	분담기관/ 분담금액	
강사료	3,000,000원 × 7인	21,000,000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원 23,900,000*	
교재비	10,000원 × 150인	1,500,000		
강사 일비	20,000원 × 7인 × 10일	1,400,000		
강사 숙박비	43,000원 × 7인 × 10일 + 운영관계자 숙박비	3,385,000	전북 대학교 (원)	총장 예산: 7,500,000 사용: 5,715,600 잔액: 1,784,400
강사 간식, 생수	12,000원 × 2box	48,000		
강사 여비	49,800원 × 3인 43,200원 × 1인 117,600원 × 1인	310,200		
강사 주차권	2,000 × 32장	64,000		
강사 점심	7,000원 × 7인 × 10일	490,000		
홍보비	플랜카드 428,400, 웹사이트 보강 440,000	868,400		
선물(티셔츠)	5,500원 × 100장	550,000		
인건비(TA)	10,000원 × 25시간 × 1인 10,000원 × 80시간 × 1인	1,050,000		
식비	대학원생 교류의 밤	120,000		
회의비	강사회의	409,000		
후원	실무자 회의	350,00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450,000	
	대학원생 교류의 밤	200,000		
	강사출장비	900,000		
동시행사	영화 상영 및 놀지 토크	3,000,000	책방 놀지	
합계		32,644,600		

* 추정액

** 전북대 지식공동체(교수동아리) 지원사업.

3. 과제

(1) 지속가능성

- * 한국동남아학회 교육위원회 구성 및 전북대의 간사인력 제공
- * 한아세안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 지원사업 수주필요성
 - 전북대 운영비용 마련(TA 인건비, 회의비, 홍보비 등)
 - 타지 출신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기숙사비 지원.

(2) 수강생 불만 개선 및 교수법 향상

- 강의관련 불만사항(주관식)
 - PPT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강의자료 사전 공유 필요. 출결 및 지각생 관리 강화 필요. 특정 강사의 “시간 때우기 식의 수업”(?) 문제 지적.
- 미국의 SEASSI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바는 교수법 연구

[표 9] 수강생 만족도 조사결과(전북대 측 온라인 조사 26명 응답, 5점 만점)

언어반 만족도 평균	4.06
교육 수준과 방법	4.2
교재	4.44
총 강의시간(50시간)	3.92
하루강의 시간(5시간)	3.16
본인언어능력 신장	4.32
다음번 강의 참여 희망	4.32

(3) 수강생 출결 안정성 및 동기부여

- 등록비 징수 및 환불 방안: 5만원
- 강의시간조정: 첫 강의 오후 시작, 마지막 강의 오전 종료(45시간), 오전 강의 10시 시작, 점심시간 확대, 지역이해 특강 축소.
- 학생들 사이의 교류 기회 제공
- 동남아 현지유학생들과의 교류 기회 제공
- 동남아언어능력평가 인증시험(부산외대에서 현재 베트남어 가능) 개발.

분과회의 11

동남아의 사회문화적 특성:
대중적 글쓰기를 위한 모델

동남아의 사회문화: 정치, 종교, 종족문제를 중심으로

홍석준(목포대)

I. 머리말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사이에 거대한 횡목처럼 놓여 있는 동남아시아는 16세기 초반부터 서양인들의 본격적인 관심 대상이 되었고 20세기 중반까지 그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이 지역은 세계정치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고 동서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생산성으로 오래 전부터 세계 동서무역의 한 중심축을 이루어 왔다.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동남아시아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정치문화를 종교와 종족(민족) 또는 종교와 종(민)족문제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동남아시아의 정치문화를 종교와 종족문제와 관련시켜 동남아시아 외부의 시각뿐 아니라 내부의 관점, 그 전체적 구조뿐 아니라 개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오랜 기간 서양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는 그동안 식민사관적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아 전근대사의 경우 종종 인도문화 혹은 중국문화의 아류로 이해되었으며, 근대사의 경우 서양인들이 주도한 식민지 역사와 동일시되었다. 이에 반해 여기에서는 동남아시아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강한 문화적 영향을 받았지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내재적 문화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동남아시아의 고대사와 근대사에서 외부적 영향에 의해 일어난 다양한 변화들을 중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동남아시아 역사에서 내재적 문화전통에 바탕을 둔 독창성이 지속되었다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Chong 2008). 또한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는 관점과 관련된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 내지 유사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동시에 개별적 특수성과 지역 및 국가 간의 차이에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라는 숲의 전체 모습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이 지역의 다양한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은 유럽 중심적, 동아시아인들은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을 해왔다.

II. 동남아시아 정치와 종교, 종족문제

1. 일반적 배경

위도로 35도 이상, 경도로는 거의 50도에 걸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엄청나게

다양한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다. 만약 그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해안, 강변, 호수 주변 등 저지대에 밀집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동남아시아 지리와 정착패턴의 일부만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무성하고 풍요로운 성장의 지대라는 개념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인구 압력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땅이 비옥하며 경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말레이시아의 밀림은 도로와 마을들에 의해 중단되지 않고 지평선으로 뻗어 있다. 여기에 풍부한 원목이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충분할 만큼의 농업적 팽창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은 없다. 동남아시아는 미얀마의 건조지대로부터 이리안자야(서 뉴기니)의 눈 덮인 산까지 그리고 베트남 북서부의 초목 구릉지대에서부터 필리핀군도의 가파른 계단식 논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으로 농업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복합적 세계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조적인 면 중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이다. 대도시의 빠른 팽창은 변화와 발전의 전망이 보이지 않던 농촌을 등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 결과다(오스본 1999: 24). 부와 빈곤, 개발과 미개발,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회적 대조들은 19세기 산업발전의 혜택을 입은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보다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획득한 이래 거의 모든 생활의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통치자들이 봉착했던 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로 파악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태국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시기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바 있다. 동남아시아의 식민시대를 논한다는 것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사회문화에서 식민주의적 요소에 얼마만큼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과거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에 관해 썼던 비동남아시아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역사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전문가들은 비록 이 지역에서 권력과 부를 추구했던 유럽인들 및 여타의 비(非)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자체 발전의 중요성과 그 발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역할을 재인식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려는 지역연구의 문외한이나 초보자들이 지리적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광대하고 이 지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그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 위해선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를 실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인구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오스본 1999: 11-12).

하지만 국가 면적과 인구 등의 측면에서 크기와 규모 그 자체가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과거 다른 나라들이나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동남아시아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시아 각국이 대내외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든 간에 아직도 동남아시아의 어떠한 나라도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과 같은 유럽 세력이나 20세기 후반의 초강대국들과 같은 세계적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규명해야 할 중요한 의문점이 있다. 즉 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적 국가들이 부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교적 작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그 해답은 문화적으로 서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동남아시아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제기하고 있다. 이때 크기와 규모의 문제가 새삼 중요한 화두로 재등장하는 것이다(오스본 1999: 12).

오늘날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의 11개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현재 지극히 자연스러운 지리적 구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개념은 그러나 학문적으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식민지배라는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라는 명칭이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결정적 계기는 1943년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과의 전쟁을 위해 설치된 “동남아시아 사령부(South-East Asian Command)”였다. 동남아시아인 자신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서양인들의 현실적/전술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에서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은 식민지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조흥국 1997: 293-297). 이것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종족적 복합성, 그리고 정치(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문화적 공통성과 역사적 경험의 상관성이 발견된다(조흥국 1997).

2. 역사 속의 정치와 종교, 종족문제

13세기에 동남아시아 대륙부와 도서부는 모두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대륙부의 경우 크메르의 약화와 수코타이 왕국의 성립, 버마 파간 왕조의 몰락 등이 있었고, 14세기 중엽에는 아유타야 왕국이 새롭게 등장했다. 도서부의 경우 대승불교 왕국인 스리비자야 왕국이 점차 약화되면서 13세기말부터 힌두교 세력인 마자빠히트 왕국이 일어났다. 그러나 15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확산되면서 마자빠히트 왕국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슬람의 동남아시아로의 유입이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늦어도 13세기말부터 이슬람이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 이슬람 전파는 아랍과 인도의 무슬림 상인들, 특히 구자라트(Gujarat) 지역 출신의 인도 무슬림 상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도 배경의 동남아시아 이슬람은 이전의 토착 신앙들과 결합되고 관용을 지니는 등 근본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15세기에 이슬람이 점차 대중 종교운동을 확산되면서 말레이 세계의 이슬람화가 점차 확대되어 15세기말까지는 말루꾸와 필리핀의 군도지역까지 이슬람화(Islamization)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서구세력이 들어오면서 동남아시아는 이슬람지역이건 불교 영향을 받은 지역이건 19세기까지 태국을 제외하고 모두 서구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1511년 향료무역 참가와 기독교 전파를 내세운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서구의 진출은 스페인의 필리핀 점령, 17세기 네덜란드의 말레이세계 장악 등으로 이어졌고, 19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식민지건설에 뛰어들었다.

이런 식민지 경험을 통해 동남아시아사회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식민지 지배는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국경을 결정짓는 과정이었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인들의 정체성과 그에 기반한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전파, 보급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앤더슨 2018). 문화적으로 서구의 지배는 원래 중층적이던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지역의 도시와 국가는 불교와 힌두교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사료에 의하여 동남아시아 고대국가와 도시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밀집된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전경작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전 경작으로 인한 잉여 생산은 인구밀집화를 더욱 촉진하고 사회 건설이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력과 다수 인구가 왕국이 탄생하였고, 후에 이러한 왕국들이 해상무역에 관심을 돌림으로 인하여 중국과 인도와의 접촉의 기회를 얻어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라카 왕국의 출현과 쇠락이다.

떠마삭(Temasak, 싱가포르의 옛 명칭)의 통치자는 타이와의 대결에서는 승리하나 자바인들에 의해 패하자 말라카로 이주하였다. 14세기말 말라카는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섬을 잇는 지협에서 최고의 항구도시였고, 수마트라와 말레이 반도의 빠항(Pahang)으로의 영토 확장에 성공함에 따라 말라카는 중국과 인도사이의 해양무역에 대한 지배권을 얻어 중심 항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인도의 구자라트 출신 상인들의 이슬람의 영향으로 지배자들은 이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이점을 고려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함에 따라서 정치 경제 부문들이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불교와 힌두교적 요소의 영향이 의례행사와 왕의 대관식에서 그 영향력이 곳곳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와 힌두적인 영향이 남아있는 관계로 미얀마와 몬 타이 크메르 왕국과 유사한 의식을 보존하고 있었다하더라도 말레이 인들은 이슬람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고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왕권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정화의 원정기록과 중국의 사료에는 말라카(Malacca, Melaka)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 풍습과 도시 계획, 수출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한 기록과 왕과 고위 관료들이 해외 무역을 총괄할 수 있고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강의 하류와 상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기반을 확립하여 해외무역을 지배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 유럽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포르투갈의 진출로부터라고 볼 수 있다. 포르투갈인들은 그들이 페르시아 만에서 말라카 해협(the Straits of Malacca)을 통해 몰루카 제도까지의 항로를 발견하고 이곳에 그들의 요새를 구축하는 일이 무어인들에 대한 십자군 운동의 일환이고 아시아에서 이슬람의 확산을 막는 것이 신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믿었다. 이러한 포르투갈인들은 이전 무슬림들이 하던 동서무역을 그들이 관장하고 심지어는 유럽세력 중에서도 자신들이 이를 독점하려고 했다. 포르투갈인들이 말라카(Malacca, Melaka)를 점령하고 동서간의 향료무역을 독점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나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중국과 교역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16세기, 스페인도 향료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척하기 위해 태평양을 지나 동남아시아까지 이르게 된다. 스페인은 멕시코와 필리핀의 연계 통치, 무역을 한다. 그러나 유럽에서 동남아시아 향료제도까지 짧은 거리의 항로를 점하고 있는 포르투갈은 굳이 남미와 연관 무역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라고사(Saragossa)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은 남미에서 브라질 이외의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스페인은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을 제외하고 포르투갈의 동남아시아 무역 독점권을 인정한다. 포르투갈 문화 중 동남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주로 여성의 의상, 민속춤, 음악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포르투갈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포르투갈인들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이 지역에서의 서구 세력으로 네덜란드

가 부상한다. 이는 이들이 향료의 주요 소비국으로 포르투갈을 통해 비싸게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향료를 얻으려는 노력으로 동남아시아로의 향로개척을 위해 노력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이취하자 이에 대한 대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영국도 포르투갈인들과 스페인 세력에 대항하여 네덜란드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 등장한다. 게다가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해양세력으로 세력 팽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네덜란드인들은 도서 동남아시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17세기에는 동남아시아 진출까지는 역부족이라고 느끼고 인도무역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변화, 즉 도거뱅크 전쟁, 나폴레옹의 홀란드 점령, 영국에게 빼낭(Penang) 할양, 영국령 인도에로의 버마인들의 침입이라는 상황변화로 인해 점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영국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네덜란드에 나폴레옹의 홀란드 침공으로 네덜란드는 잠시 동안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관리할 것을 부탁, 영국이 이 지역 관리를 도맡게 된다.

1811년에서 1816년까지 영국이 자바, 수마트라, 말라야를 관리하다가 네덜란드가 다시 돌아오자 평화적으로 이들에게 돌려준다. 이 때 래플스(Raffles)가 총독으로 있는데 그는 1819년 싱가포르를 개척하며 이때 쾨다(Kedah) 왕국의 술탄이 태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영국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그 대가로 빼낭을 주게 된다. 이리하여 영국은 해협정착지를 형성하고 거점무역이 발전한다. 1824년 영화조약을 통해 동남아시아 해양지역에서 각각의 영향권의 경계를 정한다. 유럽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18세기말-19세기 초에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며 이는 도서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까지 이르게 된다.

19세기 초에 이르면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의 영향력,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영국은 값싼 원료 공급지와 넓은 시장이 필요해지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차 제국주의적 성향을 띤 식민지배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 영국은 버마 점령과 함께 서구에 개방적인 태국에도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하여 일찍부터 베트남과 관계를 맺어 선교사 파견 등의 활동을 한다. 베트남이 초기와 달리 점차 프랑스와 스페인의 선교활동을 탄압하자 프랑스는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베트남에 응징전을 감행한다. 그리고 베트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코친차이나는 프랑스의 직접통치, 그리고 안남, 톡깅 지역은 보호령으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19세기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프랑스, 영국, 태국이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통제권을 갖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의 산업혁명으로 유럽 국가들은 원료의 공급지와 시장을 식민지 경영을 통해 해결하려고 식민주의정책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영국은 해협정착지-싱가포르, 말라카, 페낭을 중심으로, 그리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지역을 점령하여 식민지 경영을 하게 된다. 버마의 경우는 영국의 식민통치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는 영국령 인도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통치로 양분되고 태국만이 완충지대로 남게 된다. 영국의 버마 통치는 인도인의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말레이 지역의 통치에서 영국은 이 지역 술탄들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다만 영국인 고문관을 채용하여 활동하게 하고 후에 말레이 연방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코친차이나 지역은 직접 통치를 하고 안남, 톡깅, 캄보디아, 라오스 지역은 보호령으로 통치한다. 태국은 유럽인을 관리로 채용하는 등 자발적인 개방과 서구화 정책으로 식민 지배를 면할 수 있게 된다.

버마나 말레이 지역에서는 영어를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언어는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언어는 도시 엘리트 계층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일로 이렇게 서구식, 식민 지배국가의 교육과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이 지역에서 토착 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내부 통합을 위한 토착적인 체제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 식민지배자인 프랑스식 교육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강압적 통치로 베트남 전통체제 변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9세기 중반이후 경제적 변화는 매우 빠르게 변모하게 된다. 특히 수에즈운하의 개통, 철도 및 교통수단의 발달이 아시아-유럽의 교역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 유럽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지역의 경제발전의 주요 부분이 토착민들과 아시아의 이주민들(화인, 인도인)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태국의 벵농사는 말레이 지역의 주요한 쌀 공급지 역할을 하고, 말레이 지역의 주석광산산업은 유럽시장의 수요에 잘 부합되게 되어 영국인 자본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게 된다. 이러한 광산 활동에서 말레이인 뿐 아니라 수입된 화인 노동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인들은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화인 기업들의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말레이 지역에서는 고무뿐만 아니라 후추, 커피 등의 각종 상품작물의 재배를 통해 영국인 자본주의자들은 많은 이익을 얻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활동에서 화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박사명 외 2000). 화인들의 경제활동은 기업을 통해 상업 활동을 통한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나 노동자로 유입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말레이 반도에서의 화인들은 버마 지역에서의 인도인과 같이 상당히 유동적인 인구분포를 보인다. 말레이 반도의 화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들인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오명석 2000). 태국의 화인들은 다른 지역의 화인들보다 토착사회, 즉 태국사회에 상당히 잘 동화되어 있다. 인도차이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프랑스인들의 경제활동은 남부 베트남인 코친차이나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프랑스 자본가들은 메콩델타의 벵농사와 고무 플랜테이션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베트남 지역의 화인들은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도시노동자로 철도 등의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유럽의 식민지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질서를 왜곡하고 세계 경제에 종속된 경제체제로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1930-40년대 유럽인들이 일본의 침략에 패배하며 물러나는 것을 보며 유럽인들에 대한 경외감등이 없어지게 되고 이는 후에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여 독립 국가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동남아시아에서 민족주의는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를 위한 침략 이전부터 중요한 문제였다. 버마, 베트남, 타이, 말라카는 영토를 둘러싸고 서로 충돌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세력권내의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여기에 문제를 더했다. 그들은 버마에서 소수민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베트남을 3개 지역으로 나누고, 말라카는 네덜란드, 영국, 타이 지배하에 갈라지게 만들었다. 화인과 인도인의 유입, 유럽인들의 문화적 차이 역시 민족주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동남아시아인들의 독립을 인정해야 할 때도 서구 관료들은 옛 다양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영국은 소수민족의 자치정부를 후원하고, 이들이 버마에 의해 통치되는 연방이 되기를 제안했다. 프랑스와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권과 비공산권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말레이 반도와 북부 보르네오는 반대로 처음으로 ‘말라야 연방’으로 통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역사학자, 인류학자, 정치학자, 언어학자 등에 의해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사성이 강조되었다. 동남아시아는 ‘소인도(Little India)’ 또는 ‘소중국(Little China)’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물론 이 두 세력이 동남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가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단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히 서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동남아시아가 중국과 인도 등 외부세력의 문화적 영향 하에 형성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면, 이제는 이 지역의 내재적 문화전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예술, 종교, 정치이론 등의 발전에 인도나 중국의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러한 외부의 사상을 토착적 필요와 가치에 알맞도록 적용시킨 정도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인도의 미술과 건축양식이 동남아시아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태국에서 만들어진 불상들의 강렬한 이미지가 인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처럼 버강과 앙코르 그리고 자바의 사원들은 각기 자신들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받은 베트남의 경우에 있어서도 궁정 밖에서 이루어졌던 강한 비중국적 생활양식은 그들만의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사회들 전역에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퍼져 있는 어떤 유사성은 놀랄 만한 것이다. 인도에서 확대가족이 갖는 중요성에 반하여, 동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핵가족 혹은 개별 가족이 중시된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전통 농민사회에서 여성의 중요한 지위도 인도와 중국사회와는 크게 구분되는 점이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언어적 통일성이 여러 지역들에 걸쳐 식민세력들에 의해 세워진 국경들 넘어 존재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직도 유사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비통일성을 강조했던 과거 식민세력이 만든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사람들이 있다.

베트남어와 크메르어가 서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공통된 언어적 조상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파이어가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 베트남, 미얀마의 산(Shan)주, 라오스, 캄보디아 서부와 북동부 그리고 말레이반도의 최북단 등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이어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지도상의 국경선이 종종 인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남아시아 내에 파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 내 소수민족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통일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다른 언어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로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말레이어를 들 수 있다. 여기서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많은 방언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인 언어의 변형들이 오늘날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부뿐만 아니라 태국 남부 연안 지역, 캄보디아와 베트남 일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통일성과 다양성과 같은 매우 어려운 판단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즉 어느 지역 또는 어떤 시기에 통일성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차이점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흔히 동남아시아 역사의 한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지속성에 얼마만큼 주목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변화와 과거와의 단절 등을 포함하는 불연속성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동남아시아를 전통적 패턴들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현대세계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 지역이라고

보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비록 공통점과 유사성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역 간, 종족집단과 종족집단 간을 구분할 수 있게 주며, 한 여행자로 하여금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분명히 느끼는 차이점들에도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종족의 구성과 종교 문화의 특징과 그 의미

종족 또는 종족집단(ethnic groups)이란 흔히 민족(nation)보다는 작은 집단을 지칭한다. 민족보다 역사적으로 보편적이고 배타적이며, 귀속적인 특징을 갖는다. 종족은 상당히 정치적인 개념으로 종족이 민족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민족이 종족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종족의 핵심적 요소로는 혈통과 문화가 거론되기도 한다(스미스 2018). 만일 종족을 혈통으로 파악한다면 민족은 공동의 조상에서 유래하고 공동의 후손들로 구성된 생물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혈연 집단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집단이 가족과 친족을 넘어서 한 국가의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동남아시아 주민의 대부분은 남부아시아 유형의 몽골계 민족에 속하는데,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네그리드-오스트로계 민족에 속하는 원주민들을 내쫓거나 동화하면서 동남아시아 내부에서 종족분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민족들은 어족에 따라 크게 오스트로네시아, 오스트로아시아, 중국-티베트, 타이-까다이의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오스트로네시아계 혹은 말레이-폴리네시아계 종족은 기원전 2천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대륙부 동남아시아 연안지역과 말레이반도 등으로 퍼져갔다. 참(Cham)족, 푸난(扶南)족, 말레이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오스트로아시아계 종족은 몬-크메르족, 비엠티(Viet)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버마나 타이족 이전부터 대륙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었다. 중국-티베트 어족은 이라와디 강 유역에서 발원해 오늘의 미얀마 전역으로 퍼져간 버마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까다이 어족은 태국과 라오스, 산(Shan)족 등이 해당되며, 관개농업의 발달과 강한 적응력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종족간의 구분과 차이는, 서양의 지배를 받기 이전의 동남아시아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비슷한 문화 및 생활조건을 지녔을 경우 종족적 경계는 종족 간 동화에 별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버마족, 까렌족, 몬족 등은 불교도라는 것을 매개로 상호 동화가 가능했고, 소수민족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개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배민족에 동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서구 식민지 시대에 민족학적 연구를 토대로 종족간의 차이점이 부각되면서 서로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은 독립 이후 민족문제들의 불씨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옛 명칭 버마), 태국을 일컫는 용어이며, 도서부 동남아시아 또는 도서해양부 동남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런 구분은 무엇보다 문화적 특히 종교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대륙부 동남아시아가 불교(베트남은 대승불교, 나머지는 상좌불교)문화권이었던 것에 비해서 도서(해양)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은 이슬람문화권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인 것 외에도 종족적 구성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륙부가 몬순 기후를 지닌 데 비해 도서부는 습윤한 열대기후를 지녔다는

기후와 날씨의 차이도 나타난다.

흔히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문명 사이에서 영향을 받았고 별다른 독자적 문화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제도와 종교, 문화 등에서 동남아시아는 자체적 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었고, 이런 것이 외래 요소들과 결합되어, 소위 ‘문화적 중층성’ 개념, 즉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접촉 또는 교섭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石正 1993: 17-19, 조흥국 1997: 308에서 재인용).

동남아시아 토착문화로 우선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신석기-청동기부터 높은 생산력을 지니고 있었던 농경문화의 발달이다. 이런 바탕 위에 공동체적 촌락제도를 발달시켜 왔는데, 이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음식과 주거에 있어서도 독특한 성격을 보이는데, 베트남의 느억맘(nước mắm)이나 라오스의 남 파(nam pa), 캄보디아의 빠라혹(pra hoc), 미얀마의 응아피(ngapi), 태국의 남-쁠라(nam-pla), 말레이시아의 블라쨌(belacan)과 부두(budu), 인도네시아의 껌찐 이칸(kecap ikan)과 떼라시(terasi), 필리핀의 바고웅(bagoong)과 파티스(patis) 등의 생선소스(생선액젓 또는 젓갈)는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맛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유사하기도 하다.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주상가옥(柱上家屋)은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울 뿐 아니라 하천의 범람이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에 적합한 구조로, 중국 영향을 받은 베트남의 집과 달리 동남아시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의 역할이 중시된 것은 동남아시아 사회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집안에서의 지위는 물론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 혹은 남성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록이 중국 측 사료에도 나타나 있다. 종교적인 면을 볼 때, 불교나 이슬람 등의 저층에는 샤머니즘과 조상신 숭배 등의 토착적 요소가 깔려 있어서, 태국의 경우 귀신(phi)에 대한 신앙이 왕실에도 만연되어 있었고, 미얀마에는 정령(nat)을 숭배하는 신앙이 존재하였다. 이슬람세계의 경우, 이슬람전통주의를 강조하는 산뜨리(santri)같은 집단이 있던 반면에 정령숭배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토착적 관습을 내포한 아방안(abangan)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토착문화가 서민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층의 경우 인도나 중국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런 면에서 토착문화를 소전통, 외래문화를 대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과 인도문화는 주로 엘리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 정치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동남아시아 고전시대에 가장 깊고 넓은 영향을 준 것은 인도문화로서 이와 관련해 인도화(Indianization)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인도문화는 동남아시아 사회의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동남아시아 언어의 중요 개념은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았고, 고전문학의 대부분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Ramayana)나 마하바라타(Mahabharata)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인도문화의 유입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상인들과 브라만, 불교 승려, 예술가 등을 포함한 이주민들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힌두교와 불교는 포용적이고 범지역적 성격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쉽게 흡수되었고, 브라만과 승려들은 궁정에 고용되어 동남아시아 군주들의 세계관 형성에 기여했다. 그들은 토착 왕조를 위해 이념적·의식적 이론을 제공했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인도와의 문화적 접촉에서는 동남아시아인들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 인도화 과정은 일방적인 문화의 전달이라기보다 동남아시아인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고, 어떤 지역이

던 그 곳의 특수한 정치적·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적용되었다. ‘두 번째의 인도화’라고 설명되는 이 과정은 수정되고 변화된 인도문화들이 동남아시아 정치중심지에서 다른 곳으로 퍼져갔음을 의미한다.

중국문화의 경우 주로 대륙부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집중되었다. 10세기에 걸친 중국의 식민지시기를 경험하면서 베트남사회는 중국문화의 전반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고, 다양한 계층이 화인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와 현지인화하면서 더욱 중국문화의 영향이 커져갔다. 일상생활에서 농업생산기술, 정치제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친 것이었다. 특히 유교는 베트남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여져서 베트남 관료사회의 지배이념이 되었고, 한자, 한문이 베트남정부의 공식어가 되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과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중국과의 무역 자체가 많은 이익을 낳은 것이기도 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혹은 조공관계의 체결은 완전히 국가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지배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일례로 스리비자야 왕국이나 말라카 왕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성장하였다고 하겠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사회에 끼친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은 화인 이민자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일찍부터 동남아시아사회에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화인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중국문화의 전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4. 종교와 종족문제의 연계성

인도양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사이에 자리한 말레이 반도는 예로부터 서양과 동양의 상인, 여행자, 선교사들이 만나는 황금의 교차로였다. 그래서 말레이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예전에 힌두교, 불교 문화권이었던 말레이 반도는 말라카(Malacca) 왕국의 전성기였던 15세기경에 이슬람 문화권으로 탈바꿈했다. 그 시기 말레이 반도에 유입된 이슬람은 말레이 전통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해안지역의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였던 이슬람은 내륙지역의 수장들과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전통 아랍사회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가르침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슬람을 통한 종교적, 문화적 침투가 항상 현지사회와 문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6세기 초반 포르투갈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말레이 반도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재 말레이시아의 총 인구구성은 다양한 종족 집단(ethnic group)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적 풍습과 종교적 의례 및 예술적 관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일 년 내내 각종 종교의 행사와 의례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제공되는 곳이 바로 현재의 말레이시아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말레이시아는 총 인구가 약 30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말레이인이 약 65%,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화인이 약 21%, 인도계 말레이시아인이 8%, 기타 오랑아슬리(orang asli, 원주민이라는 뜻)라 불리는 원주민이 6%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다종족사회(multi-ethnic society)의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회가 각기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이질적인 인종 혹은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문화 간의 조화와 충돌 혹은 융합과 갈등이라는 격변의 역사적 과정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족들이 어울

려 살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물론 문화변동의 중요한 요인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중국인과 인도인의 본국으로부터의 대량 이주는 말레이시아 사회의 식민지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족구성은 현재의 말레이시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뿐 아니라 전통종교와 의례의 특성, 특히 통과의례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는 각 종족집단의 고유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말레이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말레이인들은 반드시 이슬람을 신봉해야만 한다. 말레이시아 헌법에는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으며, 말레이 전통관습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말레이인들은 무슬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도 통상 말레이인이라고 하면 이슬람을 신봉하고 전통관습을 준수하며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상의 규정이 일상생활에서의 말레이인에 대한 규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말레이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찾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누구를 말레이인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정치적, 종교적,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말레이 사회에서 전통신앙이나 그에 기초한 통과의례의 전통적 성격은 종종 이슬람과 모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레이 사회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관계는 물론 다른 구성원에 대한 태도 역시 이슬람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통과의례의 수행 역시 말레이 전통과 이슬람의 가르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의미가 축소,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 전통에 기초한 통과의례의 특성과 의미를 고수하려는 집단과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원칙에 기초한 통과의례를 확립하여 이를 보급하려는 집단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과의례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말레이 사회의 종교변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본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전통의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슬람과 배치되는 이질적인 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전통의례와 이슬람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시기에는 전통의례의 영향력이 이슬람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시기에는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전통의례의 쇠퇴 또는 소멸을 가져오기도 했다(홍석준 2001).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전통종교와 이슬람은 유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변모의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이슬람의 교리를 확장시키려는 종교 엘리트집단과 전통적인 신앙체계에 깊이 빠져 있던 말레이 평민들과의 상호작용은 한편으로는, 이슬람이 전통종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통종교의 일부로 수용되는 ‘이슬람의 전통종교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문화유형과 만나게 되면서 이슬람의 정통교리에 위반되는 전통의 일부가 소멸 혹은 흡수되는 과정인 ‘전통의 이슬람화’라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에 대신하여

이 글은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중에서 정치와 종교, 그리고 종족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가 현재와 같은 성격을 갖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은 무엇이었으며, 언뜻 볼 때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매우 다른 정치적 발전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의 사건들과 발전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의 다양성에 대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동남아시아의 종교적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이슬람은 도서부 지역에서 강하며, 상좌불교는 태국의 국교이며, 캄보디아에서도 국교가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는 필리핀처럼 가톨릭이 강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원시적 애니미즘이 그 주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다. 이 지역에는 인도인 이민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발리(Bali)와 롬복(Lombok)의 토착 주민들이 섬기는 힌두교가 있다.

풍부한 역사적 과거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때로는 혼란한 상황을 보여주는 동남아시아는 일시적인 관찰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평생과제로 삼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지역이다. 동남아시아 역사와 사회문화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것이 역사와 문화의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개관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가 다른 나라보다 왜 그토록 다른지, 이 지역 전체가 왜 그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강한 외부적 영향 하에 놓여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재를 조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오스본 1999: 28).

정치와 종교, 종족문제라는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오늘날 정치적 중요성 외에도 그 문화적 유산에서 이전부터 훨씬 많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신념에 대해 깊은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된 발전들이 정치적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어떠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아온 이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의 동남아시아를 형성해 온 역사와 문화의 개략적 흐름을 공부하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일 것이다(오스본 1999: 28-29).

〈참고문헌〉

- 밀턴 오스본. 조흥국 책임번역·감수. 1999. 『한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도서출판 오름.
- 박사명 외. 2000. 『동남아시아의 화인사회』, 전통과 현대.
-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 앤서니 D. 스미스. 2018.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 오명석. 2000. “말레이시아 화인사회: 다종족국가 내에서의 공존과 갈등”, 박사명 외. 『동남아시아의 화인사회』, pp. 186-309.
- 조흥국. 1997.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김민정 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pp. 293-325.

홍석준. 2001. “현대 말레이시아 이슬람부흥운동의 문화적 의미”, 『동남아시아연구』 11: 1-27.

Geertz, Clifford. 1960. *The Religion of Java*, The Free Press.

Chong, Terence. 2008. *Modernization Trends in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 Background Series No. 9.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

인터넷 사이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9&dirId=9020106&docId=213053313&qb=7J2464+E64Sk7Iuc7JWE7J2YIOyduOq1r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 SX/rLl oRR2KsscJgL40ssssssw-060667&sid=btTXJxNaBJgv2g/F5oAng%3D%3D

<http://blog.naver.com/bestcfp/220409209181>

변경과 동남아

이상국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서론
 - 변경에 대한 관심 증대
 - 학계
 - 국가
 - 지역(region)
 - 변경과 이동성, 세계의 재구성
 - 사람
 - 물건
- 변경의 역사적 구성
 - 전근대
 - 만달라 세계
 - 문명과 야만의 접촉지대
 - 식민 시기
 - 변경에서 국경으로
 - 부족에서 종족으로
 - 분리통치와 자율성
 - 근대 시기
 - 반란과 충돌의 현장
 - 국가 속의 국가
 - 종족에서 시민으로
 - 초국주의 연계 시기
 - 세계화와 개발 프로젝트
 - 국가와 초국주의 기관의 결탁

- **변경과 사람**
 - 선주민으로서 소수민족
 - 이주민, 난민과 사회통합
 - 변경의 생활세계

- **변경과 경제**
 - 비공식경제의 일상성
 - 카지노와 변경
 - 연계성 프로젝트와 무역 증대

- **변경과 정치**
 - 소수민족 군벌과 국가 속의 국가
 - 국가 주권과 국가 기관의 현존
 - 국가 기관의 지역화

- **변경과 국제관계**
 - '전장에서 시장으로'
 - 초국적자본과 GMS(Greater Mekong Subregion)
 - 아세안공동체와 연계성 프로젝트

- **변경과 지식 탐구**
 - 주변의 시각으로 중심을 바라보기
 - 지역의 자율성과 국가의 한계 재인식
 - 자본주의가 추동하는 변경의 해체와 재구성 탐구
 - 욕망이 만들어내는 이동성 실천, 좌절과 협상 과정

- **변경, 인간성, 세계성**
 - '변경에서 꽃이 피다'
 - 다름과 섞임과 스밈
 - 문지방의 질서와 해체와 재구성
 - 변경, 세계의 끝과 시작

동남아의 의료

서보경(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동남아시아는 생명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는 중심에서 한참 빗겨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과학적 발전과 서구를 등치시키는 위계론적 사고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구호를 필요로 하는 저개발의 공간이거나,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후발 주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이 장은 동남아시아의 근현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의료를 제시하고, 지역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 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의료를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를 주요 현장으로 삼아 질병과 건강 경험, 의료 인프라스트럭처의 성립 과정과 국제 보건의 정치를 다룬 문화인류학적 연구들을 주로 제시할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룰 주제들을 크게 다음과 같다.

1) 근대화 과정에서 위생의 발전과 공중 보건의 도입이 지역의 식민주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미군정 하에서의 필리핀은 열대의학의 근대화와 식민지 병리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첨예하게 보여주며, 인종주의적 관념과 생물학의 과학적 근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낸다.

2)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구조적 폭력의 경험은 정신 건강과 트라우마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취를 남긴 바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전쟁 혹은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자행된 정치적 폭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민의 몸에 고통의 역사를 새긴 바 있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이 개별의 몸과 마음에 남긴 상처는 과연 치료 가능한 성질의 것일까? 그리고 이 역사적 고통은 어떻게 생의학(biomedicine)과는 다른 치유의 방식과 관점을 요구하는가?

3) 재생산 건강은 성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물론 전지구적 불평등의 위계를 가장 극명히 드러내는 영역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에서 행해진 산아제한 및 가족 계획 정책은 지역의 젠더 실천 및 정치에 어떤 역사적 흔적을 남겼으며, 이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과 여타의 rhksrP 속에 있는가? 새로운 재생산 기술의 전지구적 허브로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대두는 과연 낡고 기를 권리의 불평등한 분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4) HIV/AIDS의 전지구적 확산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비교적 빠르게 치료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고, 보편적 치료 접근권의 확보를 이룩한 바 있다. HIV 위기 속에서 기존의 국제 보건 관점을 넘어서는 글로벌 헬스 개념이 대두되는 과정은 이른바 인도주의적 정치의 전지구적 제도화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역 내의 대규모 자연 재해, 난민 사태, 새로운 전염성질환의 급속한 확산이 모두 글로벌 헬스의 문제로 제시될 때,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이 개념의 필요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다.

의료는 자연과학에 기반한 임상 의학의 차원을 넘어, 세계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을 병리

화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의료의 영역을 넘어선다.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복수의 근대성이 어떻게 의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역과 글로벌, 개별의 몸과 집합으로서의 인구가 상호 구성되고 변모하는 양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동남아의 사회문화: 종교

김형준(강원대)

<발표문 추후 배포 예정>

분과회의 12

**동남아 정치경제의 동학:
지역화와 세계화**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나희량(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I. 서론

아세안은 다양하고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 등의 전통적 비관세장벽 보다는 오히려 기술무역장벽, 통관절차 등을 통한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아세안의 경우 비관세장벽 부문에 있어서는 관세에 비해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토대가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의 일부분으로 동 조치로 인해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의미하는 협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관세조치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의미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수출보조금처럼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은 비관세장벽이라기보다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비관세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비관세조치는 ① 위생 및 검역 조치(SPS), ② 기술무역장벽(TBT), ③ 반덤핑관세(ADP), ④ 상계관세(CVD), ⑤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⑥ 긴급수입제한조치(SG), ⑦ 수량제한(QR), ⑧ 관세할당(TRQ), ⑨ 수출보조금(XS) 등 총 9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관세조치는 그 자체로 무역분쟁으로 바로 이어지는 않는다. 비관세조치는 상대국의 합의 또는 인정이 부재하고 상대국이 이를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비로소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하여 비관세조치와 더불어 무역분쟁화될 수 있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STC는 비관세조치에 대해 상대국이 WTO의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또는 반대의사를 제기한 사안을 의미한다. STC에 대해 당사국은 상대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에게 해당 비관세 조치의 필요성 및 제반 정보를 투명하고 상세히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당사국 간의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STC에 대한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한 적절한 또는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이나 타협점에 이르게 된다면 더 이상의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국 간 무역분쟁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서 주로 비관세장벽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넘어 광의의 개념인 비관세조치 및 동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STC에 대한

논의로 그 외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된 연구 중 비관세조치 및 STC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의 제기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및 STC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은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STC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의 전반적 특성과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현황

1. 주요국과의 비교

아세안은 2005~2018년 SPS 1,290건, TBT 2,275건, ADP 115건, CV 0건, SSG 19건, SG 20건, QR 664건, TRQ 55건, XS 1건 등 총 4,439건의 비관세조치를 발동(initiation) 또는 발효(in force)하였다.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세계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12.7%(8,98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아세안 다음으로 캐나다 5.7%(4,022건), 중국 4.9%(3,501건), 브라질 4.5%(3,194건), EU 4.4%(3,098건), 일본 4.3%(3,017건), 한국 3.2%(2,272건), 호주 1.9%(1,310건), 인도 1.3%(894건) 등의 순이다. 한·중·일 3국을 합할 경우는 8,790건으로 아세안의 두 배 정도인 12.4%를 차지한다.

아세안은 주요국들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관세조치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관세조치 부문에서 적어도 시행건수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보호수준(시행건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SPS, TBT, ADP 등의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결코 그 비중이 낮지 않았다. 특히 개도국들이 많이 활용하는 SG, QR 등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TRQ의 경우에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아세안이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아세안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앞세우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상품군별 비교

아세안은 세계와 비교했을 때 1차산업 상품군에 대해서는 주로 TBT보다는 SPS와 QR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2차산업 상품군에 대해서는 주로 QR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QR의 경우 WTO체제에서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아세안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TBT의 활용을 늘리는 대신 QR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비관세조치

아세안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5가 주로 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고

CLMV 중에서는 베트남이 비관세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수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이다. 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장개방과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시행해 온 아세안5와 베트남이 비관세조치 또한 다수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태국과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추이

1.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의 추이 비교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비관세조치의 추이와 그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비관세조치 건수를 보면 2005년 83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EU 재정위기 이후 2014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 이후의 급증세와 2018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은 아세안이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 다른 주요국들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관세조치 중 TBT는 그 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 83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7년 79건, 2018년 95건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반면 SPS는 2005년 42건에서 2011년 단 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2016년 29건, 2017년 83건, 2018년 61건으로 급증하는 등 TBT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DP의 경우에도 2010년 5건에서 2016년 21건, 2017년 2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QR의 경우 2005년 8건에서 2009년 0건, 2010년 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6년 52건까지 급증하였으나 2017년, 2018년 모두 한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QR에 대한 WTO 차원의 제한 및 금지원칙이 아세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SPS와 TBT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아세안의 비관세조치 추이는 세계적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개도국의 특성을 갖는 동시에 또한 주요 3개 개도국과는 다른 상이점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2016년 이후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7년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QR은 2017년 이후 시행되지 않는 대신 SPS와 TBT 등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각 비관세조치의 비중 및 시행과 추이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소득 수준, 개방도, 개방의 속도 등에서 격차가 크고 또한 각 개별국가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자국 산업의 보호의 목표와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관세조치 시행의 차이점들은 향후 아세안이 단일의 경제공동체로 통합,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IV. 아세안의 특정무역현안

1. 주요국들과의 비교

아세안의 총 비관세조치는 1,614건으로 이중 STC로 제기된 것은 75건으로 4.6%를 차지한다. 이는 EU(11.4%), 인도(4.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세계(1.9%) 및 미국(2.8%), 일본(3.3%), 캐나다(1.0%), 호주(1.8%), 한국(3.4%)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개도국 중에서도 중국(4.4%), 브라질(1.7%)에 비해서도 높다. 이처럼 아세안의 STC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의 경우 STC 비중이 4.6%, CLMV는 4.9%로 CLMV 비중이 좀 더 높는데 이는 베트남의 STC가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STC의 국가별 비중에서도 아세안은 8.5%로 EU(21.5%), 중국(11.3%), 미국(9.5%)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아세안의 STC 비중 및 국가별 비중이 주요국들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로 높다는 것은 아세안이 비관세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상대국가의 문제제기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세안이 사전적으로 STC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무역분쟁이 야기되지 않기 위한 상대국과의 통상 협상력 및 전문성의 향상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베트남을 비롯한 CLMV 국가들의 시장개방의 진전과 비관세조치의 활용이 많아질 경우 STC 비중이 지금 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CLMV 국가들의 비관세조치가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관련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STC 비중을 보면 비관세조치 중 제기된 STC 비중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에는 비관세조치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STC 제기 건수도 전무하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에도 STC 비중은 각각 0.9%, 0.8%, 2.6%로 아세안 평균의 4.6%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STC 비중은 각각 15.9%, 5.2%, 5.8%로 아세안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한 통상정책의 기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희량 2017, 김태윤·이재호 2010). 베트남의 경우에도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정교한 비관세조치의 시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STC의 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세안 개별국가들 차원에서는 STC 제기 비중이 국가들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아세안 국가들의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도 국가적 상황에 따른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세안 경제통합과정에서 해결해 가야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2. 아세안 개별국가들 현황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보면 총 75개의 STC 중 SPS가 28건(37.3%), TBT가 47건(62.7%)로 SPS가 1/3, TBT가 2/3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 과일 등의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되어 있는 SPS는 품목에 있어 한정적인데 비해 TBT는 모든 상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TBT에 대해 제기된 STC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STC가 최초 제기된 시기를 보호무역의 기초가 심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1995~2008년 STC 제기건수는 19건(25.3%), 2009~2018 STC 건수는 56건(74.7%)로 4건 중 3건은 2009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STC가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된 2017~2018년 14건(18.7%)로 단 2년 동안의 STC 제기건수가 다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이러한 STC 집중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두 국가가 시장개방과 무역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관세조치를 활용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제기된 STC는 주로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에 대한 S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별로 보면 육류와 관련된 STC가 13건(22.0%), 과일, 채소, 원예 등 식물류와 관련된 STC가 9건(15.5%), 할랄인증과 관련된 STC가 4건(5.7%) 등으로 세 개의 합이 28건(40.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주류, 철강제품, 휴대전화 및 PC, 도기 및 타일, 담배 등의 순으로 STC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아세안은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수출 상대국들의 STC 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아세안 지역차원의 선발국-후발국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별국가 차원의 통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아세안 역내차원의 정책적 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할랄상품과 관련된 할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비관세조치 시행 및 STC 제기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는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에 비해 제기된 STC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통상 분야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상이하게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STC보다 상품의 표준 및 인증 기준과 관련된 STC가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 중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태국의 경제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아세안은 2016년까지 SPS, TBT 뿐만 아니라 QR도 상당수 시행하여 왔으나 2017년 이후에는 SPS와 TBT, 그중에서도 TBT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WTO 차원에서 그 시행이 제한을 받고 있는 QR보다는 활용 가능한 TB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세안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분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관세조치가 주요국들 못지 않게 다수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STC 제기 현황 및 추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할랄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비관세조치 시행 및 STC 제기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는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에 비해 제기된 STC가 많지는 않은데 이는 이들 선발국들의 통상 분야의 상대적인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트럼프 정부의 출범 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된 2017~2018년에 제기된 STC가 다수 증가하는데 이는 비관세조치의 시행이 보호무역정책의 강화로 인한 수입 상대국의 피해에 대한 민감도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경우 총 75개의 STC 중 SPS가 1/3, TBT가 2/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 과일 등의 식품안전 및 검역과 관련되어 있는 SPS는 품목에 있어 한정적인데 비해 TBT는 모든 상품에 대한 비관세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TBT에 대해 제기된 STC가 많다고 할 수 있다. STC가 제기된 상품을 살펴보면 주로 식품 안전 및 검역과 관련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ST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순위별로 보면 육류와 과일, 채소, 원예 등 식물류 및 할랄인증과 관련된 STC가 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주류, 철강제품, 휴대전화 및 PC, 도기 및 타일, 담배 등의 순으로 STC가 제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아세안은 비관세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수출 상대국들의 STC 제기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 역내의 선발국-후발국 간 지원과 협력을 통해 개별국가 차원의 통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통상정책의 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의 등장과 발전*

백용훈(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발전하고 변동해왔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사회학의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다른 사회적 영역과의 상호작용, 특히 국가의 역할과 정책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특징을 견지하며 성장 중인가? 이에 영향을 준 요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베트남 사회경제발전전략(SEDS) 및 계획(SEDP), 보험산업전략 등 공산당과 정부의 공식 문건,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 문서, 생명보험 관련 베트남 국내외 선행 연구, 재정부 보험감찰관리국의 통계연감, 바오비엣(Bao Viet) 보험사의 연간보고서, 그리고 정보제공자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이다.

최근 해외보험사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 주목하면서 생명보험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즉 양적 성장과 질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시장의 사회적 구성,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마다 경제발전의 양상이 다르듯이 생명보험업의 발전 양상 또한 매우 상이하며 생명보험회사가 등장한 배경 또한 일정한 차이가 있다(김현수 외, 2016: 46-47). 보험업법의 형성과 생명보험시장의 등장 및 발전의 양상에 대한 이해는 생명보험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이해, 인식 등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국가-시장-공동체 영역의 복지 혼합(welfare mix)과 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Gough, 2004).

2.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1) 생명보험산업 및 동남아 지역 대상 연구

생명보험산업이나 회사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국가경제 역할을 강조한 규범적 연구, 둘째, 민영보험과 사회보험(보장)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 셋째, 국가경제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분석한 실증연구,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업을 관찰한 연구이다(김현수 외, 2016: 50).

*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에 대한 연구는 OECD 국가들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젊은 층 인구 비중, 경제발전으로 인한 중산층 인구의 증가, 구매력 등 소비 잠재력 등으로 인해 해외 보험사들이 아세안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생명보험 수요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Outreville, 2018; Sen and Madheswaran 2013; Lee et al. 2018). 주로 양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치제도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사회문화적, 구조(환경)적 측면에서 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국민소득, 유년 부양비율만이 생명보험 수요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외의 변수들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에 생명보험의 수요는 선진국 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인플레이션, 기대 수명, 리스크 회피 정도 등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성된(Constructed) 시장에 대한 이해

거시경제사회학에서 장(field)에 대한 이론은 해당 범위 내에 있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장 이론은 게임이 진행되는 양상 및 환경을 역사 및 문화적인 관점을 통해 규명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Bourdieu 1984; DiMaggio and Powell 1991; Bourdieu and Wacquant 1992; Fligstein 2005).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의 형성과 시장 영역의 결정에는 관련 집단의 이익 추구적인 정치적 행위, 사유 재산권 확보를 위한 완고한 노력, 이에 상응한 국가 권력(state power)의 행사 등이 작용하였고 이러한 역학에 의해 만들어진(constructed) 것이다(Friedland and Robertson, 1990: 7~8). 시장(market)을 하나의 장으로 간주한다면, 생명보험 시장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보험영업법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들, 정부, 특히 재정부 관계자와 그 구조,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들을 이용하는 게임(games)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분석틀

시장 내에 있는 행위자들 가운데 우선 국가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준다.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정부와 관련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생명보험 시장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구체적인 성격이 부여될 수 있다. 특히, 1993년 보험사업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1999년 보험업법, 그리고 2000년 보험업법 개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다양한 행위자의 구조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보험 부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었지만, 1986년 도이머이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민간에게 그 책임이 이양되었다. 체제 전환의 이행기 상황에서 국가 복지와 함께 시장 복지의 발달, WTO 가입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개방에 대한 맥락 그리고 보험 시장에서 베트남 자국 및 해외투자 기업들의 역할 등도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생명보험시장과 보험

업의 성장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4. 예상 목차

- I. 서론
- II. 구성된(Constructed) 시장: 사회적 규범과 시장의 형성
- III.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의 역사적 과정: 시기별 구분
 - 1. 베트남 국영기업의 독점 시기
 - 2. 시장 형성 시기
 - 3. 시장 성장 및 확대 시기
- IV.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의 구성
 - 1. 재정부 산하 보험감찰관리국의 역할
 - 2. 보험업법의 제정과 개혁 과정
 - 3. 생명보험 상품 유형의 발달
- V.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 김현수 · 김재현 · 김기덕. 2016. “생명보험산업의 연대적 성격에 관한 질적 연구.” 『보험금융연구』 27(2): 45-80.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and Loic J. D. Wacquant.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Maggio, P. and W. Powell. 1991. “Introduction”, in Power, W. and P. DiMaggio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ndon: 1-38.
- Fligstein, Neil. 2005. “9. The Political and Economic Sociology of International Economic Arrangements.”, in Neil J. Smelser and Richard Swedberg(eds.),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iedland, Roger and A.F. Robertson. 1990. *Beyond The Marketplace: Rethinking Economy and Society*. Aldine Transaction.
- Gough, Ian. 2004. "Welfare regimes in development contexts: a global and regional analysis," In I. Gough, G and G. Wood, with A. Barrientos, P. Bevan, P. Davis and G. Room, *Insecurity and Welfare Regimes in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Hui-Shan, Kevin-Lock-Teng Low, Shyue-Chuan Chong and Bik-Kai Sia. 2018. “Influence of Secondary and Tertiary Literacy on Life Insurance Consumption: Case of Selected ASEA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surance Economics*, 43, 1-15

Outreville, J, Francois. 2018. “Culture and Life Insurance Ownership: Is It an Issue?” *Journal of Insurance Issues* 41(2): 168-192.

Sen, Subir and S Madheswaran. 2013. “Regional Determinants of Life Insurance Consumption: Evidence from Selected Asian Economies.”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 86-103.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id for Trade in Southeast Asia

Kyungrim Shin (Korea University)

I. Introduction

Openness to trade has been proved as a key priority in the economic succes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ering direct trade barriers, reducing behind-the-border impediments becomes more important to integrate them into the global market. In 2005, the Aid for Trade (AfT) initiative was launch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enhancing market access and facilitating trade in the WTO's Hong Kong Ministerial Conference. Since then, the disbursement of AfT has considerably increased to USD 43 billion in 2017 from USD 19 billion in 2005 and currently accounted for about 23 percent of total sector allocabl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¹

The distribution of Aid for Trade has been largely concentrated in Asia and Africa. ASEAN countries excluding Singapore and Brunei have reaped large benefits from the AfT, and particularly Vietnam, Indonesia and Myanmar have been of major recipients for years.² The flows of Aid for Trade to Southeast Asia excluding Singapore and Brunei have gradually increased to USD 4.7 billion in 2017 and, compared with the year 2002, it spiked more than four times in real term (Figure 1). Also, there have been diverse aid programs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region which includ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Multilateral Trade Assistance Project in Vietnam and Improved Sanitary and Phytosanitary Handling in Greater Mekong Subregion Trade Project.³ Such activities have contributed to lessening the development gap within the ASEAN member countries and boosted the regional production network, thus further connecting the region to the global value chain. Even though Southeast Asian countries belong to the major recipient region and their economic performances have been out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AfT and its economic growth has remained controversial and not been sufficiently explored. In the context, this paper aim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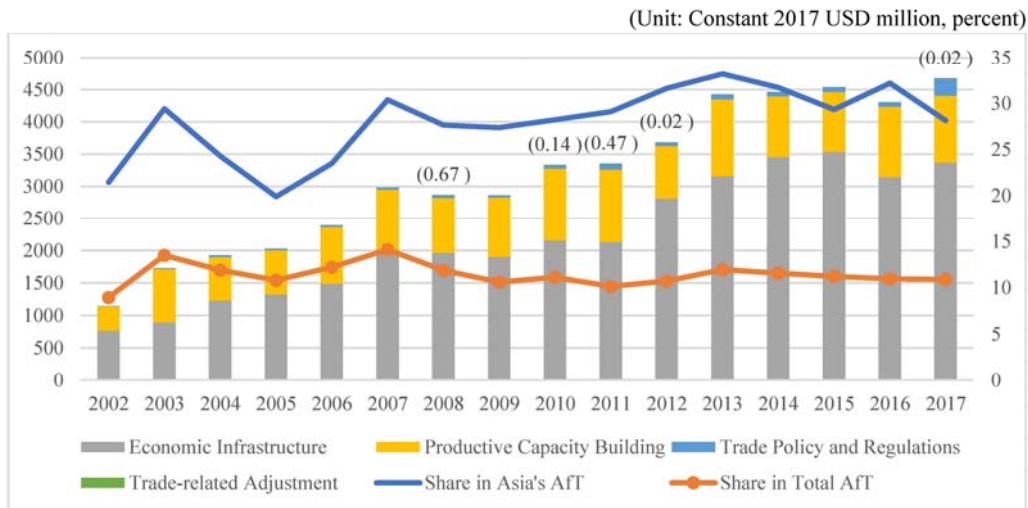
¹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Accessed May 15, 2019).

² Ibid.

³ GMS Program is one of ADB's flagship initiatives started in 1992 to integrate marginalized economies such as Cambodia, Lao PDR, Myanmar, and Vietnam in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focusing on financing and providing technical support to sub-regional projects including transport and trade. ADB (2009). pp. 8-9; OECD (2013), p.40; OECD (2014b), p.9.

evaluate the impacts of AfT on trade facilitation focusing on Southeast Asia.

Figure 1. Aid for Trade Disbursements in ASEAN8⁴



Sourc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Accessed May 15, 2019).
 Note: Th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values of aid for trade-related adjustments.

II. Literature Review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Aid for Trade and its effectiveness on the trade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ies, there have been various empirical studie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fT, trad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from different dimensions. First, for the impacts on trade flows, Helble et al. (2012) analyzed the link between the specific types of aid for trade and trade flows with the gravity model. The findings manifest that aid for directed toward trade facilitation has a small but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de and a one percent increase in aid for trade facilitation (of about USD 220 million in 2008) could yield about USD 290 million of additional exports from the aid receiving countries. Using a panel covering 132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2-2008, Ferro et al. (2011)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aid to five different service sectors (transport, communications, energy, banking/financial services and business services) on downstream manufacturing exports. Their analysis indicates a positive impact of aid to services, in general, on manufacturing exports of developing countries

⁴ ASEAN8 includes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 Thailand, and Vietnam (excluding Brunei Darussalam and Singapore from ASEAN). This study covers the eight South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re is no AfT data available in Singapore and Brunei.

across regions and income-level groups and finds aid to transportation and energy sectors are the most effective to increase exports of recipient countries.

Regarding the impacts on trade costs, Busse et al. (2010) scrutinized the effects of AfT on the time and cost of trading using fixed-effects panel data estimation with a sample of 99 countries. It concluded with a negative leverage effect of the aid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and trade facilitation on the costs of tradin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argeted AfT. With a sample of 130 countries over the period 2005-2009, Cali and te Velde (2011) reaffirmed the analysis by Busse et al. (2010) that aid for trade facilitation has improved export performance, reducing the costs of trading. In addition, this research estimated the different effects of AfT on Sub-Saharan Africa with the highest costs of trading and presented that aid for trade policy and regulation appeared about 60 percent higher cost-reducing impact in SSA than other developing countries.

Although there is abundant empirical literature on the AfT impact assessment, the majority of studies have taken an aggregate or sectoral approach generally by income group rather than by region. OECD and WTO have jointly developed a monitoring framework and issued a Global Review every two years, titled *Aid for Trade at a Glance*, including an analysis by region but their evaluation is based on a broader regional category: Africa, America, Asia, Europe, and Oceania. While there are several analyses on aggregated impacts of AfT in Africa and Asia, the main recipients, the Southeast Asian region as a specific group has been rarely explored despite its robust growth in AfT disbursements and trade performance. Meanwhile, OECD published *Regional Perspectives on Aid for Trade*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Southeast Asia. However, it primarily focused on project-based analysis as Regional Aid for Trade without empirical studies.⁵ Therefore, in that ASEAN has shown a competitive and dynamic trade environment with the wide gap among member countries and a substantial increase in AfT disbursements,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AfT effectiveness of Southeast Asia will help define the correlation between AfT and trade in the region. Furthermore, a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pecific types of AfT as well as total trade-related aid on the costs of trading, it can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id for Trade in Southeast Asia.

⁵ OECD (2014a).

III. Empirical Methods

Considering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sts of trading and exports analyzed by Limao and Venables (2001),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impacts of Aid for Trade on the costs of trading as a proxy for trade facilitation over the period 2002–2016. With a fixed effects model to control for unobservable country heterogeneity, the following equation was formulated:

$$\ln(Cost_{it}) = \beta_0 + \beta_1 \ln(AfT_{it-1}) + \beta_2 \ln(GDP_{pc_{it-1}}) + \beta_3 \ln(Trade_{it-1}) + \beta_4 \ln(Corr_{it-1}) + \beta_5 \ln(Docu_{it-1}) + Year_t + \varepsilon_{it}$$

where the dependent variable $Cost_{it}$ measures the fe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exporting and importing the goods of country i in period t . Main independent variable AfT_{it-1} is composed of total AfT disbursements and its three sub-categories, economic infrastructure, productive capacity, and trade policy and regulation. $Trade$ indicates the (real) value of merchandise exports and imports. As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aid and good governance founded by Burnside and Dollar (2000) and Easterly (2003), $Corr$ is controlled proxied by the World Bank Good Governance measure on the control of corruption. $Docu_{it-1}$ is the number of documents required by customs and other agencies per export and import shipment. All the control variables are in “log” form and lagged by one year in consideration of the mediating time between the inflow of AfT in recipient countries and the time when its effects take place. $Year_t$ is a full set of time dummies which is supposed to capture period specific effects and changes in the time. ε_{it} stands for the error term.

IV.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f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trading costs and especially aid directed toward trade infrastructure displays a significant impact on bringing down the costs in Southeast Asia. Therefore, effective allocation and implementation of AfT is to be more emphasized concerning differentiated effectiveness of AfT channels and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References

- ADB. 2009. "Aid for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 An Update: Report to the Second Global Review on Aid for Trade."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ADB).
- Burnside, Craig. and Dollar, David.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 (4): 847-868.
- Busse, Matthias, Ruth Hoekstra and Jens Königer. 2010. "The Impact of Aid for Trade Facilitation on the Costs of Trad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Bochum, Ruhr.
- Cali, M. and D.W. te Velde. 2011. "Does Aid for Trade Really Improve Trade Performance?," *World Development* Vol. 39(5): 725-740.
- Easterly, William. 2003. "Can Foreign Aid Buy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3): 23-48.
- Ferro, Esteban, Alberto Portugal-Perez and John S. Wilson. 2011. "Aid to the Services Sector: Does It Affect Manufacturing Expor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728. World Bank.
- Helble, Matthias, Catherine L. Mann, John S. Wilson. 2012. "Aid-for-trade facilitation." *Review of World Economics*, June 2012, Volume 148, Issue 2, pp 357-376.
- Limao, Nuno and Anthony Venables. 2001. "Infrastructure, Geographical Disadvantage and Transport Costs." *World Bank Economic Review* 15 (3), 451-479.
- OECD. 2013. "Managing Aid for Trade and Development Results: Vietnam Case Study." *Aid for Trade and Development Results: A Management Framework*. OECD.
- OECD. 2014a. "Aid for Trade in 2012: Increasing Flows, Hardening Terms." *OCD/DAC* (2014) 26. OECD.
- OECD. 2014b. *Regional Perspectives on Aid for Trade*. OECD Publishing, Paris.

[Websit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Aid Activity Database. <http://stats.oecd.org/> (Accessed May 15, 2019)

